

믿음과 침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진리탐구

2017/02/12 00:11

<http://blog.naver.com/tpad51j/220933105104>

제목을 보자마자 아마도 마음속에선 "무슨 소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거야!" 라고 외치고 있겠지만, 그 '믿음'이라 믿는 것은 원래 행함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2:17 지서스 Jesus를 믿는다면 그 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고요 14:15, 행해야 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요14:21 600개의 항목이 넘는 모세의 율법에 비해 지서스께서 각 사람에게 메라는 그분의 명에는 가볍다. 마 11:29-30

약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14: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서스께서 구원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사람이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간단하지만 결코 믿음없이는 하지 못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15:11 행15:11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지서스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서스께서 두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을 보라:

요3:5 지서스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요한복음 3:5 구절에 기록된 '물'이 물 몇방울 흘뿌리는 (카톨릭식) 세례가 아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인 것이 확실한 이유는 지서스께서 물에서 올라왔으셨기 때문이다:

마3:16 지서스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After being baptized, Jesus came up immediately from the water; and behol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he saw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올라 온다고 말할수 없다. 물 몇방울 머리에 퉁구는 것이 요한복음 3:5에서 말하는 '물'이라면, 굳이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갈 필요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언급된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많다는 언급을 할 필요가 무엇이며, 빌립이 물에 내려갈 이유는 무엇인가?

마3: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행8: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행8: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물'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말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율법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할 당신의 믿음이다. 그 작은 행위로 인해 은혜를 입어 구원얻는다.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는 구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신 지서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폐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 휴거가 속죄일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궤가 보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폐해진 오래된 약속^{구약}에 포함된 게 아님을 읽는 자에게 분명히 밝히셨다. ^{계11:19}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당신이 늘 보던 성경에 "침례"가 아닌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 글이 말하는 내용이 마음에 부딪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모든 번역된 성경도 일점 일획 문제가 없다"고 믿는 당신은 스스로 굳센 믿음을 가졌다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서기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변경했다^{렘8:8}는 증거앞에서 "현대의 번역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없다!" 말할수있는가?

렘8:8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지서스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시44: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펴더면

렘23:27 그들이 서로 봉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믿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니 "지서스"라는 원래 이름으로 부르는 이 글이 마음에 부딪혀 이단처럼 보일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만든 이름인 '여호와'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이신 "지서스 Jesus"다.

당신은 스스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믿겠지만 '지서스'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상숭배'하고, 홀로 한분 지서스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셨으나 삼위일체라는 머리 셋달린 용을 섬기고, 만들지말라는 형상 Image 인 "예수" 사진을 걸어 두고 기도하며, 안식일이 토요일인지도 알고싶어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섹스가 곧 결혼이란 사실을 모를뿐만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으니 온갖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문제없다 믿고 자신의 죄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곱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마지막큰날는 이미 폐해진 모세의 율법이라 여기고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상관없다는 무지를 자랑하는 당신... 지서스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이 십계명과 절기 지

김을 어긴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어 "세례'에 해당하는 신약의 그리스어는 "baptizō"라는 단어다.

스트롱사전의 [인덱스 G907번](#)에 해당하는 그 뜻은 <물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뜻으로써 "침례"를 말한다. 물 몇방울 뿐만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물이다.

여전히 마음에서 강력히 저항하기를, "주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 28:19 하셨단 말이다! 라고 강력히 저항 하겠지만, 마태복음 28:19을 기록한 사도 마태^{Matthew}와 바울^{Paul} 등 다른 주의 사도 모두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그리스도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었다. 아래 구절을 보고 대답해보라. 사도는 모두 이단인가?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2: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행8:13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행8: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행10: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줄을 금하리요 하고

행10:48 명하여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행16:15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행16: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행18:8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행19:5 저희가 듣고 주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행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전달할 임무를 맡은 서기관도 원래의 내용을 변개해 거짓을 기록했는데, [카톨릭과 연계해 번역 작업을 한 개신교용 성경](#)이 한치의 문제도 없다고 우기는 것은 심각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 지서스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는 기록이 없을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구절은 명백히 잘못된 원본을 번역한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 이시라 입으로 온종일 떠들 수도 있는 당신은, 삼위일체라는 거짓교리에 대해 조사하지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심각해 하지도 않고, 여러가지 정황이 분명히 물에 잠기는 침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세례'가 무엇인지, '침례'가 무엇인지 혹은 'baptism'라는 영어 단어를 알아야만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라고 물는다면 게시물 "[영어/히브리어/그리스어를 읽지 못하면 구원얻을 수 없는가?](#)"를 참

조하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70989838>

십계명과 절기지킴관 관련된 법을 어긴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면 구원얻는다: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지서스께서 두번이나 강조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구절을 믿기 싫어하는 당신, 하나님이신 지서스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지만^{마 3:15}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확신하는 당신, 계속해서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선택한다면 심판을 피할수없다^{살후2:12}:

마 3:15 지서스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살후2:11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살후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침례로 구원얻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미리 예정된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눅7:30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But the Pharisees and the lawyers rejected God's purpose for themselves, not having been baptized by John.

침례가 당신을 구원한다

벧전3:21 물은 그리스도 지서스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Corresponding to that, baptism now saves you--not the removal of dirt from the flesh, but an appeal to God for a good conscience--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인은 홍해를 거치는 침례를 받았지만^{고전10:2}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들은 두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살전4:16, 계20:5} 지서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다^{요14:6}:

요14:6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전10: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and all were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살전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즉, 1000년이 차면 두번째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다)

아담이후로 모든 사람이 한번에/동시에/일괄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아래 단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70989838>

행14:16 하나님아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침례는 반드시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예수"라는 변개된 이름이 아닌, 원래의 이름 "지서스"Jesus/Ἰησοῦς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나라마다 다르게 발음된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르게 불러선 안된다. 행4:12

행4:12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

지서스께서 그리스도 인것을 믿지 않은 유대인이, 신약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하고 유대인이 신약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해서 대대에 전달했는가? 당연히 아니다! 신약성경은 당시 주변국가 사이에서 사용되는 통용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분의 십자가에 조각되었으며, 히브리어/그리스어/라틴어로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었다고 성경과 역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현대의 영어가 전 세계 통용어로 사용되듯, 구약성경 70인역(LXX)도 당시 통용어인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그 분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인이나

히브리 근본주의 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달리 불러도 한국인들이 '지서스'를 '예수'라 부르는 것과 같이 자기들 멋대로 부르는 이름일 뿐이다.

위의 세줄 가운데 중간의 그리스어로 표기된 그리스도의 이름은 Ἰησοῦς이며 당시 그리스어의 발음은 'J' 음에 해당하는 발음표기를 'I' 가 같이 맡았고, 'V'는 현재의 'U' 발음에 해당하므로 오늘날 영어로 쓰인 'JESUS'라는 이름의 발음과 같다. 한국어로 "지서스"가 가장 가까운 표기 방법이다.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참조하길 바란다.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지서스 JESUS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요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요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종교 행위자들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누구든 간에 믿지 않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집사,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은 당신까지, 모두 그냥 종교행위를 하는 일반인이다. 생명책에도 기록되지도 못했고 성령도 받지 못했으니 영의 방식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깨닫게하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없으니 모두 그저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일 뿐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한국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끈다는 구절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진다:

눅6: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환란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려대며 전파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사람이 죽으면 잔다(sleeping)는 그 술한 성경의 말씀을 봐도 몰라서 오늘도 여기 저기서 소위 천국/지옥 간증을 우려 먹고 있는 것이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모두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믿음과 달리 지서스께서는 결코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신다:

마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만일 구원 받았다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면, 어째서 지서스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겠나? 그럴 수 없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형벌을 면하기 때문이다: 계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따라서 '주여 주여' 하던 그들이 버림 받은 이유는 구원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

율법: 폐기된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가?

진리탐구

2017/02/20 22:46

<http://blog.naver.com/tapad51j/220940387416>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받으면 그 후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거짓이다. 구원은 이뤄나가는 것이며 빌2:12,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자는 예외없이 모두 구원이 취소된다. 습^{1:6} 구원받은 자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비록 진리를 듣자마자 혹은 짧은 시간내에 모든 것을 지키지는 못한다해도 적어도 제7일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위 "하나님의 교회"나 "제칠안식교회"는 결코 상종하지 말고 자신의 거처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길 권한다.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특정 장소를 정해 모인다)

십계명은 지서스께서 오심으로 폐해진 모세의 율법에 속한 내용이 아니다. 휴거의 날^{계11:19}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궤^{계11:19}가 말해주듯 십계명에 속한 내용은 여전히 지켜야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의 한계로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이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혼동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히브리어/그리스어 원본을 대조하며 찾아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참고사이트: <https://www.blueletterbible.org/>)

1. 구약성경에는 한국어로 율법이라 번역되는 두가지의 법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규례와 법도라고 번역된 모세가 쓴 법이다.

왕하21:8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밭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1.1)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쓰신 것^{출31:18}이며 변하지 않는다. 대상16:15 하나님의 법은 '나의 언약'이라 명하시지만 모세의 법은 '모세의 법'이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출31:18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신4:13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대상16:15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찌어다

1.2) 모세가 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추가한 세세한 규범이다. 갈^{3:19}

신4:14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31:9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갈3: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

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지서스 오심으로 폐함)

2.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넣어 보존하고 모세의 법은 언약궤 옆에 두었다:

출25: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찌며 You shall put into the ark the testimony which I shall give you.

신31: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신31: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Take this book of the law and place it besid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that it may remain there"

3. 하나님의 법은 항상 있었다

죄라는 것은 'lawlessness' 즉, '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요일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Everyone who practices sin also practices lawlessness; and sin is lawlessness.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다. 아래 세 구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전의 말씀이다:

출16:4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16:28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출18: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은 항상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할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한다:

마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fulfill} 하려 함이로라

마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렘31:33 나 하나님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히8: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10:16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4.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폐해진 법은 무엇인가?

분명히 것은, 지서스 Jesus께서 구약성경의 내용을 폐하러 오셨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내용을 263회나 참조했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떤 방 법이나 모양이나 형태로도 지서스께서는 구약성경을 폐하지 않으셨다. 폐해진 것은 모세의 율법이며 규범이다.

4.1)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구약에서 임시적인 법이었던 동물 제사는 그 자체가 너무 육적이고 연약하여 영생을 주지는 못하면. 그러나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야 했다. 지서스께서는 할례와 동물 제사같은 것은 전혀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히10:8 :

히10:8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히10: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댓가로가 반드시 치뤄져야 하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 롬 6:23. 반드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죽어 댓가를 치뤄야 하기에 지서스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죄가 사해지며 용서함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유월절 제사를 위해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면 그리스도 지서스의 피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고전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롬6: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롬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고후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벧전3:18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히브리서 9:13-28

4.2) 할례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새 약속 아래에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받는다. 롬2:29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지서스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죄정하신 때부터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 Holy Ghost를 구원받은 자 안에 보내주신다는 뜻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그리스도 지서스의 피와 지서스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된다. 할례의 원래 목적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었다. 따라서 육체의 할례는 할 필요 없다:

롬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갈라디아서 5장을 추가로 읽어 보기 바란다.

4.3) 돌로 쳐죽임

원래 목적은 죄인을 벌하는 것이었으나 지서스께서 심판자이시며 그 분께서 돌로 쳐죽이는 것을 없앴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다:

- 요8: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지서스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지서스를 시험함이러라 JESUS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저희가 물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지서스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지서스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4.4) 실 끈 등을 묶은 것 Tzitzit/Tassels

민15: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Speak to the sons of Israel, and tell them that they shall make for themselves tassels on the corners of their garment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혀졌으나 지서스께서 이를 폐하셨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기억나게 하신다.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눅22: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출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4.5) 더러운 음식, 돼지고기 및 불결한 동물 섭취 금지

특정 음식 제한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앞에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레11:44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

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지서스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사장보다 높이 되셔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심에 따라 동물의 깨끗함 여부는 필요없게 되었다. 지서스께서 모든 동물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행^{11:9}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동/식물은 구별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막^{7:19}

막^{7:19}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행^{11:9}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5. 남아 있는 법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살인해도 되며 훔치거나 간음을 행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마^{19:17}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19: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마^{19: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하셨다:

마^{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이로라

마^{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십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1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이유없이)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혀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세번째 계명)

또한 십계명의 일부중 하나라도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되므로, 반드시 십계명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

약^{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약^{2: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성도가 휴거되는 날, 곧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이 든 언약궤가 보인다. 계11:19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켜야할 계명이라 말씀하는 것이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모세와 맺은)이전 약속은 (지서스의 피흘리심으로 맺은)새로운 약속으로 대체되었다. 약속 covenant이란 것은 법적인 동의 legal agreement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을 말한다. 약속은 법과 규제조항을 포함하며 그것들을 지킴에 따라 수반되는 보상과 축복도 있으나 어길경우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법이 없다면 분명히 혼란과 충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법없는 자이길 원치 않으신다. 법이 곧 하나님이며 법은 거룩하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성령안에서 따라야 한다.

(모세와 맺은)이전 약속 아래에서는 사람이 끝없이 실패하고 동물 제사를 드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서스의 피흘리심으로 맺은)새로운 약속 아래에서는 여전히 지켜야하는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법의 영적인 원칙을 최우선으로 따른다. 곧 영원한 유월절이신 하나님의 양이요 은혜로신 그리스도 지서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규제조항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규제조항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한다. 실수와 죄를 통해 배우더라도 여전히 제사하는 법으로써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

결론: 없어진 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남은 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이다.

구원영생을 원하는 자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마19:17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 but if you wish to enter into life, keep the commandments."

하나님의 진짜 이름

진리탐구

2017/02/21 23:25

<http://blog.naver.com/tapad51j/220941332058>

"너희는 지식과 온 힘을 다해 연구하여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찾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원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지 않으면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성경 말씀 가운데 본 적이 있던가? 없다. 이따위 내용은 결코 성경에서 읽은 적이 없다.

이 게시글의 목적또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자라는 내용을 당신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의 목적은, 한국교인이 십계명중 첫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그 죄를 깨닫게하고, 스스로 지혜를 찾아 진리에 이르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당신은 (원본)성경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일점 일획이라도 변개되지 않았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 번역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그분의 뜻아래 번역이 됐을 것이라 믿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심없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생각할 것이다.

좋다, 확인을 해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성경인 사해문서 중에서 이사야서를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으니 가장 짧은 구절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는 이사야 59:1 구절 말씀을 찾아 볼 것이다. 우선 한국어와 영어 번역을 비교해보자:

(한글개역)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한글개역개정)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흠정역)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한글킹제임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NASB) Behold, the LORD'S hand is not so short That it cannot save; Nor is His ear so dull That it cannot hear.

(KJV)

Behold, the LORD's hand is not shortened, that it cannot save; neither his ear heavy, that it cannot hear :

(NKJV) Behold, the LORD'S hand is not shortened, That it cannot save; Nor His ear heavy, That it cannot hear.

(NIV) Surely the arm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o save, nor his ear too dull to hear.

(ESV) Behold, the LORD'S hand is not so short That it cannot save; Nor is His ear so dull That it cannot hear.

(NRSV) See, the LORD's hand is not too short to save, nor his ear too dull to hear.

(ASV) Behold, Jehovah's hand is not shortened, that it cannot save; neither his ear heavy, that it cannot hear:

보다시피 이사야 59:1 구절 말씀에 대해서, 개역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에 '여호와'라는 번역을 사용했고 영어 번역의 대부분은 대문자로 된 'LORD'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구절에 대해서만 볼때는 ASV 번역판에만 'Jehova'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단어는 틴데일 성경을 참조로한 KJV 성경때문에 온 세상에 퍼졌다:

창22:14 And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Jehovah-jireh : ...

출6:3 ... by the name of God Almighty, but by my name JEHOVAH was I not known to them.

출17:15 And Moses built an altar, and called the name of it Jehovahnis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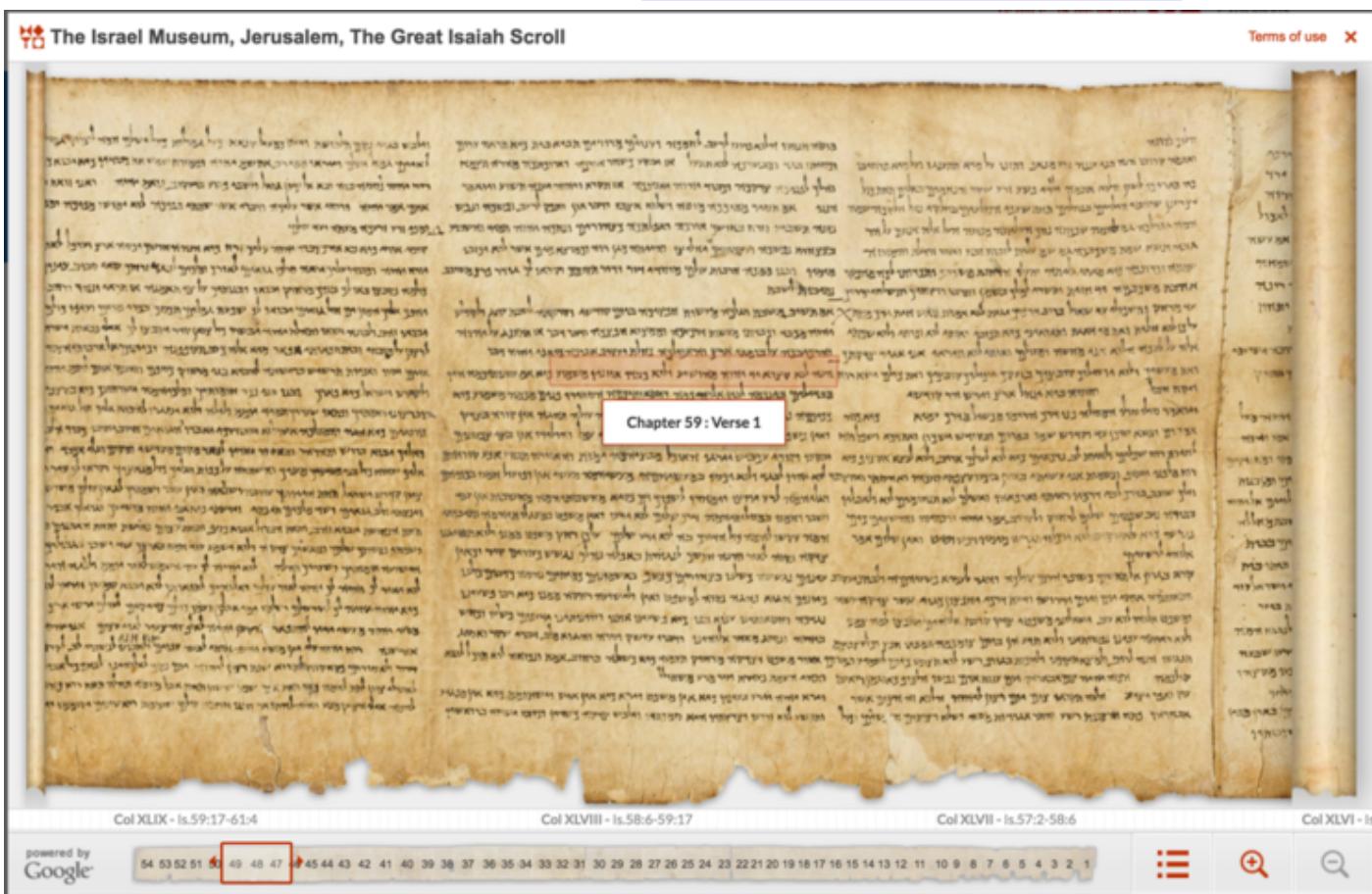
신6:24 Then Gideon built an altar there unto the LORD, and called it Jehovahshalom : ...

시83:18 That men may know that thou, whose name alone is JEHOVAH, art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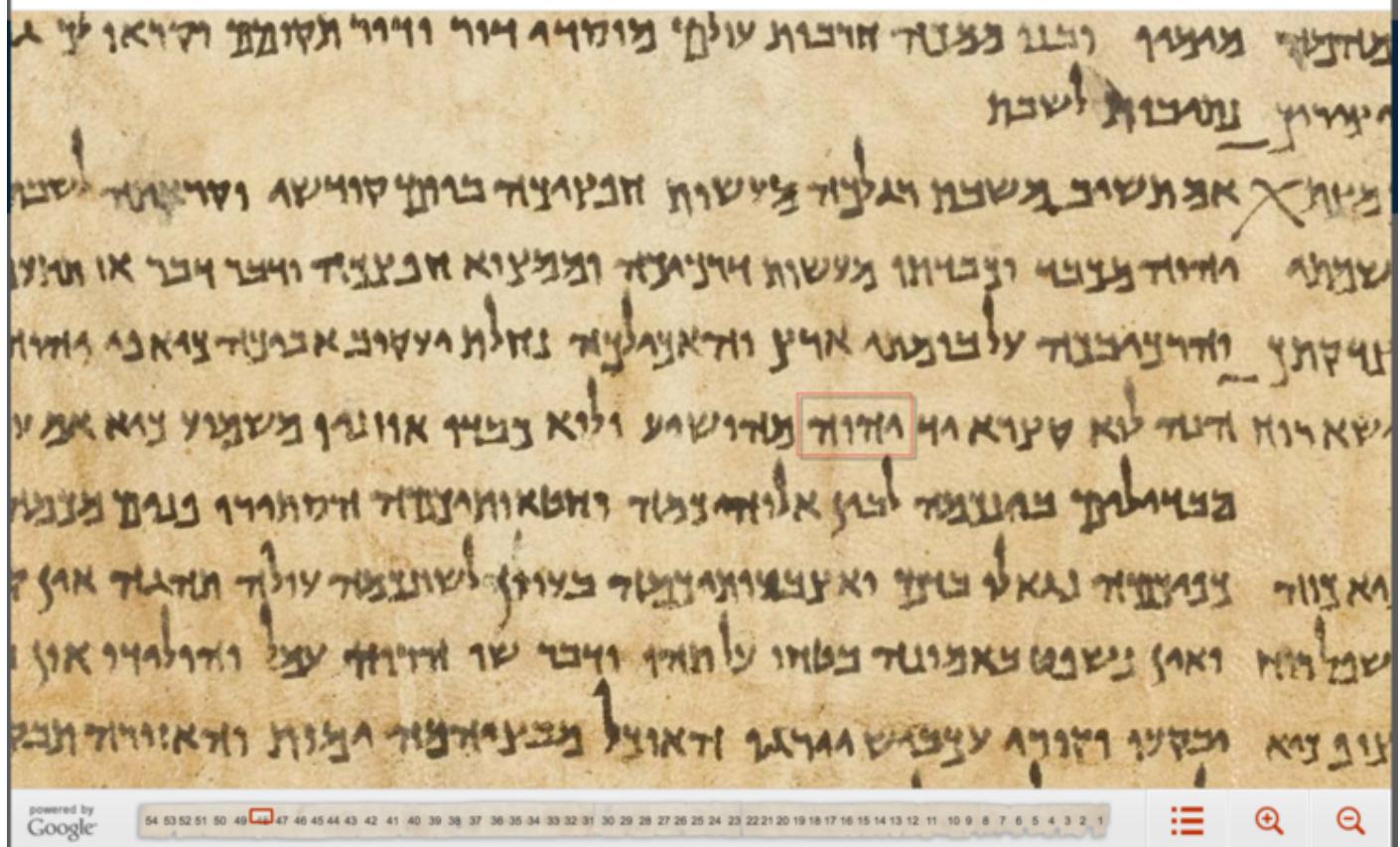
사12:2 Behold,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 for the LORD JEHOVAH is my strength ...

사26:4 Trust ye in the LORD for ever : for in the LORD JEHOVAH is everlasting strength :

디지털화된 사해문서 중 이사야 59:1 구절을 찾아보자: <http://dss.collections.imj.org.il/isaiah#59:1>



위의 표시에서 이사야59:1 구절 부분을 확대한 뒤 "여호와"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여호와"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יהוה**라고 기록되어 있다. 굳이 사해문서를 운운할 필요없이 Strong's Concordance를 살펴보면 바로 알수 있다 (<https://www.blueletterbible.org/lang/Lexicon/Lexicon.cfm?strongs=H3068&t=NASB>)

이 단어는 영어의 YHWH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개의 자음이며, 테트라그라마톤 Tetragrammaton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단어를 히브리인들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은 그저 YHWH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아도나이 Adonai라고 읽으며, 메시야가 오면 저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알려준다고 할 뿐이다:

< Prev Article Article 3 of 17 Next Article >

What is the proper pronunciation for the tetragrammaton (Y-H-V-H)?

by Rabbi Naftali Silberberg

The correct pronunciation of the tetragrammaton is unknown. It is only permitted to utter that name in the Holy Temple; since we do not have a Holy Temple today, that name is never uttered. Instead we substitute "Adonai" (my Master) whenever the Y-H-V-H appears in the prayers.

Since we do not have a Holy Temple, we substitute "Adonai" (my Master) whenever the Y-H-V-H appears in the prayers.

When the Messiah comes and rebuilds the Holy Temple, he will once again teach us how to pronounce G-d's holy name.

1 / 1 At: 0.5cm Lr: 1 Col: 2 RE: TBL: ECT: DMR: English (Uni) 68

YHWH는 이름을 위한 이름 (name of a name)일 뿐이다.

James Randi Educational Foundation
an educational resource on the paranormal, pseudoscientific and the supernatural



An Encyclopedia of Claims, Frauds, and Hoaxes of the Occult and Supernatural

[Introduction](#) | ["R" Reading](#) | [Curse of the Pharaoh](#) | [End-of-the-World Prophecies](#)

[Index](#)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Tetragrammaton In the [kabala](#), this is the term for the four-letter name of God. If effect, it is the name of a name. It varies from text to text. Some versions are JHVN, IHVN, JHWH, YHVN, and YHWH. Since these are too sacred to be spoken aloud, the word "[Adoni](#)" is used when the name is spoken. This has led to a serious misunderstanding, since in Hebrew texts only the consonants of Adoni (or of "Elohim"—this makes it more confusing) are printed. Thus are produced the reconstructions such as Yahweh or Jehovah.

YHWH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글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Allah"라고 풀이되기도 한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단어:

YH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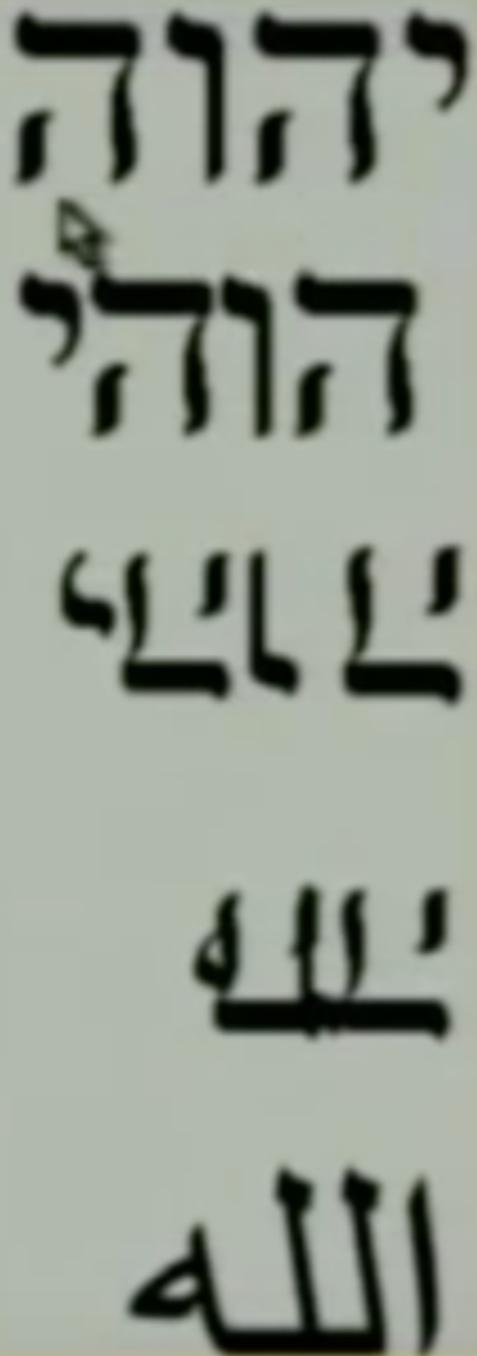
한국어 읊김: 여호와, 야훼

각 글자를 거꾸로 쓰고

위 아래를 바꾼뒤

이어 붙이면

아랍어로 "Allah" (알라)가 된다



YHWH (여호와)의 숨겨진 의미. 히브리어는 아람어 곧 시리아어에 큰 영향을 받았으므로 아랍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하다

왜 "히브리어 단어가 아랍어로 둔갑하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게시글 "[어둠의 둘레](#)" 에 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시리아어) 언어계통도와 글자를 비교한 것을 보라. 몇백년간의 포로생활 기간동안 히브리어는 거의 아람어와 다를 바 없이 변화되었음을 알게될 것이다. 스트롱스 사전도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람어에 크게 영향받은 히브리어를 설명할 뿐이다.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출애굽기 6:3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출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

였고

and I appeared to Abraham, Isaac, and Jacob, as God Almighty, but by My name, LORD, I did not make Myself known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언급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재물로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말리셨고 숲 나무가지에 걸린 양으로 대신해서 제사드렸다는 부분을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있다:

창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s it is said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w

어찌된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한국어 성경 번역자가 자국민을 너무나도 배려한 나머지 어쨌든 같은 하나님인니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 없는 말을 넣으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엄히 경고하셨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이니 문제없다 생각한건가?

놀랍게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성경에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렘2:32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Can a virgin forget her ornaments, Or a bride her attire? Yet My people have forgotten Me Days without number.

렘23:27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who intend to make My people forget My name by their dreams which they relate to one another, just as their fathers

480년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들의 언어가 이집트인이 사용하던 언어인 Aramaic에 침탈 당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왕상6: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사백 팔십년이요 ...

바빌론과 페르시아로 갑혀가 살며 뿔뿔히 흩어지게된 결과 급기야 많은 히브리인들은 자국 언어까지 말하거나 읽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국 지서스께서 오시기 약 300년전부터 당시 주변국의 통용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구약을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게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칠십인역>

지서스께서 바리새인과 말씀하실때,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눈여겨 보라:

요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

즉, 그들이 지서스를 메시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다!

게다가 지서스께서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했다는 말씀이다:

요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당시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면, 지서스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실 이유가 없다!

위의 모든 구절의 말씀은 YHVH라는 단어가 영터리 이름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위키피디아에서는 그 단어가 윌리엄 틴데일 성경과 KJV 성경 덕분에 유명해 졌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https://en.wikipedia.org/wiki/Jehovah>

"Jehovah" was popularized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by William Tyndale and other pioneer English Protestant translations such as the Geneva Bible and the King James Version."

실상은 1,278년 스페인 수도승 Raymundo Martini 가 라틴어로 된 책 (PUGIO FIDEI; Dagger of faith)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Yohoua'로 표기한 것에서 시작했다: <http://www.yhwh.com/jehovah.htm>

그후 1,303년 Porchetus de Salvaticis 가 하나님의 이름을 IOHOUAH, IOHOUA and IHOUAH 이라 작명했는데, 당시의 알파벳에는 'J'에 해당하는 소리는 있었으나 알파벳 'J' 자체는 없었다. 대신 'I'가 'J'의 소리 표시에도 사용되었다. 1,518년에 이르러 카톨릭 주교가 DE ARCANIS CATHOLICAE VERITATIS (Concerning Secrets of the Universal Truth) 라는 책을 발간하였고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IHOUAH'라 하였다.

'Jehovah'라는 이름은 1,530년 윌리엄 틴데일 영어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그 성경안에서 'IEHOUAH'라는 이름으로 몇 구절에 기록되었고 (창15:2; 출 6:3; 15:3; 17:6; 23:17; 33:19; 34:23; 신3:24)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추가하여 번역했다. 그리고 편집자 노트에 "leboah is God's name"이라 기록했다. 이 당시 영어에는 끝이 뾰족해진 'I'인 'J' 글자가 등장하기 전이라서, 'J' 글자가 만들어진 후에 'Jehovah'라 이름지어졌다.

즉,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름이다!

히브리어 יהוה(YHVH)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고 있을 때,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장신구를 빼내서 우상을 만들어 냈던 그 구절에서 나타난다:

출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32: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오라

출32: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 오매

출32: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32: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축제일)이니라 하니(우상을 만들고 다음 날을 그 우상의 축제일이라 선포함!)

출32: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32: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행7:41 그 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그 날이 진짜 하나님의 절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부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의 축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당신이 억지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분명코 부어 만든 신의 축제일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것이며,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다.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히브리어 יהוה(YHWH)을 대문자 'LORD', 'GOD'로 번역했으나 KJV는 Jehovah 라는 단어를 여전히 사용한다. 송아지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 번역한 KJV가 어떻게 일점무오한 온전한 성경이라 말할 수 있겠나? 루시퍼(Lucifer)라는 단어역시 KJV 번역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이름역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는 Lucifer라는 음으로 된 이름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사단의 원래 이름이 삭제되었다고 난리치며 "오직 KJV 성경만이 무결하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게한 근본 출처이므로 그 작성자와 번역자 및 KJV를 전파하는 자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을 살펴보자.

왕하18:4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왕하18:13 히스기야왕 십 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왕하18:22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But if you say to me, 'We trust in the LORD our God,' is it not He whose high places and whose altars Hezekiah has ta

여기서 원래 여호와에 해당하는 יהוה(YHWH)가 '예루살렘'으로 변개되었다고 추측한다. 그 산당과 제단이 진짜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이라면 왜!! 히스기야가 파괴했겠나? 그들이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송아지 형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세아13:2에서 그들이 우상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우상은 부어 만든 송아지 우상이며 '여호와'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호13:2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어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또한 그 이름은 '바알'이라고도 불리며:

왕상19: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꿩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Yet I will leave 7,000 in Israel, all the knees that have not bowed to Baal and every mouth that has not kissed him."

벨(Bel)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렘51:44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 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I will punish Bel in Babylon, And I will make what he has swallowed come out of his mouth; And the nations will no

이스라엘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믿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바알을 하나님이라 불렀다.

호2:16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It will come about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That you will call Me Ishi And will no longer call Me Baali.
(Ishi 는 바벨론의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이며 바알리는 바알의 아내를 말한다)

그러나 그 정체는 결국 마귀 즉 사단이다:

고전10: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고전10: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당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한다면,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이제 알아보자.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암호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대로 모세에게 알려주는 대목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출3:14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Thus you shall say to the sons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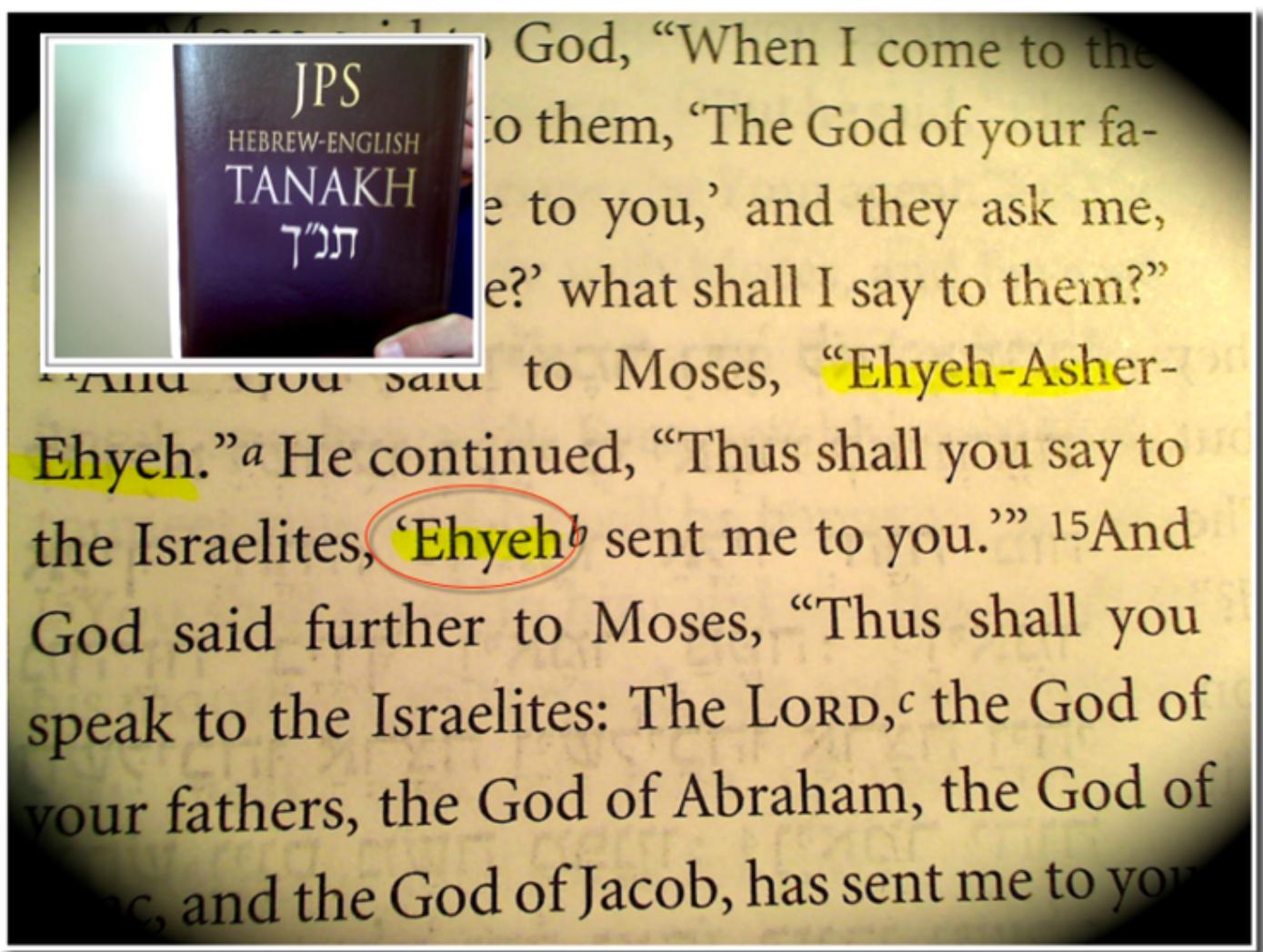
한국어 및 영어 번역성경들은 이름을 문법적으로 난도질 하여 이름을 풀어해쳐 두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있는 ◎◎◎" (한국식) == ◎◎◎ WHO I AM (영어식: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방식)

'◎◎◎'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걸 문법적으로 풀어서 이름을 문장화 시켰다는 뜻이고,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EHJEH 인데, 그것을 이름으로 그냥 두지 않고 'I AM' 으로 번역해버린 것이다.

"EHJEH ASHER EHJEH" == EHJEH WHO I AM

이 증거는 히브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EHJEH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J' 가 아닌 'Y'로 번역된 것은 근대로 오면서 첨가된 (고의적)오류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로 증명된다. 앞서 얘기 했듯이 'J'라는 알파벳은 15세기가 지나서야 등장하고 그 전까지는 'I' 가 'i' 와 'j' 두개의 음을 대신하였다. 'I' 가 비록 두개의 음을 가졌지만 쉽게 구분될 수 있었던 것은 'I' 뒤에 자음과 모음

이 나올 경우 각각 달리 발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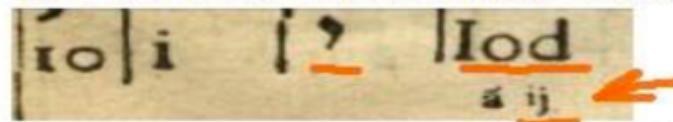
그러나 모음이 없던 히브리어가 근대들어 글자 아래에 모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i' 글자의 음을 'y'로 대신해 버렸는데, 원래 'i'에는 'y' 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래 두개의 역사적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INTRODUCTION					
TO					
HEBREW GRAMMAR.					
<hr/>					
I. OF PRONUNCIATION.					
<hr/>					
<p>THE Hebrew alphabet contains twenty-two letters, which are named as follows, and sounded as in the annexed words of the Hebrew and English; <i>viz.</i></p>					
Form.	Name.	Power.	sounded as in	Hebrew.	English.
א aleph,	a,		- - - - -	אָבָל	abbot.
ב beth,	b,		- - - - -	בְּטַל	better.
ג ghimel,	g,		- - - - -	גִּדְעֹן	giddy.
ד daleth,	d,		- - - - -	דְּמָעֵן	demon.
ה he,	e,		- - - - -	הַלְּלָה	able.
ו vaw,	u,		- - - - -	וְכָבֵב	cruel.
ז zain,	z,		- - - - -	זֶמֶר	zenith.
ח cheth,	h,		- - - - -	חַכְמָה	hectic.
ט theth,	th,		- - - - -	טַנְפֵּחַ	thistle.
ׁ iod,	i,		- - - - -	יִקְרָרָה	filial.
ׁ caph,	c,		- - - - -	כְּתָבָה	cator.
ׁ lamed,	l,		- - - - -	לְחָדָה	letter.
ׁ mem,	m,		- - - - -	מְלֻךְּ	mellow.
ׁ nun,	n,		- - - - -	נְקָשָׁה	nectar.
ׁ shamech,	sh,		- - - - -	סְפָקָה	sheep cot.
ׁ ain,	o, guttural,		- - - - -	עֲמָלָה	omen.
ׁ phe,	ph,		- - - - -	פְּטָרָה	pedant.
ׁ tsade,	ts,		- - - - -	צְמָה	tablets.
ׁ koph,	kh,		- - - - -	קְטוּרָה	kindred.
ׁ resh,	r,		- - - - -	רְגָם	regal.
ׁ sin,	s,		- - - - -	שְׁבָן	sever.
ׁ tau,	t,		- - - - -	תְּקָנוֹת	t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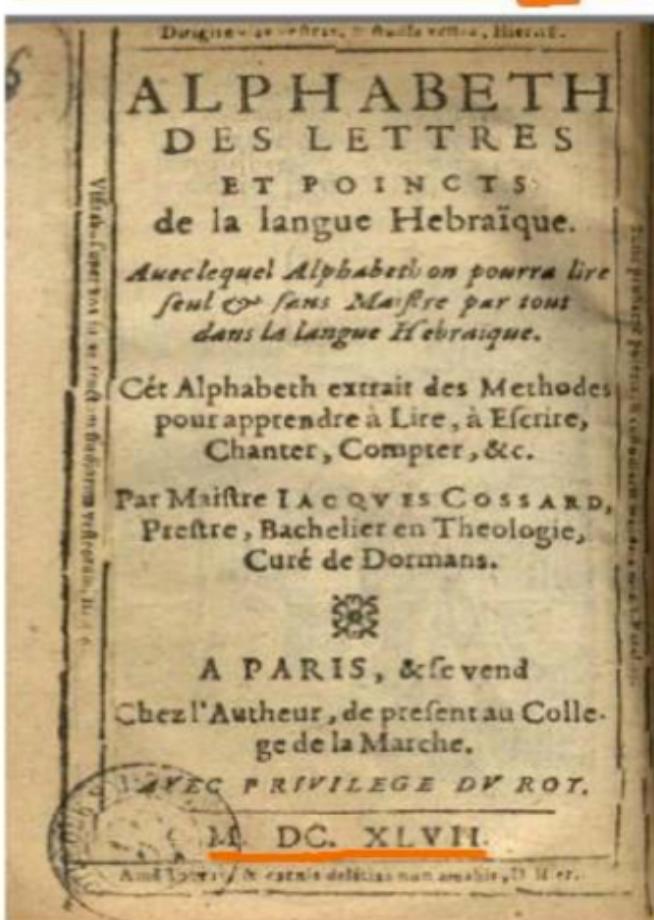
The simple sounds, common to both languages, may be acquired by the above scale; from which it is evident, that the

The J sound connected to the iod in Hebrew

in 1647 the  was not even called a "yod"
it was called a iod and it had the "i" & the "j" sound





Pastor Owens may 2013

ALPHABETH
Hebraïque.

Nom	Figure	Ful'stance	Nom
Aleph		a	I
Beth		b	2
Guimel		g	3
Daleth		d	4
He		h	5
Vaf ou vav		v	6
Zain		z	7
Hheth		hh	8
Teth		t	9
Iod		i	10
a ij			

Ceterum certamen, i. T. m. s.

즉,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면 'EHJEH'가 되며 약자는 'JEH'가 되는데, 이는 JEsus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구절로써 그 이름이 맞다는 것이 증명된다!

요5: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I have come in My Father's name, and you do not receive Me; if another comes in his own name, you will receive him

따라서, JESUS라는 이름은 한국으로 발음할 때 '지져스'가 아니라 '지서스'(JE-sus)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란 뜻이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1:23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만약 현대의 랍비도 읽을 수 없다고 하는 'YHWH'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면 어떻게 'Jesus'라는 이름에 'YHWH'라는 이름이 들어있을 수 있겠나? 각기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마귀가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바알을 섬기던 서기관을 통해 바꿔치기 한 것이다. 성경을 필사하여 대대로 전하는 임무와 권한을 받은 자들이 곧 서기관이기 때문이다:

렘8:8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봇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How can you say, 'We are wise, And the law of the LORD is with us'? But behold, the lying pen of the scribes Has ma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획을 보란듯이 무효로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지서스(Jesus)다.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지서스(JESUS)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한 분 이시다는 개념이 어렵다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도?"라는 게시글에 설명된 그림을 보고 이해를 얻기 바란다.

지서스는 처음부터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신 분이며 창세기 부터 말하기까지 기록되어 우리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은 지서스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43:10 나 지서스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43:11 나 곧 나는 지서스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8:25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JESUS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원래의 말이 어떤 것이었던 간에, 그 이름은 '지서스' 다:

요14: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14:9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지서스께서 아버지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한 분 이시다!!!

요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I and the Father are one.

따라서 당신은 '예수'가 아닌 '지서스'(Jesus)라고 말함이 옳다! 가리키는 바가 같다고 바꾼 이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

다!

다른 이름을 준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에 '지서스'라고 말하는 것이 비록 어색할지라도 '지서스'가 우리의 구원자임에 틀림없다.

행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예수'는 다른이름이다)

요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더우기 '여호와', '예수' 등의 이름은 이집트의 달의 신 야(YA)와 밀접히 관련 있는데 이는 테트라그람인 יהוה(YHVH)의 준말이 'YH'(야 혹은 ○ 발음)라는 점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것이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된다

요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위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여호와', 곧 마귀이며 사단인 그 이름을 버리고 오직 '지서스'(Jesus)만 부르길 바란다.

당신이 이 사실을 신중히 생각하고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킨다면, 그제서야 선택된 자가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창세전에 미리 구원 여부가 예정된 것이 아니다. 어디서 태어나며 언제 복음을 접할 것인가 여부만 정해진 것이다!

행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나이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http://blog.naver.com/tpad51j/221070989838>

또한 어느 누구도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명령을 지켜서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한번에 무우 자르듯 십계명과 주의 절기를 지킨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믿음은 서서히 자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한다: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http://blog.naver.com/tpad51j/220933105104>

마19:17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http://blog.naver.com/tpad51j/220940387416>

하나님께서 명령한 안식일

진리탐구

2017/04/19 04:20

<http://blog.naver.com/tapad51j/220986707185>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제칠일안식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해산할 때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창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To the woman He said,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pain in childbirth, In pain you will bring forth children; Yet your de-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여자가 받을 해산의 고통이 면해진다는 구절은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이 벌이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듯, 명시적으로 그만두라 말씀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사람에게 유효하다. 따라서 십계명도 여전히 지켜야하며 그중에 특별히 "기억하고 지켜야할" 네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 또한 여전히 진행중인 계명이다.

출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게시물의 목적은 출20:8에 기록된 안식일이 현대의 토요일이며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는 이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는 본인 역시 "몇천년 전에 말씀하신 그 날이 현대의 토요일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라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이 제 7일인 이유를 알리는 방식에도 내가 겪었던 내용과 흐름, 고민, 의심등을 시간순으로 적어 주입식이 아니라 자연스레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랬다. 무엇보다 당신이 이 글을 주의 깊게 봐야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누구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제 7일이 현대의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언뜻 불가능하다 느껴졌다. 몇천년 역사를 어떻게 증명해 낼수있단 말인가? 그것도 역사학자도 아닌 자가 어설픈 논리로 연구해봐야 개똥철학에 가까운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 명하신 계명을 증명함에 있어, 학자같은 규모의 지식이나 엄청난 수고가 따라야만 겨우 알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누구든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지키고자 하는 자는 알아낼 수 있어야하며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Wikipedia와 YouTube 동영상, 인터넷 게시글등을 살살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복잡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 너무 너무 학자스럽게 설명하며.. 복잡하고.. 의심을 떨치기 힘들었다. 어떤 글은 따라 읽다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또 다른 주장과 비교할 때면 여지없이 구멍이 보이곤 했다. 그걸로는 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몇날 몇주 동안 그렇게 찾고 찾고 찾다보니 지쳐 힘들어 하다 문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주

장이라도 헛수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검색 대상을 성경으로 옮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가막힌 힌트를 찾았다:

막2:23 안식일에 JESUS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눅6:6 또 다른 안식일에 JESUS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눅14:1 안식일에 JESUS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내가 봤던 힌트를 당신도 찾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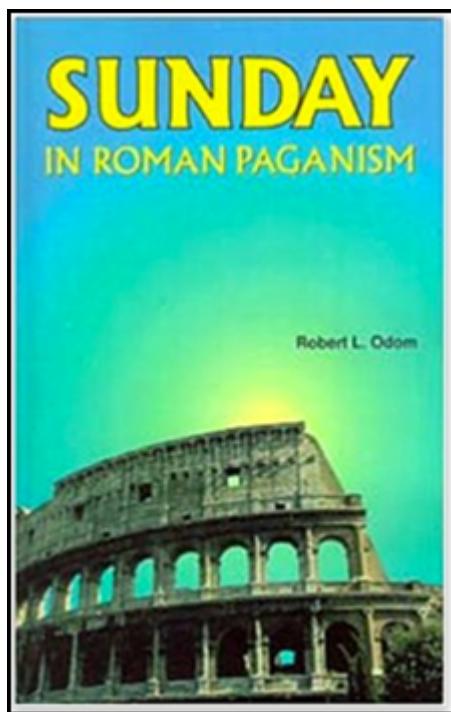
위의 구절들이 안식일이 어느 요일이라고 기록하진 않았지만 1세기 주께서 살아계시던 그 때, 즉 창세 이후로 대략 3900년 정도 지난 그 시간대에서도 분명히 지서스(Jesus)께서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니 그 분이 지킨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한 그 날과 다름없다!:

요일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창2: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20: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JEH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20: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JE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JE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JE' 라 기록한 이유는 게시물 "하나님의 진짜 이름" 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위 구원 받았다고 믿은 뒤로 수십년동안 수도없이 봤던 구절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그제서야 그 의미를 알게됐을 때는, 전율이 흘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제 7일이 창세 이후로 몇천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지켜졌다

는 부인 못할 사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당신도 이것을 부정하진 못한다.

알고자 하는 것의 절반을 파악한 기분이었다.

1세기 때의 안식일이 현대의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 가를 밝히는 그 다음 순서를 이어가려 했으나, 사실 막막했다. 어디서 연결고리를 찾을 것인가 고민하던 중, 성경에 '요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를 찾는 순서를 택했다. 즉,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요일 시스템은 그레고리력 인데, 위키피디아의 내용에 따르면 이 달력 시스템은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개정했다는 내용을 보았다. 위키피디아의 다른 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율리우스력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제정해 기원전 45년부터 시행한 달력 시스템이라는 내용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Rober Odom의 저서 "Sunday Roman Paganism" 77페이지에서는 위키피디아 내용과 약간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어느 곳에 올려진 PDF 24페이지에서 아래 내용을 볼 수 있다)

PLANETARY WEEK IN FIRST CENTURY B. C. 77

one and all, the purport of [the constellation of] the Fish and the fierce constellation of the Lion and [that of] Capricorn, bathed in the waters of the West.²⁴ (Italics mine.)

The Sabine Calendar

In 1795 were found the marble fragments of what is known as the Sabine Calendar (*Fasti Sabini*), in a place in central Italy. These portions represent the months of September and October in the Julian calendar.²⁵ The experts in this type of archaeological finds have declared them to belong to the reign of Augustus Caesar, and that they were in use between 19 B. C. and 4 A. D. (that is, between the years 785

지서스께서 살아계실때 사용되던 달력

"Sunday Roman Paganism" 77 페이지

위의 내용은 "세이빈(Sabine) 달력" 이라 알려진 대리석 조각이 1975년 이탈리아 중부에서 발견됐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통치시절, 기원전 19세기 부터 서기 4년까지 사용된 달력이라는 말이다. 즉, 지서스께서 살아계실때 사용되던 달력은 "세이빈 달력"이다.

이 달력 시스템의 특징은 다른 책, "Famous Firsts In the Ancient Greek and Roman World" 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공식 기록으로는 가장 먼저 7일을 일주일로 사용한 달력이라 한다. 사용된 연도에 대한 설명중 시작은 기원전 19세로써 앞서 언급한 책의 내용과 같다. 또한 1세기 로마에서는 7일뿐만 아니라 8일을 1주로써 삼았다.

공식 기록으로, 가장 오래전 1주를 7일로 사용한 달력 시스템

The first reference to a seven-day week

An inscription (CIL 1.220, dated between 19 B.C. and A.D. 14) preserving the remains of a Sabine calendar is the earliest known public record of a seven-day week. The calendar (as reproduced by Balsdon 62):

E	A	F
F	B	N
G	C	C
A	D	C
B	E	C
C	F	C
D	G	C
E	H	C
F	A	C

Where the first column represents the seven days, the second column the *nundinum* (eight-day cycle in which the eighth day was a market day); the third column represents days on which business could or could not be transacted. *F(aestus)* and *C(omitalis)* were legal business days; *N(efastus)* was not.

"David Matz"의 저서 "Famous Firsts In the Ancient Greek and Roman World"

왼쪽 아래 세줄 가운데 첫번째 열은 1주를 7일 단위로 세는 방식을 나타내며, 두번째 열은 8일을 세는 방식을 의미하고 8번째 날은 장사의 날 (*market day*)이다. 세번째 열 (*column*)에 보이는 'F' 와 'C' 는 합법적으로 장사가 가능한 날이고, 'N'은 그렇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위와같이 몇가지 방식의 달력 시스템이 사용된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은 현재의 유럽과 중동지방에 걸친 여러 나라와 관련되어 있었고 각 나라별로 다른 달력 시스템을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무역과 정치에서 달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몇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수긍했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달력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 7일이 현재의 어느 날인지 알아내는 것에 높은 벽이 하나 더 쳐진듯 느껴졌다. 두개의 달력 시스템 중에서 현재와 같이 7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선택된 이유까지는 알 필요 없다 생각했지만,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몇 군데서 찾을 수 있다. [The Works of Josephus "Against Apion" 두번째 책, 811페이지 40번 섹션아래 282 하위 섹션](#)의 기록에서, 어딜 가든 제 7일을 지키는 이스라엘인들 영향 때문에 로마역시 7일을 지키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Nay, further, the multitude of mankind itself have had a great inclination of a long time to follow our religious observances; for there is not any city of the Grecians, nor any of the barbarians, nor any nation whatsoever, whither our CUSTOM OF RESTING ON THE SEVENTH DAY hath not come

저자 "Josephus" 는 로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이 거하는 모든 나라에 그들의 영향이 미쳤다고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지켰던 제 7일이 현대의 어느 날인가라는 점이다. 이런 정보는 알면 좋을수도 있겠지만 결

정적이진 않다.

시간이 흘러 그 날을 유추할 수 있는 기가막힌 힌트를 보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된 날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날은 서기 70년이고, 그로부터 14년 뒤 로마 군인이었던 "Julius Frontinus"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당시의 상황을 "Strategematicon"라는 책에 기록했다. 이 책은 군사 전력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써, 98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The deified Vespasian attacked the Jews
on the day of Saturn, a day on which it is
sinful for them to do any business, and so
defeated them.

"신이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께서 "Saturn의 날"에 유대인을 공격했는데, 이 날은 그들에게 어떤 일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었다"

또한 Dio Cassius가 쓴 책 "Roman History" 여덟번째 책, 271 페이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Thus was Jerusalem destroyed on the very
day of Saturn, the day which even now the
Jews reverence most.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중해 마지 않는 그 날, 곧 'Saturn의 날'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다"

같은 책 125, 127 페이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공격은 쉽지 않았지만 "Saturn의 날; (*Saturnday*)"이라 불리는 그 날에는 유대인이 전혀 방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성전을 함락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but the temple itself, which the other party had occupied, he captured only with difficulty. For it was on high ground and was fortified by a wall of its own, and if they had continued defending it all days alike, he could not have got possession of it. As it was, they made an exception of what are called the **days of Saturn**, and by doing no work at all on those days afforded the Romans an opportunity in this interval to batter down the wall...thus the defenders were captured on the day of Saturn, without making any defense.

125 페이지 중 발췌

Nor had the Romans succeeded in their endeavors, had not Pompey taken notice of the seventh days, on which the Jews abstain from all sorts of work on a religious account, and raised his bank, but restrained his soldiers from fighting on those days; for the Jews only acted defensively on sabbath days"

"Josephus"의 저서 "War of the Jews", 1권 7장 세번째 섹션, 146 하위 섹션 중 발췌

눅4:16 JESUS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마
And He came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as was His custom, He entered the synagogue on the
눅4: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And He closed the book,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and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were fixed

지서스(Jesus)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점을 보라! [로마의 "Saturn의 날"은 현대의 "Saturday"](#)
이므로 거의 증명이 된 듯 했다. 그러나 몇가지 더, 1세기 이후로 7일 주기가 변동된 적이 있느냐 여부와 왜 일요일에 예배
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남았다. (파고 파도 끝없는 듯 보여 이때 정말 지치고 힘들었다..)

2017년 4월 22일 수정됨:

안식일이 현대의 어느 요일인지 알아가는 동안 "Luna Sabbath"라는 이론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
가므로 다른 게시물에서 그 문제를 자세히 다루겠다.

또한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도 이 문서를 수정하여 첨가할 예정이다.



1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도중 한번의 대규모 날짜 조정이 있었다. 1582년 교황 그레고리 8세는 날짜를 11일을 앞으로 건너 뛰게 했는데 이것은 이전 달력 시스템인 율리우스력의 한 해의 길이에서 오는 오차가 1250여년 동안 누적되어 충분 일이 서기 325년 이전보다 열흘이나 빨라졌기 때문이다. 즉, 10월 4일에서 10월 5일이 되지 않고 15일로 건너 뛰었다.

그러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사이클 순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위키피디아 "그레고리력" 1582년 역사 개정 섹션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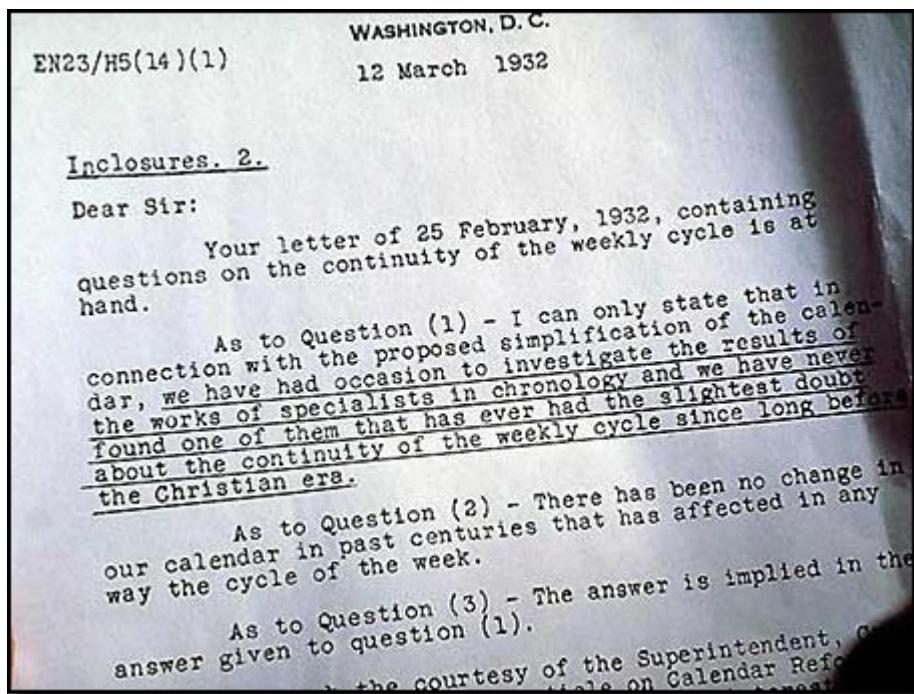
카톨릭 공회가 그레고리안 달력 시스템을 개정할 때 "Aloisius Lilius"라는 사람이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카톨릭 백과 사전("Catholic Encyclopedia") 아홉번째 책(Volume), 251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Thus, every imaginable proposition was made, only one idea was never mentioned, the abandonment of the seven-day week." (시간오차를 해소할 제시된 모든 제안 가운데 1주가 7일이라는 것은 결코 변경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제 3권 740페이지 "연대기(Chronology)" 섹션에 다음과 같이 (*natural*; 원래대로) 각 요일의 순서를 명시하였다:

The days of the week are numbered according to their natural order, Sunday=1, Monday=2, Tuesday=3, Wednesday=4, Thursday=5, Friday=6, Saturday=7. It is to be noted that in the Christian period, the order in the days in the week has never been interrupted. Thus when Gregory XIII reformed the calendar in 1582, Thursday, 4 October was followed by Friday, 15 October

결정적으로 미국 워싱턴 DC 해군 관측소 관리자였던 James 박사의 확인서를 알게되었다. 이 확인서는 1932년 3월 12일 직인이 찍혀있으며, 1세기 이후 주간 순서가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공문서다!



- [미국 해군 연구소](#)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 날 (일)	둘째 날 (월)	세째 날 (화)	네째 날 (수)	다섯째 날 (목)	여섯째 날 (금)	일곱째 날 (토)
일 (work day)	일 (work day)	안식일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은 현대의 토요일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날 우리는 쉬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날을 쉬지 않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 폐기된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가" 참조)

이 날을 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안다! 만약 몇년전 혹은 몇십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믿었다면 소위 말하는 "사회 생활"이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솔직히 세상의 심판이 가까운 이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된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그 보다 먼저 알았다면 나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당신도 감사드릴 이유가 충분하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나는 제칠일안식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꺼림직하고 못미덥다면 당신은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당신 감정을 더 우선하는 사람일 뿐임을 드러낼 뿐이다.

만일 토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공통체를 이뤄 서로 약속한 곳에서 드려도 된다. 혹은 누군가의 가정에서 드릴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그 날을 안식일로 쉬는 것이다. 이 날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모든 일하는 것을 멈추고 오락을 금하며 거룩하게 보내도록 힘써야 한다.

아래 목록은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sabbath.html> 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사58: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58:14 네가 하나님 JEH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JEH의 입의 말이니라

- 영화관에 가지 말 것 Do not go to the movie theater.
- 교대근무를 하지 말 것. Do not work pre-scheduled shifts. Regardless of the kind of employment. (Emergency workers such as police, doctors, fire fighters, etc can respond to a real and true emergency. But they cannot work a pre-scheduled shift).
- 일광욕을 하지 말 것 Do not go to a tanning bed.
- 사냥 혹은 낚시를 하지 말 것 Do not go hunting or fishing.
- 스포츠에 참가하거나 관람하지 말 것. Do not participate in sports. Do not watch sports.
- 골프 치지 말 것 Do not go golfing.
- 빨래 하지 말 것 Do not do laundry.
- 침대보를 갈지 말 것 Do not make up the bed. This was revealed to me by JE-sus via a testimony of a Sister in JEsus.
- 비디오 게임을 하지 말 것 Do not play video games.

- 인터넷 사용은 몇가지 경우로 제한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나 안식일 또는 성일(Holy Day), 예배나 찬양 동영상, 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과의 교제,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것, 기독교 믿음에 기반한 영화보기 등으로 제한한다. Limit internet usage to only those things directed related to GOD, such as the keeping of the 7th Day or Holy Day, such as audio/video worship services or worship music, or fellowship with brothers/sisters in Christ, and things that would help you to rest and relax, such as perhaps watching a Christian, Faith based movie.
 - 훈련, 체육관에서 역기 들기, 조깅등을 하지 말고 헬스장에 가지 말 것. Do not do exercises, lift weights, jog, go to the gym. (무릎 수술후 치료목적의 훈련과 일상적인 걷기는 범위내에서 문제없음; medical exercises after knee surgery are acceptable. A causal walk is acceptable).
 - 지어낸 이야기나 소설 등을 읽지 말 것 Do not read fictional books, novels, etc.
 - 숙제나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하지 말 것 Do not do homework, school assignments.
 - 외식하지 말 것 (종업원 등에게 일을 시키기 때문. 어쩔수없는 비상상황이 아닌경우에는 반드시 전날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해야한다. 만약 준비하지도 못했고 먹을 것도 없는데 배가 고프다면 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서는 안되며 반드시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Do not eat at restaurants. (you would be causing a service worker to serve you or work harder than if you had not arrived at the place of business) (Unless this is an emergency. You should have prepared ahead of time in advance if possible. But if you did not prepare ahead of time, for whatever reason, and you do not have food at home, and you are hungry, then YES, you can pull your ox out of the ditch and go eat. But this should not become a habit. You need to start planning ahead of time so you can just eat at home if possible.)
 - 피자나 배달 음식등을 주문하지 말 것 Do not order pizza, door service etc.
 - 쇼핑하지 말 것 Do not shop at any stores.
 -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말 것 Do not earn any money.
 - 무엇인가를 팔지 말 것 Do not sell anything.
 - 잡초를 베거나 세차하지 말 것 Do not mow grass, wash car.
 - TV 앞에 앉아 멍하니 보지 말 것 Do not watch much television. (날씨나 뉴스, 교육목적의 프로그램은 가능하나 시간제한을 둬야하고 허구가 아닌 프로그램인경우만 잠시 본다; Some weather, news and educational programming is acceptable but should be restricted in time length. Restrict to non-fiction only).
 - 파티에 참석하거나 주최하지 말 것 Do not attend any parties. Do not host any parties.
 - 벼룩 시장이나 바자회등에 가지 말 것 Do not go to any flea markets, yard sales.
 - 결국엔 팔게될 것을 고안하거나 만들지 말 것 Do not Create or make anything that will eventually be sold.
 - 대중교통, 택시, 비행기, 버스 등을 타지 말 것 (운전 기사를 일하게 하는 것임) (Do not use public transportation, cabs, taxis, airplanes, buses, etc. (you would be employing a driver)).
 - 경배, 집회, 사역이 목적인 여행외에는 금할 것.(가능한 이러한 경우를 줄일 것) You should avoid travel except for worship & assembly purposes and GOD's Purposes. (and limit lengths of these if possible).
- 해도 괜찮은 것들: *permissible***

- 식사 준비 (그러나 가능한 전날에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둘 것) Cook a meal (but do any possible prep work the night or day before).
- 애완동물 보살피기 Take care of pets.
- 농장 동물 보살피기. 우유짜기 및 동물에게 먹이주기 등 Take care of farm animals. Milk cows, feed animals, etc.
- 설거지 (가능하다면 종이 그릇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할 것) wash dishes. (should try to use paper plates, plastic spoons if possible)
- 연장자를 돌보거나 집안의 환자를 돌보는 것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함) Take care of elderly and medical patients at home. (NOT for money)
-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함) Take care of children and family. (NOT for money).
- 걷기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둬야함) Walking (restricted length of distance and time)
- 휴식을 위해 해변을 걷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 walk on beach to relax or enjoy nature.
- 자판기에서 음료수등을 사는 것 (사고 파는 것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인 경우에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purchase a drink or item from a machine. (The reason you usually cannot buy or sell is because you would be causing a person to actually serve you (work for you). In the case of a machine, there is no human working).
- 터진 타이어를 갈거나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응급치료 Fix a flat tire or other emergency mechanical work that cannot wait until tomorrow.
- 겨울동안 히터가 고장나서 다음날까지 기다려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함) Fix a heater during the winter time if the work cannot wait until tomorrow. (NOT for money).

참고 자료:

-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sabbath.html>
-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lunarsabbath.htm>
- https://en.wikipedia.org/wiki/Sabbath_in_Christianity

말씀의 적용: 영적인 것과 육적 방식의 차이

진리탐구

2018/02/20 18:14

<http://blog.naver.com/tpad51j/221212613325>

당신의 머리속에서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영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버리라. 교회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대답하지 못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저마다의 정의를 내놓는데, 이런 모습은 가르치는 자부터 올바른 답을 모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간단한 예를 통해 율법을 육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와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예시: 사람을 위한 교통법 vs. 법 자체를 위한 법

당신이 차를 몰고 어둠이 내린 한적한 사거리로 진입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적색 신호가 걸려 당신은 차를 세운다. "모든 차는 적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멈춰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이다.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도 차를 적색 신호에 차를 세운다는 것에 당신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준법정신을 높이 산다는 말을 하곤 한다. (누구도 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는 자세는 훌륭하지만 법 자체를 위한 해석을 통해 타인에게 강요할 때에는 종종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정차한 상태에서 백미러를 통해 보니 덤프트럭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걸 본다. 법을 지켜 그대로 있으면 100% 사고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황이 어떻든 종이에 기록된 성문법에 따라 그대로 정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피할 것인가?

당연히 결코 멈춰있지 않고 피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적색신호인데도 차를 빼서 돌진해오는 트럭을 피했다면 당신은 법을 어긴것인가?

아니다, 법의 목적 ^{Spirit}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언제든 어떤 경우에서도 종이에 씌여진 그대로 지키라고 만든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누구라도 트럭을 피한 당신에게 "왜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묻지 않을 것이다. 종이에 씌여진 글자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

"종이에 쓴 의문의 증서" Letter of the Law 라는 표현과 "영의 새로운 것" Spirit of the Law 혹은 "영적인" 등의 한국어 번역이 올바른 뜻을 이해하기 힘들게 한 것이 사실이다. '영' 이란 것이 지서스의 거룩한 영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목적 ^{Purpose}, 근거 ^{Reason} 등의 뜻과 있음을 알고 다음 구절을 묵상해보라:

롬7:6 이제는 우리가 얹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

But now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having died to that by which we were bound, so that we serve in ne

만일 문자 그대로 기록된 계명대로 지켜야 한다면 지서스께서 삼손에게 이방여자를 이끌어 그에게 아내로 주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글자 그대로라면 선지자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명령하신 것도 잘못된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침례를 거행하는 구절에는 여자가 침례를 주었다는 구절이 없다. 남자 위에 지서스께서 계시듯 여자 위에 남자가 있으며, 지서스께서는 교회 내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 하셨다. 그러나, 환란 때 침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자 뿐이라도 말씀 때문에 여자가 침례를 하는 것을 금지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지서스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목적*Spirit of the Law* 아래 특정 상황에선 여자에게 침례할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된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계명을 적용하라는게 아니라 계명이 원하는 근본 목적과 근거/이유를 이해하고 적용하라는 말씀이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계명과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영적인 계명 적용 방식이란 바로 이런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목적과 근거를 자신을 위해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유를 그럴싸하게 둘러대지 말라는 말이다. 죄는 계명의 목적과 근거를 깨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빚이 너무 많아 이를 갚으려면 토요일에도 일해야하는 회사를 도저히 그만둘 수 없다"거나 "사람을 위한 것 아니 토요일에 돈을 쓰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둘러 대는 건 "돈 문제" 때문이지 "안식과 예배"라는 제 7일 안식일의 목적과/근거와 관계가 없다.

제 7일에 쓸 것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다. 정말로 어쩔수없이 돈을 써야만 한다는 이유는 대부분이 "준비부족"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를테면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요리하다가 데여서 급히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에서 돈을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환란때문에 숨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라는 법에 따라 거처를 나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있어야겠는가? 당연히 지서스께서 당신의 상황을 아시고 숨어있는 곳에서 장막절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경우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신이 피난 물자를 구입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나마 한도 얼마없는 카드 뿐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다! 환란이 아니라면 당신은 분명히 빚을 갚을 것이고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을지는 삶을 살 것이다.

따라서 남들 못지않게/럭셔리하게/완전히 문제없이 대비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면 후불제로 구입하는 것을 지서스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환란이 오는 것을 악용해서 카드나 대출을 한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저것 구입하는 것은 "도둑질"이며, 십계명을 어기는 중차대한 죄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낭비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온힘을 다해야 한다.

지서스의 은혜로우심을 이용할 생각은 머리속에 들이지도 말라. 당신의 구원이 달린 문제다!
계명을 준수함에 있어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언제든 계명의 목적과 근거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판단하기 바란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는가?

진리탐구

2017/02/13 00:20

<http://blog.naver.com/tPad51j/220933756553>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 지서스 Jesus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도 그 사람의 영은 자는 상태가 됨을 알 수 있다:

요11: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asleep}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13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 지서스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14 이에 지서스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dead}

눅8:52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JESUS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asleep}하시니

죽으면 곧바로 심판받아 그 영이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Jesus/천국에 거하거나 또는 지옥의 불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천국 또는 지옥 간증을 하는 모든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반드시 회개해야한다.

지서스 Jesus의 재림 --> 1000년이 지난 뒤 --> 두번째 부활 후 100년 뒤에야 비로소 심판이 있다.

죽음이 곧 자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

엡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요5: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욜14:12 사람이 누우면(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시76:6 야곱의 하나님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렘51:57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히 자고 깨지 못하리라

단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행7:60 무릎을 끓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13: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촛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고전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고전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
니
엡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
라
살전4:14 우리가 지서스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찐대 이와 같이 JESUS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
리고 오시리라
살전4: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
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5:10 JESUS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후3:4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
니

이스라엘 왕과 사사들이 죽어 잔다는 기록들

왕상2:10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왕상11:21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왕상11:43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14:20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이십이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14:31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
더라 그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15:8 아비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15:24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16:6 바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16:28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22:40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22:50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8:24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10:35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13:9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13:13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왕하14:16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14:22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왕하14:29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15:7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15:22 므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15:38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16:20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20:21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21:18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24:6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9:31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12:16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14:1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십년을 평안하니라

역대하16:13 아사가 위에 있은지 사십 일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역대하21:1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26:2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웃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역대하26:23 웃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27:9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28:27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32:33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33:20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다

혹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라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성된 것임을 믿지 않고 문학책으로 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것은 백보좌 심판후의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고 누굴 만났느니, 누구와 대화했다느니, 사도를 만났다느니 하겠는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둘다 죽어 각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음부에 내

려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유' 가운데 썩여진 말 일 뿐이다. 그 비유의 핵심은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 가서 얘기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니 말씀으로 죽하다는 것이다:

눅16: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30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엄중한 경고다' 하며 퍼트리는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 받는 것이다:

렘23:35 너는 또 말 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고

36 다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하고

37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 하셨느뇨

38 너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39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40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찌니라

짐승의 표, 666

진리탐구

2017/02/21 04:43

<http://blog.naver.com/tapad51j/220940548178>

숫자로 착각한 필사 오류

짐승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주는 계13:17-18 구절 말씀이 여지껏 명쾌하게 풀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래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번역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본 단어들이 가졌던 뜻 중에서 적절치 않은 뜻을 선택/번역했기 때문이다:

계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and he provides that no one will be able to buy or to sell, except the one who has the mark, either the name of the b

계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한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륙이니라

Here is wisdom. Let him who has understanding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the number is that of a man; six.

'세어보라' calculate, '수' number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수에 대한 뜻 외에 "집단"에 대한 의미도 있다:

- number: 1) 고정된 수; *a fixed definite number*, 2) 무리/군중/집단; *a multitude*

- calculate: 1) 수를 세다; *to count with pebbles, to compute, reckon, to determine* 결정/파악하다 2) *to decide by voting*

위의 두 구절에서 사용된 "수" number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 Strong G142에서 파생된 G706는 [BlueLetterBible](#) 의 해당 단어의 관련 구절 목록에서 보듯 항상 "사람의 집단"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실제 특정 숫자로 사용된 적이 없다:

눅22:3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Then entered Satan into Judas surnamed Iscariot, being of the number [G706](#) of the twelve.

요6:10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앓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앓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And Jesus said, Make the men sit down. Now there was much grass in the place. So the men sat down, in number [G706](#) about five thousand

행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Howbeit many of them which heard the word believed; and the number [G706](#) of the men was about five thousand

롬9: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Esaias also crieth concerning Israel, Though the number [G706](#) of the children of Israel be as the sand of the sea, a remnant shall be saved:

계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불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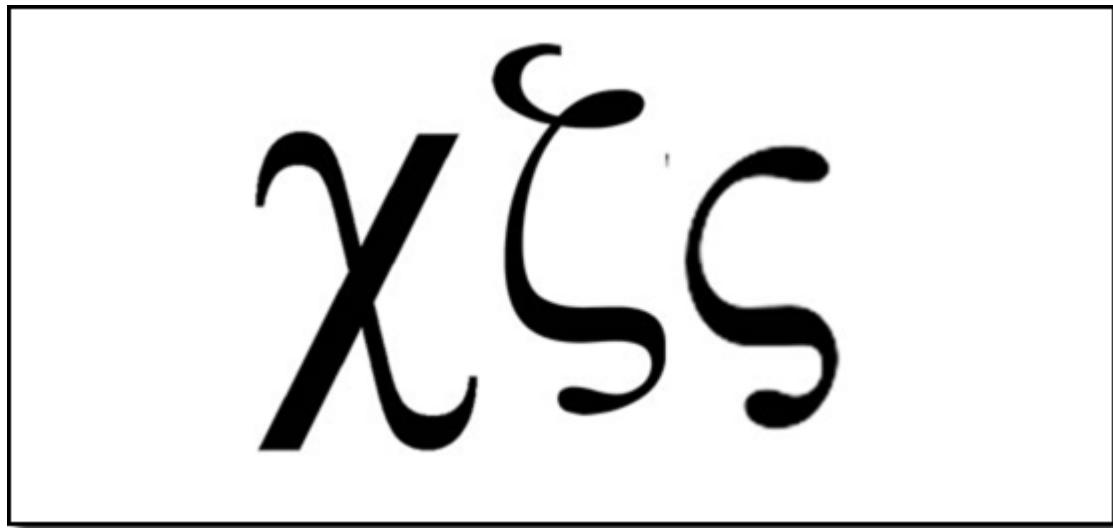
And shall go out to deceive the nations which are in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Gog and Magog, to

gather them together to battle: the number [G706](#) of whom *is as the sand of the sea*

짐승의 표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는 단어가 필사를 거쳐 전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숫자에 대한 표현으로 바뀌

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당시는 1세기로써, 아라비아 숫자가 등장하기 6세기 전이다. 당시 주 언어는 [통용 그리스어](#)였는데, 미국이나 영국등의 특정 나라에 치우치지 않은

"International English"가 있듯이 지중해 주변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그리스어가 대신 보편화된 그리스어를 말한다. 통용 그리스어로 수를 세는 방법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해서 "숫자에 대응하는 글자가 따로 없었고 일반 그리스 글자를 숫자처럼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은 숫자 666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를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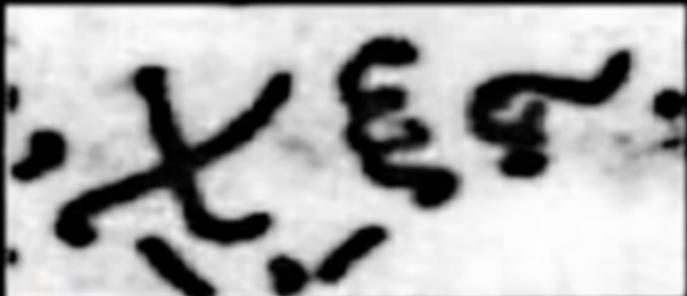
그리스 글자로 "666"에 해당하는 단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간다.

아래의 한 필사본 이미지와 숫자 666을 나타내는 위의 그림과 비교해 보자. 아래 그림 왼편의 글자 형태가 숫자를 나타내는 그리스어와 아주 비슷해서 아래 오른쪽 그림에 있는 아랍글자 처럼 보인다:

Manuscript Evidence

Oxythynchus Papyri
(P.Oxy LVI 4499)

Codex Vaticanus
350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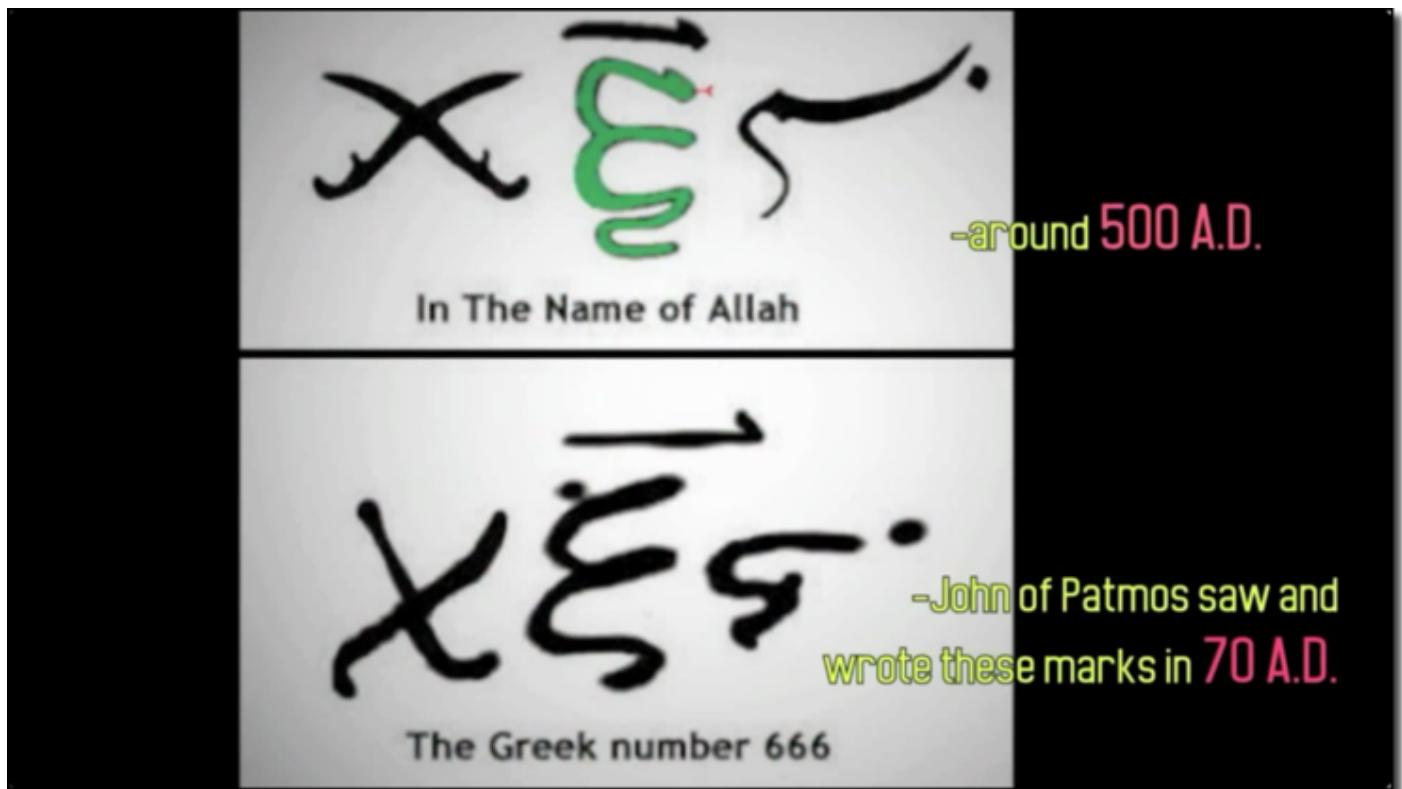


Bis'm Allah: "In the Name of Allah" is written at an upward angle; Two swords are a traditional symbol of Islam.

오른쪽: 그리스어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랍어이며 "알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면 왼쪽 끝의 X 표식은 '칼'을 나타낸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1세기 당시에는 이슬람 글자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에서 본 그대로 "그렸을 것"이다,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복사본을 보냈고, 각 교회의 필사자는 "육백 육십 육"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시로서는) 그림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수를 나타내는 그리스 글자라고 고민했을 것이다.(그 부분에 대해 사도 요한에게 묻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해당 아랍글자는 수를 표현하는 그리스 글자로 착각할 정도로 비슷하다:



아래: 사도 요한이 본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위: 현재 아랍어 단어 "알라의 이름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간다)

이 표는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이슬람의 샤리아 법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사고 파는 것을 제한 하는 이슬람 법" 이다. 나무위키에서 잘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자: <http://namu.wiki/w/샤리아>

"이슬람에서는 샤리아가 크게 다음과 같이 이분된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하는 직접적 의무 관계를 말하는 의례적 규범으로 청결, 예배, 자선, 단식, 순례, 장의 등에 관한 규범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인간 상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제하는 윤리적 규범이다. 이것은 혼인, 이혼, 친자 관계, 상속과 상속액, 노예와 자유인, 계약, 선언, 와크프(기부), 형벌, 비무슬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범이 포함된다.... "

이슬람 샤리아 법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슬림이 지켜야 할 법이다. 무슬림의 생활 전반을 엄격히 통제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을 사는지..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이다. 샤리아 법에선 비무슬림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길 거부하면, 가장 무딘 칼로 목을 베어 잘리는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하며 죽이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 나타난 후에야 짐승의 표에 대한 법이 강제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그 법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 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시리아 내전등으로 흩어진 무슬림이 유럽과 세계 곳곳에 퍼짐으로써 "땅 사분의 일"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이루고 있다, 무슬림 난민이 유럽전역에 퍼지며 퍼트린 그들의 샤리아 법이 각국의 헌법을 넘어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계6: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이다

"적그리스도의 조건 비교표" 게시글에서 보듯,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종교라 위장한 이슬람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현재 버젓이 강제되고 있는 짐승의 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관련없는 바코드와 생체칩을 666이라 떠든다.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면 짐승의 표는 곧 할랄마크 인것을 알게된다.

계13:17-18 구절을 수number에 대해서가 아닌 multitude(무리/군중/집단)에 대한 뜻을 대입하여 재해석 하면, 짐승의 정체가 정확히 드러난다:

계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군중이라

계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지혜롭게 그 짐승의 무리를 파악하라. 그 집단은 한 사람(알라)의 집단이니 "알라의 이름으로"이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제 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표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나, 그런 일은 없다. 상상하지도 못한 광경을 눈으로 보게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인척 보였다가 강림하는 모습이다.

그는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이므로, 전 세계 무슬림은 그를 곧바로 알아볼 것이다. 살아있는 교황들과 모든 무슬림은 아사드를 그들의 지도자 마흐디Mahdi로 인정하고, 교황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야라 공표하며 자신들도 하나님이라 선포할 것이다.^{삼위일체}

모든 무슬임은 적그리스도가 명령한 명령에 목숨을 다해 실행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늘로 강림하여 모습을 드러낸지 30일 뒤,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연방, 호주 등 우방 여러 나라를 침공 한다. 한국 또한 중국/러시아/북한 세력에 침공 당한다. 온 세상은 이슬람이 장악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슬람을 강요하며, 짐승의 표식인 할랄표식Halal Mark을 강요할 것이다.

RFID나 VeriChip, 바코드 같은 것이 짐승의 표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는 모든 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야 비로소 이슬람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환란 가운데라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계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16: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표를 받은 자들이 그것으로 용서의 기회가 없다면 굳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서되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게시글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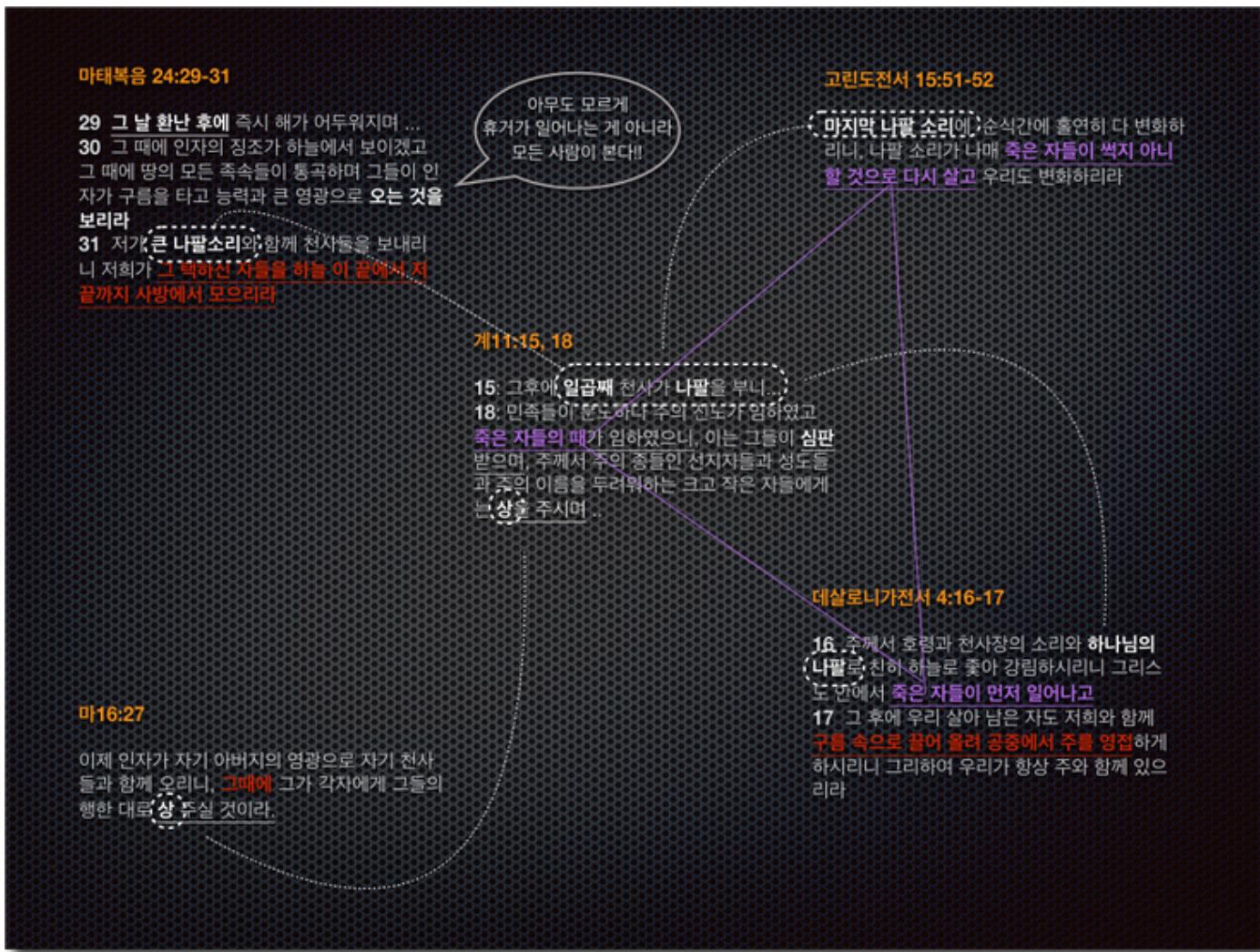
휴거: 그날과 그때

진리탐구

2017/03/11 21:29

<http://blog.naver.com/tPad51j/220955743092>

아래 그림 속의 구절들과 도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1 절에서 언급한 "큰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일곱 나팔 재앙 중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것이며, 성도의 들림 휴거 관련한 구절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일곱 번째 나팔소리가 불 때 다 일어난다는 것이다. 찬찬히 말씀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마 24:29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도적같이 임해서 준비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휴거"를 설명하는게 아니다!)

: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전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죽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 16:27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대로 상주실 것이라.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2018년 1월 25일 원래의 내용이 삭제/수정되었고 아래 글이 더 자세히 증거하므로 읽어보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184614377>

휴가는 속죄일에 일어난다

강력한 미혹 이란 적그리스도바사르 알 아사드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보이고 ...

blog.naver.com

환란 시작 시점과 기간

진리탐구

2017/03/14 00:57

<http://blog.naver.com/tpad51j/220957426677>

환란 시작 시점

환란의 시작을 명시한 성경 말씀은 여기 있다:

단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아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Now at that time Michael, the great prince who stands guard over the sons of your people, will arise. And there will

위의 말씀은 천사장 미가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¹⁾ 환란이 시작된다²⁾고 해석할 수 있다. 일어난다^{arise}는 번역의 원본 단어는 T.n.y로써 /a:med/라고 발음되는 히브리 동사다.(스트롱인덱스번호: H5975) '일어서다'라는 뜻 외에 전혀 달리 보이는 뜻이 있는데, "멈추다", "중지하다", "그만두다" 등의 뜻이 그것이다: https://www.blueletterbible.org/kjv/gen/29/35/ss1/s_29035

창29: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지서스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And she conceived again and bore a son and said, "This time I will praise the LORD." Therefore she named him Judah

창:30:9, 수3:13, 롯1:13, 스6:8, 롬37:4, 암4:7 .. 이 구절들 모두 같은 히브리 동사 H5975에서 번역된 것이지만 "멈춘다"라고 번역한 구절들이다. "멈춘다"라는 뜻으로 다니엘서12:1 구절을 번역하면, '그 어떤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하던 일을) 멈추면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일을 하며 사단과 그의 천사의 도발을 막고^{계12:7},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단10:12} 그런 미가엘이 멈추는 일은 무엇인가? 구약의 다니엘 12:1에 기록된 '환란 시작 시점'과 짹을 이루는 구절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를 주의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살후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NASB) For the mystery of lawlessness is already at work; only he who now restrains will do so until he is taken out of the world.

(KJV) For the mystery of iniquity doth already work :

only he who now letteth will let, until he be taken out of the way

(NIV) For the secret power of lawlessness is already at work; but the one who now holds it back will continue to do so

2장 7절의 말씀은 정말 읽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take out of ~"를 "~을 충단하다/멈추다" 라는 말 그대로 대입하면, 위의 난해한 살후2:7 구절은 아래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미 활동 중인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고 때가 되면 막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불법'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하려는 짓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려는 것이다:

살후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따라서 그 "막는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는 걸 막는 일을 하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벅찬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대부분 적그리스도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을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살후2:3에서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라 선언하지만, 살후2: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소유한 성전에 앉으려하거나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려면 적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여야 한다!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면 가능하다. 또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의 예루살렘에 지어질 세번째 성전에 앉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사람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사람이 만드는 세번째 성전은 결코 이스라엘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버려졌고 벌을 받았다. 솔로몬이 지은 처음 성전이 파괴된 이유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차없이 허물어 졌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1948년이나 2017년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서스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분의 희생을 무효로 할 피의 제사를 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번째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라 믿는가?

신31:18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신31:29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지서스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외에 인간의 손으로 지어질 성전이 이 땅에 지어질 것이라 예언한 부분은 성경에 없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성전" Temple of God이라 불리는 건물/장소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다니엘9:27에 언급된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말씀 때문에, 머지않아 이스라엘에 세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앉을 거라 믿는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놀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And the temple of God which is in heaven was opened; ...

다니엘 12:1 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미혹을 허락하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도록' 천사장 미가엘에게 마귀의 도발을 막는 일을 멈추라고 지시하실 것이다. 잠깐 동안이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들 두 눈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게된다. ('강력한 미혹'이라 불린다)

그리고 계 12:9 구절 말씀대로 곧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coming} 되는데, 사단이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을 속여 마치 지서스의 재림인 것 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살후2:9 악한 자의 임함(*Coming*)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살후2: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강림을 보고 속아 그를 경배하며 찬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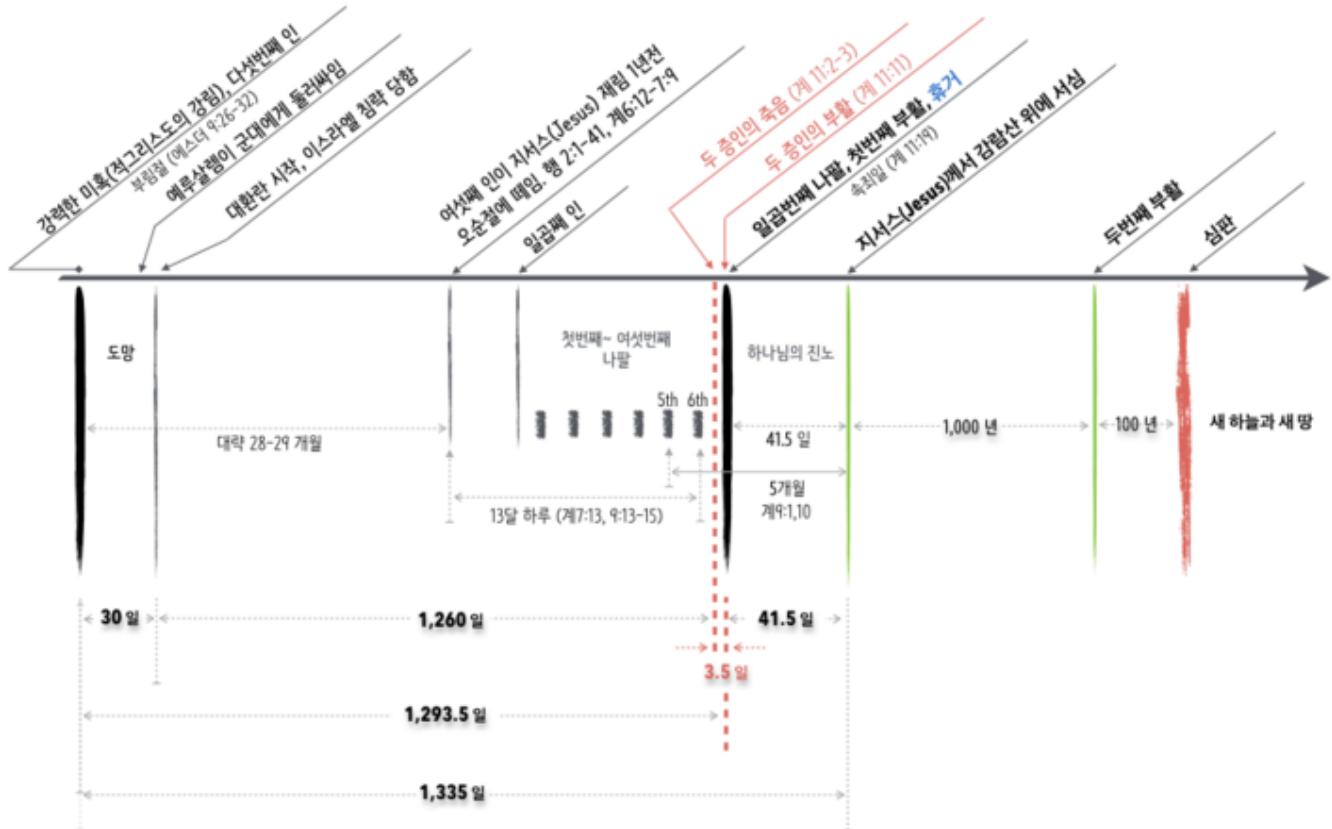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 하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라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짓을 좋아하며 지서스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살후2:11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살후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환란의 시작은 "휴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Timeline of The Day of The LORD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최근 이미지 업데이트: 2018.1.23)

2018년 3월 초 부림절 Purim을 주의하라!

2018년 1월 말 현재 미국과 시리아 그 주변 국가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아사드정권을 제거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이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이 오면 올해 3월초에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미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184614377>

엉터리 지식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7년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니엘 9:27 "한 아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구절때문이다.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아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아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And he will make a firm covenant with the many for one week,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he will put a stop to sa

여기서 "많은 사람" 또는 "many"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본 단어의 뜻에는 many라는 주된 뜻 외에 captain, leader라는 뜻도 있다:

<https://www.biblegateway.com/passage/?search=Dan+9%3A27&version=CJB>

Dan 9:27 He will make a strong covenant with leaders for one week [of years]. For half of the week he will put a stop to the sacrifice and the grain offering. On the wing of detestable things the desolator will come and continue until the already decreed destruction is poured out on the desol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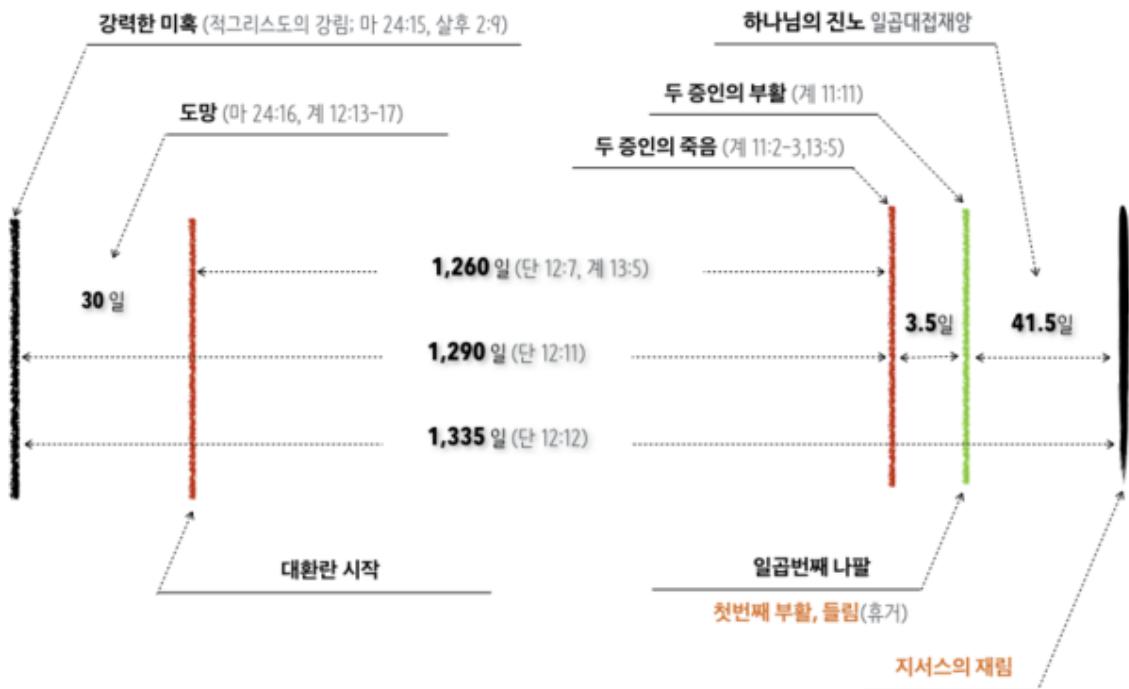
게다가 다니엘 9:27에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드러나게 협정을 맺는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제사"는 오직 성전이 있을 때에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사람이 짓는 세번째 성전은 결코 없기 때문에 환란의 기간을 알리는 내용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다니엘 12장 후반부에 환란의 총 기간과 세부 사항을 날짜별로 명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위의 구절을 근거로 환란을 7년이라 믿고, 전반 삼년 반을 지나 후반 삼년 반이 시작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될 것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거는 반드시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후에 일어나므로 환란의 시작이 아니라 환란의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들림받는 때가 온다:

살후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미 최소한 네번째 인이 떼진 세상에 살고 있다.

앞선 포스트 "휴거: 그날과 그때"에서 밝혔듯,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휴거가 있겠고 성도의 환란은 1260일 즉, 삼년 반이다. 7년이 아니다.



1335일 개요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최근 이미지 업데이트: 2018.1.23)

침승의 표에 대한 구절과 환란의 시작을 나타내는 구절의 단어 번역이 달리 해석된 이유는, 다니엘 12:9 말씀대로 정해진 때까지 봉해졌기 때문이다. 인이 떼질수록 그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셨고, 이제 코앞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포위당할 때, 당신은 휴거를 준비하겠지만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광경을 보게될 것이다.

적그리스도 조건 비교표

진리탐구

2017/03/15 20:10

<http://blog.naver.com/tapad51j/220958975685>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절대 그럴일 없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 정체를 모르면 당신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휴거: 환란의 시작과 기간](#)"에서 짧게 기록한대로, 적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잠시 앉았다가 땅으로 쫓겨나게 된다.

사단의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으로 덮어질 그 광경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을 보라. 이 구절을 보는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살후2:11 이려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살후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당신은, 당신을 위해 피흘리신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자다: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따라서 하나님의 선언대로 당신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이고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불못에 던지우게된다:

계14:11 ...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게 아니다. 그날이 가까이 온다고 온갖 엉터리 계시글로 도배하다시피 한다고 구원 얻는것도 아니며, 그날을 대비한다며 마음을 아무리 동여 매어도, 구원을 얻는게 아니다. 믿고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침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시물:[믿음과 침례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성경이 알려주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고 명심해야할 점이 있다. 바로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계시물 "[환란의 시작 시점과 기간](#)" 참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거나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는 영적인 존재, 동시에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세번째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헛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에겐 적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래 표는 성경이 알려주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각 항목에 가장 근접한 후보를 대상으로 하나 하나 확인함으로써 누가 적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Bashar Al Assad 시리아 대통령	Obama 전 미국 대통령	Prince Charles or Sons 제1 왕위 계승자	Erdogan 터키 대통령
1. 앗시리아 사람이다.	YES	NO	NO	NO
2. 뿔에 눈이 있다.	YES	NO	NO	NO
3. 자신을 하나님이라 일컬으며 모든 신보다 높인다.	YES	NO	NO	HALF
4. 적은 무리에서 강해진다.	YES	NO	YES	YES
5. 다른 동류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인다.	YES	NO	NO	NO
6. 여자의 바램을 개의치 않는다.	YES	NO	NO	YES
7. 파멸의 아들이다.	YES	YES	NO	NO
8.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YES	NO	NO	NO
9. 다니엘 11:40	YES	NO	NO	NO
10. 이스라엘과 다른 여려 중동 국가를 침략할 것이다.	YES	NO	NO	HALF
11. 다니엘 7:25, 시간과 법을 변개할 것이다.	YES	HALF	NO	YES
12. 성도와 싸운다	YES	YES	NO	YES
13. 다니엘 왕국의 8번째 동상이다.	YES	NO	NO	NO
14. 이집트와 리비야를 대적한다.	YES	YES	Probably NO	NO
15. 계 13:18 짐승의 표와 연결된 자다.	YES	YES	YES	YES
관련 항목 수	15	4.5	2	6

1. 앗시리아 사람이다

>> 아래 모든 구절을 모아둔 게시글 참조: <http://blog.naver.com/tpad51j/220959123300>

- 이사야 10, 14:25, 19:23, 23:13, 30:31, 31:8, 52:4
- 에스겔 31:3, 호세아 5:13, 11:5
- 다니엘 7:20 + 이사야 10:12
- 미가 5:1-5 + 요한계시록 11:2
- 에스겔 28

✓? [Assad는 시리아 왕\(대통령\)이다.](#)

✗ Obama와 Prince Charles는 해당사항 없다.

✗ Erdogan은 조지아인(Georgians)으로서 앗시리아인 혹은 아랍인이 아니다.

2. 뿔에 눈이 있다

단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뾰렀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

and behold, this horn possessed eyes like the eyes of a man and a mouth uttering great boasts.)

단7: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

that horn which had eyes and a mouth uttering great boasts and ...)



안과학

20절의 눈(eyes)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אֵין 으로써 /ah'-yin/ 이라 발음되는 H5870 명사다. 이 단어는 '눈'과 함께 '눈에 대한 지식' 이란 뜻도 내포하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검색 참조)

✓? Assad는 대통령이 되기전 영국에서 유학하며 안과의사로 일했다.

✗ Obama와 Prince Charles, Erdogan 모두 해당사항 없다.

참고 자료:

- <http://www.newjerusalem.org/Strongss.aspx?search=H5870>
- <http://www.bibleagape.com/strong/H5869>
- <http://www.youtube.com/watch?v=KsoZmqP6I1M>
- <http://www.youtube.com/watch?v=l0mkuj2sJ2s>

3. 자신을 하나님이라 일컬으며 모든 신보다 높인다.

단11:36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

단11: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

✓? Assad는 시리아내 군부세력들이 모든 신보다 위대한 신이라 섬기고 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그를 알라보다 높은 신이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목 베임을 당한다.

✗ Obama, Prince Charles: 해당사항 없다.

✗ Erdogan: 그가 장악한 소수의 종교 또는 정부기관에서 신성한 자로 여김 받고 있으나 시리아 대통령 Assad 처럼 자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처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몇몇은 Erdogan이 알라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YouTube 비디오를 올리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 Walid Shoebat은 Erdogan을 Mahdi로 선언했다 말하지만 과장된 면이 있다. 이슬람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때 시리아 지도자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짓 Mahdi가 나타날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

시리아군이 군중에게 "Bashar Al Assad 외에 신은 없다" 말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4. 적은 무리에서 강해진다.

단11: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After an alliance is made with him he will practice deception, and he will go up and gain power with a small force of

✓? Assad: Assad 집안은 가장 소수 분파인 알라위 분파에서 세력을 얻었다. 대부분의 무슬림이 지극히 혐오하는 분파인 알라위 분파 출신에다 아무런 배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Assad 집안이 세력을 얻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

✗ Obama: 미국의 거대한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세력을 얻은 것이므로 이 항목과 관련 없다

✓? Prince Charles: 영국의 왕은 왕실 가족에서만 선출되므로 이 항목에 맞다고 할 수 있다.

✗ Erdogan: 거대 집권당을 등에 업고 있으므로 이 항목과 관련 없다.

5. 다른 동류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인다.

단7: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

and which was larger in appearance than its associates.)

✓? Assad: 그렇다. 신장 188cm를 넘어 다른 세계 정상들과 비교 우위에 있다. 이스라엘,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요르단, 영국 등과 싸워 이긴 베테랑 수장이며 강하고 고집 있으며 타협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 Obama: 신장 182cm를 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중 최약체 대통령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한 전적이 있다.

✗ Prince Charles: 신장이 매우 작고 아직 왕이 되지도 못했으며 날로 늙어가고 있다.

✗ Erdogan: Assad보다 6cm 정도 작지만 고집있고 완고하다. Assad와 달리 타협할 줄 아는 인물이다. 현재 세계 강대국에 속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이 시리아를 지원하면 터키는 시리아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6. 여자의 바램을 개의치 않는다.

단11: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He will show no regard for the gods of his fathers or for the desire of women,...)

✓? Assad: 그렇다. 알라위 무슬림 분파는 여자는 영혼이 없다 믿으므로 여자들의 소망과 필요를 무시한다.

✗ Obama: 중동의 진짜 무슬림이 가진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는 서양 무슬림이다.

✗ Prince Charles: 해당 사항 없다.

✓? Erdogan: 그렇다. 여자를 경시하는 중동 무슬림이다.

7. 파멸의 아들이다 (*Son of Perdition*)

살후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

for it will not come unless the apostasy comes first, and the man of lawlessness is revealed, the son of destruction,

'멸망'이란 단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본은, apoleia ([Strong's G684](#)) 인데 완전한 파멸/파괴를 의미한다. 즉, 적그리스도는 파멸의 아들이다.

✓? Assad: 그렇다. 그의 부친이 시리아를 다스리는 동안 그를 대적하는 폭동에서 수도 다마스커스를 거의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제 그의 아들인 아사드(Bashar Al Assad)시대에서도 그 부친과 같이 파멸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 Obama: 그렇다. 오바마 역시 미국과 미국 헌법, 이스라엘, 이집트 등을 파괴하였다.

✗ Prince Charles: 해당 사항 없다.

✗ Erdogan: 아니다. 만약 에르도간이 이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ISIS 지원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에르도간 역시 쿠르드족을 섬멸하길 원하지만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그가 쿠르드족을 섬멸하기에 힘이 부족하다면 터키 외부로 그의 파멸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8. 죽게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계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I saw one of his heads as if it had been slain, and his fatal wound was healed. And the whole earth was amazed and

계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they worshiped the dragon because he gave his authority to the beast; and they worshiped the beast, saying, "Who i

머리(heads)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본단어 (*Strong's Greek #2776 kephale*)는 다른 구절에서 "수도(capital)"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7:8 대저 아람(시리아)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For the **head** of Aram is Damascus and the **head** of Damascus is Rezin (now within another 65 years Ephraim will be

라틴어를 근간으로한 프랑스어 'capitellum'은 "작은 뿔"을 의미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작은 뿔이라고 성경은 설명한다:

단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While I was contemplating the horns, behold, another horn, a little one, came up among them, and three of the first

적그리스도는 '았수르'(Assyria; Syria) 사람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으며, (<http://blog.naver.com/tpad51j/220959123300>)

또한 그의 수도(머리) 다메섹이 황폐해질 것이란 성경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져 우리 시대에 눈으로 볼 수 있다!:

사17: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The oracle concerning Damascus. "Behold, Damascus is about to be removed from being a city And will become a fa



6년 넘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시리아(다메섹)의 수도 다마스쿠스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초토화 된다(*completely plat*)는 의미는 아니다. 2017년의 다마스쿠스 상황처럼 수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다는 말이다. 그의 머리, 곧 황폐된 수도(capital)인 다마스쿠스가 미국 또는 NATO 연합에 의해 미사일 공격등을 받게 되어 그의 머리가 상처를 입으나 거짓 그리스도로 하늘에서 강림하여 "죽개되었던 상처가 나을 것이다"

✓? Assad: 그렇다. 그는 시리아(았시리아; 아람)의 대통령이며 수도는 다메섹 곧 다마스커스다.

✗ Obama: 해당 사항 없다.

✗ Prince Charles: 해당 사항 없다.

✗ Erdogan: 해당 사항 없다.

작성중 ...

9.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단11:40)

10.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중동 국가를 침략할 것이다

11. 시간과 법을 변경할 것이다

12. 성도와 싸운다

13. 다니엘이 기록한 8번째 동상이다

14. 이집트와 리비야를 대적한다

15. 요한계시록 13:18의 짐승의 표와 연관된 자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위한 누룩없는 빵 요리법

진리탐구

2017/04/10 02:09

<http://blog.naver.com/tPad51j/220979296735>

0. 주의:



- 2018년 유월절은 3월 31일 해뜰때 부터 시작된다. 30일 저녁이 아니다! (유대인은 해질때 부터 다음날 해질때까지를 날의 경계로 삼지만, 이것은 앗시리아인/바빌로니아인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 유월절은 11일 해뜰때 부터 시작되지만 성찬식은 11일 저녁에 갖는다.
- 구약의 양/염소 고기는 신약의 빵과 포도주로 대체되었다.
-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곱 절기를 지키는 것](#)을 지킴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다. 단지 마음으로 믿었다고 구원받는게 아니다

1. 준비물

A. 밀가루 두컵

- * "NON-GMO" 혹은 "유기농"
- * "ALL PURPOSE" 혹은 "PLAIN": 야생 밀이 아니어야 하며, 성분 목록에 베이킹 소다, 효모(발효제),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소나트륨 등이 없어야 한다.

B. 3/4 티수푼 소금. 어쩔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테이블 소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테이블 소금은 약 97-99%가 염화나트륨을 함유한 경제염이다. 테이블 소금은 해수 또는 염수의 증발에 의해 생성되고 나트륨 알루미 실리케이트 또는 탄산마그네슘등의 고형방지제가 추가된다](#)) 반드시 "진짜 소금 (천일염)", "핑크 히말라야", "바다 소금" 등과 같은 표시가 된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 먼저 언급된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있으며 누룩없는 빵에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C. 올리브 오일 1/2 컵. 반드시 오일이 들어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종류의 오일도 사용 가능하지만 올리브 오일만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D. 물 3/4 컵. 필요에 따라 더할 수 있다.

모든 재료에 "할랄(Hala)" 마크나 인증이 붙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마크는 짐승의 표다) 누룩없는 빵을 굽기 위해 모든 재료를 구입에 십일조를 사용할 수 있다.

2. 빵 만들기

모든 재료를 그릇에 담아 섞고 잘 저어 준다.

밀가루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분외에도 달걀, 꿀, 계피, 후추, 허브, 매운 맛을 내는 모든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튀김용 냄비에 (skillet) 1/4 컵 정도의 올리브 오일을 두른다.
 - 중상 정도의 불로 달궈주면서 오일이 뜨거워 질때까지 기다린뒤, 팬케익 정도 크기의 반죽을 부어준다.
 -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살살 펴줘도 좋다.
 - 냄비를 몇번 기울려서 오일이 반죽에 골고루 젖게 하자. 반죽의 가장 자리에서 오일이 거품을 내며 끓어 오르면 오일을 더 넣는다.
 - 빵 한쪽 면의 가장 자리가 모두 단단해질때까지 튀긴다. 빵의 중간 부분까지 단단하게 하진 말 것.
 - 반대 쪽으로 뒤집어서 (두쪽 모두) 황갈색이 될 때까지 튀긴다.
 - 빵을 접시에 옮기고 남은 반죽으로 필요한 만큼 더 만든다.
 - 빵을 조각내어 뚜껑이 있는 그릇에 옮겨두고 유월절과 무교절 동안 먹는다.
-

3. 주의 사항

올리브 오일은 성령 Holy Ghost를 나타낸다. (Holy Ghost; 거룩한 귀신이란 말의 어감이 대단히 거북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단어가 맞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뜻하며 지서스 Jesus의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것이다) 고대에선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빵과 소금이 사용되었고, 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했다. 소금은 발효를 막아 몇일이 지나도 빵을 먹을 수 있게 보존 해준다. 즉 소금은 순결, 정화, 거룩함, 깨끗함, 치료함을 나타낸다:

막9:49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For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막9: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 하라 하시니라

Salt is good; but if the salt becomes unsalty, with what will you make it salty again? Have salt in yourselves, and be a

유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발효제품", "베이킹소다", "베이킹 파우더", "효모/누룩/발효제", "탄산수소나트륨" 등이 재료로 사용된 음식은 제외한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므로 이 기간동안 먹을 수 없다. 또한 한국식 장은 모두 발효식 음식이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식초가 음식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먹을 수 없다. 그러나 피클에 담긴 식초처럼 음식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는 경우는 먹어도 무방하다.

만약 달걀이 어떤 음식을 부풀게 하거나 발효시키는데 사용되었다면, 피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트로프(meatloaf)에 달걀을 넣는것은 발효나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관계없으므로 먹어도 된다. 미트로프에 들어간 달걀은 고기와 다른 재료가 붙게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달걀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스크램블은 곤란하다. 부풀어 오르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옥수수를 튀겨 만든 팝콘은 부풀어 올랐으므로 먹지말라. 그러나 찐 옥수수같은 것은 발효나 부푸는 것과 관계없으므로 문제없다.

맥주, 와인, 다른 술 종류는 발효된 것이지만 빵을 부풀게 하지 않으므로 마실 수 있다.

발효 성분이 함유된 비누도 제품을 부풀게 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크래커, 국수, 파스타, 빵, 케이크, 파이, 캔디, 통조림에 든 파스타 (스파게티) 등은 해당 제품을 부풀게 하므로 이 기간동안 먹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여자고 가족 중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먹는 것만 책임지면 된다. 아이들이나 다른 가족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해도 당신에겐 책임이 없다.

만약 당신이 남자고 가족 중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따라 남자답게 성경의 가르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동안 허락되지 않은 음식물을 집안에 들여놓으면 다 내다 버리든가 먹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와 같이 사는데 두분중 누구라도 거부한다면, 당신이 먹는 것만 책임지면 된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 같이 사는 다른 사람이 누룩없는 빵을 먹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유월절이 되기전에 달리 생각해보라. 법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데 낭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도와줄 것을 얘기해 보길 바란다.

집안과 밖에서 8일 동안만 지키면 된다. 1년중 8일은 충분히 짧은 기간이다.

4. 2018년 3월 31일 저녁에는 성찬식을 가지라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대로 성찬식에는 진짜 와인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취할 목적이 아니므로 1~2 모금만으로도 충분하다. 성찬식이기 때문이다. 적포도주라면 어떤 종류도 상관없다. 빵을 적시는데 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나 아콜중독이 있는 사람에겐 크랜베리나 포도주스로 대체할 수 있다. 빵 한조각에 한 두모금 와인다면 적당하다.

만약 성찬식에 그리스도도 지서스안에서 형제 자매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복음 13장 말씀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라. 만약 진실로 구원된 사람이 없다면 세죽식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서스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3월 31일과 4월 8일일에 안식하지 않는 사람과는 성찬식을 가질 수 없다.

4월 1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무교빵을 먹는다. 와인은 더 마실 필요는 없지만 빵을 먹을 때 한두 모금 마시는 것은 상관없다.

4월 8일 저녁은 출애굽기 12:42에 이른 것처럼 "준수하는 밤"이다. (*The Night To Be Observed*)

절기를 축하하는 시간이다. 이 절기를 지키는 진실된 형제 자매를 누군가의 집에 초대하여 우정의 교제를 나눈다. 각 사람은 조금의 무교빵을 떼고 왜 거기에 왔는지 무엇에 대한 절기인지를 기억하고 각자의 삶에서 죄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이 날은 이스라엘인들이 밤새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새로운 언약을 받은 크리스천에게는 지서스께서 바빌론 교회와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된 자에게는 그들이 다녔던 교회가 곧 이집트다. 주안에서 이 날을 축하할만한 진실된 형제/자매가 없다면 혼자라도 축하하며 이 특별한 시간을 경배음악으로 채울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혹은 기독교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무교절의 시작과 끝 날은 안식일이다

4월 1일과 8일은 "대 안식일"(High Sabbath) 날이며 일하거나 학교에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등 절기를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는 허락된다. 3월 31일은 유월절이며 이 날은 안식일처럼 쉬는 날은 아니다. 그러나 2018년 유월절은 토요일이므로 제7일 안식일로 쉰다.

경고의 나팔: 임박한 환란과 구원받은 자의 길

진리탐구

2017/04/30 01:02

<http://blog.naver.com/tapad51j/220995178873>

99.9%의 한국 교회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대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환란 전에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들림'이라는 의미로 다들 알고있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씀에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구절이 여럿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 혹은 그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도 왜 환란을 피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않고 그저 목숨을 살리기 위해 대피해야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5)번 섹션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두었으니 먼저 가서 읽어봐도 좋다.

지서스 Jesus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은 목사들이 주장하는 설교 가운데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서 들림 받을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해야한다" 라는 꿈나라 얘기용 준비 체조같은 말 덕분에 환란을 대비하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와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는가. "이 좁은 땅 덩어리 내에서 피해봐야 어차피 죽게되어 있다" 생각하는 부류와 " 그냥 죽으면 끝 나는 건데 복잡하고 귀찮게시리 왜 피해야 하냐"는 부류등이 대부분인데,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분명히 하나님하신 지서스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도망하라"고 '명령' 하셨는데도 자신은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들림받을 것이라 믿으며 그 말씀의 심각성 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짐
저) 강력한 미혹

마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유대에 있는 자'만 이 말씀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6)번 섹션을 먼저 읽어보라. 이 말씀의 대상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것이다. "도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성경의 원리는 참으로 오묘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과 도망하는 행위를 구원받은 자가 환란가운데 통과하면서 환경과 사람으로 연단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준비하여 주께서 오시는 날 들림 휴거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참된 믿음으로 보신다. 5)번 섹션을 보라.

글을 읽는 동안 중간 중간에 정리된 요약을 볼 것이다. 변경된 부분과 기존 설명을 반복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 보이겠지만 부담받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읽기를 바란다.

1) 분명히 성경은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며, 주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선언하셨다

마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살전5: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출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벧후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16:15 보라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당신이 교회에서 배우고 믿는 바대로, 지서스께서는 분명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려는게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어떤 구절이든 결코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딤후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위의 말씀대로 설령 성경의 한 귀퉁이에 쓰여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며 우리의 이해를 돋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읽는 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경우에 대한 각각의 말씀을 베뢰아 사람들처럼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행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17:12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설령 다수가 어떤 구절을 참이나 거짓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말씀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지혜를 찾고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잠2: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잠2: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잠2: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잠2: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잠2:5 지서스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의 진짜 이름 "하나님의 진짜 이름" 게시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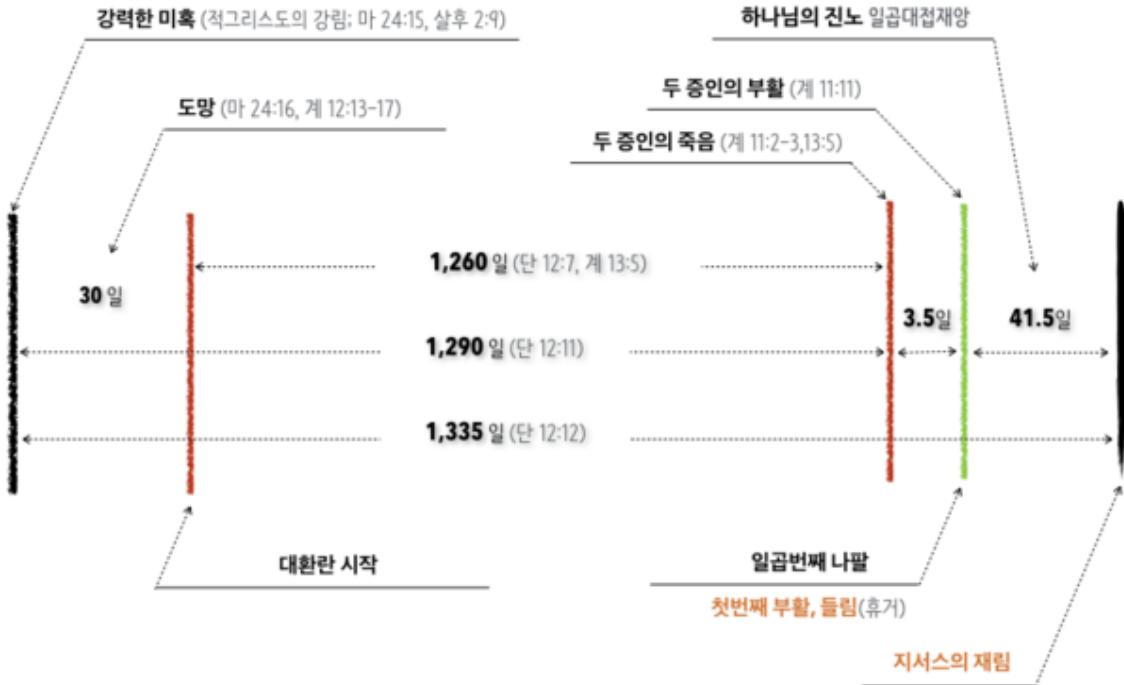
잠2:6 대저 하나님 지서스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 날과 그 때', 곧 그 시기에 대해 무조건 "우리는 모르게 되어 있으니 다른 반론을 펼치려 하지 말라!" 하지만, 당신이 그 토록 믿어 마지 않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모른다"는 것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신의 깊은 믿음의 정도 만큼이나 신중히 더 읽어봐야 할 것이다.

2)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는 환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은 마지막 때를 자세히 기록한 다니엘서의 일부 구절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과 함께 표시된 구절에서 당신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환란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세히 보라. 환란의 시작 시점을 달리해

기록한 방식이 언뜻 보기에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숨겨진 30일과 45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해 할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뻔히 보면서도 깨닫지는 못한다)



1335일 개요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단12: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계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단12: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일을 지낼 것이요

단12:12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한점 의심없이, 이 모든 구절에서 마지막 때의 환란 기간이 "대충"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히" 몇일 이라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설교한 내용대로 준비가 된 사람은 환란 전에 들림 받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굳센 믿음은 "선입견"으로 같으므로 말씀을 치우침 없이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선입견을 피해가기 위해, 앞서 설명한 1)번의 내용을 위의 다니엘서 내용과 연결해서 한줄로 정리해서 말해보겠다:

»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환란이 시작되면 그 날은 적어도 1260일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는 전체 환란 기간이 7년인지 3년 반(1260일)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점이다. 오직 확실한 것은 성도의 환란이 적어도 1260일이라는 점이고 나의 사적인 견해나 해석은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3) 환란의 기간외에도 지서스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와 옴을 알 수 있는 힌트도 주셨다

눅21:20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기원후 1세기, 곧 주께서 살아계실 때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함락 되었어도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니므로, 위의 놀21:20 말씀은 서기 7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른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함락된 서기 70년 이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다시 등장하였으니, 그 때가 세계 2차대전 종전후인 1948년이고, 무려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해서 놀21:20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제 다시 혹시라도 모를 선입견을 피하기 위해, 위의 말씀을 1)번과 2)번 내용에서 말한 것에 합쳐 정리하겠다. 변경되거나 첨가된 내용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 예루살렘에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환란)이 가까왔다.

›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환란이 시작되면 그 날은 적어도 1260일이다.

멸망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는 놀21:20 구절외에, 환란의 시작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힌트가 더 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도망가라는 말씀이다:

단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면 환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은 "[휴거: 환란의 시작과 기간](#)" 게시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전 저)

마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또한 그 도망이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한/트)도 잊지말자:

마24: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추가된 두가지 힌트를 환란 시작에 대한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환란)이 가까왔다.

>>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도망하라.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환란이 시작되면 그 날은 적어도 1260일이다.

위의 정리에서 보듯, 어느날 갑자기 주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징조가 보이면 환란이 언제쯤 시작될지 예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 하면 도망하라는 말씀까지 더해져 환란의 시작 시점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환란은 최소 1260일이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말씀대로라면 이런 징조 자체를 언급한 말씀에 대해 의문이 들수밖에 없다. 혼동스럽고 의심 가더라도, '자칫 잘못 해석한다면 내 영생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의 생각은 접어두자! 성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증하라고 명령까지 해뒀고 사도행전을 통해 그런 베뢰아 사람들을 칭찬까지 해뒀지 않는가?! 그러니 "그날과 그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날 인지 자세히 파보더라도 당신의 영생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한국 교인 거의 전부는 '그날과 그 때'에 휴거('들림')가 일어날 것이라 믿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는 그 날, 준비한 자만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날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다면, 성경에 그런 중요한 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리가 없다!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아래와 같이 성도를 모은다고 기록한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찾을 수 있다:

마24: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지만 자세히 보기 바란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날이 은밀히 임한다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를 모은다고 선언하고 있다! 게다가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 말대로라면 들림 받을 사람만 알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본다고 한다!!:

마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주께서 직접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어째서 모든 사람이 그 오시는 모습을 본다고 말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전처럼 얼렁뚱땅 대충 그려려니 넘기지 말고,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자세히 보라. 29절에서는 31절에 명시된 들림(휴거)의 상황이 모든 사람이 믿는 것처럼 환란전이 아니라 분명히 환/란/후/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But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쳐 확인해 보길 바란다. 앞뒤 구절도 확인해보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환란후"라는 동일한 의미와 말이 적혀 있다. 환란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 >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환란)이 가까왔다.
- >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도망하라.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 >> 성도의 환란은 최소 1260일이며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 >환란 끝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구름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분명히 나팔 소리 없이는 주께서 강림하지 않으시므로 여러 구절을 통해 그 나팔소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4:29-31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
 30 그 때에 인자의 징兆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죽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
 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기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무도 모르게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다!

고린도전서 15:51-52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출연하니 변화하
 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
 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계 11:15, 18

15. 그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8. 민족들이 분노하다 주의 전보가 암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
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는 상호 주시며

데살로니가전서 4:16-17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노한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
 리라

마 16:27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
 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풀실 것이라.

이제 이 글에서 간절히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주의 깊게 다음의 질문에 대해 고민해보길 바란다:

"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의해 알수 있고 환란의 끝 역시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주의 재림과 성도의 들림이 환란 후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줌으로써 환란의 시작/기간/끝 등에 대한 정보가 다 명확하게 알
 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날과 그때가 도적같이 임할 수 있을까?"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자에게는 '그날과 그때'가 환란 직전이라는 믿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위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깊
 게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옳은 것을 믿고 있다면 여지껏 어
 떤 조작이나 사견을 배제하고 나열한 정리와 말씀을 모른척 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 달려있다.

4)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다!

환란 시작 즈음과 환란의 정확한 시작 시점까지 알수 있게 설명한 성경 말씀은,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지서스의 말씀과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해석한 내용도 아니다. 하나님이신 지서스

께서 거짓말을 하셨을리도 없고, 그렇다고 '때에 대한 말씀'이 변개되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많은 구절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변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여기, "도적같이 온다"는 내용과 정 반대의 말씀을 보자:

살전5: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출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살전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도적같이 임함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바로 아래 4절에서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성경이 성경을 거짓 증거할 수 없으며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과 함께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 또한 진리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는 대상과 그 반대의 대상 즉, 두 종류의 그룹이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두종류의 그룹"이 억지 논리가 아닌 것은 여러 비유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밭가는 두 사람의 비유, 밀을 가는 두 사람의 비유, 열처녀 비유(준비한 다섯과 준비하지 않은 다섯, 즉 두 종류) 등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말하는 방식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눅8:10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원받은 자에게 밝히 알려진다:

막4: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따라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도 진리이며,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도 진리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말씀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만 강조한다면, 그런 자 세야 말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받을지라도 달리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변경된 부분을 어디인지 알아보자:

>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환란)이 가까왔다.

>> 어두움에 있는 자는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환란전에 들림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빛의 아들은 주의 강림이 환란 후에 있을 것임을 알고,

>>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환란의 시작인줄 알고 도망한다.

> 성도의 환란은 최소 1260일이며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 환란의 끝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구름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5) 환란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며 연단의 과정이다.

구원받았다 믿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자,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삼상17:47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신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나를 환란가운데 죽게 내 버려 둘 리가 없다. 그러나 설령 죽게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순교로써 나의 믿음을 보일 기회일 뿐이다.

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도망하라" 명령했다면?? 만일 당신이 믿고 있는 내용과 달리 도망하라 미리 알려뒀다면, 저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빙자한 자기 기만일 뿐이다. "지서스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걸 보는 사람은 분명히 도망하라" 명령하셨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는 "너희는 도망하지 않아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든가 "도망하는 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도망갈 것을 고려해보라", "일이 바쁘지 않으면 도망가라"... 등으로 보이는가??

영어 번역 성경을 통해 그 "도망"은 당신을 위한 필수 사항임을 알 수 있다! "must" 와 "have to"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둘다 "~해야한다" 라고 번역될 수 있으나, "must"는 그 말하는 대상을 위해 뭔가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가졌고 "have to"는 타인 혹은 전체, 그룹, 사회, 질서, 법 .. 등등..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뭔가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가졌다 는 것을 알고 아래 영어 번역판 구절을 보기 바란다:

마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then those who are in Judea must flee to the mountains.

잠22: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사2:10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사26:20 내 백성이 갈찌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찌어다

당신 자신을 위해 도망가야 한다는 말이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자들은, 환란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징벌"이라는 한정된 시점으로 본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교하여, 자신들은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이라 믿지만 정작 그런 바램과 달리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환란을 통해 (out of) 연단받아야 가능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계7: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계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I said to him, "My lord, you know." And he said to me, "These are the ones who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an

단11: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단11:34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궤匐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단11: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즉, 전쟁이나 적그리스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3년 반 뒤에 주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 연단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다.

성경 곳곳에서 "환란"에 대해 언급한 몇몇 구절만 보더라도 성도는 환란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이 성도를 연단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95122375>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찾을 수 있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ones who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이란 말은 말 그대로 "환란을 지나 살아서 통과한 자들"이란 말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최소 1260일이다! 전쟁과 이슬람의 짐승의 표인 할랄을 받지 않고 3년반 동안 살아남아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기본적인 음식, 주거지, 옷과 전기등의 문명시설이 도저히 확보 불가능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없이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단 말인가!?

조금만 생각해도 영화속에서나 보던 극한 상황이 닥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환란전 휴거를 믿는 자'는 그 일이 결코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 믿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경고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6) '유대'에 있는 자만 대피하라는 말씀인가?

마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then those who are in Judea must flee to the mountains.

다가오는 미래에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일 것임을 알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는 자살과 다를바 없다. 말씀을 믿고 대비하며 명령을 지키다가도 어쩔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죽게될 수도 있다. 혹은 온전히 회개 하지 않을 때 환란속으로 내 던져 지기도 한다:

계2:22 불찌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인생을 쉽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나, 세상이 지겹고 꼴도 보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나 천재 지변에 의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이유든간에 "도망하라" 명령한 것에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주의 뜻을 알고

도 피하지 않은 것이 되어 하나님께 많이 맞을 것이다:

눅12: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성경에서 '많이' 맞는다는 말을 결코 만만하게 생각지 말라.

어떤 사람은 "유대(Judea)"에 있는 사람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반문할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유대"는 물리적, 영적 양쪽 의미를 다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지서스의 대피명령은 주의 재림이 없었던 서기 70년 예루살렘 함락 되던 때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오직 마지막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분명히 지서스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유대(Judea)"라고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유대"라는 말에 숨겨진 "코드"가 있음이 확실하다.

숨겨진 '코드'를 이해하는 것은 영화처럼 극적인 스토리가 필요없다. 왜냐면 유대는 이스라엘 인들이 거하는 '장소' 이면서 그 대피 명령을 받을 대상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껏 지서스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것을 보고나서야 자신들이 메시야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설 것이다.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지서스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현대의 지명 대신 "유대에 거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는 환란후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살게될 구원 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

아래 구절들은 지서스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혈통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영적으로 유대인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롬2: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롬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9: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롬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롬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가 살게될 곳은 "새 예루살렘" 인 것을 잊지말자.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만약 환란을 피하라는 대상이 이스라엘인에 대해서만 지시한 말씀이라면, 환란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야 할 것이나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임할 것 이므로 이스라엘인만 대상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24: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단2: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세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계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요한계시록 12:13-16에서도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환란을 명시하지 않았다:

계12: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계12: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계12: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JESUS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따라서 "도망가라"는 대상은 육적으로 이스라엘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진실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변경된 사항을 다시 정리한다:

>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환란)이 가까왔다.

>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자는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환란전에 들림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빛의 아들은 주의 강림이 환란 후에 있을 것임을 알고 말씀을 따라 준비하며 회개함으로 깨끗이 한다

>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환란의 시작인줄 알고 도망한다.

> 성도의 환란은 최소 1260일인데 성도는 무리로 연단되고 정결케 되며 희게되어 간다.

> 환란의 끝에^{1260+3.5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구름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7) 뒤늦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나?

달리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환란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오직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33105104>

그외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나 환란 가운데 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욜2:32 누구든지 JEH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JEH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

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JEH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행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롬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 지서스께서 "진실로"를 두번이나 강조하시며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옵션이 되는 셈이다:

요3:5 JESUS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심지어 침례를 받아 구원받아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씀도 명백히 말씀하셨다:

마10:22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진실인데 어떻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엉터리를 믿고 있는가? 분명히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즐비하다!:

계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딤후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계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토이요 또 그 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 받기를 거부했기에 (세상 어두움에서) 빼내심을 얻은 자가 아니며, 침례를 받아들여 빼내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진실하지 않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게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 받을 기회를 준 것은 엄청난 축복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롬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환란 동안 침례를 해줄 사람을 찾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지 30일 뒤에 미국과 영국, 호주, 한국, 일본 등 비 이슬람/공산 국가는 러시아, 중국, 시리아, 이란, 북한 등의 침략을 받을 것이며 물, 전기, 가스등의 공급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인터넷과 전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자신에게 침례 줄 자를 찾을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을 알아챈 당신은 공포에 질려 판단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어온 지옥행 입구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당신은 끔찍히 변할 것이다. 영화속 등장 인물들처럼 누구를 배려한다거나 대신 죽는다거나 뭔가를 나눈다는 등의 행위는 생각할 수 없다. 영화는 허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 많은 허구를 눈으로 보아왔기에 진짜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기라도 할 수 있을까? 목사든 전도사든 교인들에게 맞아 죽지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말할 수 있을까..

기존 목사들이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또한 침례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다. 설령 침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 받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삼위일체라는 거짓말)으로 침례 받았을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한자와 다를바 없다. 소용 없다. 그 사람은 침례를 줄 수 없다. 설령 어떤 사람은 환란전에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십계명을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다면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지서스(Jesus) 말씀을 따르며 행한 자만이 침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분의 말씀을 지키며 노력한 자라면, 목사가 아니라도 세상이 인정하는 성직자가 아니라도 침례를 줄 수 있다.

침례에 대해서 다음 게시글을 참조하라: "침례를 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환란 기간에 마지막으로 이삭줍기 사명을 받은 순교자라 자처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자 역시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환란 동안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무식한 자일 뿐이다:

요9: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뒤늦게 이 모든 글을 읽어 진실을 알게되었고 침례를 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스스로에게 침례를 행할 수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 할랄 마크를 받지말고

계14:9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14: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적그리스도 (바샤르 알 아사드)가 등장하고 예루살렘에 군대에게 포위된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는 환란이 시작되서야 비로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면, 절망과 두려움에 패닉상태가 되어 이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도망치고... 울고... 부르짖고... 싸우지 말고 일단 도시에서 벗어나서 은신처를 찾아 숨어 지내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자를 찾으라.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인도할지 누가 알겠는가? 혹시나 침례를 받지못해 구원되지 못한 자가 1260일의 환란을 버틴다 할지라도 들림 받지는 못한다. 거기다 1260일 뒤 환란이 끝나고 45일간 이 지구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까지 버틸수 있을지..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끝까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인 할랄을 받지 않는다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기회를 줄지 누가 알겠는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말씀을 받아 들이고 침례를 받기 바란다.

8)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다.

단11:41-44 에 기록되어 있듯, 적그리스도는 여러 나라를 침략하므로 현명한 자라면 말씀대로 준비해서 피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 두는 바는, 당신이 진실로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디로 피하든 누구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하 벙커 깊숙히 숨어도 소용없고 어디에 숨어있든 천재지변이나 이슬람/공산세력에 의해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계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계6: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날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환란 전 휴거를 외치는 자들이 입발린 말을 나도 똑같이 해왔다.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자는 올라간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

TV 볼 것 다 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일에 치여 살면서도 마음만 죄금 하나님께 있으면 올라간다고..? 새벽예배를 포함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 들림 대상이라고? 전도도 하니 문제없다고...? 혀소리 그만하자. 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만들어낸 소설일 뿐이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 봤을 구절, 마태복음 25:1-12 말씀은 앞서 증명한대로 두 그룹중 어둠에 속한 자들에 게 하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13절)에 비유가 적용될 대상, 즉 그날과 그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이다:

마25: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25: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두 그룹으로 나뉨)

마25: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25: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25: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싸 (세상은 환란 중인데 어떻게 졸고 있겠나? 따라서 여기서 '존다'는 말은 비유가 말하고자하는 핵심이 아니다)

마25: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은 환란을 의미한다. 신랑이 오는 시점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구절은 명백히 '비유' 일 뿐이다)

마25: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싸

마25: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성령'이 아니다. 말 그대로 '쓸 것'을 나눠달라는 말이다)

마25: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참조-> 행8:20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찌어다)

마25:10 저희가 사려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25: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마25: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25: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살전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살전5: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비유"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 - 들림을 기다림 -을 두고 기다리고 있지만, 예비하지 않던 자는 버림을 받는다는 핵심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다. "너희는 모두 그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비유가 아니다. 오직 어둠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두루 찾아보면 위의 말씀의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논쟁을 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다. 2020년 오순절에 부어질 '성령'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희 쓸 것"은 그 환란 기간동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을 의미한다.

위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자세히 설명한 마태복음 24장 뒤에 나오며, 주께서 오시는 때는 분명히 '환란 후'라고 마24:29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위의 비유에서 열처녀는 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쓸 것을 충분히 준비해두지 않은 자는 환란 가운데 당연히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단지 부족하게 준비했다고 주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다 내치셨을까? 3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한 사람이 소비할 것을 월급쟁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 먹을 것 말고도 추위와 더위, 벌레, 화장실 문제, 깨끗한 물, 빛, 세탁, 옷, ... 제법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다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서스께서 모른다 말씀하신 것일까?

결코! 아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두 그룹 중 준비를 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환란 전에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부족하게 준비해서 모른다 하신 것이 아니다!! 또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그룹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다. 즉,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내침을 당한 것이다. 잊지 말자. 세박자가 맞아야 한다. "1: 부름을 받고", "2: 빼내심을 얻고", "3: 진실해야 한다"

진실로 구원받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환란을 예비 해야 한다. 환란 기간동안의 신부수업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그 사람에게 힘에 부치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이미 모든 성경을 통해 충분히 말씀해 두신 것과 같다 (출애굽기의 내용):

잠6: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의 '일'은 식량 모으는 것이다)

잠6:7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잠6:8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30:24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잠30:25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잠22: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당신은 피하라고 명령받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차 있다. 위의 구절을 단지 "개미"를 본받아 열심히 일하라는 말로만 듣고 본다면, 참으로 육적이며 어리석은 생각이다.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의 도움으로 저 말씀이 임박한 환란을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쓸 것을 예비하라는 말씀인줄 알 것이다! 그에 비해 당신은 침례가 아니더라도 물 흘뿌리는 카톨릭의 세례를 받거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겠지만, 당신의 믿음과 달리 성경은 분명히 딱잘라 말한다: "침례는 구원의 필수다!"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벧전3:21 물은 그리스도 지서스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Corresponding to that, baptism now saves you--

not the removal of dirt from the flesh, but an appeal to God for a good conscienc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도와줄 것이 확실하지만, 적어도 분명히 당신은 "준비하고, 대피하라"는 그 말씀을 실행해야 한다!!!!

당신의 사정에 따라 이것 저것 편한대로 바꾸거나 타협한다면, 아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수 도 있음을 알아 한다:

계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 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오직 부족하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만 나머지 지기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마10: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눅14: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시20:1 환난 날에 JEH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27:5 JEH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시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59: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시86:7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구원받는다. 십계명과 주의 절기를 지키며 환란을 대비해서 양식과 쓸 것을 마련한다

>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환란)이 가까왔다.

>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자는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환란전에 들림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빛의 아들은 주의 강림이 환란 후에 있을 것임을 알고 대피할 준비를 한다

>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환란의 시작인줄 알고 도망한다.

> 성도의 환란은 1260일이며 성도는 무리로 연단되고 정결케 되며 희게되어 간다.

>>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했던 것이 소진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을 키워간다.

> 환란의 끝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구름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9) 어디로? 어떻게? 누구와? 언제? 대피해야 하는가?

9.1) 언제?

지서스께서 "도망하라" 명한 때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날"이다.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해 작성한 다음 글들을 참조하자:

- "행동지침: 2018년 3월 1일, 부림절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강림에 앞서"

- 적그리스도 비교표: <http://blog.naver.com/tpad51j/220958975685>

적그리스도 바샤르 알 아사드 (Bashar Al Assad)

현 시리아 대통령



위의 게시글들을 읽었다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의 강림 - 강력한 미혹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당신이 앞서 설명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해도,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고 얼마 있지 않아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며 내려오는 이가 있다면 절대 손을 들어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에게 기도하지도 말라!!! 그가 곧 시리아 대통령으로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 Assad)이며 적그리스도다.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된다:

살후2: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JESUS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살후2:9 악한 자의 임함(coming)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살후2: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살후2:11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살후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적그리스도는 감람산에 내려오지 않고 사막(광야) 한 가운데, 즉 이슬람 성지가 있는 메카에 올 가능성이 크다:
마24: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9.2) 어디로?

적그리스도가 강림하면 이스라엘이 곧 군대에 둘러 싸이게 된다. 그때 당신은 지시받은 대로 "산", 즉 인적 드물고 이슬람과 공산주의자들이 찾기 힘든 곳으로 가야 한다:

사2:10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지서스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사26:20 내 백성아 갈찌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찌어다

그러나 당신이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디가든 별 소용없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당신은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구원된 상태여야 한다!:

시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59: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위치는 각 사람에게 개별로 알려주실 것이다. 물론 1)환란 전에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2)십계명을 따라 토요일에 안식하고 3)주의 절기를 지키며 4)회개하면서 5)환란을 대비한 사람에 한 할 것임 분명하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그 곳은 말씀을 실행한 자에게만 알려지는 장소다. 그곳은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혹 구원받지 못한 자나 준비하지 않은 자가 같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침례받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계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을 받는 축복받은 세대인 만큼, 그 자격을 갖추는 것도 격에 맞게 힘들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9.3) 누구와?

환란이 시작되면 "창세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그리고, "서로 잡고 잡아 넘기게 된다".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17: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마24: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24: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자, 즉 구원받지 못한자 (친구, 아내, 남편, 엄마, 아버지,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동생, 형, 누나, 언니, 이모, ...)는 누구든 상관없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며, 그 사람은 살아도 그는 이미 죽은 것이다. 말 그대로 산송장이 된다.

당신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1260일 뒤에 오실 지서스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과연 당신은 누구와 같이 대피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장소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자는, 환란이 시작되기전에 십계명에 명한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의 절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보낸 자, 경고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이다. 설령 준비하지 않은 자가 준비한 자와 같이 있다해도 그 쓸 것은 나누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마25: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마25: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하지만 믿음을 같이 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였으므로, 같이 거할 자는 반드시 말씀을 실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같이 거하는 자는 환란을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others to dwell together in unity!

잠17:17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

A friend loves at all times, And a brother is born for adversity.

마12: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12: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지서스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마24: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단11:34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궤홀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Now when they fall they will be granted a little help, and many will join with them in hypocrisy.

믿음을 가장하지만 위선으로 (*in hypocrisy*) 같이한다 (*will join with them*)는 것은, 겉으로 믿는 것 같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계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즉, 진실하다 (*faithful*)는 말은 "믿음에 바탕을 두고 말씀 실행 자체가 목적" 이란 말이다. 그저 지옥이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죽기 싫어서 마지못해 자기 사정에 말씀을 맞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힘들 수 밖에 없는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다:

계10: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성경)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행동하라) 네 배에는 쓰나(쉬운 게 아니다!)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마지막 때의 성도는 각자가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개별 테스트 이기 때문이다:

계22:10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22: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Let the one who does wrong, still do wrong; and the one who is filthy, still be filthy; and let the one who is righteous

계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같이 거할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은 "진실한자로서" 환란전에 구원받고 말씀대로 대비한 사람일 것이다.

9.4)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도망하는가 ?

잠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1:23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1:24 내가 부를찌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찌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잠1: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잠1: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1: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잠1: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

리니

잠1:29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지서스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잠1: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자세한 방법은 우선 이 블로그에 보이는 모든 게시글을 읽는 것이다.

…> 회개하고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 카톨릭의 냄새나는 거짓말인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구원된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다시 받아야 한다.

…>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역시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구원된 자여야 하며 하나님의 십계명과 모든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여야 한다. 세상에서 부여하고 인정하는 목사 증서는 화장실 휴지조각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 없다.

…>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여야 하며 물 속에 들어갈 때 하늘을 보고 누워서는 안된다!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엎드리는 자세여야 한다.

…>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내게 연락하라.

…> 침례 받은 자는 제 7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든 십계명은 다 지켜야 한다)

…>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 명한 주의 절기를 지킨다.

…> 1260일, 3년 반을 버티는 것을 목표로 준비 가능한 모든 것을 마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년 반을 버틸 물건과 물 등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신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힘을 다해 마련하고 짐을 꾸려두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환란 중에 채우실 것이다!

…> 말씀을 지키면서 어디로 가야할지 후보지를 탐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을 기도하며 찾으라.

…> 만일 당신이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나와 같이 거하고자 한다면 기쁘게 함께하길 원한다.

…> 혹시라도 환란 때에 이 글을 읽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부르짖는 길외엔 없다.

…> 이스라엘이 군대에 에워싸이면,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한다는 징표이므로 즉시 떠날 준비를 하라.

…> 대도시에 사는 자는 미리 움직이는 것을 권한다.

…> 그 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말씀대로 도망하라!

…> 1260일 동안,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회개하는 생활은 동일하다.

연관문서



행동지침: 3월 1일, 부림절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강림에 앞서

2018년 2월 , 미국이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를 제거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인 아사드는...

blog.naver.com

같은 표현, 다른 뜻: "영영히", "세세토록", "for ever"

진리탐구

2017/06/15 10:35

<http://blog.naver.com/tpad51j/221029661301>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구절중에 "영영히", "세세토록", "끝까지", "forever", "ever lasting", "eternal", "for ever and ever" 등의 단어로 번역된 것들은, 그 원단어의 뜻이 현대에서 쓰이는 뜻과 같지 않다.

다음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와 예루살렘의 영영히 불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렘17:4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H5769](#))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렘17:27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제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제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루살렘의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진 않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까지 불타고 있지 도 않다:

유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just as Sodom and Gomorrah and the cities around them, since they in the same way as these indulged in gross immorality,

누군가는 지옥에서 타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도 있겠지만, 위 구절은 "사람"이 아니라 "도시"가 불탄다고 한 점에 주 의해야한다.

즉 "영원한", "세세토록", "Eternal", "for ever"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오늘날의 한국어나 영어의 뜻과 달리 원래의 단어가 가진 의미는 "한동안(age)", "완료될 때 까지(until completeness)", "~가 될 때까지(to the fullness)", "짧지 않은 기간(not cut short)" 등.. 의미였다.

엡1: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Eph1:21 Far above all principality, and power, and might,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e heavenlies (*KJV*)

Eph1:21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and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age (*NASB*)

위 구절에서 "세상(world)"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G165 "aiōn"](#) 인데 "for ever, an unbroken age, perpetuity of time, eternity"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같은 단어가 KJV 성경에서 "ever"로 일흔 한번 해석되었고 "world"로 서른 여덟번, "evermore"로 네번, "age"로 두번, "eternal"로 두번, 그외 다른 각각 다섯번의 다른 해석으로 번역되었지만,

문맥을 통해 "이 세상(*in this world*)"은 "오는 세상(*which is to come*)"으로 대체될 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어 "*aiōn*" 단어가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뜻과 항상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약성경에서, 종이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예를 보자(출 21:1-6)

출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출21: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출21: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출21: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출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Then his master shall bring him unto the judges; he shall also bring him to the door, or unto the door post; and his n

위 구절에 대한 각 언어의 번역에서, 개역개정은 "종신토록"이라는 말로 그 종의 일생으로 한정해뒀으나, 영어 번역에서는 "for ever"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종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for ever*) 상전을 섬길 수 있겠는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상전을 섬긴다는 말인가? 같은 단어를 사용한 선지자 요나에 대한 구절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있었다고 얘기한다:

욘2: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I went down to the bottoms of the mountains; the earth with her bars was about me for ever:
yet hast thou brought up my life from corruption, O LORD my God.

비록 요나가 삼일 밤낮 밖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뿐이지만 영어 성경의 표현에는 "for ever"라고 번역했다는 점을 주의하자. 요나 선지자가 말 그대로 영원토록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는가? 개역개정에서 "오래도록"이라 번역한 것이 오히려 그 단어의 원래 뜻이 "그렇게 오래지 않은 기간"임을 뜻하는 것을 보여준다.

문맥에서 그 단어가 현대의 "영원한"의 의미를 나타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리스어 어휘 사전 ([Liddell and Scott's Greek Lexicon](#))에서 설명하는 "*aiōn*" 단어 설명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A space or period of time, especially a lifetime, life. ... Also one's time of life, age: the age of man. ... 2. A long space of time, eternity. ... 3. Later, a space of time clearly defined and marked out, an era, age ... this present life, this world."

- 어떤 이의 생애와 같은 잠깐동안 혹은 일정 시간을 말하며,
- 또는 충분히 긴 시간, 세대, 세기 ..
- 생애, 영원을 의미한다.

마24:3 JESUS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And as he sat up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unto him privately, saying, Tell us, when shall these things "aiōn") of the world?

마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Then shall he say also unto them on the left hand, Depart from me, ye cursed, into everlasting (G166 "aiōns") fire, pr

골1: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Even the mystery which hath been hid from ages (G165

"aiōn") and from generations, but now is made manifest to his saints :

즉, 그리스어 "aiōn", "aiōns" 는 현대 한국어의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영히" 와 같은 의미로만 쓰인 것이 아니며 "한동안(age)", "완료될 때 까지(until completeness)", "~가 될 때까지(to the fullness)", "짧지 않은 기간(not cut short)"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번째 부활

진리탐구

2017/06/15 10:36

<http://blog.naver.com/tapad51j/221029661615>

첫번째 부활과 "두번째 부활" 이란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자던 영혼이 깨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 깨어나는 것을 말한다. 고전15:52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으나 영은 자는 상태에 있는데, 휴거가 있을 속죄일에 첫번째 부활 ^{살전4:16, 계20:5}이 있고 1,000년이 지난후 두번째 부활 ^{계20:5}이 있다.

고전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전15: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살전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죽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KJV: *a little season*, NASB/ESV: *a short time*, ASV: *a little time*) 놓이리라

계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지서스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계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 첫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1000년 뒤에 모두 부활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엘리야가 살렸던 아이나 ^{왕상17:22}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요11:43-44}, 지서스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마27:52}에서 보듯 몇 번의 부활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다. 그에 반해 앞으로 있을 첫째 부활이라 명한 사건이 이전의 부활과 다른 점은 첫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시 죽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점이다 ^{고전15:52-53}. 두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경우, 지서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두번째 사망 ^{계21:8} 즉 영혼이 소멸된다. 사람의 영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마10:28} (사람의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짓말이다)

문자그대로 "두번째 부활"이란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 두번째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첫째 사망"이란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 않지만 "둘째 사망" ^{계21:14}이란 표현을 통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계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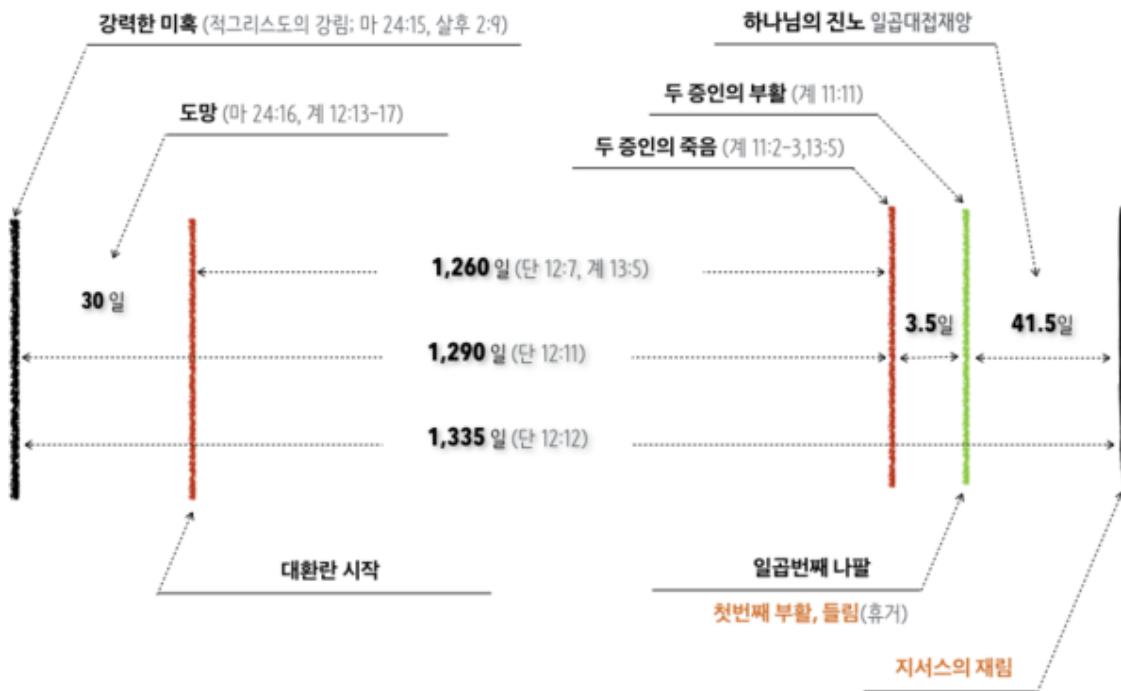
히브리서 구절에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히11: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¹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이들은 더 좋은 부활²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번째 부활의 시점

지서스 Jesus의 재림후 진행될 일 중에 "두번째 부활"의 시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시기등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귀가 놓이는 기간은 숨겨진 것과 같은 상태였다. 그러나 때가 극히 가까움에 따라 모든 자세한 내용을 그의 선지자를 통해 알리고 계신다.

지서스께서는 환란과 관계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몇일간이라 명시해 두셨듯 1000년 이후의 시간표를 숨겨두셨을리가 없다.



1335일 개요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첫번째 부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1,000년후 모두 부활한다

계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 후에 부활한다는 뜻!))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해를 돋기 위해 그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 이란 말을 풀어서 예를 들어보겠다:

- 사는동안 어떤 종류의 이유로 인해 지서스Jesus의 이름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 지서스의 이름은 들었으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 '교회'는 다녔으나 회개+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
-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 ... 등 모든 종류의 이교도
- 어려서 죽거나 낙태로 빛을 보지 못한채 죽은 아이
- 신체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던 사람
- 섬에 살면서 한번도 세상 문물을 받아 들이지 못한 사람
-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 가룟 유다처럼 자살한 사람
- 임종 직전에 "고백"만 하고 침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
- 나라를 구했으나 복음을 알지 못한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들
- 나라를 팔아먹고 살아생전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
- 노아의 홍수 때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 죽은 자들
- 유태인 600백만명 이상을 죽인 히틀러와 나찌들
- 소돔과 고모라는 명함도 못내미는 음란 야동 제작/유포자들
- 지서스께서 태어나기 전의 모든 자, 구약시대 사람들과 십자가 상에서 죽은 강도 세명
- 등.. 말 그대로 첫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

맘속으로 거부감이 들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두번째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부활 즉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지서스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전, 오른쪽에 있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말씀 하셨다. 이 구절 때문에 당신은 아마도 지서스께서 돌아가시던 날, 그 당일 강도는 낙원에 갔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엉터리 교육이고 거짓 믿음이다. 지서스께서는 돌아가신 후 삼일 후에야 비로소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요20:17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나를 불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서스께서 돌아가시던 당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도가 "그 당일" 주와 같이 낙원에 갔다고 의심없이 믿는가?

이런 엉터리를 가르치고 믿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오늘"이라 번역된 단어의 위치와 반드시 하나 이상의 구절을 통해 검증하라는 말씀^{살전5:21}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약성경 그리스어 원본에는 콤마(,)가 없다. 즉 '오늘' 이란 단어의 위치가 잘못 된 것이다:

눅23:43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And He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보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는가?" 게시글에서 설명했듯이 몸은 썩고 영혼은 음부에서 "잔다". 그 강도 역시 자는 상태가 되지만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자다. 따라서 주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계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만약 두번째 부활 이후에 곧바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강도는 구원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기회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서스께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희망고문을 하실리가 없지않는가? 두번째 부활에서 깨어난 그 강도가 지서스와 같이 낙원에 있으려면 반드시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요14:6 따라서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1,000년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시점 사이 일 수밖에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심판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이다:

요14:6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낙원)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제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1000년 이후와 심판사이에 100년 동안의 삶이 있다는 증거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현재와 분명히 다르다. 해와 달을 통한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키던 절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계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21: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므로 소위 '천국'은 우주 어딘가의 허공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이제껏 말로만 알던 '천국'의 실체다: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래 구절을 잘 읽어보면 언뜻 혼동스러운 점이 보인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픔도 없이 영원을 산다는데 "100세 못 되서 죽는 자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65: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사65: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65: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1,000년이 차서 두번째 부활을 통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의 사람이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을 상상해보라. 다시 산다해도 미혹하는게 허락된 마귀에게 속아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100년 이내에 저주를 받아 죽는다. 그 100년이 계시록에서 "잠간"이라고 기록한 기간이다:

계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KJV: *a little season*, NASB/ESV: *a short time*, ASV: *a little time*) 놓이리라

저주받는 이유는 회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과 흉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죽었던 사람이 두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산다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기대할 수는 없다. 부활한 히틀러가 지서스를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당신의 가족이, 혹은 당신이 두번째 삶을 얻었다 해서 지서스를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도 역시 지금처럼 마귀의 속임이 있을 것이고 누구든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마귀 둘중 한편을 택해야 한다.

두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삶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에스겔 37장 구절들을 보라:

겔37:1 지서스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겔37: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겔37: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지서스여 주께서 아시나이

다

겔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지서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겔37:5 주 지서스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37: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지서스 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37: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오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 더라

겔37: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겔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JEH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엄청나게 많은 수)더라

또한 부활한 자들은 이전 삶에서 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마22: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두번째 부활이후 바로 심판 받지 않는다면, "왜 심판전에 부활하는가?" 라고 생각들 것이다.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구원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겔18:23 나 주 지서스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단지 어릴 때 죽었다고 해서, 낙태 됐다고 해서, 신체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외에 방법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그런 이유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모든 이^{먼저 된 자}가 부활하여 지서스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요14:6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20: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주께서 세상에 오신 후 살았던 모든 사람)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역시 두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오늘날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용서되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같은 표현, 다른 뜻: '영영히', '세세토록', 'for ever'" 게시글에서 설명하듯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멸망^{destroy}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짐승의 표 자체 때문이 아니다. 위의 두 게시글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기억하는 자들이 환란에 빠졌을 때 느낄 그 참혹한 절망을 상상해보라...

자신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는 구원얻지 못할 것이라 믿고 절망에 빠져 더욱 악한 행동을 하게되지 않겠는가? 온몸을 주체할 수 없는 절망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다! 어느 때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신다! 믿고 돌아서야 한다!

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죄를 회개하라!

전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두번째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말로 저지른 죄와 마음으로 반항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회개하자. 나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왜이리 세상이 불공평한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그리 이해되지 않는게 많고, 가혹한 분이가 하며 불평 불만에 가득찼었다.

<십계명을 어긴 죄: '예수', '여호와'를 부르며 우상숭배 한 것,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모든 종류의 이미지로 우상을 숭배한 것, 간음/음란, 도둑질, 믿음 없는 것,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얻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크리스마스/부활절/삼위일체라는 앗시리아 우상의 교리를 믿은 것> ..등, 기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깊숙히 묵은 죄를 찾아내어 낫낫히 자백하고 행위를 고치자.

원본글 참고

이 게시글은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hell.html>"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나 원본 문서의 내용을 모두 번역한 것이 아니며, 이해를 돋기위해 개인적인 설명이 추가되었고 구성역시 재 배열된 것이다.

용서되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진리탐구

2017/06/15 10:56

<http://blog.naver.com/tpad51j/221029679727>

이 글은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unpardonable.html>"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나 부분적으로 번역된 내용을 이해를 돋기위해 추가된 내용과 합친 것으로써, 원본 문서의 핵심 내용은 같으나 다른 문서임을 밝혀둡니다.

성령을 거스려 범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거스려 범하는 죄의 정의는 진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를 보고도 믿기를 거부하고 악한 말을 하며 대적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예를 보면, 지서스 Jesus께서 성령 Holy Spirit, 곧 그분의 거룩한 숨 Holy Breath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나 그들은 그 기적을 직접 보고도 사단의 역사라고 치부하며 믿기를 거부했다. 지서스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이심을 믿지도 않았으며, 그분의 힘의 근원도 부정하면서 오히려 마귀들려 사단의 힘을 빌어 일한다 대적하였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 조상을 통해 전해 내려온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지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도하며 지서스의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서스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악함에 이른 것이다.

마12:22에서 마12:31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거스려 범죄하는 죄가 무엇인지지 주의깊게 읽어보기전,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세세토록"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29661301>
마12: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지서스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12: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마12: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마12:25 지서스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마12:26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마12: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마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12: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12: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혜치는 자니라

마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1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막3: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막3:23 JESUS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막3: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막3: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막3: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막3: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막3: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막3: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경이 작성된 때의 "영원히"라는 말은 오늘날의 "영원히"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못하면 성령훼방죄 역시 사하심을 얻는다는 이 글의 내용에 저항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글을 읽으며 스스로 검증해보길 바란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결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이신 지서스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는 것을 거부했기에 그들의 마음은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라 그들이 만든 우상일 뿐이다:

요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진짜 이름" 게시물 참조 <http://blog.naver.com/tpad51j/220941332058>)

그러나, 바리새인 중의 한명 이었던 사도 바울의 회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빌3: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요

빌3: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흄이 없는 자라

그가 사울이었을 때 지은 죄는 분명히 성령을 거스린 죄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서스의 모든 역사를 부인하며 그의 제자를 죽이기 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으나, 놀랍게도 그런 바울이라 할지자도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직접 지서스를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반면 사울은 지서스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한 후 회개를 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라!

요6:35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6: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서스께서는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실된 회개를 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그런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갈1: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멀하고

갈1: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갈1: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갈1: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고전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서스가 승천하신 후 바울은 그분을 보았다)

고전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얻는다!)

오늘날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경우는 진리를 듣고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뒤, 그분의 선한 일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진리를 거짓이라 말하며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http://blog.naver.com/tpad51j/220933105104>)

히6: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회개+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 성령을 받았다는 뜻)

히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요일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

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마1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지서스Jesus께서 현재 이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역사하시며 오늘날에도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 곧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분명코 사하심을 얻는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지서스께서는 언제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요6:37}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주시신다^{요일1:9:}

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참된 기독교인, 곧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십계명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안에 계신 성령이 스스로를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십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잊게될 것이다.

마12: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강조하자면, 성령을 거스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는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진정 회개하여 말씀을 따른다면 용서함 받고 구원얻을 수 있다:

겔33:14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겔33:15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령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경우"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내려온 것을 눈으로 봤으나 믿기를 거부했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지서스를 증오하며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것이 곧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받기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구원의 길은 막힌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결코 회개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는 오직 한가지 뿐이며 그것은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는 것일지라도,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멀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계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

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16: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다, 비록 짐승의 표를 받았을지라도 회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멋대로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분명히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지서스께서 진실된 회개 여부를 모를리가 있겠는가?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아 구원얻지 못한채 환란에 빠졌더라도, 한국교회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행2: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행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환란 때 일지라도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침례받아 구원받기를 거부한 것과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의 절기를 힘써 지키지 않은 모든 죄를 포함한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할로윈등 마귀의 절기를 지킨 것을 회개하고 만들어진 신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며 삼위일체를 믿어 우상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슬람이 전 세계를 호령하며 샤리아 법아래 짐승의 표인 할랄표식을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 당하는 상황아래서 당신의 참된 회개는 필연 목숨을 담보로 할 것이다.

환란속 다섯 종류의 기독교인

진리탐구

2017/06/23 23:45

<http://blog.naver.com/tpad51j/221036271773>

첫번째 그룹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구원받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가진 지서스(Jesus)의 증거 때문에 환란 가운데 죽는 자들

계 6:9-11, 12:7-17, 13:7-10, 14:9-13, 20:1-6, 단 7:21, 단11:29~단12:1

계6: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6: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계6: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12: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12: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계12: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계12: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JESUS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 하리라

계13: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13:10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라

계14: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14: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JESUS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JESUS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단7:21 내가 본즉 이 뿐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단11:29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단11:30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단11: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단11: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단11: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단11:34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단11: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단11:36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협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단11: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토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11:38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단11:39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단11: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단11: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단11:42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단11:43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단11:44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단11: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단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두번째 그룹

구원받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환란의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나 끝까지 살아남는 성도.

마 10:16-42, 살전 4:13-18, 살전 1:1-8, 벤전 1:3-9, 계 3:14-22, 계 7:1-16

살전4: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살전4:14 우리가 JESUS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JESUS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전4: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4: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벧전1:3 우리 주 JESUS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JESUS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1: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벧전1: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벧전1: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JESUS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벧전1:8 JESUS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벧전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계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계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3: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3: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번째 그룹

구원받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같은 피난처에서 지서스(*Jesus*)의 보호를 받은 성도들

계12:13-16, 출 19:4, 사 26:20-21, 농 21:34-36

성경에서는 두가지의 "피하는 길"을 알려주는데, 첫번째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피하는 것이며 두번째가 환란전에 죽는 것이다.

눅21: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57:1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사57:2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네번째 그룹

구원 받았으나 약하고 미성숙하여 죄와 타협한 자들, 자신의 회개되지 않은 죄 때문에 환란에 빠진 자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이전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실행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겔 9:1-11, 벤전 4:12-19, 히 10:26

겔9: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겔9:2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멱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겔9: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JEH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의 멱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겔9:4 JEH께서 이르시되 너는 제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겔9:5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겔9: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겔9:7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겔9:8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JEH여 제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겔9: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JEH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JEH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겔9: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겔9:11 보라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벧전4: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벧전4: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4: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4: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벧전4: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벧전4: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벧전4: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벧전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히10: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섯번째 그룹

스스로 구원받았다 믿으나, 실상은 거짓 크리스챤. 마 7:21-27, 마 15:6-9, 계 2:9, 계 3:9

- 지서스(Jesus)의 이름대신 나라마다 편한대로 이름을 바꿔부르고 "여호와", "예수", "예수아", "야훼" .. 등의 이름이 마귀에 속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 (행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 "믿음으로만 구원얻는다" 라는 거짓말을 믿었던 자들. 믿음과 침례로 구원얻는다 (막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 유대교, 하브리근본 주의를 따른 자들. (유대교는 하나님이신 지서스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종교로써 이슬람과 그 뿐 리는 같이 한다. 롬 2:28-29, 롬 9:6-15)

자신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환란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 십계명과 주의 절기를 지키며, 죽기까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만이 영 혼을 구할 방법이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환란기간 동안 밤낮 쉬지 못하며, 전갈에게 쏘이는 고통을 느끼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피부병과 종기로 고통 당하지만 "[참된 회개로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자포자기 하지 말고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도?

진리탐구

2017/06/25 04:10

<http://blog.naver.com/tPad51j/221036910117>

이 글에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핵심 내용은 Youtube 비디오 “[How Jesus Prayed to Father Yet is The Fathe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글의 후반부는 개인적인 설명을 더한 것일뿐 원본 비디오에는 없는 내용이다.

삼위일체는 '았시리아 (*Assyrian*)' 교리일뿐, 하나님은 한분이시다

성경에서 지서스 (*Jesus*)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것을 여러번 볼 수 있는데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혼동이 온 적이 있을 것이다.

단어의 기원이나 역사, 사건등과 같은 증거를 통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보다 성경 구절만으로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아래 구절들을 찬찬히 읽고, 밑의 그림과 함께 곁들인 설명을 보자. 단번에 이해갈 것이다:

요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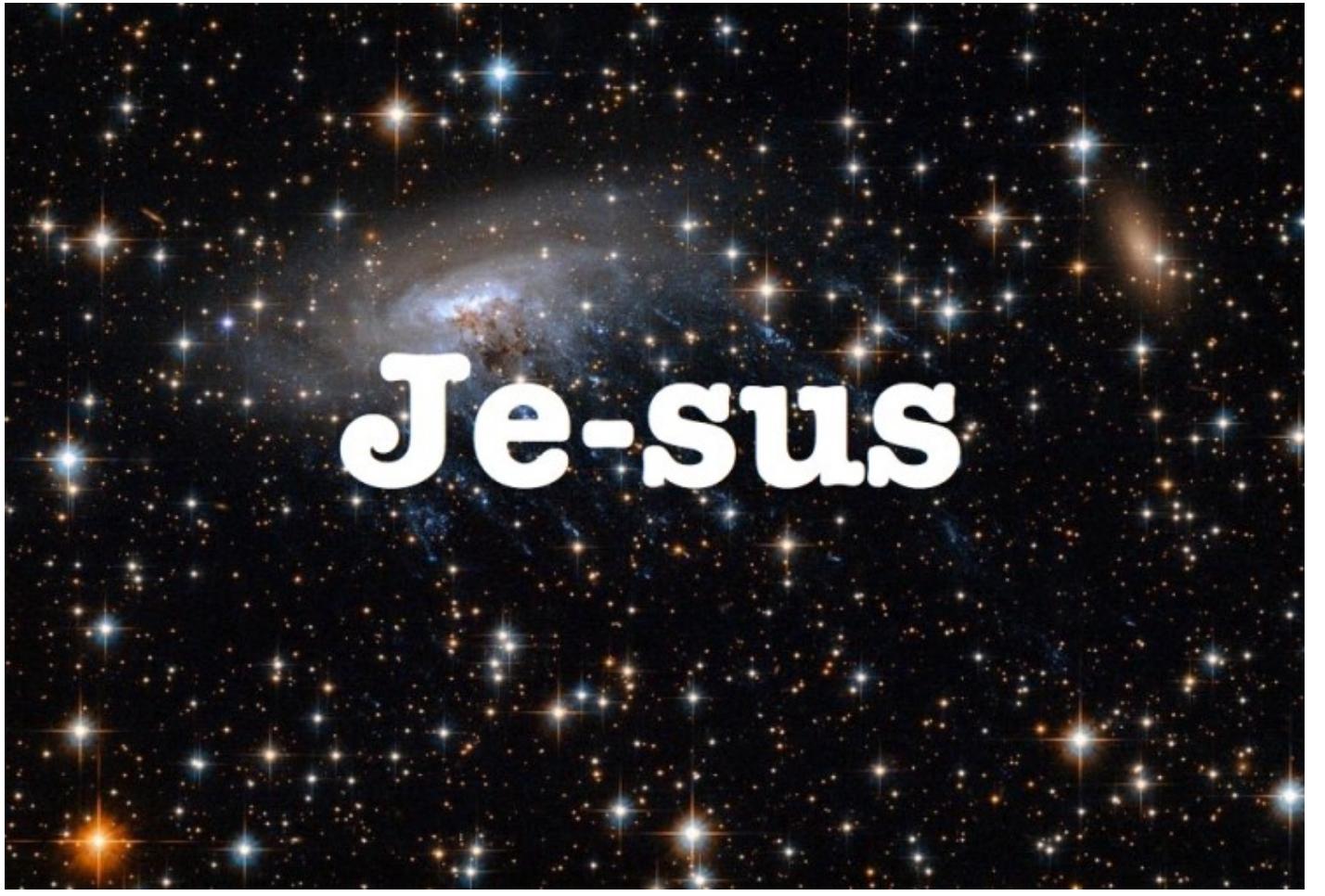
요8:2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JESUS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골3:11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시므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우주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아래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지서스 (*Jesus*)이며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임에 주의하자:

요10: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is able to snatch them out of the Father's hand



Je-sus

모든 것 보다 크신 하나님, Jesus

하나님의 일부가 사람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셨다.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요16: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and have come into the world; I am leaving the world again and going to the Father.”

Je-sus

하나님의 일 부분이 사람으로 오심 (요1:14)

사람의 몸은 크신 하나님을 모두 담을 수 없다. 오직 일 부분이 오신 것이다 (아들이란 개념).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도 여전히 하나님 이시며 아버지 이시다.

요14: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You heard that I said to you, 'I go away, and I will come 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have rejoiced because I

모든 것을 아버지께 복종케 하신 뒤,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것이다:

고전15:28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Je-sus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케 한 뒤, 아버지와 하나가 되심
고전 15:28

하나님은 한분 지서스(Jesus) 뿐이시다.

카톨릭이 앗시리아의 교리인 삼위일체를 성경 번역본에 침투시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변개 시켜버린 것이다. (0/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게시물에서 설명할 예정)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다! 그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모른다는 말씀이며, 심지어 KJV 번역본에는 '아들'이란 부분이 없다)

만일 "세 명의 이름"으로 물 몇방울 퉁구는 세례가 구원얻는 방법이라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된다: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행2: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행8:13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행8: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JESUS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For He had not yet fallen upon any of them; they had simply been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행8: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행8: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And he ordered the chariot to stop; and they both went down into the water, Philip as well as the eunuch, and he b

행9: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And immediately there fell from his eyes something like scales, and he regained his sight, and he got up and was bap

행10: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줄을 금하리요 하고

행10:48 명하여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행16:15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행16: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행18:8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행19:5 저희가 듣고 주 JESUS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행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어리석은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모든 자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 주의하자. 구원은 오직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얻을 수 있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33105104>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제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오직 한분께 기도드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끝맺어야 한다.

요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16: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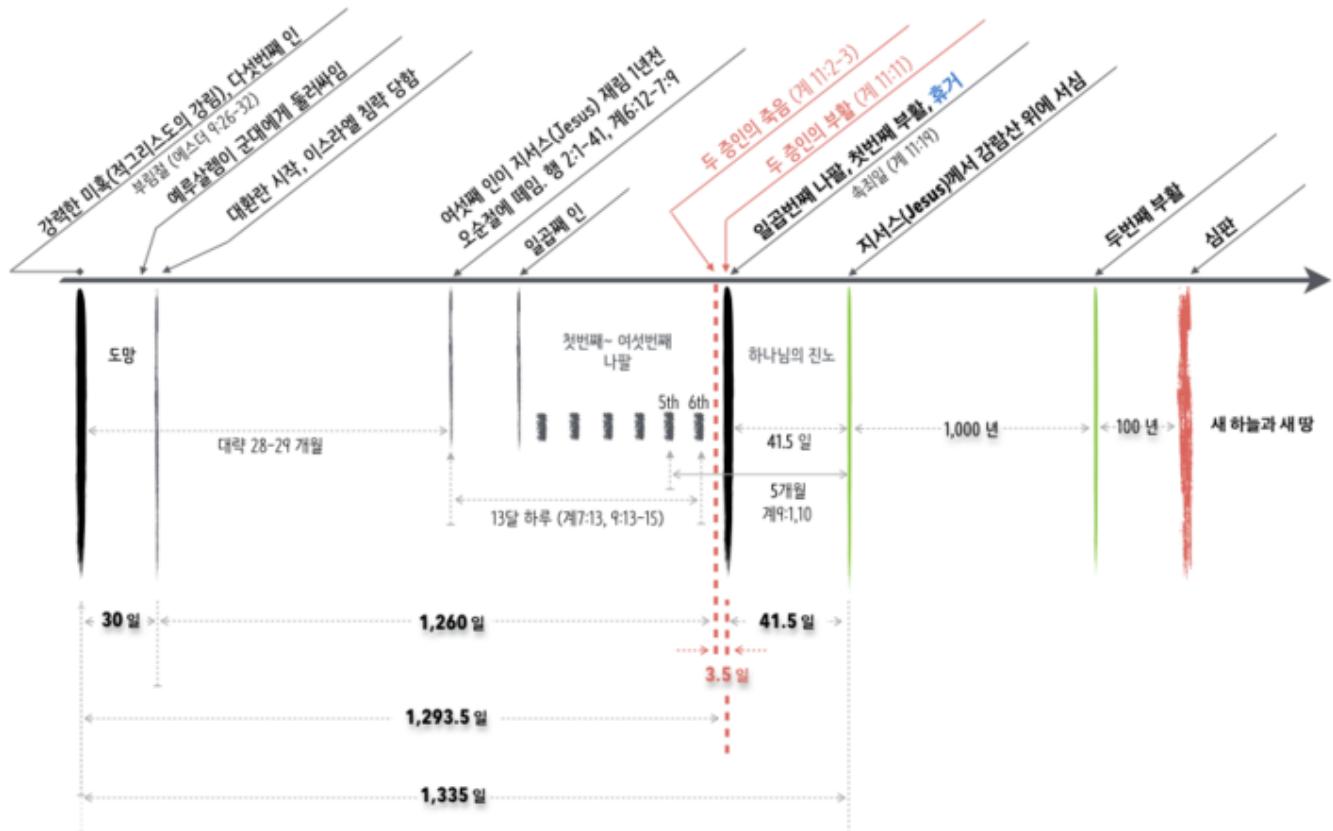
요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진리탐구

2017/07/05 09:14

<http://blog.naver.com/tPad51j/221044316575>



Timeline of The Day of The LORD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주의 날 시간표

참조:

-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7thseal.html>
-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DateJesusReturn.html>

첫째 인

힌 말,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정복하는 영, 거짓 평화, 적그리스도의 영, 1901년 노벨상

마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the Christ,' and will mislead many.

마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will show great signs and wonders, so as to mislead, if possible, even

계6: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Then I saw when the Lamb broke one of the seven seals, and I heard 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as with a

계6: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I looked, and behold, a white horse, and he who sat on it had a bow; and a crown was given to him, and he went o

둘째 인

붉은 말, 1914-1918년 사이의 일들, 1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와 1917년의 소련 혁명, 현대 러시아와 중국,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You will be hearing of wars and rumors of wars. See that you are not frightened, for those things must take place, b

계6: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When He broke the second seal, I heard the second living creature saying, "Come."

계6: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And another, a red horse, went out; and to him who sat on it, it was granted to take peace from the earth, and that

세째 인

검은 말, 히틀러, 나찌와 기근, 대공항, [황진 지대](#)(Dust Bowl; 1930년대 흙모래폭풍이 습격한 미국 중서부), 제2차 세계 대전, 1929-1945년 사이의 일들, 여전히 나치즘.

마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장이 있으리니

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in various places there will be famines and ea

계6: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When He broke the third seal, I heard the third living creature saying, "Come." I looked, and behold, a black horse; an

계6: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And I heard something like a voice in the center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A quart of wheat for a denarius,

네째 인

창백한(녹색) 말; 이슬람, 전염병. 1978-1980년 사이의 이슬람 혁명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란 혁명, 현재도 진행중이며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슬람 혁명, 아랍의 봄, 월스트리트 점령 사건. 첫째 인부터 네번째 인까지 전쟁과 혁명, 파업, 시위, 기근, 전염병, 짐승을 통한 죽음을 가져옴.

마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the Christ,’ and will mislead many.

마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You will be hearing of wars and rumors of wars. See that you are not frightened, for those things must take place, b

마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in various places there will be famines and ea

마24: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But all these things are merely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계6: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When the Lamb broke the fourth seal, I heard the voice of the fourth living creature saying, “Come.”

계6: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

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I looked, and behold, an ashen horse; and he who sat on it had the name Death; and Hades was following with him.

대환란이 시작되기 30일 전, 일부 진실한 크리스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로 도망함 (요한계시록12장):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But the two wings of the great eagle were given to the woman, so that she could fly into the wilderness to her place

다섯째 인

대환란, 박해, 크리스챤의 순교, 2024년 이전에 있을 제3차 세계대전 (Gog Magog War), 두 증인(1260일 동안 예언)

계6: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When the Lamb broke the fifth seal, I saw underneath the altar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slain because of the

계6: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and they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How long, O Lord, holy and true, will You refrain from judging and avenging

계6: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And there was given to each of them a white robe; and they were told that they should rest for a little while longer,

마24: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인리라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JESUS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So the dragon was enraged with the woman, and went off to make war with the rest of her children, who keep the

여섯째 인

대환란 중반에 하늘에서 징후가 보이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짐.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But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 계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스라엘과 므낫세 지파인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여자와 동침하지 않은 남자 144,000명이 여섯번 째 와 일곱번 째 인이 떼어지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을 받음. 이들이 인을 받는 것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얻기 위해서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믿음과 침례로 구원얻음)을 세계 각국에 전파할 것이며, 그들의 전도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

- 계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5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일곱번째 인

환란의 끝에 가까워갈 때 일곱 나팔 재앙 시작:

계8: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 ◉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 불, 땅/수목/각종 푸른 풀의 삼분의 일이 불에 타 버림
- ◉ 둘째 나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유성/화산/미사일?)이 바다에 던져짐. 바다 1/3=피, 어류 1/3 폐사, 배 1/3 파괴
- ◉ 셋째 나팔: 횃불 같이 타는 큰 별(Wormwood), 강/물근원의 1/3이 쓰게됨. 이로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됨.
- ◉ 네째 나팔: 해/달/별의 1/3이 어두워짐. (출10:21-23에 기록된 이집트 재앙중 아홉번째 재앙과 비슷. 어둠이 3일동안 땅을 덮었음)

◎ 다섯째 나팔: 일곱번째 인 = 첫번째 화. 무저갱이 열려 올라오는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짐. 연기로부터 황충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를 다섯달 동안 괴롭힘. 인맞지 않은 자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다. 만약 누군가 이 시기에 살아 남아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

계 9:11 그들에게 있는 왕 = 아불루온(*Apollyon*; 파괴자; *destroyer*)

◎ 여섯째 나팔: = 두번째 화. 거대한 군대가 사람 1/3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

◎ 일곱째 나팔: 계시록 16장. 마지막 나팔 (살전 4:16, 고전15:52, 계 11, 마 24)

1260일 동안의 대환란이 마치면 삼일 반 뒤에 첫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The Wrath of GOD*)이 시작된다. 두증인을 포함하여 첫번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마지막 41.5일](#) 동안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천국에 들어간다(계 19장). 땅에서는 세번째 화인 하나님의 일곱대접 재앙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부어진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1335일에 이르기 41.5일 전에 부어진다.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 첫째 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 둘째 대접: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 셋째 대접: 강과 물의 근원이 모두 피가 된다.

◎ 네째 대접: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워 죽인다.

◎ 다섯째 대접: 짐승 왕국이 어두워지고 극심한 고통으로 혀를 깨물고 종기때문에 하나님을 욕한다.

◎ 여섯째 대접: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므깃도 골짜기로 군대를 모은다.

◎ 일곱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지서스와 그의 성도가 돌아온다. (사람의 몸을 입은 육적인 군대가 영이신 지서스와 그의 성도를 대적하는 이유는,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에 따라 재림하는 지서스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마지막 사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거대한 지진, 음성,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모든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이동하며 폭풍과 해일이 있다.

지서스께서 예루살렘 감란산에 서시며(스가랴14장)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사단이 잡혀 일천년 동안 무저갱에 갖힌다.

지서스(*Jesus*) 재림후

에스겔 39장: 7달 동안 죽은 자들을 땅에 묻고 7년동안 무기를 태움.

스가랴 14장: 속죄절을 지키기 거부하는 이집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비가 내리지 않음.

천년 후

요한계시록 20장, 이사야 65:20 두번째 부활: 첫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가 물리적인 몸을 다시 입고 100년을 살게 됨.

(게시물 "[두번째 부활](http://blog.naver.com/tpad51j/221029661615)" 참조: <http://blog.naver.com/tpad51j/221029661615>)

사단이 감옥에서 풀려나 잠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게됨에 따라,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다시 속을지를 결정하게 됨. 어려서 죽은 아이와 구약 시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등..., 모든 사람이 지서스(Jesus)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다](#))

두번째 부활과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는가](#)"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얼마 뒤 (*a short time*)

계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and he threw him into the abyss, and shut it and sealed it over him, so that he would not deceive the nations any longer.

두번째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들이 전쟁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불로 태워질 뿐이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의 몸과 영을 불로 태워버려 그들은 다시 부활이 없고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지서스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이전 땅과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함께 거하신다.

계 20, 롬 8:14-23.

아시아, 한국, 괌,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미국에 대한 마지막 때 예언

진리탐구

2017/07/18 18:29

<http://blog.naver.com/tpad51j/221054294900>

원문: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AsiaKoreaWar.html>

남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러시아와 중국, 미국에 대한 마지막 때 예언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제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곡 (*Gog*)과 마곡 (*Magog*)의 전쟁에 남북한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한 남북한 전쟁이 주한미군에 주는 영향은 무엇이며 제 3차 세계대전이 대만, 필리핀,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글은 앞선 모든 질문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고자 한다. 부디 글을 읽기 전에 기도하길 바라며, 다 읽기 전에 판단치 말기를 부탁한다.

곡과 마곡의 전쟁, 제 3차 세계대전

에스겔 38:1-23 한글킹제임스/KJV

겔38:1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겔38:2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모스코바)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네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 하여

겔38:3 말하라. 주 하나님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겔38:4 내가 너에게 돌이켜 네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어 너를 끌어내리니 네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겔38:5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겔38:6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겔38:7 너는 예비하고 너와 네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겔38:8 ○ 여러 날 후에 네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네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이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겔38:9 네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겔38:10 주 하나님의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네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겔38:11 네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고장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멕시코 국경에 벽을 완성하기 전)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겔38:12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네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겔38:13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네게 말하기를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네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겔38:14 ○ 그러므로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겔38:15 네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네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겔38:16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흐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냥으로 인도하리니 오 곡아, 이방의 눈 앞에서 내가 네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겔38:17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겔38:18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 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겔38:19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 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겔38:20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겔38:21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다.

겔38:22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겔38:23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케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위 구절에 보이는 "곡 Gog"과 "마곡 Magog" 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내게 보여주신 지서스(Jesus)의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그들이 "러시아" 와 "중국" 인 것이 확신한다. "곡"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Putin)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국가를 의미한다. "마곡"은 중국을 나타내지만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 두나라의 군사적 통치자다. 그러나 푸틴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5절의 페르시아(Persia)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듯 다른 이견없이 "이란"이다. 곡과 마곡의 동맹국가에 대해서 역시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슬람국가와 공산국가임에는 틀림없다. 이란과 북한은 러시아 중국의 이슬람/공산 동맹국가로서 둘다 이스라엘을 끽죽여 안달한다. 이 마지막 때 전쟁은 전세계에 임할 "대환란" 가운데 있을 것이고, 2차대전때의 유태인 대학살은 비교도 안될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마24:21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12:1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 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 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And at that time shall Michael stand up, the great prince which standeth for the children of thy people :

and there shall be a time of trouble, such as never was since there was a nation even to that same time : and at that time thy people shall be delivered, every one that shall be found written in the book. (여기서 "구제 deliverance" 는 대환란 끝에 있을 첫번째 부활을 말한다. 결코 대환란 전을 가리키지 않는다. 참조: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rapture.html>)

이슬람/공산 국가가 중동의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만 침략할 것이라 생각지 말라. 유다지파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연방국가, 팜, 호수, 뉴질랜드 또한 침략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다지파 뿐만 아니라 열두 지파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미국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며 영연방국가는 레위와 벤자민 지파외에도 에브라임 지파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미국, 영연방국가, 캐나다, 남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열 지파"라고 불리는 증거는 셀수없이 많다([링크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 38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것을 이해하고 나면, 곡과 마곡 전쟁은 중동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이 되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곡과 마곡 전쟁은 시리아에서 시작하고 이스라엘로 번질 것이며 제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기름에 불붙듯 다른 태평양 국가들로 순식간에 번질 것이다.

우리가 할일은 뉴스를 통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팜에 전쟁이 다가옴을 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다. 그 전쟁은 남한과 필리핀, 호주, 일본, 대만을 포함하며 본격적인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 다니엘 11장에서 전쟁 시작과 장소를 설명해 두고 있다.

단11:40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앗시리아인인 적그리스도)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바람처럼 그를(앗시리아인인 적그리스도)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단11:41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단11:42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단11:43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 재물과 은 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단11:44 그러나 동쪽과 북쪽(아마도 북한과 이라크)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전멸시키다, 죽이다, 파괴하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11:21~35가 고대 시리아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Antiochus Epiphanes*" 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36 절에서 다니엘서 끝부분까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게다가 성경은 35절의 시리아 왕과 나머지 구절의 적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구분도 하지 않는다. 현직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는 마지막 때 "파멸의 아들"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 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으며 소속 군사들은 아사드는 알라보다 위대하다는 고백을 강요받는다. 다니엘 12:40-44 에서는 마지막 때 시리아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사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일 것이라 말하는데, 대부분의 듣고 믿는 바와는 달리 적그

리스도는 결코 평화 조약으로 권세를 얻지 않는다. "평화 조약" 이란 단어조차 성경엔 언급된 적이 없다. 다니엘 11장의 사건은 대환란의 시작에 일어나므로 전쟁은 시리아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급속히 전세계로 번질 것이다.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가 중동의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전쟁은 태평양 국가로 급속히 퍼질 것임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북한과 중국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시리아, 북한이 공공연히 밝힌 대로 미국과 괌, 미국과의 동맹국가 모두 침략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이 포함된 태평양 전쟁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그 전쟁으로 인해 얼마만에 태평양 국가로 번질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 이것은 분명코 말할 수 있다: 남한과 호주, 괌, 북한, 대만, 필리핀, 일본은 유대(이스라엘)가 침략 당하자 마자 전쟁에 휩싸일 것이다. 또한 미국 본토가 침략당할 때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태평양의 미국 동맹국가도 같은 날 침략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발생 순서:

- i. 전함과 병력이 시리아로 움직이는 것을 본다. 단11:40
- ii. 미국이 아사드를 목표로 삼고 직접 공격한다. 단11:40, 사7:8, 사17:1, 계13:3
(실질적인 전쟁은 이 시점부터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국가에 대한 침략은 시작되지 않는다)
- iii.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미혹이 보인다. 멸망의 가증한 아사드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보인다.
살후2:1-12, 마24:15, 단12:1
- iv. 30일동안 성도가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단12:6-12, 마24:16, 계12:13-17
- v. 예루살렘/이스라엘이 이방 군대에게 둘러 쌓인다. 뉴21:20
(이 사건은 강력한 미혹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며 30일 동안 지속될 수 있다)
- vi. 곡과 마곡의 전쟁, 곧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시리아,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 영연방국가, 미동맹국가, 남한, 이집트 등을 공격한다.
겔38, 계11:2, 단11:40-42

자세한 내용과 해당 예언:

- 남북한 전쟁을 포함한 태평양 국가에 대한 전쟁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두번째 남북한 전쟁이 먼저 발발하지 않는다.
- 필리핀, 괌,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태평양 국가에 대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 남한은 북한과 시리아의 아사드에 의해 이슬람과 공산세력 아래 통치될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필리핀,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이슬람과 공산주의 아래 넘겨질 것이다.
- 남한, 호주, 뉴질랜드, 대만, 필리핀, 일본은 이슬람 샤리아 법(*Sharia Law*)으로 제한되고, 모든 신을 부정하고 아사드만 경배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 불행히도 남한 내 수천명의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학살될 것이다.
- 불행히도 괌과 하와이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학살될 것이며 놀랍도록 잘 계획된 시리아와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든 동맹국은 그들의 침략을 당해낼 수 없다.

-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다면 한국과 미국 군대, 태평양 동맹 국가를 도와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본토에 몇번의 핵공격이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와 군대는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전세계에 걸쳐 있는 다른 이슬람/공산 국가의 공격에 압도당할 것이므로 한국과 태평양 동맹국가들이 이슬람/공산 국가에 침탈되는 것을 막아줄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아사드가 모든 국가에 대해 권세를 얻어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친구와 가족 등 많은 사람이 그를 "하나님"이라 경배하겠지만 당신은 절대 그를 높이지 말라! [아사드는 타락한 천사이며 악의 화신이며 적그리스도다!](#) 이 글 전체를 읽을 때까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지 말고 기도와 긍식하며 이 주장을 비웃지 말기 바란다.

계13: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사7:8, 수도 다마스커스)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사7:1, 파괴됨; *destroyed*),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계13:4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계13:5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마흔두 달 (*7년이 아니다*)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계13:6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계13:7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13:8 세상의 기초가 놓인 아래로 죽임당한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계13:9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은 미국과 이스라엘, 한국,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대만, 일본을 포함하며 예외는 없다.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군사력 도움 아래 아사드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지서스 (*Jesus*)께서 이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공산 국가를 사용하여 서방국가와 동맹 국가를 벌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동성애와 낙태, 수많은 다른 죄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에 대환란의 끝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전쟁을 돌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와 아사드를 경배한 모든 사람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할하신다. 서방 국가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벌을 받을 것이다. 공산주의와 이슬람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서방세계 만큼이나 악하다.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사탄에서 비롯 되었다. 종국에 가서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사리아, 북한 모두 패할 것인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지서스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 그의 벌은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미국, 모든 동맹국가에 대해 먼저 시작하시나 후에는 악한 이슬람과 공산주의 국가에 이르고 종국에 모두 파할 것이다.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것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얻어야 한다. 고대 앗시리아 때의 무슬림으로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킨 것을 회개해야 한다. 지서스(Jesus)는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은 세명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아사드는 신이 아니다. 프란시스 교황도 신이 아니다. 베네딕트 교황 역시 신이 아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지스서(Jesus)이시다. 오직 그분만 하나님 이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받고 그분의 거룩한 귀신(HOLY Ghost)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한주의 일곱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하며 하나님께서 명한바대로 쉬고 경배해야 한다.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성일(Holy Days)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포도주와 누룩없는 빵과 함께하는 유월절, 7일 동안의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마지막 큰 절기(Last Great Day), 푸림절(Purim), 하누카). 이런 절기는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지서스를 진실되게 따르는 모든 자는 열거한 절기를 지킨다. 피부색과 인종, 국적을 떠나 그리스도 지서스를 믿는 진실한 제자는 영적인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의 동류다.

롬2:28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롬2:29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또한 반드시 다가올 침략과 어려운 때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대비 해야한다. 먹을 것을 찾기에 극히 힘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얻기도 힘들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음식과 쓸 것을 지금 비축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환란 전에 휴거는 없다. 하나님의 성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극히 힘든 때를 겪을 것이라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군인이라면 싸우는 것은 의무에 속하지만, 군인 아니라면 당신은 공격하는 군인을 해쳐서는 안된다. 당신을 공격하는 군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별의 도구로써 보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자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일로 당신을 공격할 때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된다.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죽이는 것까지 가능하다. 만약 악한 자가 단지 음식이나 물건, 돈, 땅, 물과 같은 것들 때문에 당신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 방어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악한 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당신을 박해하거나 살해위협을 가한다면 지서스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죽기 까지 복종할 것을 기대하신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다. 지서스를 위해 죽는 것은 당신이나 가족에게 허락되어 있다. 살해 위협을 가하더라도 절대 그분의 이름을 부정하지 말라. 결코 이슬람을 받아 들이지 말라. 할랄 음식에 손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 이슬람과 교제하지 말고 굴복하지도 말라. 아사드와 카톨릭 교황에게 결코 경배하지 말라. 무슬림에게 지서스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라. 죽음에 이를 때 지서스를 찬양하고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신 지서스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을 위해 목베임을 받는 모든 자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 하셨다. 어떤 이들은 도망가서 숨어 살아남을 것인데, 도망가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 숨어 살아남으려는 것은 어떤 문제도 없다. 쓸 것을 가져가라. 대도시에서 떠나 움직이는 것은 지금 혹은 곧 해야할 일이다. 지금 쓸 것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이는 살아 남을 것이고, 어떤 이는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어떤 운명이든 당신이 바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라.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지 금식과 기도로 지서스께 기도해보라. 이 사이트를 통해 마지막 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주를 기쁘게 하며 올바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라. 당신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견디기 바란다.

관련 기사:

- [트럼프 "'잔혹범' 아사드, 가만 놔두지 않겠다"](#)

관련 문서 (영문):

- [아사드는 적그리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 [아사드는 타락한 천사이며 악의 화신이라는 증거](#)
- [곡과 마곡 vs. 미국과 영연방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정보](#)
- [666 레퍼런스: 이슬람 연합과 공산국가](#)
- [미국과 영연방 국가, 그들의 발견](#)
- [휴거는 대환란의 어느 시기에 일어날 것인가?](#)
- [어떻게 대환란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번째 한국 전쟁 시기

진리탐구

2017/07/10 11:36

<http://blog.naver.com/tapad51j/221047941961>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이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듯 보여도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사이의 전쟁인 곡(Gog)과 마곡(Magog) 전쟁보다 앞서 두번째 한국전이 발발할 수는 없다. 한국전이 먼저 발생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와 더 불어 미국을 침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에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중동 전쟁이 발발한 후에야 북한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계정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

1. 시리아를 향해 군함과 병력이 움직인다:

단11: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짜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At the end time the king of the South will collide with him, and the king of the North will storm against him with c

2. 미국이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Bashar Al Assad를 타겟으로 공격한다. (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우방국가에 대한 전쟁은 시작되지 않는다):

단11: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짜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사7:8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라도 육십 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찌니라

For the head of Aram is Damascus and the head of Damascus is Rezin (now within another 65 years Ephraim will be

사17: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The oracle concerning Damascus. “Behold, Damascus is about to be removed from being a city And will become a fa

계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I saw one of his heads as if it had been slain, and his fatal wound was healed. And the whole earth was amazed and

3. 저그리스도인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는 잠깐동안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도록 허락받아 지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이고, 마귀의 모든 능력과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강림처럼 이 땅에 내려온다. 이것이 살후 2:11의 "강력한 미혹"이다:

아사드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http://blog.naver.com/tpad51j/220958975685>

살후 2:1-12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짐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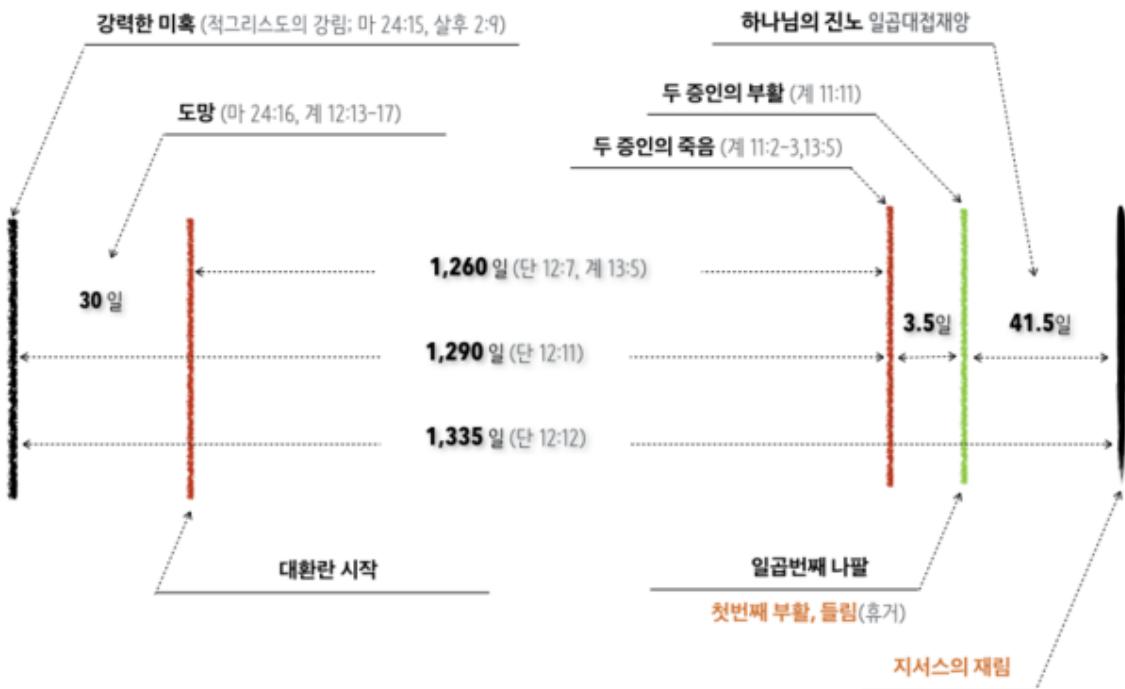
"Therefore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which was spoken of through Daniel the prophet, sta

단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멈출)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아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http://blog.naver.com/tpad51j/220957426677>)

"Now at that time Michael, the great prince who stands guard over the sons of your people, will arise(stop). And the
살후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미 활동 중인 불법의 비
밀을 막는 자가 있고 때가 되면 멈추라고 지시를 받을 것이다")

4. 성도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30일 동안 도망갈 시간이 주어진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95178873>



1335일 개요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다니엘 12:6-12

마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then those who are in Judea must flee to the mountains.

계12: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팁박하는지라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계12: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계12: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JESUS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5.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포위된다:

눅21:20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6.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시리아/이란/러시아/중국/북한 등이 이스라엘/미국/유럽/영연방국가/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우방국가를 침략한다:

에스겔 38장

계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단11: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치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단11: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단11:42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참고: 관련소식 받아보기



[i Saw The Light Ministries Newsletter Blog](#)

News headlines and edifications that point to bible prophecy being fulfilled in our time
proveallthings.weebly.com

(모든 종류의) 섹스는 결혼을 하는 행위다

진리탐구

2017/07/30 14:54

<http://blog.naver.com/tapad51j/221062978198>

이 글은 이 세상 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무분별한 결혼을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밝힘으로써 구원 얻은 자들이 간음/음행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고자 함이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에게는 이 문서의 내용이 마치 섹스를 조장(*encourage*)한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결혼의 조건의 엄격하다는 것과 구원받는 성도의 자격에는 음행하는 자와 간음자는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이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현행 법보다 더 엄격하며 무섭다는 것이다.

현행 법으로 인정된 사람이 주례를 보고 한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가 서약한 뒤, 서류작업을 거쳐 결혼인증서가 주어져야 하나님께서도 그 결혼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성경의 여러 사례를 통해 결혼의 기준을 알아보자.

아담과 이브

창2:18 하나님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2:19 하나님 지서스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2:21 하나님 지서스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2:22 하나님 지서스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

and they shall be one flesh.

창2: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Cleave라는 번역에 대한 원본 히브리어 단어는 פָּגַע /*dabaq*/라고 발음되며 KJV 성경에 대한 [Strong 인덱스 코드는 1692](#)이다:

- 달라붙다; cling, stick, stick to, stick with,
- 함께 거하다; stay close, to stay with, keep close, follow closely, join to, to be joined together

- 엉겨붙다; cleave, catch, . 결혼 증서가 서로를 가깝게 연결해주는가?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가?
- 추하다, 가지다; overtake

여기서 아담은 이브와 육체관계(*intercourse*)/섹스(*sex*)를 했으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사람이 "결혼했음"을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레18:20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have intercourse with your neighbor's wife, to be defiled with her.

레18:23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Also you shall not have intercourse with any animal to be defiled with it, nor shall any woman stand before an anima

민5:13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and a man has intercourse with her and it is hidden from the eyes of her husband and she is undetected, although sh

민5:20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if you, however, have gone astray, being under the authority of your husband, and if you have defiled yourself and a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67

(개혁개정)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한글킹제임스)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흠정역)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KJV) And Isaac brought her into his mother Sarah's tent, and took Rebekah, and she became his wife; and he loved and Isaac was comforted after his mother's death.

(NASB) Then Isaac brought her into his mother Sarah's tent, and he took Rebekah, and she became his wife, and he

(NIV) Isaac brought her into the tent of his mother Sarah, and he married Rebekah. So she became his wife, and he l

취하다(took)라는 말은 KJV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4번에 걸쳐 결혼한 것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된 방식은 분명하다. 섹스를 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창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지서스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창16: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청(한국어 번역은 청이지만, 원본에는 분명히 아내다)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창16: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사래의 시녀간의 결혼 역시 섹스로 이루어졌다. 결혼증서나 서류작업, 증인 따위는 없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 라헬

창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창29: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창29: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창29: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And it came to pass in the evening, that he took Leah his daughter, and brought her to him; and he (Jacob) went in unto her (had sex in the tent).*

창29: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창29: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창29: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창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창29: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창29: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창29: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야곱과 결혼하게 된 것은 섹스로 된 것이지 결혼증서나 주례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야곱과 시녀들과의 결혼도 마찬가지다:

창30:4 그녀가 그에게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창30: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창30:9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창30:10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꾀어서 섹스를 한 경우

출22:16 만일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어 아내를 삼을 지니라.

출22:17 만일 그녀의 아비가 그녀를 그 사람에게 주기를 아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른 돈을 지불해야 할지니라.

여자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고해서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게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섹스를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이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남자는 여자와 같이 살 수 없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결혼을 파기하는 조건이 되진 못한다.

신22:28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불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신22:29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서로가 싫든 좋든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남자는 평생에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직업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경우

고전6:16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Or do you not know that the one who joins (*cleaves together; 서로 달라붙다*) himself to a prostitute is one body with her? For He says,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댓가를 주고 육체관계를 맺더라도 그들은 결혼을 한 것이다.

강간을 당한 경우

삼하13:11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먹이려고 가져가니 그가 그녀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니

12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보이지 말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나니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13 내가 내 수치를 어떻게 없애겠느냐? 또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이제 왕께 고하라. 왕이 나를 네게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 14 암논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녀보다 힘이 세므로, 강제로 그녀와 동침하더라.
- 15 그리고 나서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 그 증오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사랑보다 더 크더라.
- 그러므로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하니
- 16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온당치 않도다. 나를 내보내는 이 악이 당신이 내게 행한 다른 일보다 더 크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다말을 그대로 내쫓아 버리는 암논의 행동이 강간한 것보다 거 악한 것은 다말이 어떤 종류의 섹스이든 결혼이란 것과 이 혼은 엄청난 수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키스, 옷벗기, 애무, 상호 자위의 경우

다음은 서로 사귀는 상태에 있을 때, 남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 죄가 되는지 여부를 밝힌 것이다.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아래의 모든 경우에 대해, 결혼한 여자에게 행할 경우 무엇을 하든 죄가 된다는 점에 주의하라.

✗ **키스(romantic kissing):** 죄가 아니며 허용된다. 결혼하는 행동은 아니다.

✗ **옷벗기(Undressing):** 죄가 아니며 허용된다. 결혼하는 행동은 아니다. 누드 자체는 하나님께 죄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법은 공공장소에서 누드로 있는 것은 음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자나 남자나 공공 장소가 아닌 곳에서 셔츠를 벗거나 상반신을 드러낸다해도 하나님께 죄는 아니다. 다만 사회법으로는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다. 사회법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공공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섹스를 하지 않는 한 남여가 누드 상태로 있다해서 죄 짓는 것은 아니며 결혼에 이르는 행동도 아니다.

✗ **애무(Caressing/fondling):** 성기 부분을 제외한 곳에 하는 애무/터치는 죄가 아니며 허용된다. 결혼하는 행동은 아니다.

✓? **상호간 자위해주기(mutual masturbation):**

- 남자의 성기나 여자의 성기가 관련됐다면, 둘은 결혼한 것이다.
- 남자의 손가락이나 음경, 딜도(dildo)가 여자의 질에 들어가면, 둘은 결혼한 것이다.
- 여자가 남자에게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오럴 섹스를 해준 경우, 둘은 결혼한 것이다.
- 여자의 손으로 남자에게 자위를 해주었다면 남자의 성기가 관련 됐으므로 둘은 결혼한 것이다.
- 남자의 손으로 여자에게 자위를 해주었다면 여자의 성기가 관련 됐으므로 둘은 결혼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모든 성경 예시에서 보듯 모든 형태의 섹스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한 것이다.
결코 결혼식을 하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거나, 법적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인증이란 것은 1800년대에 들어서 일부 국가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인데,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인증 없이 어떻게 결혼했단 말인가? 밀림이나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 성직자나 결혼인증을 할만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못했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결혼의 기준은 사회제도가 어떻든간에 모든 종류의 섹스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법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혼 전의 섹스는 간음인가?

결혼전에 간음(Adultery)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섹스 자체가 결혼이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간음이란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어는 μοιχεύω /moi-khyü'-ō/ 이고 [KJV 성경에서 Strong 인덱스 번호 G3431](#)이다. 그 뜻은 “다른 아내와 불법적인 육체관계를 가지는 것; *have unlawful intercourse with another's wife*”. 으로써, 결혼한 당사자와 간음죄를 지을 수는 없다!

만약 이미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다른 사람의 여자와 어떤 종류의 형태든 상관없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간음 죄다.

이미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음 구절들을 근거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 보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한다.

마5:27 너희는 옛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던져 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30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잘라 던져 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3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나 착각이다. 마태복음 5장 27-32의 문맥은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결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나,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죄라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상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음행(Fornication)의 정의

결혼전 섹스는 음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섹스는 곧 결혼이기 때문이다.

음행(fornication)이란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을 보고 즐기는 것, 노출을 즐기거나,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순간, 동성애, 육체적 배우자 학대, 지서스(Jesus)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함 (크리스마스/부활절/할로윈을 지키거나 즐기며, 삼위일체를 믿는 것, 십계명을 거부하거나, 제 7일을 안식일로 쉬지 않는 것, 주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사탄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 등..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과 죄를 음행이라 정의한다. 모든 죄는 부도덕이기 때문에 음행(fornication)이기도 하다.

거룩함(sanctification)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은 곧 음행을 짓지 않는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요17: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롬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롬6: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후1: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

고후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살전3:13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JESUS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전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전4: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딤전2: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히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정의는 여기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cmfnow.com/articles/pe058.htm>
그러나 그안의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자위는 죄가 아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자위가 죄라고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구절도 없다. 반대한다면 자위가 죄라는 것을 명시한 구절을 보여보라!

자위가 죄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38장 9-10 구절에서 오난이 죽은 이유는 땅에 사정 한 것을 예로 든다. 하지만 실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형제의 자손을 남기길 싫어했기 때문이다:

창38: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창38: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창38:7 유다의 장자 엘이 지서스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지서스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창38: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창38: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창38:10 그 일이 지서스 보시기에 악하므로 지서스께서 그도 죽이시니

위의 대목에서 오난이 "자위"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형의 아내였던 여자와 섹스를 하고 있었다. 자위 와는 아무 관계없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형제의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나?" 라고 의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선 다른 게시물에서 곧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저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워 자위를 죄라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무지를 숨겨왔다. 남자들은 생리 구조상 배출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서 충동을 누르기 힘들어진다. 그건 자연적인 것이며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다. 그러나 생리 구조를 이유로 남자가 결혼한 여자를 대상으로 성적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분명코 간음이다. 이미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간음이다!

마 5: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나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대상으로 상상을 하며 자위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성경에 이에 대해 죄라 말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대상으로 상상하며 자위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여자가 결혼했다면 상상의 대상인 남자의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야동을 보는 것은 앞서 말한 음행(fornication) 이므로 당신은 결코 야동을 보면서 생리욕구를 해소해서는 안된다! 야동에 나오는 여자들은 이미 결혼/간음한 여자들이며 그 여자들의 벗은 것을 보고 그들의 몸을 범하는 상상은 간음(adultery)죄를 범하는 것이다.

섹스인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것이라서, 동물과 교합하는 수간과 같다. 수간은 음행(fornication)죄의 범주에 드는 죄다.

남자가 딜도(dildo)나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항문으로 자위하는 것은 명백한 동성애(homosex)다. 어떤 것도 남자

의 항문을 성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자가 딜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 확언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남편과 관계를 맺을 때까지 딜도 같은 가짜 음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아내의 항문은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라고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마19:4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6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말2: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서스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지서스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For I hate divorce,"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

마5: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마5: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19: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마19:8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전7:10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히13:8 그리스도는 지서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에 강간을 당한 경우라든가 꼬임을 당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씀은 없다! 어떤 식으로 결혼을 했든,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

정욕에 불타 일 저지르고 서로 그냥 없던일로 하자 하며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믿는 자라면 당사자 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아내가 음행 *fornication* 죄를 지었거나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하는 등의 음행을 한다면, 여자도 이혼할 수 있다. 믿는 자든 불신 자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혼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사유는 음행 뿐이다.

참조: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http://blog.naver.com/tpad51j/221067234510>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hate)는 말이 가볍게 들린다면 다음 구절들을 보라:

그 분의 눈밖에 나면서 스스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는 없다. 저지른 죄는 "회개하면 된다" 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회개는 고백과 함께 행동을 고치는 것이다:

마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행26:20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제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는 진정 구원된 자가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결혼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당신이 짓는 간음/음행하는 죄

만일 성도가 섹스가 결혼인 것을 알고 믿었다면 간음과 음행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싼 마귀의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먼저 뒀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스크린을 통해 버젓이 공개되는 배우들의 배드신을 하나님께서 "그래, 직업이니 괜찮다" 고 하실 것 같은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하체를 드러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셨는가?

창9: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창9: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9: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창9: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9: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지서스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창9:27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출20:26 너는 총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출28:42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레6: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레18:6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지서스이니라
레18:7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18:8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레18:9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18:10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레18:11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18:12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레18:13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레18:14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레18:15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18:16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레18:17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레18:18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레18:19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20:11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20:17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레20:18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20:19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붙이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레20:20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레20:21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신22:30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27:20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 성은 아멘 할지니라
합2: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술한 말씀은 뒤로하고 연기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육체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이 게시글을 볼 필요없다.

화면을 통해 보이는 여자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외모에 끌려 마음 속으로 음욕의 상상을 한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5: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결혼한*)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화면이나 지면을 통해 드러난 여자가 하나님 보기에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보는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여자들의 벗은 몸을 보거나 뛰어난 몸매를 볼 때 십중팔구 음욕이 들 수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간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걸그룹을 응원한다 하면서 여자 멤버의 외모에 빠져있다면, 음행 (*fornication*)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29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던져 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30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잘라 던져 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TV 드라마든 영화든, 벗고 관계를 맺는 것이 예상되면 아예 보지 않으면 된다. 예능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법적인 사실혼 상태의 여자일지 하나님의 법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인지 시청자는 알 수 없다. 어떤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간음/음행이 유발될지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은 드라마든 예능이든 영화든 안보면 되는 것이다. 일부 여자들이 말하기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자기 제어가 잘 하므로 상관없다"는 식의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뱀의 꾀임에 빠진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진정한 성도라면, 세상을 둘러싼 거대한 음행과 간음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된다. 동시에 스스로 문제없다 생각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는 아무생각없이 TV나 영화를 시청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대비하고 깨어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한다. *신나게 죄를 지으면서?*

모든 종류의 섹스가 하나님의 기준에 결혼을 하는 것임을 믿는다면, 믿는 자는 자신의 행동에 각별히 주의를 하게될 것이다.

일본산 AV, 성인 만화, 야동 짤방 같은 드러나는 것 외에도 술한 경우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바란다.

히브리서 13:4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진리탐구

2017/08/05 06:10

<http://blog.naver.com/tpad51j/221067234510>

간음과 음행을 하는 자가 받을 형벌

이 글은 다가올 환란에 앞서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에 관한 기록하였다. (반드시 앞서 작성된 “[모든 종류의 섹스는 결혼을 하는 행위다](#)” 게시글을 먼저 보기 바란다) 어떤 이는 강력한 미혹을 실제 자신의 눈으로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고, 어떤 이는 두번째 한국 전쟁과 이슬람이 강요하는 짐승의 표인 할랄표를 보고서야 회개할수도 있다. 혹은 환란 초기에 살아남아 어딘가로 대피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그분의 뜻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이 게시글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으나, 음행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계2:22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계22:15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음행하는 자들이 던져질 곳은 성 밖, 곧 바깥 어두운 곳을 말한다:

마22: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Then the king said to the servants, ‘Bind him hand and foot, *and* throw him into the outer darkness; *in that place* the

마24: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25: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눅13: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는 불못(*The Lake of Fire*)에 던져져 (*부활한*)몸과 영혼이 불타기 때문이다:

계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Then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the lake of fire.

계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And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한국어와 영어 번역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는 것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듯 보이나, 원본 그리스어 문장은 번역된 영어 문장과 달리 짧고 *then, and, in that place* 와 같은 접속사나 대명사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은 원본에 첨가를 많이 한 것이다. 영어 어순과 달리 슬피 울며 이를 간 후에 던져진다고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불은 곧 빛을 발하므로 바깥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날 수 없다. 그러므로 내어 쫓기는 것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히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요일1: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영벌의 형벌을 받은 자는 불못(*The Lake of Fire*)에 던져져 몸과 영혼이 불타게 되고, 불에 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다. 그 탄 기간이 얼마일지, 하루인지 몇달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재와 연기만 남고 다 타고 난 자의 영혼은 완전히 죽게된다. 즉, 두번째 죽음이다. 다 탄 영혼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고 영원히 거기 처하게된다. 이들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음행이란?

음행(*fornication*)이란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을 보고 즐기는 것, 노출을 즐기거나,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순간, 동성애, 육체적 배우자 학대, 지서스(*Jesus*)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함 (크리스마스/부활절/할로윈을 지키거나 즐기며, 삼위일체를 믿는 것, 십계명을 거부하거나, 제 7일을 안식일로 쉬지 않는 것, 주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사탄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 등..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과 죄를 음행이라 정의한다. 모든 죄는 부도덕이기 때문에 음행(*fornication*)이기도 하다.

거룩함(*sanctification*)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은 곧 음행을 멀리하는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요17: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롬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롬6: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후1: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

고후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살전3:13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지서스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

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전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전4: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딤전2: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히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법한 이혼 사유

결혼은 육체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는 처녀/총각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것이다. 부부는 그들의 신혼 첫날 밤 이전에 다른 사람과 결코 육체관계가 없어야 한다. 각기 서로 다른 성의 남녀가 섹스를 함으로써 결혼이 이루어 지는데, 남녀 둘다 이전에 육체관계가 없는 처녀/총각이거나, 결혼을 했던 적이 있더라도 적법하게(*righteously*) 이혼했어야 한다. 이혼의 사유가 성립되는 상황은 반드시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행(*fornication*)이 있고 배우자가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을 때 뿐이다. 믿는 자든 불신 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나 사회법은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며, 이 글은 사회법을 무시하자거나 성경의 법을 우선으로 적용하자 말하는게 아니다!)

만약 이전에 결혼 했던 사람과 이혼했는데 그 사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라면, 둘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성격 차이, 집안 문제, 서로 맘이 식어서, 다툼, 견해차이로 인해 갈라짐,,,등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 둘 중 한명이 죽거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한 경우에 남편은 아내와 이혼 할 수 있으며, 남편이 아내에게 음행죄(*fornication*)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를 얻는다:

- 아내 혹은 남편이 죽은 경우, 각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이혼한 것이고 다시 다른 사람과 적법하게 결혼할 수 있다.
-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한 경우, (실질적인 삽입 외에도 오럴 섹스, 애널 섹스등도 모두 섹스에 속한다) 아내는 간음(*adultery*)을 한 것이다. 남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법하게 이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이혼하겠다고 기도하고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 (자동으로 이혼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남편이 상관치 않는다면 간음한 아내와 같이 살수 있다. 그러나 아내는 반드시 회개해야한다!
이혼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여자는 원래 남편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하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경우
관계를 가지는 다른 남자와 이혼한 여자 둘 다 매번 간음을 하는 것이다.
이혼한 남편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다.
- 남편이 동물과 관계를 가지는 수간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동성애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매춘을 하거나,
근친상간을 한다면 음행죄를 짓는 것이고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혼할 수 있다.
남자가 섹스인형으로 자위하는 것도 수간죄이며, 남자가 항문에 딜도를 사용하여 자위하는 것은 동성애 죄와 같다.

▣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여 여자가 그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인간의 법은 재판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내된 여자를 보호하여 여자에게 이혼을 허락한다.

이것은 배우자 폭행(*spouse abuse*) 사유이며 음행죄(*fornication*)중 한가지다.

남편은 음행을 한 것이며,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남자는 심판대에 서게될 것이다)

단 한번의 구타에도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구타의 횟수와 무관하게 여자는 판단하여 이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구타하는 남편이 결코 아내와 쉽게 이혼해주지 않으며, 사회법 내에서 법적인 이혼없이 아내였던 여자가

그 폭행을 피해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섹스해서 사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 하진않지만 다른 경제적인 제재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자가 폭력적인 남편에게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남편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 구타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 역시 배우자 폭행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 남자는 음행죄를 지은 것이며,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스도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 구원얻는 것을 믿지 않거나

십계명및 절기를 지키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끝까지 싫어한다면,

이는 지서스에 대한 음행(*fornication*)이므로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현재의 아내 외에 (결혼하지 않은) 다른 여자와 섹스 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바람" 혹은 "외도" 라 불리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법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남자는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성경에서 밝히는 남자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다. 현실의 사회법을 위반하지 말라!!!)

만일 이 법을 두고 불평한다면, 당신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 하는 것이므로 죄없다할 수 없게됨을 주의하라!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지 않다. 어느 한쪽이 낫고 부족한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 다르게 지음받았고 다른 능력이 부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신다. 이 조항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지만, 불복종에 따른 결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29:16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롬9: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나 남편에게 경고한다: 결혼한 아내외에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간음과 음행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확실히 알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될 가능성성이 크다. 또한 일부다처가 현대 사회법에서 금지된 나라에서는 사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게시글은 결코 일부다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권하거나 사회법을 넘어 일부다처를 지키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다!

! 결혼 상태의 지속 여부는 배우자중 한명이 죽었거나 지속적인 음행죄를 지어 합의하에 헤어질 때 까지다.

! 남자는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다. (다시 밝히지만, 현실 사회법에는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을 어기지 말라!)

! 여자는 반드시 한번에 오직 한명의 남편만 둘 수 있다.

롬7:2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롬7: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리라.

고전7:39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혼의 선언

지서스께 소리내어 기도하되, 남편 혹은 아내를 떠나 영적/물리적/금전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만약 다시 그 남자/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자녀 부양비를 얻는 등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결혼한 상태로 여기실 것이다.

이혼상태 유지의 여섯가지 필수조건: (1~3 필수, 4~6 시대별 선택)

1.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어떤 종류의 섹스도 하지 않는다.
2. 여자는 남자로부터 어떤 종류의 영적/물리적/금전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
3. 둘이 같이 살지 않는다.
4. 여자가 준 결혼 반지를 끼지 착용하지 않는다.
5. 남자가 준 결혼 반지를 끼지 착용하지 않는다.
6. 남자가 준 어떤 종류의 보석이나 예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소리내어 이혼을 선언할 때는 오직 당신과 하나님께만 알려지면 되는 것이며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로써 당신은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혼의 선언이 효력이 있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첫번째 가상 시나리오: 간음과 음행의 고리

김모군은 최모양과 몇년동안 사귀면서 관계를 가져왔으나 사회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미혼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을 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의견차이로 자주 싸웠고 소원해져 결국 헤어졌다.

몇년이 지난 뒤, 최모양은 새로운 남자 이모군을 만나 결혼했다. (김모군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방치한 간음죄를 지은 것이며, 최모양 역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최모양과 결혼한 이모군은 간음한 여자와 결혼한 것이므로 자신도 간음죄를 지은 것이며, 섹스를 할 때마다 간음죄를 짓게 된다. 이 둘은 간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결혼을 한 상태가 되었다: 고전6: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컬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구절에서 창녀는 이미 다른 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은 상태에 있었다. 즉 불법상태에서 관계 맺음은 죄짓는 것이긴 하지만 결혼은 성립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김모군도 다른 여자 박모양을 만나 결혼했다. (김모군과 박모양 둘다 섹스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남자는 한명 이상의 여자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법은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라고 규정한다. 만약 박모양이 이전 남자와 적법하게 이혼 한 것이 아닐 경우, 김모군이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김모군은 간음을 행한 것이며, 박모양과 섹스를 할 때마다 간음을 하게 된다. 역시 이 경우에도 불법결혼으로 인정된다)

세월이 흘러 이모군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최모양은 재판을 통해 정식 이혼하게 되었다. (이모군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다. 남자는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귀가 널리 퍼트린 일부 일처 제도로 인해 남자는 "외도"라는 지탄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모군이 최모양과 이혼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적법한 이유없이 최모양과 헤어져 방치한 것이므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최모양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지 않는 이상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적법한 이유가 아니므로 여전히 결혼한 상태로 여겨진다. 만일 최모양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새로운 남자와 최모양은 섹스를 할 때마다 간음을 하는 것이다. 또한 최모양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를 남자에게 요구하여 받는다면, 둘은 하나님앞에서 이혼 한 것이 아니다)

김모군과 박모양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따로 살게되었고,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 받으며 산다 (김모군은 아내를 방치한 음행을 짓는 것이며, 아내인 박모양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둘다 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고전7:5)을 어기는 것이므로 음행이다. 만약 박모양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모군이 생활비를 대주지 않는다면, 김모군은 배우자 학대를 하는 것이고 박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약자

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 시나리오는 현대 남녀의 전형적인 연애/결혼/이혼을 보여준다.

수많은 남녀가 섹스는 결혼 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섹스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결혼한 상태라는 자각이 없다. 쉽게 만나 섹스하고 헤어지며,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끝도없는 음행과 간음죄의 고리를 이어가며 살게되는 것이다.

진정 회개하기 않을 경우,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난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른다면, 결혼 한다는 것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간음과 음행죄의 회개

올바른 회개는 반드시 잘못에서 돌아키는 행동을 요구하므로, 위의 시나리오에서 최모양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기 전에 회개한 뒤 첫 남자 김모군에게 돌아가야 한다. 첫 남자였던 김모군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김모군이 죽을 때까지, 최모양이 다른 남자와 섹스할 때마다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오직 남편이 죽어야 아내는 그 남편의 매임에서 벗어난다:
고전7:39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 서만 할 것이라

남자는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유없이(하나님의 눈에 적법한 사유없이) 아내를 버리고 돌보지 않으며 다른 여자와 같이 살게되면 그것은 간음이다:

막10:11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버린 아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And He said to them, "Whoever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against her;

마5: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shall put away his wife, saving for the cause of fornication, causeth her to commit adultery and whosoever shall marry her that is divorced committeth adultery.

이유없이 버려진 여자는 억울하지만 적법한 이혼이 아니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경우 간음죄를 짓게되고, 원래의 남편이 죽어야 매임이 풀린다. 원래의 남편이 온전히 회개해서 다시 살자고 해도 거부할 수 있다:

고전7: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고전7:11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자가 진정 회개했다면 그 남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 의심 때문에 여

자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벌주지는 않으실 것이라 확신한다. 보통 폭력을 휘두른 남자들이 회개했다 해도 쉽사리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자는 적법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 따라 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는 곧 결혼이란 사실을 반드시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고 또 배워야 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결국 어떻게 해야할지 알게될 것이다. 또한 때때로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왜냐면 보통 결혼한 여자와 섹스를 하는 것은 간음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직접 명하셔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다. 또한 히브리 인에게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이지만 삼손에게는 허락되었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된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에 명시된 법을 따라야 한다.

사회법상 성경의 이혼 관련 지침은 용납되기 힘들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최모양이 아이라도 낳은 경우에는 회개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말 그대로 혼란 일어날 것이 뻔하다. 사회법이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말라! 즉, 한번 섹스를 한 후에는 남자 여자 둘 모두에게 어마 어마한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여자에게는 벗어나기 힘든 굴레가 씌워지므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지 않는 남자와는 결코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일 것이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지은 간음과 음행죄를 회개하는 것에 불가능함을 느끼고 좌절할지도 모른다. 걱정은 아직 이르다.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적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남아있다.

침례: 죄의 고리를 끊고 구원얻는 유일한 방법

회개하고 그리스도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전 사람이 죽어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된 사람이므로,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된다. 즉, 음행과 간음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다시 적법하게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결혼한 것에 죄가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되면 해당 죄는 사해지고 결혼 자체는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벧전3:21 물은 그리스도 지서스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롬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롬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6:3 무릇 그리스도도 지서스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롬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롬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롬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지서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롬6: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롬6: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고후5: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후5: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다. 진실된 침례를 받은 그 때,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간음과 음란의 모든 고리가 끊어진다.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고, 누구와 다시 결혼한다해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꾀를 내어 음행을 짓고는 다시 침례를 받아 용서를 받으려 할 수 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갈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번째 가상 시나리오: 불법 결혼한 상태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

김모군과 최모양은 실질적인 성기 삽입없이 김모군의 손가락을 최모양의 질에 넣거나 때때로 둘이 서로 자위를 해주는 정도로 즐기며 커플로서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다. (두사람은 하나님앞에 결혼한 자로 여겨진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62978198> '키스, 옷벗기, 애무, 상호자위'섹션 참조)

시간이 흘러 둘은 일반적인 연인들의 헤어짐과 다를 바 없이 헤어졌다. 얼마후 최모양은 새 남친 박모군을 만나 서로 '선'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이 정한 '선'은 키스, 가슴 애무, 박모군의 손가락으로 여자

의 질에 넣는 것은 안되지만 회음부를 만지며 애무하는 것까지로 정했다. 최모양은 때때로 자기 손으로 박모군의 성기를 만지기는 하지만 자위를 해주지는 않는다. (이들은 정한 '선'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으로 여겨지는 행동이다. 즉, 성기가 관련된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결혼으로 인정된다. 최모양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혼한 여자이므로, 이 둘의 관계는 간음으로 맺어진 불법결혼이 된다. 즉,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되기는 하지만 불법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얻어 최모양과 박모군은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되었다 (침례를 받은 시점 이전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으며, 이전 사람이 죽은 것이므로 간음의 고리도 끊어졌다. 그러나 이 둘의 결혼 관계는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최모양과 김군이 침례를 받은 후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둘은 여전히 부부 사이다. 관계를 가지게되면 이전의 불법결혼이 '새롭게 되어' 적법한 결혼이 될 뿐이다)

이 둘은 침례를 받은 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결혼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침례를 받아 가까스로 간음의 죄의 고리에서 벗어났으나, 이후로 다시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가지면 다시 "간음"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결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둘 중 한사람이 죽지 않는 한 결혼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번째 가상 시나리오 : "바람",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최군과 이모양은 사회법으로 결혼한 것을 인정받은 사이다.

최군이 다른 여자 김모양을 만나 키스를 하였다. 그걸 알게된 아내 이모양은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온갖 비통함에 젖어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되었다 (사회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는, 남자는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으며 섹스가 아닌 키스는 죄가 아니며 결혼에 이르는 행동도 아니다. 따라서 남편 최군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아내 이모양은 일처다부 제도는 미개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라 치부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어떤 것도 들을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둔 교만이다)

어렵게 서로 화해하고 시간이 흘렀다. 남편 최군은 탐탁치 않았지만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룸싸롱에 가서 접대부와 놀게 되었다. 직접적인 성기 삽입은 없었으나, 최군의 손으로 접대부의 가슴과 회음부를 만졌다. 이것을 알게된 김모양은 감정이 폭팔하여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남편 최군은 하나님 보시기에 접대부와 결혼한 것이다. 접대부는 직업적으로 여러명의 남자와 관계하기 때문에, 최군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접대부와는 불법결혼한 상태가 되었다. 또한 접대부는 자신이 결혼한 것이란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는다해도 비웃을 것이다. 따라서 접대부는 최군과 같이 살지 않게되므로, 최군은 결혼한 접대부를 방치해두는 행음 *fornication*을 하게되고, 접대부는 간음의 고리가 더욱 깊어진다)

접대부와의 관계를 "외도"로 규정한 아내 이모양은 당당하게 법원에 이혼재판을 청구하여 가정파탄의 이유를 물어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였다 (이것이 마귀가 '일처다부'를 허용한 성경의 말씀을 외곡하여 듣기에 그럴듯한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한

다'는 관습인 일처일부제의 영적인 위험성이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모습은 통념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간음하게 만든다!! 이혼한 이모양은 이제 간음한 여자가 되었고, 이후로 이모양과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게되므로 무시무시한 간음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아내 이모양은 이혼했다고 믿지만, 하나님보기에 이혼한 것이 아니다. *본 게시글의 내용은 사회법에 규정된 한명의 남편/한명의 아내에 대한 법을 고쳐야 한다거나 성경을 근거로 일처다부제를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섹스가 결혼과 동일하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임을 알지 못한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라든가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등의 고민 상담을 하지만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인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스스로 믿음있다하고 꺼리낄 것이 없다는 기독교인도 있겠지만, 무지와 마귀의 덫으로 인해 지옥불을 벗어나긴 힘들게 된 것이다.

환란 중에 침례받기

환란 중에 이 모든 말씀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할까.

침례를 줄 수 있는 자를 찾아야 한다: ([참고: http://blog.naver.com/tpad51j/221083593940](http://blog.naver.com/tpad51j/221083593940))

→ 0순위: 그리스도 지서스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된 자로서, "여호와", "예수"라는 마귀의 이름을 버리고
 오직 지서스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믿는 사람. 제 7일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을 준수하고 주의 절기를 지
 키는 자다.

→ 1순위: 그리스도 지서스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된 자이지만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여 부족한 사람.

→ 2순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된 자는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 3순위: 자기 자신.

즉,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로 주를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다시
 침례받아야 한다.

현대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았으므로 그들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얻는다"는 거짓말로 침례를 거부하게 하며 가르쳤기 때문이다.

마23:1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반드시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

침례를 할 때 앞으로 엎드려 지거나, 무릎 구부린 자세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옳으나, 하늘을 향해 눕는 자세는 옳지 않다!!

결론

남녀가 섹스를 통해 결혼을 한 뒤에는, 실질적으로 죽음 이외에 하나님 앞에서 적법한 이혼 사유는 없다.

마19: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막10: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간음, 음행죄를 범했다면 깊이 자각하고 실제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계22:15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비하는 첫번째 할 일이다.

연관글

- [일부다처, 바람, 외도, 불륜](#)

일부다처 (Polygamy), 바람, 외도, 불륜

진리탐구

2017/08/23 14:13

<http://blog.naver.com/tPad51j/221080330400>

이 게시글은 "일부다처"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밝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 책임이며 결코 당신을 변호할 의도나 생각은 없으니, 이글에서 밝히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활가왈부, 의논, 논쟁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섹스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의미한다.

실수든 의도한 것이든 어쨌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여자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

당신이 믿음안에 있는 자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 게시글과 나머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글을 읽고 깨닫기 전에는 설불리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약에서의 일부다처

모세의 첫번째 아내는 십보라였다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십보라외에 아내를 한명 더 둔 것에 대해 죄라고 기록한 구절이 없다. 미리암이 비방한 이유는 이스라엘 남자는 타 족족 여자와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지 십보라외에 아내를 둔 것 때문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출2:21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었더라.

민12:1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십보라와 이혼했다거나 혹은 십보라가 죽었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볼 수 없다. 추측하지 말라. 성경은 모세가 아내 한명을 더 둠으로써 결코 하나님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열왕기하에서 다윗은 일곱 명의 아내와 그 아내들은 모두 11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상에 기록에도 다른 아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8명에서 9명의 아내를 둔 것으로 추측한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선지자를 통해 꾸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해서 보라. 아내를 한명 이상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하12:8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네게 더 주었으리라.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한 자들은 대부분 "다윗은 왕이니까... 왕은 뭐 늘상 그렇잖아?"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항상 "예외 조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예외 조항"이 있을리가 없다.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또한 믿지 않을 작정인가?

출32:33 지서스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신10:17 너희의 하나님 지서스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첨을 두었다고 한다. 왕상11:1-3에 나타난 솔로몬의 문제는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둈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그릇가게 내버려뒀는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상11: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헛 여인이라

왕상11:2 지서스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상11:3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첨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브라함 역시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 그러나 그 어느 구절에서 그가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고 죄를 범했다 기록하지 않았다:

창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지서스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창16: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첨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창16: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갈4: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구약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한다면, 역시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것과 다를바 없다:

욥34:29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뵈올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히13:8 그리스도 지서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곱 또한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 그가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둈다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시한 구절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

창29: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창29: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창29: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창29: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창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창29: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창29: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창29: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기드온 역시 많은 아내과 한명의 첨이 있었다. 그러나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둔 것에 대해 죄라고 기록한 구절은 없다:

삿8: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삿8:31 세겜에 있는 그의 첨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두명의 아내를 가졌다고 상징한다".

에스겔 23장에서 "아흘라"는 사마리아를, "아흘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예레미야 3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한다.

겔23:4 그들의 이름은 언니가 아흘라요, 동생은 아흘리바라. 그들은 내 사람이며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도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마리아는 아흘라요, 예루살렘은 아흘리바라.

렘3:6 요시야 왕 때에 지서스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렘3:7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렘3:8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렘3:9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렘3:10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JESUS의 말씀이니라

렘3:11 지서스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렘3:12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지서스의 말씀이니라

렘3:13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지서스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지서스의 말씀이니라

렘3:14 지서스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렘31:31 지서스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렘31: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지서스의 말씀이니라

렘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서스의 말씀이니라

렘31: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지서스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서스의 말씀이니라

신약에서의 일부다처

지서스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안에서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

마25:1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한 사람의)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비록 다섯은 준비하지 않아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해도, 여전히 (상징적으로) 다섯의 아내가 주와 결혼한다고 밝히고 있는 때는 "신약"이다!

지서스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선택된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와 결혼하신다. 그러나 교회엔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는 그의 신부이지만 지서스께서는 참된 제자들로 된 하나님의 몸인 많은 신부와 결혼하는 것이다.

고전12:12 (NASB) 고전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여러명의 아내를 두면 어떻게 한몸이 되는가?"라고 의문이 들것이다. 막10:8, 창2:24를 근거로 한명의 남편과 아내가 맞다고 주장하겠지만 마태복음 25:1과 고린도전서 12:12은 다수의 아내를 두더라도 여전히 한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했다! (딤전3:2)"라는 말로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면, 번역의 문제를 짚어줄 수 밖에 없다. 해당 구절의 문맥은 일반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직자 안수에 관한 것이다. "한명"의 "ONE" 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Mia"로써 [스트롱 인덱스 번호 3391](#)이다. "하나 (one)"를 듯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처음 (first)"을 뜻하기도 한다.

KJV에서는 8번에 걸쳐 "처음(첫)"이라 번역되었다. 그러나 NASB와 오래된 성경 원본을 기초로한 다른 성경에서는 "ONE"이라 번역한 단어에 대응하는 그리스 원어를 "Heis" 라고 하는데 [스트롱 인덱스 번호 1520](#)인 이 단어의 뜻은 "처음(첫)"을 뜻하는 "first"다.

즉 디모데에게 말한 바울의 얘기는 "처음 아내를 버리지 않은 자"인 것이다. 처음 아내를 버린 자는 성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딤전3: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딤전3:4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딤전3:5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바울이 기록한 여러가지 자세한 기록중에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둈 것이 폐해졌다는 말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다. 폐해진 율법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바울이 일부다처가 하나님앞에 죄라면 분명히 기록했을 것이다.



<http://www.hexanine.com/damngood/> 페이지에서 인용함

멋지게 디자인된 책을 보라. 이 책을 만든 사람은 "그냥" 만들지 않았다. 또한 책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난 내가 디자인 했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책을 만든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책에 그려내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남자의 성적욕구는 책이 스스로를 만들 수 없듯이 창조주 지서스께서 남자에게 주신 것이다. 남자 스스로가 그런 "욕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면, 제 정신인지 스스로를 의심해보길 바란다.

남자의 끊임없는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므로 그로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주셨다. 일부다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하라, 하지마라!" 이런 계명을 지키냐 아니냐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분이 만든 것에 개똥철학을 적용시켜 "악하다/아니다"를 논쟁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자위"(masturbation)는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어리석은 결론에 이른 것처럼, 남자의 성적욕구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자들은 반기를 들것이다.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온갖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남자의 정욕으로인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강조하며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 이전에 이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비록 남자의 끊임없는 정욕이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 낸다해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 점이다:

전7:29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너는 아무 여자든지 아내로 삼아도 된다" 라거나, "네 정욕을 맘껏 발산해라" .. 등의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셨다.

남자에게 일부다처를 허락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이유없이 결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과 간음/음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엄히 명하셨다. 회개는 반드시 올바른 행위가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인해 죄를 지은 경우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므로 실로 무시무시한 책임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일지라도 시험이 없는게 아니므로, 믿지 않는 일반 사람에겐 일부다처는 감당하기 힘든 허락이지만, 일부다처가 문제가 있다거나 죄는 아닌 것이다.

출21:10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분명한 것은 남자가 "바람을 피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것을 이유로 남자를 죽을 X 취급하는 것은 여자의 무지요 죄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 위에 두신 것을 잊지말라!

창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남자가 현재 아내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현재 아내(들) "몰래"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하며 은밀히 즐긴다면, 그것은 "죄일 수 밖에 없다". 왜냐면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황금률로 주심으로 성경에서 혹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마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따라서, 성경은 결코 남자의 방종을 죄시하지 않으며 음욕을 불법적으로 해소하는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이 게시글은 "여자들은 일부다처를 받아들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밝히 알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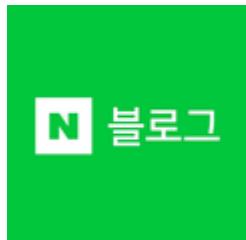
하나님께선 (모든 남자에게 어떠한 여자는 다스릴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하든 어쩔 수 없단 말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다시 한번 위에 보인 마7:12, 요13:34 말씀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남편이 아내과 아내에 대한 바람직한 것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한 두가지 제한을 이유로 마치 여자의 일생은 피해자의 삶이요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확대해석하며 말씀을 따르길 거부하는 자의 결말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마7:12, 요13:34)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남편/아내에겐 화평의 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생활은 "용서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사는 것이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다.

반드시 아래 게시글을 같이 보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62978198>



(모든 종류의) 섹스는 결혼을 하는 행위다

이 글은 이 세상 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무분별한 결혼을 조장하려는 것...

[blog.naver.com](http://blog.naver.com/tpad51j/221067234510)

<http://blog.naver.com/tpad51j/221067234510>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간음과 음행을 하는 자가 받을 형벌 이 글은 다가올 환란에 앞서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

[blog.naver.com](http://blog.naver.com/tpad51j/221063305667)

<http://blog.naver.com/tpad51j/221063305667>



자위는 죄가 아니다

게시글 "(모든 종류의) 섹스는 결혼을 하는 행위다"에서 일부분만 가져온 것으로, 전체 내용은 해당 게...

[blog.naver.com](http://blog.naver.com/tpad51j/221077748915)

<http://blog.naver.com/tpad51j/221077748915>



<용서>는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다

교회나 매체가 가르친 엉터리 교리, 사랑, 용서 ✕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베풀어야...

[blog.naver.com](http://blog.naver.com/tpad51j/221077748915)

혼자서 혹은 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법

진리탐구

2017/08/07 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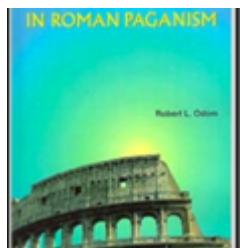
<http://blog.naver.com/tpad51j/221068924671>

미리 밝혀두지만, 본인은 제칠안식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교회"를 떠나 일반 가정 집이나 공원, 유료 모임장소 등을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온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자신의 주변이나 인터넷을 통한 공개 설교, 전화 등 공개된 방법으로는 도저히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가용한 방법내에서 올바른 교리를 들을 수 없다면, 목사 없이 집에서 성경읽기/찬양/찬송/기도/쉼 등을 하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드리는 진실된 안식일은 토요일인 것을 검증해보길 바란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86707185>



하나님께서 명령한 안식일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제칠일안식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해산할 때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

blog.naver.com

아래의 내용은 일기 형식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에 기재된 방법으로 문의해서 들을 수 있다.

John과 Jane은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된 자들이며, 성령으로 깨달아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이 현대의 토요일임을 깨달아 알고있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John은 Jane과 함께 마트에 들러서 안식일을 대비해 이것 저것을 사러갔다. 토요일은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피곤하다" 여겨질 정도로는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즉석 식품 몇개와 과일, 야채, 물, 과자 조금 등등.. 을 준비한다. 토요일엔 설거지도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헹구는 것 외에는 그대로 다음날 까지 방치해두곤 한다.

Jane은 집에와서 안식일 먹을 밥과 반찬을 미리 해두고, 필요할 때 데우거나 그릇에 옮기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하고 있다. Jane이 식사할 동안 John은 간략히 집을 청소하고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 정리 정돈을 해둔다. 안식일은 늦자는 날이라 맘이 편하므로 밤늦게까지 읽고 싶은 책을 읽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유익한 몇가지 영화도 찾 아둔다. 찬송을 부르는 도중 기타 줄이 끊어지면 곤란하므로 미리 미리 줄을 점검해두고, 악보도 찾아둔다.

토요일 아침 동이 틀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이날은 John과 Jane이 매사에 주의하고 있다. 어지간해서는 언성 높일 일을 하지 않으며 TV 드라마, 공상과학영화, 호러물, 가요대전, 예능등 .. 일체의 오락거리는 찾지도 보지도 않는다. 대신 오전 늦게까지 푹 쉬다가 일어날 수 있어 정말 기다려지는 하루라고 생각한다.

어제 준비해둔 음식을 가져와 둘은 아침을 먹었다. 예배 드리기 전 차도 한 잔 했다. 씻고 옷은 밝고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은 뒤 예배를 드린다. John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둘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송을 드린다. John이 기타를 연주하지 못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 찬송 반주나 합창단의 녹음된 찬양을 틀어 따라 불렀지만 이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서스 (Jesus)라는 이름 대신 "예수"라고 부르고 사람이 만들어낸 "여호와"라는 영터리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몹시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John은 핸드폰으로 반주해주는 앱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직접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 힘들여 기타를 배우는 중이다. 안식일에 기타를 치며 찬양하면 오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하루가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기도 하였다.

찬송을 마치고 기도한 뒤, John은 자신이 정리한 설교내용을 아내 Jane과 같이 읽는다. 때때로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곤 하였지만 도무지 영터리가 많아 이젠 기도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배워 안식일에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다. 짧으면 10분, 길면 2시간 이상도 할 때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맞추므로 예배시간동안 출거나 딴짓 하는 일은 결코 없다. 말씀 나누는 것이 끝나면 다시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기도로 예배를 마친다.

예배를 마치자 Jane이 졸려서 잠시 눈을 붙이러 누웠다. 대략 1시간 30분 뒤에 일어날거라 한다. 그동안 John은 어제 찾았던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보는 다큐멘터리 한편을 보기로 했다. 편한 자세로 어제 사둔 과자를 먹으면서 영화를 즐기다 보니 Jane이 깨어났다.

둘은 차를 몰고 근처 경치 좋은 숲 부근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즐기며,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한다.

도중에 누군가 뺑튀기를 팔고 있으나, 안식일은 사사로운 돈 쓰는 일은 하지 않으므로 입이 궁금하지만 참기로 한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 차가 평크가 났다! 다행히도 평크만 났을 뿐 사고는 없었다. 안식일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므로 자동차 보험센터에 전화를 해서 수리 요청을 하였다. 이내 도착한 수리지원 차량이 평크난 타이어를 교체해주었고, 기름이 부족했으나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해보니 문앞에 페인트 도색한 것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식일에 할 일이 아니므로 다음 날로 미루기로 한다.

저녁이 되자 둘은 미리 만들어둔 음식을 꺼내 데워서 먹었다. 설거지는 해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 날로 미루고 일찍 잠 들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면서 안식일이 끝났고 둘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

알콜 한 방울을 마셔도 죄인가

진리탐구

2017/08/08 16:51

<http://blog.naver.com/tPad51j/221069558215>

다음 구절이 알콜 섭취가 위험하다 말하는 것은 토론할 여지없이 확실하다.

잠20: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나 반드시 어떤 교리를 이해할 때는 하나 이상의 구절을 참조해서 그 모든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를 종합해서 이해해야 한다:

사28:10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흠정역)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진리를 찾으며 주의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구절만으로 판단한다면, 스스로 무덤파는 셈이다:

사28:13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게으른 무지

대부분의 교역자란 사람들과 신실하다는 기독교도인은 알콜 한방울도 죄로 여긴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알콜 섭취를 권한 구절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아예 마시지않는게 좋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알콜섭취를 죄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알콜섭취가 죄가 아니란 것을 말하는데 주저한다:

딤전5: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만약 한방울의 알콜도 죄라면, 지서스(Jesus)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리가 없다:

요2: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JESUS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JESUS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JESUS의 어머니가 JESUS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JESUS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JESUS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And saith unto him, Every man at the beginning doth set forth good wine; and when men have well drunk, then that which is worse: but thou hast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위의 10절의 포도주(*wine*)와 취하다(*drunk*)라는 단어는 딤전5:23, 행2:15, 계17:6 구절에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다!

딤전5: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행 2: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계17: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JESUS의 종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복음 2:10의 '술을 마시다' (*drunk*)라는 번역의 그리스 원어는 행2:15, 계17:6에 나오는 '술에 취하다'라는 번역의 그리스 원어와 같다. 즉 포도주(*wine*)라고 번역된 원어단어는 '술에 취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와인을 마시는 것이 죄라면 지서스께서는 물을 술로 변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한 요2:10 구절이 말하지 않는 것은, 지서스께서 만든 술로 하객들이 술에 골아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지 잔치 주관자가 맛을 보고 포도주스가 아니라 진짜 와인이라고 말한 것 뿐이다.

구약의 증거

아래의 구절들에서 보이는 '포도주', '독주'라는 표현의 원어는 잠언 20:1에 나오는 '포도주'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다:

잠20:1 포도주(H3196)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H7941)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전9: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H3196](#))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잠언20:1 구절 하나만 보고 "술마시는 것은 죄다" 라고 말한다면, 신명기 14:26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어떤 술이든 원하는데로 마시고 즐거워 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꼴이 된다:

신14:22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23 네 하나님 JESUS 앞 곧 JESUS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JESUS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니라

24 그러나 네 하나님 JESUS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JESUS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JESUS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H3196)나 독주(H7941)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JESUS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27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래 구절에서 마실지라도(H7937)라고 번역된 원어단어 'שָׁקַר' /shä·kar/는 '마신다'라는 뜻과 '술취하다'라는 뜻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술을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것 둘다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지 알코올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술 남용" (alcohol abuse)에 따른 그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학개1:2 만군의 JESUS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JESUS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 JESUS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JESUS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H7937)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삶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노아가 술을 마신 것에 대해 JESUS께서 죄라고 한 부분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창9: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9: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교회에서 무엇이라 하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아5:1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오직 술이 사람을 주장하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짓는 멍청한 것들이 죄다!!

신약의 증거

지서스 (Jesus)께서도 와인을 마셨으며, 유월절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신 점을 잊지 말라: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주스가 아니라 진짜 술이다. 아래 구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취했다는 점이 그 사실을 입증해준다. 또한 아래 구절에서 바울은 술을 마셨다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 성찬식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셔 죄짓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전11: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외 술마시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레10: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구절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 자손에게 해당하며 그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신약에서 왕과 제사장이지만 레위지파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서스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대체되었다.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고전15: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Become sober-minded as you ought, and stop sinning; ...

sober라고 번역된 부분의 그리스 원어는 3개인데, 어디에도 술에 영향 받지 말란 뜻은 없다:

G4993, G4998, G3525 - 자신을 다스려 절제하다, 절제하다, 신중하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기독교인이 바(bar)나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은 죄인가?

당연히 왜 거기에 가며 거기서 뭘 하느냐에 달려있다. 거기에서 술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마약을 하거나 싸우고 동성애와 스트립쇼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그걸 죄라고 하지 않을텐가? 따라서 질문자체가 바/나이트클럽을 죄와 동일시한 것이므로 잘못된 질문이다.

결론

성경이 술마시는 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기뻐하지 말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다.

절제함 없이 술을 찾는 것은 죄다!

고전6: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절제하지 못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nor thieves, nor the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갈5: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envying, drunkenness, carousing, and things like these, of which I forewarn you, just as I have forewarned you, that

사5:1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Woe to those who rise early in the morning that they may pursue strong drink, Who stay up late in the evening that

잠23: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For the heavy drinker and the glutton will come to poverty, And drowsiness will clothe one with rags.

영어/히브리어/그리스어를 읽지도 듣지도 못하면 구원얻기는 불가능한가

진리탐구

2017/08/10 13:36

<http://blog.naver.com/tpad51j/221070989838>

지서스(Jesus)의 이름이 당신에게 알려지기 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생활을 할 때, 그들중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었을까?

다윗이 자신의 성을 만들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지서스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못박혀 죽으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읽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기라도 했을까?

지서스께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고 계실 때, 고대 중국과 고조선/고려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

사도들이 지서스의 복음을 들고 중동과 유럽 일부에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동안, 아프리카/중국/오늘날의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듣기라도 할 수 있었을까?

16세기 들어 영어로 성경이 점차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고대 조상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지 100년 조금 넘었을 뿐이다. 그 사이 침략과 약탈을 당했고, 지긋지긋한 전쟁도 있었다. 그 와중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구원됐다고 생각하는가?

개역성경이 일반인에게 쥐어지고 몇십년이 흘러 이제 도처에 영어와 한국어로 기록된 성경을 구입해서 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해도 여전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즐비하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구원을 얻도록 예정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일일이 모두 만들어 그들에게 한꺼번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자손이 번창하고 민족이 퍼지기 까지 기다리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

지서스께서 가나안 여자의 도움 요청을 처음엔 무시한 이유에서 볼 수 있듯, 한번에 모든 민족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마15:21 JESUS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마15: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15:23 JESUS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마15:24 JESUS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지서스께서 부활 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허락되었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국어 성경에 "예수"가 아니라 "지서스"라는 이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과, "세례" 대신 "침례"라는 용어가 올바른 것임을 알아내기까지 그 모든 한국인들은 구원을 못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이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주어진 생애 동안 구원얻지 못하면 끝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즉 두번째 부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구원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벧전3:21 물은 JESUS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은 구원얻지 못했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지서스"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물 몇방울 퉁구는 세례를 받았기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모두!

baptized/baptism 등의 단어가 침례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성경은 일점 일획이라도 변경된 것이 없어서 지금 읽고 있는 한국어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문제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원본 성경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번역자에게 성령으로 감화시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번역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개역한글, 개역개정, 한글킹제임스, 흄정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모두 "번역된 성경"이다. 당연히 번역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구약성경도 번개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신약이라고 예외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너무 순진한 것이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개역)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개역개정)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

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한글킹제임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흠정역)

동일한 예레미야 8장 8절을 두고 각기 번역한 것을 보라. 구약성경을 필사해서 보관의 의무를 맡고있던 서기관이 변개했다는 말씀도 저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했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한 구절 이상의 짹을 찾아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사28:10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흠정역)

사28:13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지서스께서 "다시 나야한다" (*born again*)는 표현을 하시며 양수가 가득찬 엄마의 배속에서 나온 것처럼, 침례를 받아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게하지 않으셨는가!!!

요3:3 JESUS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3:4 닉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3:5 JESUS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마태복음 마지막에 단지 한번 밖에 나오지 않은 "성부와 성령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왜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유라도 대보라! 어떤 사람이 비록 영어를 읽지 못하고 그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만 읽을 수 있다 해도 올바른 구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지서스께서도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심으로 침례인 것을 밝히셨고, 요한도 강에서 침례를 주었으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디오피아 내시도 강에 내려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마3:16 JESUS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영어를 모르더라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주의깊게 읽었다면 '세례'가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구원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과 같다:

요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영어를 읽지 못했다고해서 구원 얻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실하지 못하다고 선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며 전파되고 마침내 당신에게도 올바른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전파되었고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며, 라틴어와 영어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되기 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두번째 부활에서 다시 살아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다

두번째 부활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이글을 통해 당신은 회개하고 반드시 침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때 다시 시험을 받게될 것이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29661615>

두번째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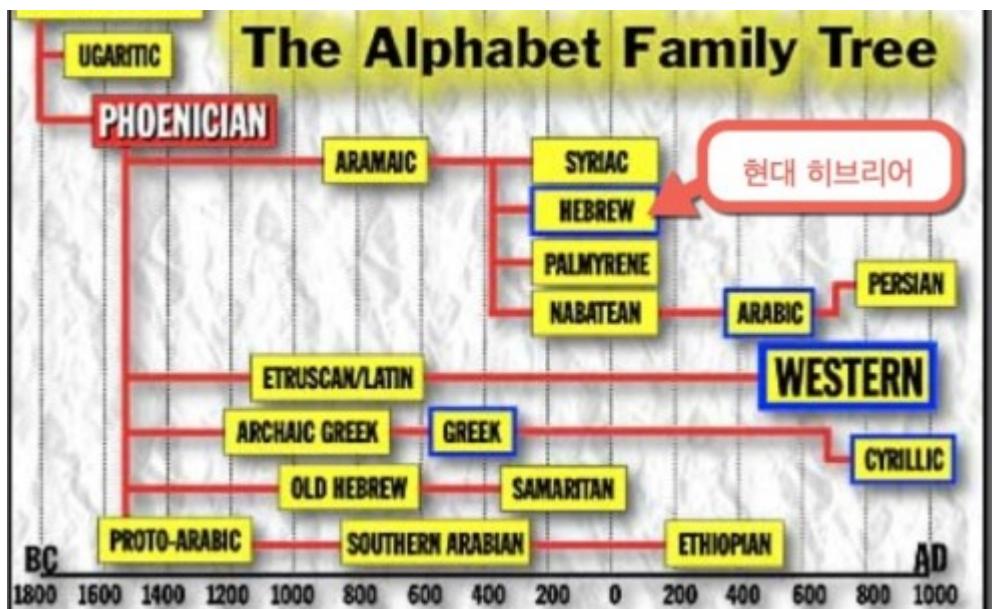
이 게시글은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hell.html>"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나 원본 문서의...

blog.naver.com

영어성경 조차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번역된 성경이다. 당연히 오류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영어에는 최소한 "지서스(Jesus)"의 이름은 그대로 부르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baptism)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한국어보다는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성경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지서스의 이름이 아닌 앗시리아 이방 교리인 "삼위일체"를 믿어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무효이며 구원된 것도 아니다.

세상이 거짓에 둘러 싸여있다는 것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43464929>



"어둠의 둘레"

게시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먼저 그 게시물부터 읽고 오는 것을 권한다. 일부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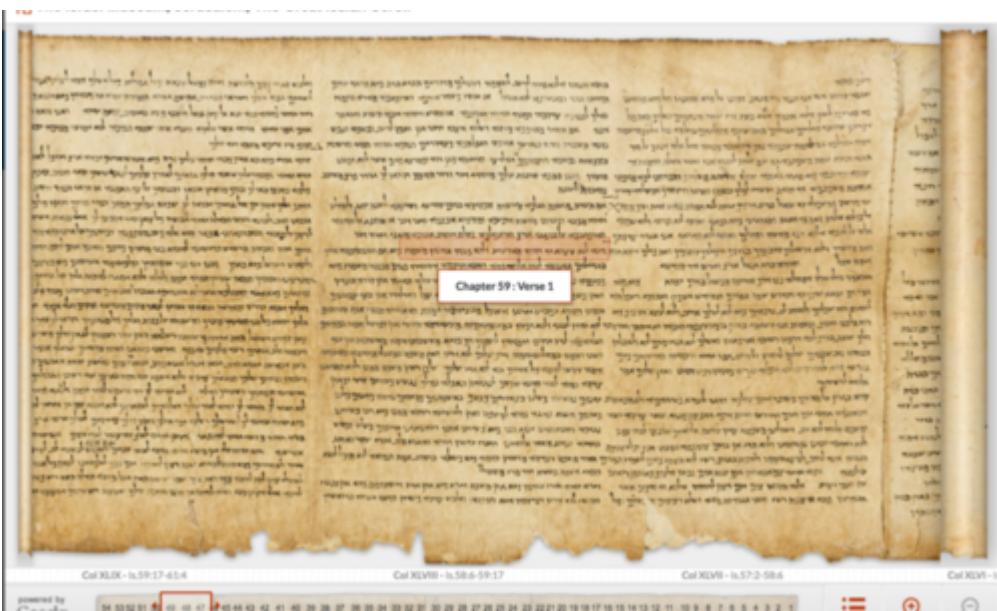
blog.naver.com

KJV 옹호자들에게 경고한다

하나님의 이름인 "JESUS" 대신 만들어진 이름인 "여호와"를 세상에 널리 퍼트린 KJV 기록자와 번역자, 옹호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지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대신 마귀의 이름을 전파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 "지서스(Jesus)" 대신 마귀의 다른 이름인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긴다. 일점 무획이라 우긴다 해서 없는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 만들어 넣은 그 죄가 가려지진 않는다. ASV, KJV, 한국어 성경에 비해 차라리 "Jehova/여호와" 대신 "LORD", "GOD" 등으로 번역해둔 NASB, NIV등이 나을 것이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41332058>



하나님의 진짜 이름

"너희는 지식과 온 힘을 다해 연구하여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찾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원...

blog.naver.com

거자씨 한알 만큼의 믿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진리탐구

2017/08/17 00:37

<http://blog.naver.com/tfad51j/221075594015>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만 의미하지 않는다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But for the cowardly and unbelieving and abominable and murderers and immoral persons and sorcerers and idolaters
(NASB)

위 구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Strong's 인덱스는 다음과 같다 : [unbelieving; apistos /ä'-pē-stos/ G571](#)

예외 없이 모든 성경 번역자들은 자신이 속한 종파의 교리를 따라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옳다고 믿은 것에 번역의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 계21:8의 "unbelieving"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서 번역자들은 단순히 "아...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 이지"라고 믿고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단어 조차도 문맥에 따라 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며, 성경내에 그 단어가 쓰인 다른 문맥을 살펴보면 단순히 "불신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17:17 JESUS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G571}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막9:19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G571}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눅12:46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G571}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역시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요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G571}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불신자가 아니라 사도다!!)

행26:8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G571} 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유대인의 풍습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립바 왕에게 하는 말이다)

고전14: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G571}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모두 불신자인것은 아니다!)

고전14: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G571}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

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을 듣는 사람이 모두 불신자라는 말은 아니다!)

위의 구절들에서 보다시피 계21:8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unbelieving)"의 의미가 단순히 "불신자"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지서스께서 도마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며, "믿음이 부족한 자"라는 뜻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14:22 JESUS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14: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14: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14:25 밤 사경에 JESUS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14: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14:27 JESUS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14: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마14: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JESUS께로 가되

마14: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14:31 JESUS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Immediately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ok hold of him, and said to him,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

마14: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14: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JESUS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다. 불신자도 아니다. 그는 지서스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육체를 입은 자는 할 수 없는 초 자연적인 일을 잠시나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의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즉시 물에 빠졌는데 이때 지서스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눈여겨 보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감각중 하나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뜨거운 주전자를 피하게되며, 불못(Lake of Fire)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 하기도 한다. 따라서 불못 곧 지옥이 두려워서 순종한다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구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하다.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것에 대해 "왜 두려워(의심)하였느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한 것을 질책하신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를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자.

마8: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8: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JESUS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8: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8:26 JESUS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He said to them, “Why are you afraid, you men of little faith?” The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s and the sea, a
마8: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위의 구절에서 지서스께서 제자들에게 “내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하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 하는 행동, 곧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짖고 계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통해 두려워 하는 자들을 지서스께서 꾸짖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17: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JESUS께 와서 끓어 엎드려 이르되

마17: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17: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17:17 JESUS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
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마17:18 이에 JESUS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

위의 예제에서 지서스께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 당신이 익히 듣던 말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믿음이
부족한 자에 대해 지서스께서 위로하거나, “괜찮다, 낙심하지마라. 곧 나아질거야” 라든가, “내가 너에게 믿음을 봇돌아
주리라” 하시고 계신게 아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자를 한심하게 보시며 간신히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 거짓 교육받은 사람들은 위의 내용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릴 위해 인내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다. 그러나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성
품을 보이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없음에 질책하시는 지서스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당신이 믿고 싶은대로 편하게
만든 이미지를 쫓을 뿐이다.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제자들이 지서스께 와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자세히 보자:

마17: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JESUS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17: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And He said to them, “Because of the littleness of your faith; for truly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the size of a mustard

이제껏 수많은 목사들, 곧 구원받지도 않은 자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친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위의 마17:20 구절이

말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의 믿음이 그만큼이라도 없다는 것을 심하게 꾸짖고 계신 것이다!!

또한 영어 및 한국어 번역은 원본 그리스어에는 없는 "크기(size of)"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번역한 것을 알아야 한다. 20 절 말씀은 믿음의 크기를 비유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같다면!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다:

마13: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13: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즉,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은 지서스께서 한심하다 꾸짖음 들을 뿐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당신과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배운 거짓 교리인 것이다. 온전한 믿음, 곧 의심이 하나도 없는 믿음, 충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엉터리 교리에 속아 스스로의 믿음없음에 안주하고 있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음에 충만하여 어떤 의심도 없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상태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공연한 말이 아닌 것은, 이집트에 내려졌던 모든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모든 기적을 본 세대 중 단 세사람만이 살아남아 요단강을 건넜거나 바로 그앞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신1: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JESUS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 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1: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JESUS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신1: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JESUS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1: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1:34 JESUS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신1: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신1: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JESUS께 순종하였으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1:37 JESUS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1:38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신1: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신1:40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광야 40년 동안 죽었던 자들은 두번째 부활에 다시 삶을 얻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것인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29661615>

"나에게 가능한 일인가?"

받아 들이기 힘들 것이다. 자신이 아는 대로라면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포기할 생각부터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후 일부러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한참 명청하고 우둔해서 아예 하나님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꼴이란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전3:6 나는 심었고 아불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전3: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는 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주의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모이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것이다. 당신과 내가 할 일은 바로 믿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한치의 의심 없이 그분이 당신과 나를 믿음이 꽉찬 상태로 인도하며 키워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다.

그러나 당신은 두려워 하며 걱정하고 의심한다.

Q: "만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지서스께선 전혀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A: 아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지서스께 "소리질러 구해달라"고 했을 때, "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 그럴 수 없다.." 고 대답하셨나?

그렇지 않다.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주셨다. 당신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심판대 앞에 이를 때까지 믿음 부족한 것을 참아주시겠지만, 그 때까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Q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A: 직접 하나님께 묻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스스로 알 수 있다.

당신이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왔으며 모든 진리를 배척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는 오직 당신의 회개 기도 외엔 없다 ("침례에 대한 게시물 참조"):

사59:1 JEH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59: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만일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제 위에서 설명해온 말씀대로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경우를 점검해보라:

- 여전히 "여호와", "예수", "예수아", "여호사와이", 등 바빌론 Y 이름이 들어가는 마귀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경우(우상숭배)
- 안식일과 모든 주의 절기를 찾아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경우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참조)
- 두려워 하는 경우/의심하는 경우

딤후1:7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일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약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약1: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약1: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Q: "위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A: 기다리면 된다. 사실 온전히 믿는 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런 질문을 당신이 했다면, 스스로 믿음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수 없이 많다

롬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잠시 불평과 불안, 두려움을 내려놓고 찬찬히 살펴보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온도, 습도, 물, 꽃, 벌레, 햇빛, 바람, 구름, ... 수도 없이 증거가 즐비하다.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모든 것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된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도 없다.

당신이 어둠에 싸여있다가 진리를 알게된 것에 감사하라.

당신은 그냥 환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정함을 입어 첫번째 생애중에 진리를 알게된 사람중 하나로 택함을 입었다. 이것이 작은 일인가?

모든 교회가 죽은 자의 무덤과 같은 늪에 빠져 허우적이고 있는데, 당신은 진리를 듣고 믿게된 것이다. 그게 작은 일인가?

그저 당신에게 적은 믿음을 줘서 결국에 불못에 던져버리실려고 진리를 알게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첫번째 혹은 두번째 생애에서 진리를 접할 기회를 얻게 하셨지만, 당신은 첫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느누구도 첫번째 부활에 참여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부름받았다: 마19: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사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런 충만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게시글은 아래 설교를 요약한 것이지만 본인의 생각도 들어간 것이다. 원본 설교는 아래 주소에서 들을 수 있다

<https://soundcloud.com/isawthelightministries/ts-1197990-unfaithful-not-protected#t=14:15>

는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다

진리탐구

2017/08/20 00:39

<http://blog.naver.com/tPad51j/221077748915>

교회나 매체가 가르친 엉터리 교리, 사랑, 용서

- ✗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 ✗ 남편/남자친구/가족이 자신을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학대한 하더라도 이에 대해 용서해야 한다
- ✗ 자신을 강간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 ✗ 누군가 자신의 가족, 부모, 아이들,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을 살해했더라도 우리 또한 죄인이므로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한다
- ✗ 누군가 자신의 것을 훔치더라도, 그를 용서해줘야 한다
- ✗ "피는 물보다 진하므로" 가족의 잘못과 죄는 용서해야 한다

위에 열거된 것 모두 엉터리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일흔번 씩 일곱 번의 용서

다음 두 구절은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왔던 "용서"에 대한 근거로 사용해 왔다:

마18: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마18:22 JESUS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상징적인 말씀이므로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500번이든 그 이상이든 용서해주라는 말씀이 맞다.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만 그렇다. 교회가 무엇이라 수사를 늘여놓아도 그 "형제"는 <누구나>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12:46 JESUS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JESUS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마12:47 한 사람이 JESUS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마12: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12: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12:50 구절의 말씀에 따라, 훔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살인하고 이용해먹고 강간한 자는 결코 내 형제가 아닌 것이다. 지서스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지서스께서 하신 대로 용서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다.

용서(forgiveness)란 그 사람의 잘못/죄/실수 등에서 놓아준다는 것이며, 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잘못이라 자백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의무가 없다!

하나의 구절만으로 교리를 삼지 말것을 누차 강조해왔듯 <용서>에 대해서도 한 군데 이상의 말씀을 분명히 참조해야한다:

눅17: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경고하고(rebuke;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눅17:4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생명에 길에 대해 무지한 교회가 이 부분을 가르치길 꺼려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설령 마18:21의 "형제"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뉴17:3 구절에 따라 무조건적인 용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7장은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일곱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다소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증거하는 사람에 따라 자신의 관점이 첨가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기록된 것이든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나/침입하거나/폐를 끼치거나/권리를 침해한다면, 그를 꾸짖어야(rebuke) 한다(적법한 '비판'과 '판단'을 할수 있다). 이 말은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다른 구절의 말씀과 맞을 뿐더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11-15, 21:18-22를 통해 지서스께서 가르치시길, 주의 제자는 어떤 이를 <저주; curse>를 할 수 있다 하셨다:

마10: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마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10: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 아니라

마10: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밭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마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21: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마21: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21: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마21:21 JESUS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21: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지서스께서 우리에게 <예외없이 반드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고,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 잘못한 자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1. 만약 우리가 예외없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 지겠는가? 범죄자가 떳떳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에 싸여 살기 힘들 수도 있다. 자신을 강간한 자/학대하는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다. 성경은 결코 이런 가르침을 따를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교리를 맞다고 주장한다면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 가운데서 온 위선자 일 것이다.
2. <조건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죄지은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려 그 사람을 끔찍하고 애정없이 대우하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이라 가르쳤던간에, 우리는 악에 대해 맞서야 하며 (엡 5:11), 거짓 교리를 꾸짖고(딤후4:2),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한바대로 잘못한자를 바로 잡으며(rebuke)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죄를 무시하고 없던 것처럼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조건없는 용서>라는 거짓 교리로 자신을 망하게 하지 말라. 잘못된 것에 대해 맞서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다!

지서스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래 두 구절은 우리에게 <지서스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라 말씀하신다:

엡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3: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서스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confess*) 돌아설 때(*repent*)다.

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 대한 뉘우침 없이, 자백 없이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서 하지 않으신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때 주께서 하시듯, 잘못을 범한 자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행위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용서를 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형제"라 불리는 어떤 이가 위의 말씀대로 행하여 진정한 용서를 구하면, 당신은 말씀에 따라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

<조건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은혜로워지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 모독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은 무엇인가

마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18: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마18: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18: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18: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위의 말씀의 문맥은 지서스를 따르는 진실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잘못을 범한 자와 그 일을 모른척 덮어두거나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영생을 상속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결코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라는 식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처음엔 회개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의 잘못을 여러 진실한 자들에게 알려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해야한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불신자"처럼 여기며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잠9: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위의 말씀에서도 <무조건 적인 용서를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멀리하고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잘못을 범한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래 말씀에 따라, 지서스를 따르는 진실한 자들은 상대방의 죄를 면제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다고 한다:

요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JESUS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20: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20:21 JESUS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서스께서 죄 사면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성직자에게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귀신 (*Holy Ghost*; 성령)를 받은 누구든 주어진 것이며, 상대방의 죄를 사면할지 그대로 두고 있을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의 댓가를 치루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지서스와 그분의 나라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런 힘과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인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는 왕좌에 앉아 천사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지서스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자들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다!

교회에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 #1

아래 말씀의 문맥은, 전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인", "강간", "도둑

질", "학대", "악용", "사기", "간음" 등의 죄와 관련이 없다. 진정 갚을 길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일 뿐이다:

마18: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18: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마18: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마18: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마18: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마18: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불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마18: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마18: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마18: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마18: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마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18: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교회에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 #2

아래 구절만 가지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가르침이라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제껏 살펴 본 것처럼 오직 잘못을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마6: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6: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비판 또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눅6: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기 위해 꾸짖고 훈계하지 말라는 것은 위험한 거짓 교리일 수밖에 없다! 만약 잘못을 범한 자를 그대로 둔다면 당신 자신도 언젠가 해를 입어 죽을 수도 있지않겠나? 꾸짖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비판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거짓을 위해 변호하는 자일 뿐이다.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위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경우에 지나치거나 가혹한 판단/비판이 아닌 부드럽고 온순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마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때로는 상대방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용서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 벌어진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수도 있고, 오해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조건적인 용서>는 결코 현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기억에서 끄집어 내어 되새긴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무리 당신이 용서한다고 입으로 말을 해도,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를실 것 같은가?

잘못을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그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 필요 없다. 지속적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적으로>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때론 어떤 이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해야 할 때가 있다. 그들이 당신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살더라도 당신도 그랬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회개에 이르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보듬어주고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무조건 적인 용서>를 어떻게 악용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거나 굶주리고 그들을 챙길 여력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만약 그들이 도박이나 마약, 술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이유로 도움을 청한다면, 그들을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다! 현명해 져야 한다. 악한 자들이 자신을 이용하지 못하게 주의하라! 누군가 자신을 "악용"하고 "학대"하는대로 내버려두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배우자, 부모, 가족, 아이들과 단절

용서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위해 배우자/부모/가족/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의 엄마, 아버지, 할머니, 누나, 동생, 언니 등.. 누구든 상관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가족의 잘못과 죄는 무조건 적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말하

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마10: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마10: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10: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10: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10: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10: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 하리라

눅18: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눅18: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는 없는데, 가족이라고 예외로 두는 것은 엉터리요 거짓 교리다.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과 연을 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해준다고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면 자신의 삶을 위해 그들을 떠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고후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6: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고후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마12:46 JESUS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JESUS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마12:47 한 사람이 JESUS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마12: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12: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게시글의 원본 글은 아래와 같으며, 원본의 내용에서 빠진 것이 있고 달리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forgiveness.html>

Are We Required To Forgive Every Person Every Time Without Any Exception

I Saw The Light Ministries Home LIGHT vs darkness Prophecy Ministry Truth Ministry Commandments in the New Covenant Era Free Literature Sub Menu 한국어 Korean (If this appears near top of page, PLEASE WAIT until full page is seen.) Please SHARE This Page Click on "Share" below and choose Face
www.isawthelightministries.com

이 보인 후 1335일 후에 지서스께서 재림하신다

진리탐구

2017/08/18 22:55

<http://blog.naver.com/tapad51j/221077116175>

오늘날 "주의 날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는 교리를 많은 교회가 확고히 믿고 있으나, 사실 그 교리는 "모든 말씀은 짹이 있다" ^{사34:16} 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 하나의 구절에 그 근거를 삼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해당 교리를 반박하는 논리나 주장이 등장할 때 마다 경건치 못한 생각으로 치부하며 무시하거나 이단의 낙인을 찍어버림으로써 애써 무시해 왔다.

사34:16 너희는 지서스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짹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지서스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것을 기억하자: "믿는 자는 반드시 많은 구절의 바탕위에 서서 나약하고 불완전한 교리의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사야 28:9-10} 어설프고 짜맞추기식의 근거없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주의 날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다른 힌트를 살펴보고 깊이 상고해 보길 바란다:
이사야 28:9-10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흠정역)

하나의 구절에 매여있는 '주의 날'에 대한 믿음은 어리석은 고집일 뿐이다

"주께서 재림하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가르침의 근거는 마태복음 24:36 한 구절에 있다:

(개역개정)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NIV)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KJV) But of that day and hour knoweth no man, no, not the angels of heaven, but my Father only.

지서스 Jesus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므로 ^{히6:18}, 위의 구절 말씀하신대로 주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동안 자신이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이 말씀을 하시던 바로 그 시점에서는 천사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신 지서스 조차 그 날에 대한 지식은 가져오지 않았고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심을 택하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지서스의 능력 ^{요10:18} 이기 때문에, 재림의 날에 대한 지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지서스의 관계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설명은 다음 게시물을 참조하자: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도?")

요10: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

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빌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지서스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그날을 "결코 알 수 없다"^{will never}라거나 언제 오시는 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It's impossible}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다. ^{Knoweth}라는 동사의 시제는 "약 2000년 전 그 당시, 현재형" 일 뿐이다. 지서스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는 분명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셨으나, 그분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것을 분명히 아셨다고 확증하셨다^{사46:10:}

사46:1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8:25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상식적으로도 신랑 신부가 그들의 결혼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결혼 청첩장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몰라도, 청첩장을 보내면서 결혼식 당일 날짜도 모르는 신랑이 있단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서스께서도 결혼 피로연이 언제 열린 것인지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알수없다"고 확대 해석한 것을 진리로 주장한다.

그런 주장이 맞다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나기 전에 반드시 미리 듣는다"^{암3:7}고 기록되어있는데, 하나님이신 지서스께서는 선지자보다 못하고 심지어 도둑이라서 그 집과 신부에게조차 결혼식일자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말과 다를바가 무엇인가?!

암3:7 주 지서스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마24:43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적그리스도)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환란전 휴거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휴거는 환란뒤에 일어난다)

때가 가까이 오면 모든 예언의 말씀이 풀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모든 것을 듣는대로 믿지 않고 스스로 검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계22:10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섯번째 인(*6th Seal*)은 오순절에 떼진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아래 구절들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다:

욜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욜2: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욜2: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욜2:31 지서스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했다!

행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2: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제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행2: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행2: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행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욜2:28)

행2: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욜2:29)

행2: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1)

행2: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2)

행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착각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신 오순절은 "말세"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있는" 여섯번째 인을 떼는 때가 아니란 말이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 여섯 번째 인과 성령^{Holy Ghost}을 남종과 여종에서 부어주는 것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많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보고 여섯번째 인이 떼어지는 말세인 것으로 착각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했다해서 그가 거짓 선지자라거나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그저 소망에 가득찬 실수를 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의 실수가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우리 세대에 일어날 여섯번째 인이 떼어지면 성령^{Holy Ghost}이 부어진다는 힌트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릴 위해 지서스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에 그 말을 넣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세대에 여섯번째 인이 떼어지는 일이 생길 때는 환란이 진행중일 때다(아래 타임라인 그림참조). 환란 속에서도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Holy Ghost}이 각 사람에게 부어져 엄청난 규모의 영적 부흥이 일게되며 많은 사람이 구원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때가 다시 반복되거나 그 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계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계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둘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7: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7: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계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엡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섯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같이 저마다 언어가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되는 것과 그들이 인침을 받는 것이다. 혹은 사도행전 때보다 더욱 엄청난 규모일 가능성 이 있다. 요엘 2:28 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all} 부어 주리니..." 라고 기록한 부분 번역은 실상 "많은^{many}"이 라고 해석되어야 옳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악한 자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여 성령^{Holy Ghost}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게 아니다:

계9: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9: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16: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여섯번째 인이 하나님의 절기중 오순절에 떼어질 것임을 사도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엿볼 수 있었으므로, 성도의 들림과 지서스의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절기^{Holy Day} 가운데 특정 절기에 일어날 수 있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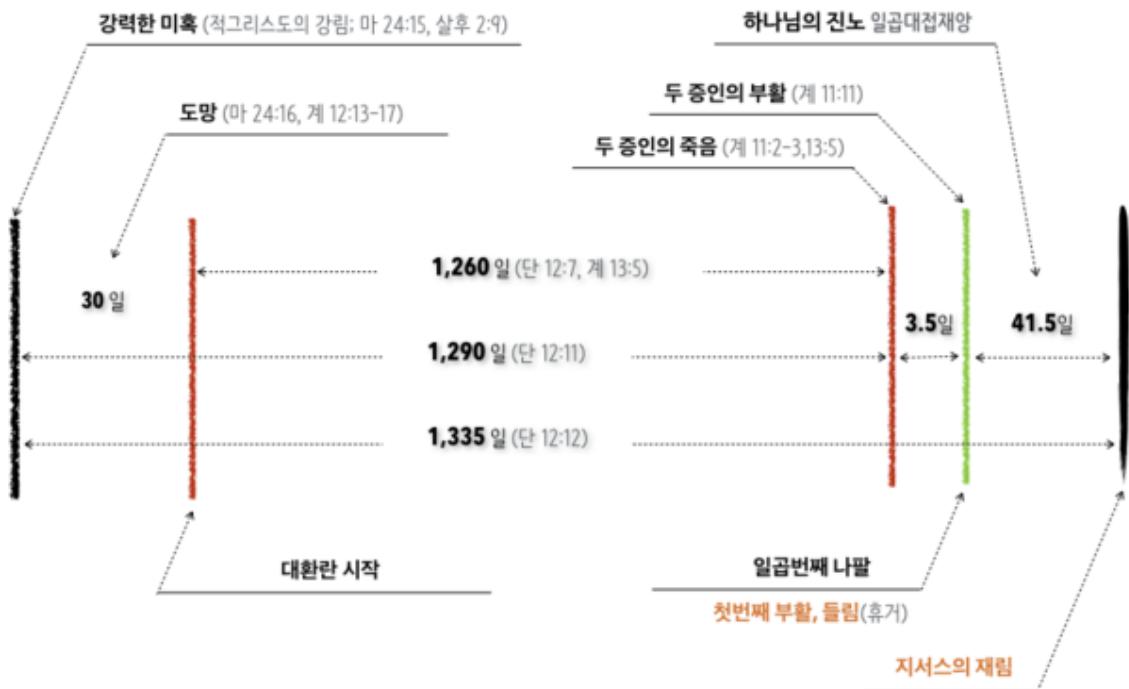
휴거가 일어나는 날은 속죄일이다

(2018년 1월 25일, 원래 글의 내용중 상당 부분을 삭제/수정하고 아래 글로 대체한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반드시 읽기를 권한다)

휴거는 속죄일에 일어난다

강력한 미혹 이란 적그리스도바샤르 알 아사드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보이고 ...

blog.naver.com



1335일 개요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본 게시글은 아래의 문서를 바탕으로 재 구성한 것이다. 내용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며 일부는 이해를 돋기 위해 그림이나 설명이 추가되기도 하였고, 본인의 판단하에 제외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URL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

[Impossible To Ever Know Date of Jesus Return Refuted](#)

Proof in the bible that eventually we will know in advance the date of Jesus return and second coming, it is not impossible to know the date because the scriptures tell us how to count the days

www.isawthelightministries.com

하나님의 달력에 따른 절기

진리탐구

2017/08/21 03:13

<http://blog.naver.com/tapad51j/221078378850>

성경에 명시된 기념일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지구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교도의 축제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할로윈 그리고 일요일을 축제일 또는 성일로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해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일(Holy Days)는 따로 있다. 지서스(Jesus)께서 계셨던 시대의 사도와 제자 모두 지켰으며, 주의 재림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신 날들이다. [이 성일은 폐해진 것이 아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은 지서스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주께서 지키라 명하신 성일이 폐해져야 했다면 분명히 명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지서스께서도 분명이 모든 성일을 지키셨으며, 결코 명시적으로 "더이상 성일을 지키지 말라" 명령하신 적이 없다!

오늘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키라 명하신 성일(Holy Days)을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라거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연히 성경은 그런 생각을 뒤받침해주지 않는다. 스가랴14장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속14장은 마지막 때 대환란 뿐만아니라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는 때(겔38,계11:2,단11:40-45)와 그리스도 지서스의 재림, 주께서 오신 후 1000년 동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16-19절을 읽는 자는 결코 어떤 식으로라도 주의 절기가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된다:

슥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JESUS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슥14:17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JESUS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슥14: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JESUS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슥14:19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만일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라도 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된 자도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자도 아니다. 지서스께서 명시하신 재앙이 당신에게 그대로 내려질 것이다.

주께서 오신 후의 절기 지킴에 대한 경고가 이렇듯 엄한데, 어떻게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 지키는 것이 폐해졌다 우길 수 있는가? 구약시대 주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 지서스께서도 성일(Holy Days)을 지키셨다. 결코 폐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며,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사도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으며,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을 꼼꼼히 기록한 사도 바울역시 절기 지킴에 대해 폐해졌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또

한 주께서 재림 하신 후에는 지구상 모든 사람이 한명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사66:23 JESUS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게시물 "[율법: 폐기된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 십계명과 주의 절기는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기 바란다.

만일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안식일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결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마침내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진 후 자라나기 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얼마간은 주께서 기다려주실 지라도, 자신이 하고싶은데로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면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은 겁을 주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히6: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히6: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약속하신 보혜사 곧 거룩한 귀신 (*Holy Ghost*)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야 비로소 당신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가 이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불신자와 다름 없는데, 이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연구해도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막4: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를 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진리를 발견하며 죄사함 얻는 회개에 이르게된다고 믿고 있으나, 실상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전 행위에서 돌이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함없는 믿음은 헛것> 이기에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생명에 들어가도록 말씀이 감춰진 것이다:
마19:17 JESUS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유월절; Passover

레23:5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JESUS의 유월절이요

그레고리안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체계를 따라, 첫번째 달 14일 저녁에 지켜져야 한다. 안식일이 아니므로 일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이 날 해가질 때,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와 같이 모여 발효되지 않은 빵과 (진짜)포도주로 성찬식을 가진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다면 포도주스나 크랜베리 주스로 대신할 수 있다. 주스조차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물로 대신하더라도 지서스께서 이해해주실 것이다. 빵과 포도주의 양은 한입에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이상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할로윈을 거부하는 참된 성도만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카톨릭 교리아래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신의 주변에 아무도 진실한 형제 자매가 없다면 혼자서라도 성찬식을 할 수 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지서스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6:53 JESUS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것, 해마다 돌아오는 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얻는다>라고 생각하며 위의 선언에 즉시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맞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거부하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겐 은혜와 자비는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는다! 히10: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성찬식은 오직 유월절에만 거행한다. 일년중 아무때나 하고싶다고 원한다고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혹자는 행2:46 구절로 어느때고 성찬식을 할 수 있다 주장하겠지만, "떡을 뗀다"라는 말은 결코 성찬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저 "빵을 먹는다"는 말일 뿐이다! 또 다른 사람은 고전 11:25 구절로 "마실때마다" 주의 오심을 기념하라 했으므로, 원할 때 성찬식을 할 수 있다 주장하지만, "마실 때마다"라는 구절은 번역하는 사람이 추가한 표현일 뿐이다. 고전11:25은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를 기념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살과 피를 마시기에 합당한 자여야 한다!!

고전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자신의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한 자가 아니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아무 것도 아닌 종교행위일 뿐이다. 목사와 장로, 집사, 성도할 것 없이 모두 회개한 후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저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인일 뿐인 것이다.

그런 자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한들 참된 유월절이 될 수는 없다. 만일 그 성찬식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질만한 거룩한 성찬식이었다면, 그들 다수가 어쩌면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찬식 이전에 당신은 반드시 회개해야하며 그 회개의 내용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것, 해마다 돌아오는 주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행위, 앗시리아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부활절(Easter)/삼위일체 교리를 믿은 것>을 자백하고 올바른 행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무교절; 7Days of Unleavened Bread

하나님께서 밝힌 하루는 해뜰 때부터 다음날 해뜰때 까지다. 유대인이 변개한 해질때부터 다음날 해질때까지가 아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저녁이 지난 다음날 아침부터 7일간 이어지며,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다. 둘째 날부터 여섯 째 날까지는 안식일이 아니므로 일하는 것에는 제한없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동안 제7일 안식일이 들어가므로 그 날 또한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유월절이 지서스의 죽음과 우리 죄를 위한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받아 들이는 의미라면, 이어지는 7일동안의 무교절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를 없애는 것을 나타낸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지서스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난 후,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 모든 종류의 포르노 매체를 버리며, 하드록 음악, 공포 영화등.. 우리 삶에 찌든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과정을 이어간다.

설령 몇 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그처럼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룩은 영적인 죄를 나타낸다.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교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특정 죄를 인식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가능하다면) 유월절 저녁과 무교절 첫날, 마지막날에 지서스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과 모임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다. 누군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야외나 일정시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공간을 임대해주는 곳을 사용할 수 도 있다.

무교절 빵을 만드는 것과 먹는 것에는 다음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79296735>



유월절과 무교절을 위한 누룩없는 빵 요리법

0. 주의: - 2017년 유월절은 4월 11일 해뜰때 부터 시작된다. 10일 저녁이 아니다!(유대인은 해질때 부터 ...

blog.naver.com

오순절; Pentecost

무교절 기간동안 있는 제7일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킨다. 따라서 오순절은 반드시 해당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이 된다. 오순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우리는 첫번째 부활에 참여 할 첫 열매인 것이다.

지서스(Jesus)께서는 요한복음 20:22 말씀대로 이미 제자들에게 거룩한 귀신(Holy Ghost)를 주셨다. 오순절에 교회도 이미 세워졌으나 지서스께서는 오순절에 믿는 자를 더하시며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며 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귀신(Holy Ghost)를 더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 어디든 "귀신"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오히려 긍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던 말이었다. "귀신"은 죽었으나 여전히 영으로는 살아있는 자를 뜻하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서스를 뜻하는 정확한 말이다. 한국어로 "성령"이라 번역된 단어가 NASB 번역판에서는 "Holy Spirit"이라 번역되어 있고, KJV에서는 "Holy Spirit" 또는 "Holy Ghost" 두 가지 말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어 "거룩한 귀신"이란 말은 처음에 듣게되면 반감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영문권에서도 "Holy Ghost"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Holy Spirit"은 "거룩한 숨(Holy Breathe)"이라는 번역을 사용할 것이다.

오순절은 안식일로 지키고,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들은 같이 모여 이 날을 함께 보낸다.

나팔절; Festival of Trumpets

하나님의 달력에 의거한 일곱번째 달의 첫째 날이다. 유대인은 이 날을 새해의 첫날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팔절 외의 다른 절기는 어느 정도 그 날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곱번째 달의 첫째날에 있는 나팔절은 그 날짜를 예측하기 까다롭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를 통해 그 날짜를 어느정도 수월하게 예상할 수 있으나 달의 위상(*moon phases*) 변화만을 참조해야한다면 나팔절의 날짜는 미리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달력에 기반한 각각의 월초는 달이 완전히 어두워서 아무 빛도 내지 않는 하루 또는 이틀이 지난 뒤 초승달이 보여야만 새로운 달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나팔절은 달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달이 시작하기 전 하루 또는 이틀 동안의 천이되는 날(*Transition Day*)이 지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첫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 절기의 시작에 대해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달의 위상 변화								달초)
2	3	4	5	6	7	8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천이 (Transition)	천이 (Transition)	하루 또는 이틀이 될 수 있음						

나팔절은 마지막 때의 7번째 인이 떠어지는 기간과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하늘로 들려올려가는 때를 나타내는 마지막 일곱번째 나팔을 상징한다. 지서스께서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인 것이다.

나팔절은 안식일로 지키고,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들은 같이 모여 이 날을 함께 보낸다.

속죄일; Day of Atonement

일곱번째 달의 열번째 날은 속죄일로 지킨다.

속죄일은 지서스께서 재림할 가능성이 큰 성일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77116175>

<강력한 미혹>이 보인 후 1335일 후에 주의 날이 임한다

오늘날 "주의 날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는 교리를 많은 교회가 확고히 믿고 있으나, 사실 그 교리는 "...

blog.naver.com

속죄일 전날 해질 때부터 속죄일 당일 해질때까지 금식한다. 금식은 해뜰 때부터 당일 해질 때 까지만 하는 것이라서 해뜨기 전 아침을 먹어도 금식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속죄일이 시작될 때는 확실하게 속이 비도록 전날 해질 때부터

금식하도록 명령하셨다.

속죄일은 안식일로 지키고,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들은 같이 모여 이 날을 함께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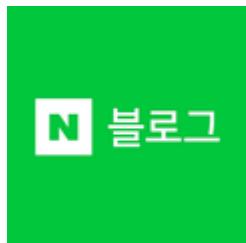
장막절 (혹은 초막절); Festival of Tabernacles

속죄일 후 5일 째 되는 날 부터 7일간 장막절로 지킨다. 장막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킨다. 장막절 기간동안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같이 모여 이 절기를 함께 보낸다. 만약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다른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장막절 7일동안 적절한 곳을 찾아 텐트에서 지내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 생활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 5일 뒤, 반드시 모든 민족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다.

장막절은 지구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을 나타내며 인류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입고 잠시동안 거하는 것을 나타낸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87009007>



2017년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s)

iSawTheLightMinistries 한국 교회에서는 10월 5일(목요일)부터 12일(목요일)까지, ■◆? 캠핑...

blog.naver.com

마지막 큰 날; The Last Great Day

한 해의 마지막 절기, 곧 일곱번째 절기다. 완전 수인 7에 속한 것이기도 하다. 이 절기는 장막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지키지만 분리된 다른 절기다. 마지막 큰 날은 안식일로 지키며,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들은 같이 모여 이 날을 함께 보낸다.

이 절기는 모든 것의 완성, 낙원,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저주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낸다.

2017년 주의 절기

3월 29일

첫번째 달의 첫째 날

4월 11일	유월절; Passover
4월 12일 ~ 18일	무교절; 7 Days of Unleavened Bread
6월 4일	오순절; Pentecost
9월 21일	나팔절; Day of Trumpets
9월 30일	속죄일 (전날 해질 때부터 당일 해질때까지 금식); Day of Atonement
10월 5일 ~11일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
10월 12일	마지막 큰 날; The Last Great Day

[2017 성일 달력 다운 받기 \(Source: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2017

January							February							March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5	6	7	8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2	13	14	15	16	17	18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29	30	31					26	27	28					26	27	28	29	30	31	

April							May							June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1		2	3	4	5	6		1	2	3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9	10	11	12	13	14	15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6	17	18	19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3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30																				

July							August							September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1		2	3	4	5			1	2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3	24	25	26	27	28	29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30	31													31						

October							November							December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5	6	7			1	2	3	4			1	2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29	30	31					26	27	28	29	30			24	25	26	27	28	29	30

Box=First of Month New Year

Holy Days

March 12-13 Purim

April 11 Passover

April 12-18 Days of Unleavened Bread

June 4 Pentecost

Sept. 21 Fiesta of Trumpets

Sept. 30 Day of Atonement

Oct. 5-11 Fiesta of Tabernacles

Oct. 12 Last Great Day

Dec. 13-20 Fiesta of Dedication

이 게시글은 아래 원본글을 재 배열하고 수정된 내용이다. 특히 속죄일에 대해서는 다른 글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이 게시글에는 옮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원본의 글을 알고싶다면 아래 URL을 방문해보기 바란다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holydays.html>

God's True Holy Days / Holidays

I now include here a letter that I wrote in 2015 to my dear Brother in Christ JESUS, who is in prison. In this letter, I am explaining each of the Feasts/Fiestas and why they are NOT done away with. I now include this letter here for all to read for your edification. Dear Brother Jonathan, Greetings!

www.isawthelightministries.com

크리스마스 라는 덫

진리탐구

2017/08/25 16:39

<http://blog.naver.com/tapad51j/221082085452>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바코드(Barcode)가 세상에 널리 쓰이게됨에 따라, 일부 기독교인은 그 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짐승의 표 666 이라 전파하기 시작했다. 바코드의 특정 세 부분이 각각 "6"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바코드에 "6-6-6" 이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크게 바코드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외치거나 인쇄한 전도지를 뿌리며 지하철에서 바코드를 받지 말라고 소리 높였었다. 그후 몇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베리칩(VeriChip)이 짐승의 표 666이며 절대 손에 이식해서는 안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다수의 설교에 등장하여 그 위험성?을 전파하고 있다.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파하는 것에 대해 결코 스스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 깊은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목사, 신실하다는 누군가, 책에서, 느낌으로..) 그럴듯하게 주장한 것을 앵무새 마냥 뜻없이 지껄이고 있을 뿐이다. 무당과 다름없고 "열심"이라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을 뿐, 거짓의 추종자요 진리 전파를 막는 방해물인 것이다.



몇차례의 어리석은 666 관련 전도 덕분에? 일반인 뿐만 아니라 소위 믿는 자들도 이에 대해 둔해져 버렸는데, 이슬람 할랄표(Halal Mark)가 TV 매체와 자신의 눈앞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강제되는 모습이 전파를 타더라도, 또는 이슬람교리

에 따라 살겠다는 선서를 한 자가 따라야하는 샤리아 법(Sharia Law)으로 먹고 사고 파는 것이 제재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Youtube나 뉴스로 분명히 보임에도 자신들이 그토록 외치던 진짜 짐승의 표인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애초부터 이들은 원본이 아닌 번역된 성경이라도 완전무결하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666에 대한 구절이 오역이라고는 결코 생각해본 적이 없고, 이슬람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어 자신들 보기엔 그럴듯한 기술을 쫓았을 뿐, 영적인 지식위에 분별한 것이 아니다.

설령 할랄표가 짐승의 표인줄 몰라서 받았다 해도, 다른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죄일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랄표가 짐승의 표인지 알아낼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서라도 옳은 것을 알려줘야 한다. 지서스(Jesus)의 도움으로 진리를 알게되길 바랄뿐이다.

짐승의 표에 대해 무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다를 바 없다. "설령 12월 25일이 지서스의 생일이 아니라해도 무슨 상관인가?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의미로 지내면 무슨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지각있다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 중심적"은 언뜻 지성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짐승의 표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이유는, 당신이 부지불식간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아니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으면 3.5년 동안 쉴수도 없는 고통의 환란을 맞이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있듯,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의 축제일 인것을 몰랐다해도 여전히 죄라는 말이다:

계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위의 말씀에는 "알지 못하고 그 표를 받은 자는 예외다"라는 조항은 없다. 단호한 말씀 그대로다. 당신이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여 크리스마스를 즐기거나 혹은 지키거나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아무 생각없이 지낸다면, 결코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날은 앗시리아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 곧 마귀의 날이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이란 증거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부여된 자신의 머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검증해보라:

살전5:21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불들라. 22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롬12: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히11:6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마7: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국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상관없다. 내용 중에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거나,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라고 하거나, 12월 25일 즈음에 대해 언급된 어떠한 구절이라도 찾아보라.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거짓말은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교회에서는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혹은 어떤 행사를 거의 반드시 "동방 박사와 아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기 지서스께 경배한다는 식의 얘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동방 박사라는 자가 선물을 바쳤다고 기록한 [그리스어 원본 구절](#)에는 지서스께서 막 태어난 "아기 (newborn)"라는 말은 없고 이미 자란 "아이 (child)"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2:11).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들을 비교해보라: (개역개정)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

(KKJV)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

(NASB) After com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ο/ο*) with Mary His mother

(NIV)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ο/ο*) with his mother Mary, ...

(KJV) And when they were come into the house, they saw the young child (*ο/ρην ο/ο*) with Mary his mother,

...

아이라는 번역에 해당하는 그리스 원본 단어와, 신생아를 뜻하는 그리스 원본 단어는 다르다!

아이; Child: παιδίον /pī-dē'-on/ G3813

신생아; Newborn: ἀρτιγέννητος /är-ti-

https://www.blueletterbible.org/nasb/mat/2/11/ss1/t_conc_931011

https://www.blueletterbible.org/nasb/mat/2/11/ss1/t_conc_931011

마2: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
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and said, "Go and search carefully for the Child;

벧전2: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

함이라

like newborn babies, long for the p

...

개역개정과 개혁성경 마2:11에 "아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본 그리스 단어는 "젖먹이 유아 (*infant*)"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유아"라는 뜻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지서스의 생일에 맞춰 그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으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지서스의 탄생을 묻고 다니자 그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이 성 곳곳에 퍼지자 헤롯이 박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지서스께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

마2: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가 지서스의 탄생에 대해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볼 때는 이미 지서스께선 태어난 뒤다!)

마2: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2: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마2: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아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따라서 동방 박사가 헤롯을 만났을 때는 처음 별을 보고 따라나섰던 때와 달리 시간이 많이 지난 뒤고, 지서스는 갓 태어난 아기(newborn)가 아님을 헤롯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학살하라 명한 것이다:
마2: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또한 성경은 지서스를 보러 갔던 동방 박사가 결코 세 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박사가 몇명인지 기록한 부분은 없다.

마2:1 헤롯 왕 때에 JESUS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세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2:7 이에 헤롯이 가만히 ~~(세명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마2:9 ~~(세명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마2:12 ~~(세명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2:13 ~~(세명의)~~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게다가 동방 박사는 드린 선물을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선물이 아니었다!

당시 유대인은 생일을 축하 하는 것은 이교도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역사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 만약 성경에 누군가의 생일을 맞아 기념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교도가 한 것이라는 말이다. 유대인은 결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 동방박사 역시 그런 유대인의 풍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서스의 가족에게 결례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그들은 왕께 선물을 드린 것이다! 왕에게 드리는 것은 이교도에 속하지 않으며 유대인에게 용납되는 일이었다. 황금과 유황, 물약은 지극히 값진 것이라 왕께 드리는 선물에 합당했다. 이교도의 풍습인 생일 선물이 아닌 것이다.

개신교도가 알고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흡사 거짓말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다. 성경에는 12월 25일이 지서스의 생일이라거나 그 날을 성일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결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을 지키거나 즐기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풍습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크리스마스(Christmas)는 로마 카톨릭을 믿던 주술가(occultist)가 만들어 낸 것이란 걸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hristmas>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미사"(massa)의 합성어로서,...

The first recorded Christmas celebration was in Rome in 336 ...

It was also the date of a Roman pagan festival in honor of the Sun god Sol Invictus.

The rival "History of Religions"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Church selected December 25 date to appropriate festivities held by the Romans in honor of the Sun god Sol Invictus. This feast was established by Aurelian in 274.

An explicit expression of this theory appears in an annotation of uncertain date added to a manuscript of a work by 12th-century Syrian bishop Jacob Bar-Salibi.

The scribe who added it wrote: "It was a custom of the Pagans to celebrate on the same 25 December the birthday of the Sun, at which they kindled lights in token of festivity. In these solemnities and revelries the Christians also took part. Accordingly when the doctors of the Church perceived that the Christians had a leaning to this festival, they took counsel and resolved that the true Nativity should be solemnised on that day."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가 지서스 탄생 이전 몇 천년 전부터 이교도가 지켜오던 풍습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도 없다. 로마 카톨릭은 그 날을 "그리스도의 미사(Christ Mass)", "Christmas" 라 불렀지만 그 날을 어떻게 불렀든 상관없이 "12월 25일에 나무장식(tree)을 하고 파티와 선물교환을 하는 풍습"은 그리스도 지서스의 탄생 이전부터 있어왔으며, 12월 25일 전후 12일 동안은 동지(winter solstice)와 거짓 이방 신의 탄생일로 지켜져 왔다.

이교도가 믿은 것은 별자리와 태양, 달, 별, 혹성(planets)들이며, 그것들을 자신들이 믿는 신의 본체로서 경배했다. 별자리와 하늘의 표식을 보고 동지가 언제인지를 알았는데, 매년 12월이 되어도 다른 나무와 달리 잎이 지거나 죽지 않는 상록수 나무(evergreen tree)를 보면서 그 나무에 영생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상록수 나무를 잘라다 집에 가져다 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묶어둔뒤 은과 금, 초로 장식을 했다. 그러나 일년 중 다른 때에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다가 12월 20-25일 사이에만 이런 풍습을 지켰는데, 참된 창조주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른 앗수르의 거짓 신 Asshur에 대한 경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Asshur는 당시 신으로서 숭배되던 앗시리아 사람이다.

시대가 바뀌어 그 날이 제우스의 생일로 기념되었고, 지서스께서 태어난 뒤로는 로마 카톨릭이 그 날을 "이방교도의 정신과 혼을 넘어서기위해"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 정했지만 동시에 "이방 교도와 함께 그 날을 그들의 풍습대로 이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즉 로마 카톨릭은 이방교도와 함께 그 날을 지켜온 것이다.

후에 마틴 루터와 같은 몇몇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부 교리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돈을 받고 파는 카톨릭의 면죄부를 조롱함에 따라 개혁파와 로마 카톨릭 양쪽은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에 마틴 루터는 스스로 루터 교를 창립했으나 몇

가지 교리만 다를 뿐 실상 기존 카톨릭 교회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대부분의 주요 교리는 앗시리아인을 기리는 크리스마스를 포함하고 있었고 로마 카톨릭 교리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이 카톨릭과 루터교를 떠나 감리교(Methodist), 장로교(Presbyterian), 감독교(Episcopal Churches)등 .. 여러 종파를 만들었다. 각 세대마다 이전 세대의 교리에 반대하였지만 단지 몇개의 교리만 다를 뿐 침례교(Baptist Churches), 오순절교(Pentecostal Churches) 등의 종파가 생겨났어도 "모체 교회(Mother Churche)" 로마 카톨릭의 전통 교리는 여전히 그대로 이어갔다.

그 전통 교리에는 알렉산더 왕과 철학자 플라톤, 시인 단테, 이집트, 바빌론, 앗시리아 등으로부터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 받는다"는 거짓 교리가 있고, 크리스마스, 부활절(Easter), 삼위일체 신(Trinity God) 교리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 교회 학교와 수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검증없이 로마 카톨릭교리와 고대 앗시리아 인을 숭배하던 이방교리를 참된 진리 마냥 가르치고 배워온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렘10:1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렘10: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하늘의 표적" 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다. 별자리, 해, 달, 별, 혹성이다. 분명 이교도는 창조주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기린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서스를 따르지 않은 현대판 마녀는 소위 말하는 "대자연 지구"를 경배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이다)

렘10:3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스트롱 사전이 정의하는 "관습"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이란 뜻이 아니다! 히브리어/아람어/시리아어/그리스어 모두 그 단어를 "나의 신상" 또는 "법령(ordinances)" 이라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켜야할 교리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신 "나의 신상"이 아니라 "그 사람(Asshur)이 명령한 신상" 이란 뜻이다. 쓸모없는 그 관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구절과 이어지는 구절을 주의해서 보라)

렘10: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렘10:5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무가 "종려나무(palm tree)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처럼 서 있는 우상이라고 비유하는 것에 주의하자)

렘10:6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이 구절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관습은 분명히 십계명중 첫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는 사실이다!)

렘10:7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

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렘10:8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나무줄기는 헛된 것들의 교리이니이다.

렘10:9 판에 깐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왔으며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도다. 그들은 장인이 만들고 주물공의 두 손으로 만들었으며 청색과 자주색 옷을 입었나니 그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것이로다. (나무를 깎아 새긴 형상(우상)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단순한 "장식"이 결코 아니다. 이교도들이 거짓 신을 경배할 때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한 죄, 음행이며 우상숭배다! 예레미야 10장에 기록된 것은 고대의 크리스마스 트리로써 현대 크리스마스 트리와 형태가 같다. 현대에 와서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나무) 자체는 우상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트리장식에 천사, 사진, 각종 새겨진 이미지를 장식으로 올린다. 비록 그 모양이 달라졌다해도 이방 교리를 따르는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양이 변화하고 추가되고 없어지는 것이 있다해도, 모든 것은 그 기원이 있기 마련이다. 누가 어떻게 장식하고 변경하고 개선한다해도 "차(car)"는 차이며, 나무 우상은 여전히 나무 우상이다. 크리스마스 나무 우상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을리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서스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일 뿐이다!)

렘10:10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격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렘10:11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크리스마스 나무 장식의 상징

산타와 썰매를 끈다는 사슴의 정체는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고 달리 무엇이겠는가?

지서스의 생일이나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마지막 큰 날](#) 등, 믿는 자가 지켜야할 기념일의 이름과 정확한 날짜, 기간, 방법은 어느 것도 모호하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서스께서 태어나고 죽은 뒤 기록된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지서스의 생일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다. 오히려 그분이 어떻게 죽었으며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릴 살렸다. www.youtube.com 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 역시 성경에 기록된 기념일이 아니다. 그날 또한 이교도의 풍습을 따른 것이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요한계시록 22:18-19 말씀대로, 지서스의 탄생이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없다!!

"**이교도들이 12월 25일을 지킨다고해서 믿는 자가 그날을 주의 탄생일로 축하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록 그 날이 이교도의 축제일이라 해도, 기독교화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신12:30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신12:31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성경의 말씀은 명확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이교도의 풍습대로 그분을 경배하지 말라 하신다. 비록 사람이 그 날을 "거룩한 날", "즐거운 날", "기쁨의 날"이라 해도,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짓말일 뿐이다. 이교사상 (*paganism*)이란 참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며, 십계명 중 첫번째 계명을 어기는 범죄다!

Pat Robertson admits to the fully pagan origins of Christmas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은 각자의 방식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과거에 이교도가 어떻게 했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뿐이다! 그게 왜 죄란 말인가?!**"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약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신12:29 네 하나님 JESUS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신12:30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신12:31 네 하나님 JESUS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JESUS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목사들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대해 가르치는 것들이 모두 엉터리란 말인가?"

그렇다.

마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막7: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롬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뿐이다!"

초대 교회와 사도는 결코 지서스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다. 기념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했을 것이다.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싶다면 12월 25일이 아닌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할 때, 그 아들이 파티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행사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라는 날에 당신은 얼마나 지서스를 생각하는가? 당신은 지서스께 어떤 선물을 바칠 것인가 고민하는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지 기대하는가? 혹은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가지로 고민하는가? 진정으로 그날 지서스만 생각하는가? ..

굳이 그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날에 무엇을 하든 이교도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 고집한다해서 지은 죄가 없던 일로 되진 않는다.

"그날은 우리 가족이 오랫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추수감사절도 그런 날이 될 수 있다. 성찬식이 있는 유월절도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며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도 충분히 그런 날이 될 수 있다.

무지는 용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행17:28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의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행17:29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대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행17:30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적그리스도 역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크리스마스, [부활절](#)(Easter), [삼위일체 교리](#) 모두 고대 앗시리아에서 기원된 것이다. 마지막 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인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역시 같은 이교도 명절을 지킨다. [참고: 크리스마스의 기원](#)

무슬림 분파 중에서 오직 알라위(Alawi) 분파만이 지서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면서 성찬식과 크리스마스, 부활절,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게 한다! 다른 무슬림 지도자는 알라위 분파의 수장으로서 바샤르 알 아사드 만큼 손쉽게 사람들을 속이지는 못하고 있다. 아사드는 기독교인에게 "지서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절과 삼위일체 교리를 포기할 필요없다" 말하면서 동시에 이교도의 풍습과 교리를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로마 카톨릭이 오래전 자신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이교도의 교리와 풍습을 허용한 것처럼, 아사드 역시 같은 이교도의 날을 하나님의 성일이라 믿게 한 것이다. 알라위 분파는 무하메드, 알라, 지서스와 바샤르 알 아사드가 다른 모습을 한 같은 인물이라 믿는다. 그러나 아사드를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누구든 가차없이 목을 벨 것이다.

가증스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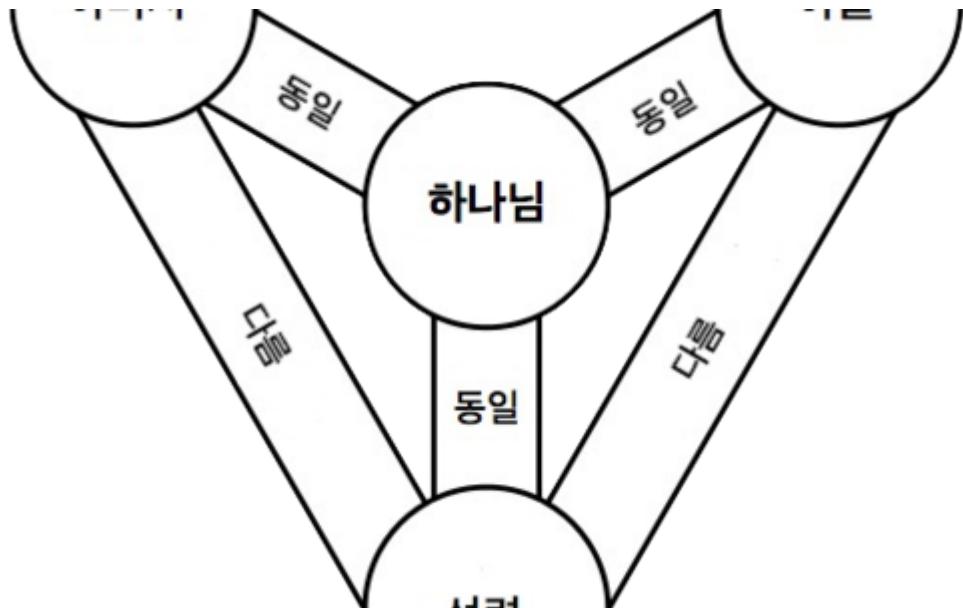
진리탐구

2017/08/27 05:32

<http://blog.naver.com/tpad51j/221083013853>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새로 작성한 게시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95614778>



머리 셋 달린 용: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개요 천사 혹은 마귀와 같은 영Spirit은 육신이 없다. 뉴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

blog.naver.com

가증스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장길자" 나 "안상홍"라는 이름 따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소리 내서 그 이름을 말하는 것도 글로 적는 것도 온몸이 격렬하게 거부한다.

그리스도 지서스(JESUS)외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 그 어리석은 자를 따르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와 타락한 천사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그들 역시 <제7일 안식일, 유월절 지킴, 크리스마스 부정>을 얘기함에 따라 여기 iSawTheLightMinistries에서 전하는 참된 복음과 혼동하는 자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만 해 둔다.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진리랍시고 말하는 것들은 초등학문도 아닌 무당 점괘와 다를 바 없는 이유는, <제7일 안식일, 유월절 지킴, 크리스마스 부정> 등의 행위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해도 이들은 여전히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인 "예수", "여호와"를 쓰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본부터 우상숭배 위에 있는 그들이 무엇을 한들 이교

도의 헛된 짓거리에 불과할 뿐이다(게시물 "[하나님의 진짜 이름](#)" 참조)

그들은 지서스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도 없으며, 침례를 준다해도 앗시리아의 마귀(Asshur)의 교리인 삼위의 이름으로 할 뿐이다. "새 언약 유월절" 이 구원의 길이라 하지만, 유월절은 지켜야할 절기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죄 사함받아 구원받기 위해 유월절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아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무식인데, 오직 구원되고 회개한 참된 그리스도인 만이 유월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시물 "[하나님의 달력에 따른 절기](#)" 중 유월절 부분 참조).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없으니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역시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시하지도 않은 (소위) 부활절을 지키니 어이가.. 없다. (게시물 "[크리스마스라는 덫](#)" 참조)

이들에 대해 알고싶지도 않고, 더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미혹이 보이기 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환란 통과에 필요한 등과 기름

진리탐구

2017/08/30 23:57

<http://blog.naver.com/tPad51j/221085936754>

'기름과 등'은 2020년 오순절에 받을 <성령>과 <환란전에 준비하는 쓸 것>을 의미한다

마25: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25: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마25: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25: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25: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싸

마25: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25: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싸

마25: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마25: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25:10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25: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마25: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또한 회개하고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으며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환란이 시작되기전 개미가 하는 것 처럼 먹을 것과 쓸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 두라는 말씀이다:

잠6: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잠30:24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5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 먹을 것

도망가는 날은 늦은 겨울^{Purim} 이므로 최소 3개월은 야외에서 먹을 만한 것을 얻기 힘들 것을 감안해서 준비하되, 사람 명수대로 최소 한달 ~ 최대 6개월 정도를 버틸 정도를 준비하자. 운반/보관/유효기간 문제도 있지만 도피한 곳에서 아무 문

제없이 먹는 것은 피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점을 마음에 담아두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참고해보면, 몇년치 식량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겨우 몇 일분 먹을거리밖에 챙기지 못했지만 먹는 것으로 인해 굶어 죽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부를 시험받게 될 것이고 지서스를 의지하느냐 아니냐의 믿음에 따라 살수도 죽을 수도 있다.

DATREX 같은 군용 비상식량은 2~3일치 분량이라도 무게가 만만치 않고 포장된 것을 일단 개봉하면 무조건 빠른 시간내에 먹어야 하니 작은 것 여러개를 사는 것이 현명하다. 라면같은 밀가루가 주 성분인 비상식량은 가능한 구입하지 말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배고픔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쌀과 밀가루 함량이 많은 음식일수록 배고픔이 갑자기 밀려오며, 허기를 참기 힘들다.

오히려 올리브오일 같은 지방이 더 중요하다. 포만감은 없지만 적은 양을 먹더라도 배고픔이 사라지고 또 쉽게 허기가 오지도 않는다.

야외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다람쥐나 토끼를 사냥할 생각을 하겠지만, 잡은 동물을 어떻게 도축해야 할지도 알아두라.

먹을 것 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장비/도구/틀/씨앗 등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불을 피울 수도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살아갈 것을 고려해야한다. 음지에서 재배가능한 식물과 방법을 알아두라.

□ 마실 것

"Life Straw" 같은 휴대용 아웃도어 정수기나 대용량 아웃도어 정수기 등도 넉넉히 구입해두길 권한다. 물통과 컵, 각종 크기의 물을 운반하는 통 역시 잊지 말자. 만일 지서스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라고 해도 바위에서 샘물을 흐르게 하셨다는 말씀때로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게될 것이다. 도피한 후 물을 찾아내기까지 얼마간은 아웃도어 정수기가 필요하다.

□ 도망할 곳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묘사한 구절을 보라:

출19: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실제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각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지 않았다. 60만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각 사람은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갔고 홍해를 건너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서스(JESUS)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라고 말하시는데, 비록 사람의 눈에는 그저 걸어가는 것 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피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라: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낮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시대가 변했으니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비행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출애굽기 예를 통해 보듯 마지

막 때 피난하는 것이 허락된 자는 스스로 걸어가거나 여러 방법으로 이동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와 같을 것이다.

□ 임시 거처

인원을 고려하되 몇가지 크기의 텐트는 필수품이다. 도망하는 때는 늦 겨울, 초봄이므로 한 두달 동안은 여전히 춥다.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될수도 있으니 가격이 비싼 텐트 하나보다, 적당한 가격의 텐트 두개가 낫다. 사람과 짐을 동시에 보관하는 큰 텐트보다, 사람과 짐이 각각의 텐트에 있는 것이 낫다. [가격도 적당하고 신뢰성 있는 쇼핑몰](#) 을 찾아 세일이나 재고처리하는 상품을 선택하자.

아웃도어 장비는 중고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큰 제품은 중고거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다.

잊지말라. 환란을 피해 도망한 자가 야외에 텐트치고 남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비나 눈을 막기 위해 고급원단을 사용하는 제품을 고집하지 말고 타프(Tarp), 매트, 텐트 수선용 덕테이프(Duck Tape), 텐트/타프 고정용 줄 등.. 텐트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타프는 비싸지만 [대용품은 값싸고 쓸만하다.](#)

텐트와 함께 여름/겨울용 침낭및 모포 등.. 어디서 거하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영하 15~ 20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슬리핑백은 필수다.

□ 전자장비

스마트폰은 당신의 가장 큰 위협이므로 절대 소지하지말라. 유용하지만 개인을 추적하는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고, 배터리 충전 때문에 각종 부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빛이 약하더라도 오래가는 헤드렌턴류는 반드시 준비하라. 배터리 충전을 위해 [태양열 발전기](#)이나 자가발전기 등 최소 하나 이상의 방법을 마련해 둬야 한다. 손으로 돌리는 자가발전기 종류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고 비효율적이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쯤은 있어도 무방하다. ["FlameStore" 같은 화력발전기](#)도 있으나 내구성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없는 것 보다는 낫다.

에네루프류를 절대 사지 말라. 배터리 효율은 좋으나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오히려 1000mAh 이상의 충전배터리를 두개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잊지말자. 배터리는 사용할 수록, 시간이 갈수록 용량이 떨어진다.

휴대용 발전기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담아뒀다가 렌턴등을 충전하는데 사용한다.

자가발전 라디오는 필수다. 그러나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고, 외국 사정이라도 들을려면 [단파 수신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북한이 EMP탄을 쏘게되면 준비한 모든 전자장비는 무용지물이 된다. EMP탄 피해를 최대한 막기위해 주방용 알리미늄 포일을 감싼 박스를 준비해서 EMP 피해가 예상될 때 전자장비를 넣어두는 것도 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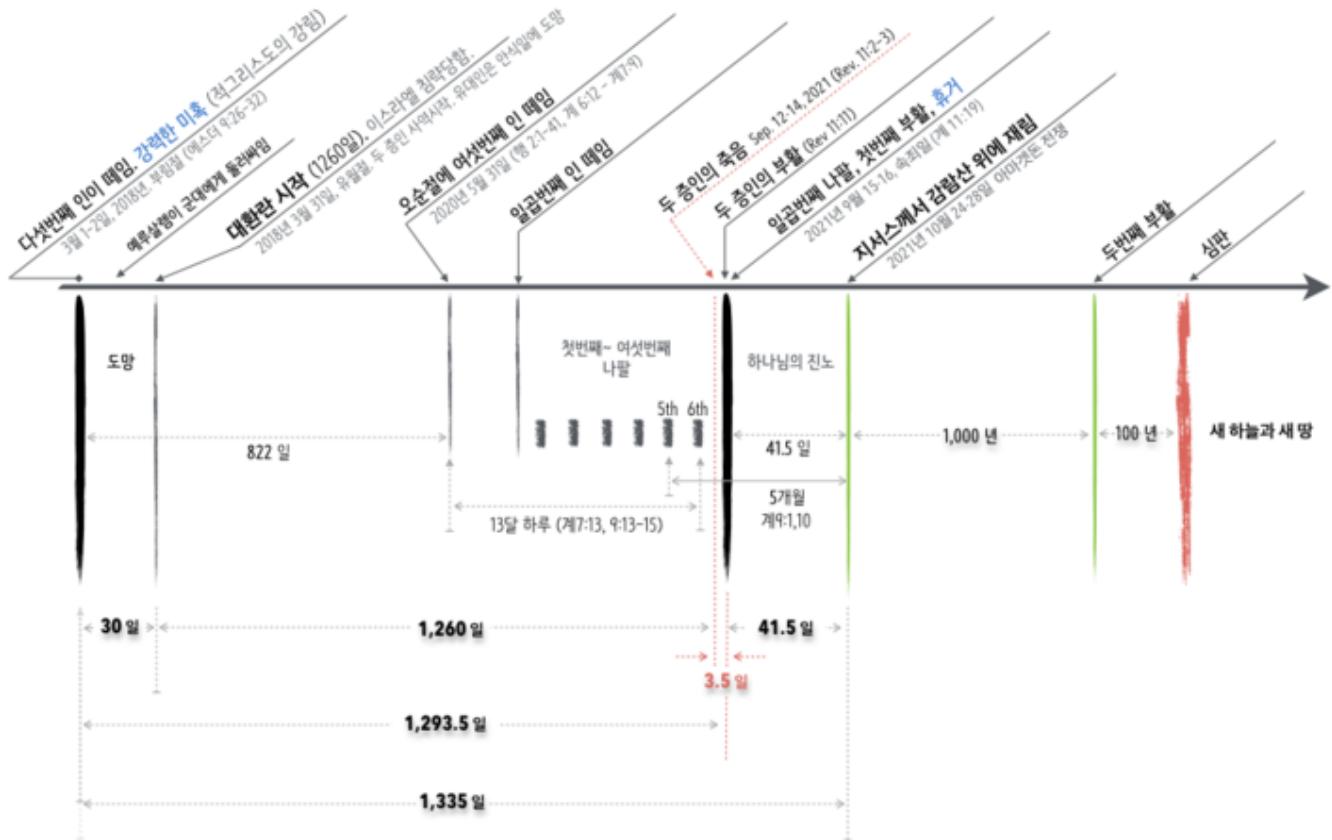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자 장비는 최소한으로 가지고 갈 것을 결심하자.

□ 시계, 달력

당신에겐 반드시, 절대적으로 시계와 달력이 필요하다. 환란중이라도 제7일 안식일^{토요일}을 지켜야 하므로 날짜보다는 요일이 표시되는 시계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만일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있게되면 시간/날짜 감각을 잃게 되므로 24시간 기반의 [전자시계](#)/자동시계 두가지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자동시계는 수동이라 EMP 공격에 상관없지만 태엽으로 움직이므로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요일표시되는 자동시계는 대단히 비싸서 구입하기 힘들다. 해외 구매를 해야하지만 [가장 저렴하면서 3.5년 정도를 버텨줄 러시아제 자동시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종류의 시계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간과 날짜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전자시계의 여유분 배터리를 미리 준비하고 알루미늄 포일에 감싸서 보관해두는 것을 잊지말라. 3년치 하나님의 절기가 표시된 종이 달력과 아래의 요한 계시록 타임라인을 준비해서 각각의 때에 따라 미리 기도하고 대비하라.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 822일 정도는 전쟁과 이슬람의 세계정복으로 어디를 가든 피를 보겠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뜨고 지며 사계절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여섯번째 인이 떼지고 난 뒤로는 지서스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약 30개월의 기간동안 숨어 있으며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해서 은혜와 도움을 구하길 바란다.



Timeline of The Day of The LORD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요한계시록 타임라인

□ 생존 도구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도구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유튜브등에서 야외생활을 설명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져갈 것들을 판단하기 바란다.

그중에 반드시 여러 종류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칼이다. 하지만! 북한/중국/러시아/이슬람 군대를 맞아서 결코 칼로 군인을 죽이거나 죽이려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낸 군사들이므로 그들을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다. 군인에게는 대항하지 말고 잡히거나 죽음을 택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환란중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자가 단순히 자신과 집단을 위해 당신이나 당신 가족을 위협하고 해하려 한다면 당연히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

벌목용 칼, 조리용 칼, 일반 유틸리티 칼.. 등, 때에 맞는 용도의 칼을 하나 이상 준비해야 한다.

그외 발화도구, 코펠, 식기, 도끼, 줄톱, 야삽, 호미, 함석가위, 통조림 따개, 병 따개, 쇠톱, 펜치, 못, 망치, 파라코드, 다양한 용도의 줄, 허리끈, 모기퇴치 망 등.. 3.5년을 견딜 수 있는 물품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준비하되, 신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아웃도어 중고품이 상당히 많으므로 현명하게 선택하자. 안경을 쓰는 사람은 여유분의 안경과 안경 천 등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잘 보이지 않으면 패닉에 빠진다. 곰팡이가 스는 일반테보다 뿐 테가 낫다.

□ 운반용/보관 가방

15,000~20,000원 사이의 군용 더블백이나 5,000원 미만의 [이케아\(IKEA\) 쇼핑백](#)도 조심히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하다. 세일하는 바닥 매트를 적절히 잘라 군용 더블백이나 이케아 쇼핑백 안에 말아 외형을 만들면, 추후 매트를 사용할 수 도 있고 가방이 형태가 잡혀 튼튼하고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다. 이케아 쇼핑백은 값도 싸지만 방수가 지원된다. 그외 이민가방, 이불가방도 유용하다. 결코 비싼 가방을 고려하지 말자.

□ 개인 위생 용품, 화장실

화장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단 이틀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업소용 큰 두루마리 휴지를 가능한 많이 챙기라.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물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 추측한다. 휴대용 압력 샤워기를 하나 이상 구입해서 비데용도로 쓸 것을 추천한다. 물로 씻어내더라도 얼마간은 휴지나 수건으로 마무리 해야한다. 이도 저도 준비하지 못할 때는 매끈한 돌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준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자는 반드시 생리컵을 하나 이상 준비해두자. 월경에 대비하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것 이상으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뒤, 최소 한달 정도는 세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회용 속옷을 가능한 많이 준비해두라. 남자는 도망 후 몇달 동안은 엄청나게 움직여야 하므로 남자 속옷이 많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청결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손톱깎이를 최소 2개이상 준비하라. 손톱 주위가 자주 벗겨지는 경우, 덧나게 되면 손이 감염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오랫동안 신발을 벗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일반 양말이 아니라 발가락 양말을 많이 준비해두라. 발톱이 길면 옆 발가락 부근 살을 찢을 수 있다. 습기를 먹은 발의 피부는 찢어지기 쉽다. 그런 일이 생기면 움직일 수도 없게되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단단히 대비해두라. 또한 야외에서 손에 생기는 상처는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가는 데 직격탄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두툼한 장갑을 충분히 준비해두자.

미리 치과에 가서 문제될 만한 소지를 없애라.

베이킹소다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으니, 무겁더라도 많이 준비해 두라. 액체용 반창고는 쓸모있고 유효기간도 오래가므로 충분히 비축해 둘 것을 권한다. 야외에서는 조그만 상처라도 덧나면 손쓸 방법이 없고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것이니, 여러가지 의약품을 준비해두는 것도 잊지 말자. 또한 채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구충제를 충분히 가져가라!

□ 말씀 공부 및 무료한 시간을 대비

성경은 영어/한국어 두개를 준비하되, 영어 성경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영문 성경 가운데 NASB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

는 [AOB 성경](#)을 권한다. KJV는 결코 준비하지 말라. 한국어 성경은 개역개정이든 개혁성경이든 모두 "예수", "여호와"라는 마귀의 이름을 쓰므로 엄청 거슬릴 것이다.

성경 지명사전, 성경 용어 사전, 스트롱 인덱스 사전 등도 가능한 가지고 가길 바란다.

영어를 읽을 수 있다면 영어(영영) 사전과 www.isawthelightministries.com 전체 문서, 여기 블로그 글을 종이에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넣어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자제품을 믿지 말자)

찬송가 및 복음송가 책을 반드시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악기등을 챙기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숨어있는 곳에 따라 소리를 낼 수 없을 수 있다. 가사에 "예수", "여호와" 등은 모두 "지서스", "하나님" 등으로 바꿔부르는 것을 잊지말라.

헤비메탈이나 음란을 부르는 등, 악을 찬양하는 등의 음악이 아니라면 일반 음악을 듣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 것을 세상 노래라고 하면서 죄로 여기는 것은 자신들이 경멸하는 율법주의에 스스로가 빠진 것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 가요중에서도 샤이니의 루시퍼 같은 노래는 그 자체로 이미 악하며 그 그룹의 어떤 노래도 듣지 말 것을 권한다. 루시퍼가 마귀의 이름은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그것은 마귀를 찬양하는 곡이다. 보헤미안 랩소디 같이 가사에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외치며 직접적으로 마귀를 찬양하는 곡도 있으므로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 복음송가라면서 락이나 메탈류를 결합한 것은, 버리라. 쳐다도 보지 말고 부르지도 말라. 쓰레기와 다를게 없다.

뜻을 알지 못한다고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에 확인이 필요하다. 피난처에 있는 동안 음악을 듣기 위해 MP3 플레이어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배터리를 필요로하는 모든 장비는 충전 문제가 따라오게 되므로 현명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전자제품은 포기하는 것이 속편하다. 먹고 사는 것도 불투명한데 전자제품 배터리 걱정을 할수는 없잖은가?

식량을 조달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하느라 무료한 시간이 있을리가 없으나, 만일을 대비해 여유 시간에 할 것을 반드시 하나 이상을 준비해 두길 바란다.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는 결코 생각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존 킨들에 잔뜩 넣어둔 책을 읽거나 큐브를 맞추거나, 보드게임, 악기 연주, 성경 필사 등..](#) 반드시 한가지 방법 이상을 준비해 두자.

□ 피임 도구

"[모든 종류의 섹스는 결혼하는 행위다](#)",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일부다처\(Polygamy\), 바람, 외도](#)" 글을 반드시 먼저 읽어서 지서스께서 인정하는 결혼과 이혼, 일처다부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부는 피임 도구를 준비하라. 피난처라고 해서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결혼(섹스)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환란 때에 결혼을 금한다는 명시적인 말씀도 없으며, 결혼(섹스) 자체는 지서스께서 만드신 것이라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두 글을 먼저 읽었다면 환란 때에 부주의한 섹스는 엄청난 고난을 동반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섹스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고전7:28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환란 가운데 피난처에서든 그외의 곳에서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없는 여자는 원치 않는 상대가 자신의 몸을 겁탈하려 할 때 결코 그대로 당하고 있지 말라. 겁탈하는 남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어 여자가 씻을 수 없는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이 확실할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방어/공격하는 것이 허락되며, 경우에 따라 겁탈하려는 남자를 죽여도 된다고 믿는다. 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호신용 무기를 지니고 다닐 것을 권한다.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겁탈하지 못하기 위해 그 남자를 그냥 두지 말라. 자신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나약해선 안 된다.

만일 여자가 강간/겁탈을 당해서 이미 원치않는 간음죄를 지고 있다해도 낙심하지 말자. 회개와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전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또는, 진정한 주의 제자는 타인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므로 그런 자를 찾아 요청함으로써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약5: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 할찌니라

약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요20:21 지서스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Holy Ghost)을 받으라

요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잊지말라: 도망한 자에게 환란이란, 당신이 그동안 쌓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연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피하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는 신부가 결혼하기 이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부수업 기간과 같아서 환란 전 세상에 있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피난처에 거하는 모두가 서로의 정결함을 위해 도와주어야 한다.

침례를 할 수 있는 자

진리탐구

2017/08/28 06:59

<http://blog.naver.com/tpad51j/221083593940>

성경에 기록된 침례에 따른 구원은 침례주는자의 지식이나 의로움에 달려 있지 않다.

침례주는자가 모든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또는 진리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으며, 침례주는자의 직업이나 학벌, 거주지, 나이 등의 내적/외적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침례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래와 같이 침례를 받는자의 조건에 달려 있다:

- 침례받는자는 진실로 회개하기로 결심하였는가 (십계명, 주의 절기, 크리스마스, 부활절, 삼위일체, 거짓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등..)
- 침례받는자는 그리스도 **지서스^{JESUS}**가 구원자 이시며, 육체로 오셨던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가
- 침례받는자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침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침례로 인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가
- 침례받는자는 단 몇초라도 반드시 몸이 물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 또한 몸이 잠길 때 얼굴이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봐야 한다!
- 침례받는자는 자신의 의지로 지서스를 선택해야 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로 회개하고 고백한 뒤 물에 잠겨야 한다
- 침례주는자는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한다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아무짝 쓸 모없다)
- 침례주는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한다

침례주는자의 이상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남자 가운데
- 토요일 해뜰 때부터 다음날 해뜰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삼위일체의 거짓을 알아 거부하고
- YHWH 와 그 이름에서 파생된 모든 이름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지서스^{JESUS}**인 것을 믿으며
- 유월절/무교절/오순절/나팔절/속죄일/장막절/마지막 큰 날 등의 하나님의 주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다면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얼마든지 침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블로그의 안부게시판](#)을 통해 문의하기 바란다. 비밀글 게시판

환란 속 침례

만약 환란 가운데 그런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 침례를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진실로 구원된 자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현대를 사는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법

진리탐구

2017/09/04 20:17

<http://blog.naver.com/tpad51j/221089295066>

오늘날 현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교인들에게 전심을 다해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 교인들도 지서스(Jesus)께서 의문의 증서인 율법을 없애버리셨으니 십계명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실행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폐해진 것은 모세의 율법일뿐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심지어 마지막 나팔이 불어 하나님의 지성소가 보이는 때에도, 십계명이 든 언약궤가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십계명은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게시물 "[율법: 폐한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가](#)" 참조해서 십계명을 여전히 지켜야 함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 제 1계명

출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출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지서스라

출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 "예수"라고 카톨릭이 변개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서스(Jesus)로 부른다.
- 만들어진 이름인 "여호와", "야훼"를 버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 지서스(Jesus)로 부른다.
- 앗시리아에서 시작된 이교도 신의 크리스마스/부활절/삼위일체 교리를 철저히 거부한다.

게시물 "[하나님의 진짜 이름](#)", "[크리스마스라는 덫](#)", "[가증스런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참조

□ 제 2계명

출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지서스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게시물 "[두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참조

□ 제 3계명

출20:7 너는 너의 하나님 지서스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지서스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지서스(Jesus)라는 이름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 지서스께서 예언하라 말씀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였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게시물 "[어둠의 둘레](#)", "[사람이 죽으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는가](#)" 참조

□ 제 4계명

출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20: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20: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지서스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20: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지서스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지서스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토요일 아침 해뜰 때부터 다음날 아침 해뜰 때 까지 안식일로 지킨다
- 영적 바빌론과 같은 기존 교회를 나와 믿음을 같이는 자와 모이거나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게시물 "[하나님께서 명령한 안식일](#)" 참조

□ 제 5계명

출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지서스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제 6계명

출20:13 살인하지 말찌니라

- 참된 형제에 대해 이유없이 바보라는 말도 하지 말라.

□ 제 7계명

출20:14 간음하지 말찌니라

- 하나님의 눈에 남녀가 섹스하는 것은 곧 결혼 하는 것임을 명심한다.
- 바람/외도/불륜은 이혼의 적법한 사유가 아님을 명심한다.
- 지서스께서는 결혼한 남녀가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한다.

게시물 "[모든 종류의 섹스는 결혼을 하는 행위다](#)",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일부다처\(Polygamy\), 바람/외도/불륜](#)" 참조

□ 제 8계명

출20:15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 갚을 생각없는 빛을 일부러 만들지 말라
- 회사나 공공기관의 기물을 자기 것 처럼 가져오지 말라
- 십일조를 떼먹지 말라 (영적 바빌론과 같은 교회에 내지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헐벗고 굶주리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용하자)

□ 제 9계명

출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 제 10계명

출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

□ 총괄 계명: Golden Rule

마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십계명에서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두번째 계명: 을 만들지 말라

진리탐구

2017/09/04 18:24

<http://blog.naver.com/tpad51j/221089220489>



왼쪽 그림에 대해 설명할 때, ?군인이 강제로 시리아인을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 Assad)에게 절하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 듣는 것에는 무리없으나, 누군가의(적그리스도인 바사르 알 아사드의) 형상(Image)에 절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절하는 대상이 실제 사람이 아닌 사진(Image)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 라고 노래 부르는게 이루어진다 가정할 때, 사실상 그 아이 자체가 TV에 들어가거나 나오는게 아니라 아이의 형상(Image)이 보이는 것일 뿐이다.

돌로 깎아 만든 것도 형상(Image)이며, 손으로 그린 것도 형상(Image)이다. DSLR 카메라로도 형상(Image)을 만들고 스마트폰으로도 형상(Image)을 만든다. 쇠를 주물로 녹여 형상(Image)을 만들고, 녹인 플라스틱을 겹겹히 쌓아 올려 형상(Image)을 만들기도 한다.

지서스(Jesus)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온갖 형상으로 둘러싸인 현대인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지키라 명한 계명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형상(Image)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다:

출20:1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출20:2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출20:3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개역개정과 개혁성경에서는 "새긴 우상"이라 번역했지만, 한글킹제임스와 KJV에서는 "새긴 형상"이라 번역하였고, NASB, NIV에서는 "우상"이라 번역했다. 어떻게 번역을 했든 원본 단어는 우상(Idol), 형상(Image) 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다: [pecel /peh'-sel/ H6459](#)

한국어 성경과 KJV의 "새긴(graven)"이라는 번역은 히브리어 원본에는 없고 영어로 번역할 때 추가된 표현인 것에 주의하자([BlueLetterBible.com](#)에서 출20:4의 Interlinear 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계명을 받을 당시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된 기술이 주로 칼로 깎고 쇠나 금/은 등을 녹인 후 부어 만드는 방식에 국한 되었지만, 현대는 그 기술과 방법이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해졌다. 불과 몇년 사이에 3D프린터를 사용하면 개인이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 수 있게되어 형상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보더라도 더이상 놀라거나 맘에 두지도 않는다. 기술의 발전으로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 수록 믿는 자들은 두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형상을 만드는 일이 생계를 꾸리는데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우상 숭배라는 말조차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두번째 계명을 직접적으로 범하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과감히 결단하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막10:29 지서스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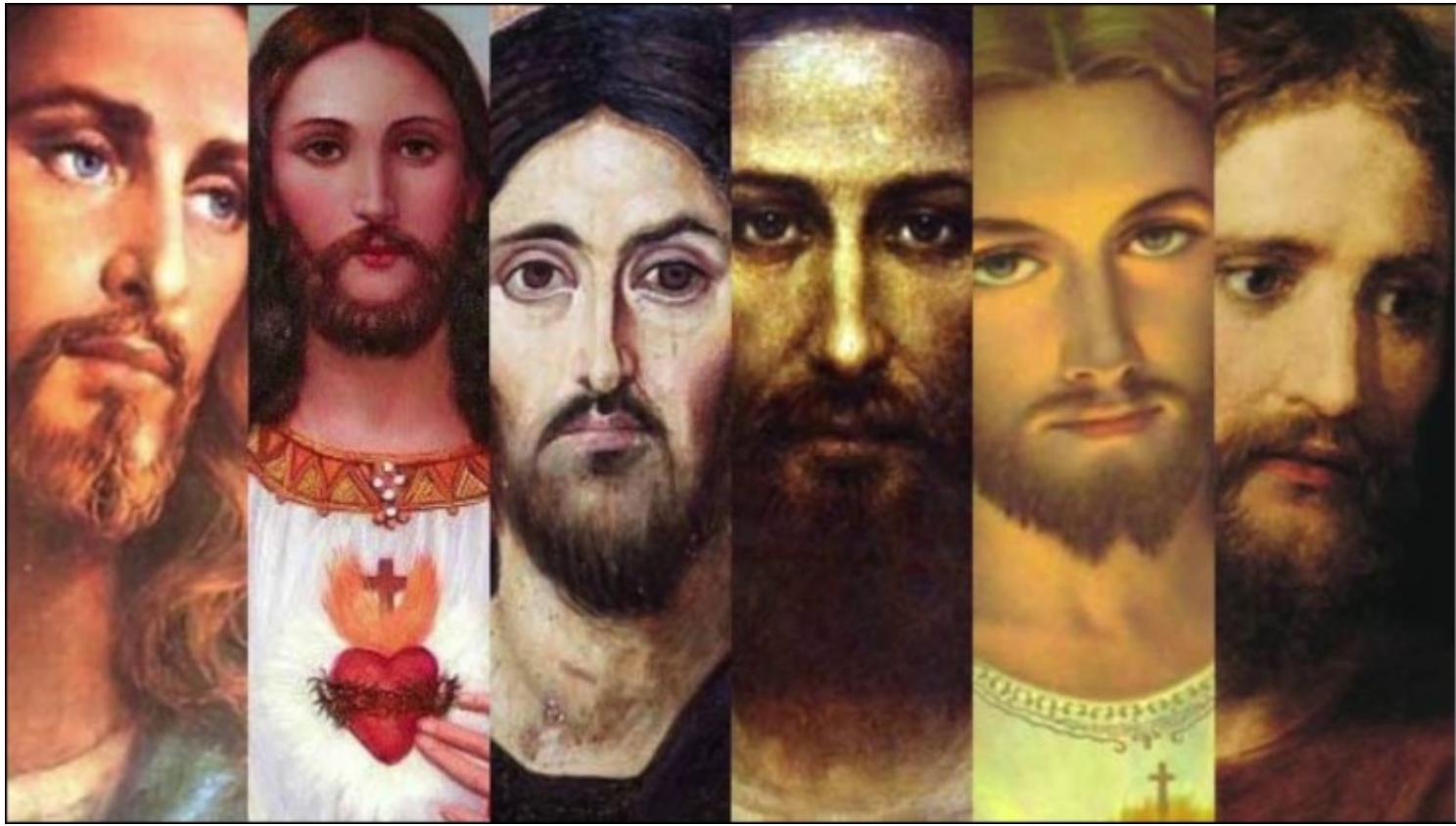
막10:30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일백 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혹은 누가 생각하기를 "요즘 누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나?!"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옆 그림에서 보듯 몸은 잘라버리고 남은 돼지 머리에게 돈을 꼽고 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 나라에서 흔해 빠진 풍경이다. 들에 가다가도 빌고, 나무에도 빌며 물 떠놓고 달 에게도 빈다.

"설령 어떤 형상을 만들더라도 내가 거기다 절하거나 숭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가운데 특히 교회 오래다니고 나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진짜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사진을 지서스의 모습이라 여기며 벽에 걸어놓고 그 사진을 보고 무릎꿇어 기도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판단할 지식도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모습중 대부분이 과거 로마 카톨릭 교황의 모습을 본 뜯 것인줄 알기나 할까..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럴듯 보이는 엉터리 사진을 지서스라 여기며 보는 것이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두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다고 말해줘도 부인하며 인정하지도 않는다. 설령 진짜 그 사진의 모습이 진짜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상/그림(Image)에 대해서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라도) 경배하는 행동은 지서스께서 금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출20:5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serve)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You shall not worship them or serve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

위의 구절에서 섬기다 ('abad /ä·vad' / H5647)라는 원어가 가진 뜻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노동을 하는 것,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 등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사진을 벽에 걸어 놓는 것도 두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의 사진을 보며 애지중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상숭배임이 확실하다.

사진(Image)에 대해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구절을 보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의 사진/우상(Image)에게 절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말씀이다:

계14: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형제, 가족, 부모, 여자친구, 남자친구 등의 사진

그런 사진은 우상이라 보기 힘들지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족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났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돈 혹은 사업이나 주변의 시선, 건강, 체면, 명예가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은 하나님과 맞바꿀 우상을 가지며 스스로 그것을 택한다. 하나님 보다 가족이나 부모, 남자/여자 친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되면 그것은 영적 우상숭배다.

✓? 만약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거나/될 수 있다면, 그 사물이나 그 사람의 형상(Image)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설령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직까지는 우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사람마다 우상화하는 게 달라서, 누군가는 결코 가족을 우상으로 삼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할 것이다.

형제, 가족, 부모의 사진등이 무조건 우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극히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의 한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을 남기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런 사진은 일년 중 한 두번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진이나 어떤 사람의 사진을 지갑등에 항상 지니고 있지는 말자. 누군가의 사진이 머리맡에 혹은 벽에 걸려 있지 않도록 주의하자. 사람을 높여서 두번째 계명을 어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사진 뿐만 아니라 마음 속의 우상도 있지만 쉽게 발견하기는 힘들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꼬집어 내리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단번에 모든 우상을 없앤다거나, 내려놓은 우상을 다시 집어올리는 않는다는 법은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자.

두번째 계명을 여기게 하는 일반적인 것들

- 영화 배우나 음악가, 걸그룹, 보이그룹의 포스터나 인쇄된 이미지, 입간판
- 모든 인형: 개새 (개와 새의 합성 인형), 자동차내 고개 흔드는 인형,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인형, 스마트폰 줄에 달고 다니는 조그만 조형물
- 태양, 달, 별, 천사, 마귀, 개, 고양이, 새, 거북이, 토끼, 유니콘, 개구리, 말, 랍스터 등등이 넣어진 모든 동상/인형
- 실내 장식용 모형물
- 공포영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벼려야 한다)
- CSI 살인 미스테리물
- 뱀파이어나 마녀가 관계된 것
- 할로윈과 관계된 것
- 모든 형태의 포르노 ('매춘'을 뜻하는 그리스어와 '쓰다'는 뜻의 합성어로써, '성(sex)'을 파는 모든 행위와 관계된 것을

뜻함)

- Old TV shows of "Bewitched, Adams Family, I Dream Of Jeanie" because they glorify darkness & make lite of darkness as if darkness is something just fun & harmless.
- 모든 디즈니(Disney) 쇼/영화/캐릭터. 디즈니는 모든 제품에 무의식 레벨에서 감지되는 섹스 관련 메세지를 넣는다고 익히 알려져 있다. 게이 캐릭터 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에선 게이프라이드 축제도 한다.
- 콜롬비아(Columbia) 영화사, 트리스타(Tristar) 영화사 심볼로 사용되는 이교도 신인 "페가수스(Pegasus)", 헤라/이 쉬타르(Hera/Ishtar)로 알려져 있는 여왕
- 포켓몬 관련 모든 캐릭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캐릭터 다수)
- 미니언 관련 모든 캐릭터
- 모든 슈퍼히어로: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X-맨, 원더우먼 등(진정한 슈퍼히어로는 오직 지서스 한 분 뿐이다). 예 일리언과 이종교배합 생명체는 실상 마귀인 것은 말할 필요 없다
- 힌두교 관련 "만달라" 형상
- 크리스마스 트리, 썰매 끄는 사슴, 산타
- 부활절 달걀 및 관계된 것
- 물고기 모양의 크리스챤 심볼
- 살아있는 것/사람/동물의 형상을 본 떠 만든 3D 형상

구약에서 성전을 꾸미는 사람들이 몇몇 형상을 만든 것을 예를 들며 천사나 지서스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문제없다 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경우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참고

본 게시글은 아래 표시된 문서를 번역한 것이지만 핵심 내용과 예제는 같을지라도 원본 문서내 구성과는 많이 다르다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gravenimages.html>

The Forgotten Commandment, 2nd Commandment, Thou Shall NOT have ANY Graven Image of ANY THING that moves

The "Spirit of The Law" of this Commandment is that Jesus gave us a SPECIFIC appointed, sanctified, day of the week (Hebrews 4:7), Saturday, to provide for our physical need of rest as well as an appointed & ordained, sanctified, set apart, day of worship in the setting of a formal gathering

www.isawthelightministries.com

"비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진리탐구

2017/09/03 02:21

<http://blog.naver.com/tapad51j/221088119297>

마태복음 7: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개역성경, 개역개정)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한글킹제임스)

Judge not, that ye be not judged. (KJV)

Do not judge so that you will not be judged. (NASB)

문맥에 따라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면 '비판' 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고, 뭔가 중립적인 냄새를 풍기고 싶다면 '평가'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을 사용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판단'이란 말도 쓰겠지만, 번역된 단어가 아닌 그 구절의 원래 그리스어 단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κρίνω *krinō /krē'-nō/ G2919* (blueletterbible.org)

properly(철저하게, 타당하게, 정당하게), to distinguish(구별하다), 예: 결정하다 (정신적으로 혹은 재판에 의해 서); condemn(비난하다, 규탄하다, 유죄로 정하다, 미워하다), punish(처벌하다):—avenge(복수하다), conclude(결론 짓다), damn(비난하다, 깎아내리다), decree(밝히드러내다), determine(결정하다, 측량하다), esteem(평가하다), judge(판단하다, 평가하다, 판결하다), ordain(정하다, 명령하다), sentence to(선고하다, 처벌하다, 평결하다)

마태복음 7:1 구절은, 기존 교회가 무엇이라 가르치던 간에 타인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술로 필름 끊어질 때까지 마시는 사람에게 친한 사이에서는 "작작 좀 마셔"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결코 '판단'이라 말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걱정해 줘서 고맙다는 반응까지 볼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가 아니라 건강을 걱정했기 때문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동성애는 죄다" 라고 얘기하면 거의 90% 이상 각 사람의 인권을 들먹이거나 개인의 주관이라 맞 받아칠 것이다.

"공포영화를 보는 것은 죄다" 라고 하면 어떤 영화를 보든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 할 것이고, "3D프린트로 사람/동물/인형을 찍어내는 것은 십계명중 두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중대한 죄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턴 거의 대부분 전투모두로 얘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는 사람과 육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다. 서로 섞일 수 없는 다른 기준때문에 대화가 쉽게 싸움으로 변하곤 한다. 어차피 육신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지서스의 기준에 굴복하지 못한다 (않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롬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because the mind set on the flesh is hostile toward God; for it does not subject itself to the law of God, for it is not

대화하는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1 구절이나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예를 들며 <지서스께서도 판단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되묻기도 한다. 그 사건을 기술한 부분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 지서스께서 하신 말 중 정죄하지 말라는 말에만 눈과 마음이 갔겠지만, 육적인 사람은 보고싶은 것만 볼 뿐 지서스께서 모인 무리와 여자를 '판단' 하셨다는 것은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요8:1 지서스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요8: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8: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요8:4 지서스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8: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8: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지서스를 시험함이러라 지서스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8: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8: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8: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지서스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8:10 지서스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지서스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서스께서 여자에게 "너는 간음죄를 지었다" 라고 정죄는 하지 않았을지도,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판결 (Judge) 하셨고, 돌로 여자를 치려는 군중에게 "너희도 이 여자와 다를 바 없이 죄인이다" 라고 평가(Judge) 하시며, 잡힌 여자를 무리의 폭력으로부터 구하셨다.

하다 못해 신발이나 옷을 사더라도 꼼꼼히 살피며 이것 저것을 판단(Judge)하면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반하는 말에는 마7:1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을 "덜된 사람" 취급하지 않는가? 어떤 차를 살지, 어떤 곳에 이사 할지, 어떤 사람과 데이트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느 교회에 다닐지... 전심을 다해 살피고 판단(Judge)하지만, 지서스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5:22) 라고 말씀에 따라 죄를 짓는 것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판단 (Judge)하는 것에는 경기를 일으키듯 대한다.

만일 누군가 당신이나 가족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비난(Judge)하지 않겠는가?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하는 정죄(Judge)하는 것은 어떤 잘못도 아닌 것인가? 생활속 모든 경우에 당신은 판단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하물며 영을 쫓는 사람이 악에 대해 대항하며 죄에 맞서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엡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엡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엡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엡5: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엡5: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엡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5: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엡5: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reprove)

책망하다 (reprove) -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eprove>)

고전5: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전5: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고전5: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후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6: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지서스께서는 공공연히 바리새인과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하는 자를 공개적으로 판단(Judge)하며 거리를 뒀고, 사도 베드로의 허물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했으며(갈 2:11-14),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정죄(Judge)하여 사탄에게 내어주었고 (딤전1:18-20),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렸다고 판단했으며 (딤후4:10), 후메내오와 빌레도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고 선언(Judge)했고(딤후2:15-18),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섹스를 한 어떤이를 정죄(Judge)했는데 그 때 바울을 현장에 없었고 다른 형제들과 있었다: 고전5: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요한을 맞이 하지 않았다고 평가(Judge)했다(요삼1:9)

광야에서 침례를 주던 요한은 헤롯왕이 자신의 형제의 아내와 섹스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Judge)했다: 막6: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문맥 속의 마태복음 7:1

이제 다시 한번 해당 구절이 어떤 문맥에 있는지 살펴보자:

마7: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7: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 아니라

마7: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7: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7: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의 문맥은 분명하다: 만약 당신이 비판하려는 사람과 비교해 큰 죄를 짓고 있다면 당신 보다 못 한 자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비판을 할 수 있겠냐 물을 것이다. 십계명중 하나를 어겨도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으며, 어떤 죄라도 결코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에 죄의 경중을 살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마7:1-5 구절의 말씀은 비유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3명의 여자와 놀아나는 남자라면, 한명의 여자와 놀아나는 남자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저주한다해서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다. 만약 당신이 일년 내내 술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라면, 일년중 어쩌다 한번 술취해서 길바닥에 자는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마7:1-5 구절에는 특정 죄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다만 위선적인 판단(hypocritical judgment)에 대한 말씀이므로, 모든 경우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즉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이다. 또한 <너는 절대로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는데 도와주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판단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반해야 한다. 없는 구절이나 거짓 교리,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요7: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상대를 사랑한다고 해서 죄에 대해 눈감으라는 말씀은 없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절벽으로 다가간다면 당연히 주의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와주는 것은 의무이며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죄에 대해 판단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고전6: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러나 들을 때까지 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몇번 권함에도 전혀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대하며 돌아서라고 하신다:

마18: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마18: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혹자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으나, 사람은 결코 지서스보다 자비로울 수 없다! 듣지 않는 자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오히려 두번째 부활에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게이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살인자나 도둑, 아동성애자 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결코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성경은 그 모든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차이가 없다!

사랑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분명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자의 책임이며 의무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가 죄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모르는 자이거나 상대방을 포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

이 게시글은 아래의 문서를 번역한 것이지만, 핵심 내용은 대부분 같으나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재배열/변경/추가 한 것이다.

원래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judgenot.html>

Judge Not, Sinners Favorite Out of Context Bible Verse

I Saw The Light Ministries Home LIGHT vs darkness Prophecy Ministry Truth Ministry Commandments in the New Covenant Era Free Literature Sub Menu 한국어 Korean (If this appears near top of page, PLEASE WAIT until full page is seen.) Please SHARE This Page Click on "Share" below and choose Face
www.isawthelightministries.com

왜 태어 났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진리탐구

2017/12/23 04:43

<http://blog.naver.com/tPad51j/221169387752>

원망은 누구라도 죽게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되는 내용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도 결국엔 같은 일이다:

전1: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찌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롬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구약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한 모든 사람은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 더 자세히 말해 이집트에 내린 모든 재앙과 홍해가 갈라져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세대 성인중에서 20대 이상의 남녀 가운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민11:21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민32:11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이십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경녕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12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지서스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히3:17 또 하나님의 사십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출애굽할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자들은 40년동안 자신들의 삶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을 것을 알고 살아갔다. 불과 몇 일 거리의 가나안을 근거리에 두고 거친 광야를 40년동안 돌고 돌며 광야에서 죽어간 그 세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 듣고 40년 세월동안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 아무 것도 없는 사막, 먹을 거리는 늘 똑같고 바람과 강렬한 태양빛과 더위 가운데 그 오랜 시간을 죽을 때까지 이리 저리 방랑해야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짐작컨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는 원망을 마음에서 떨쳐 버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출애굽기 14: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잘 사는 그들?을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나와 곧바로 죽이지 않고 40년동안 괴롭히다 죽이려는 목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않다:

출2: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

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2:24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2:25 이스라엘 자손을 권녕하셨더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일은 머리속에 없고 그저 예전 처럼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와 고기를 못먹어서 그리고 물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라 신뢰하지 않고 일단 욕하고 원망하는 것 부터 시작했다:

출16:3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지서스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민11:10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지서스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민11:18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지서스께 들렸으므로 지서스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민20: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지서스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뻔 하였도다

민20:4 너희가 어찌하여 지서스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민20: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구약시대 출애굽 때와 다를 바 없이, 현대판 출애굽이 다시 일어난다해도 그리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맘 한켠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신경쓴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환란전 휴거가 아니라 모든 자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패닉에 걸려 불순종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원망할 가능성이 크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어나게 해서, 그것도 말세에 이런 고통스러운 시기에 태어나게 하고 온갖 생의 부조리와 차별과 없음에 시달려 온것도 부족해 이제 고통속에서 죽이려하는가?!!!"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분리되려 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였건만, 왜 왜 왜! 나는 환란에 남았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하는데?!!!!"

살후2:9 악한 자의 임함은(적그리스도가 주의 재림을 흉내내어 강림하는 강력한 미혹)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살후2: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즉, 당신이 갑자기 환란에 넘겨졌다 생각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구원얻지 못한자라는 말이다)

살후2:11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살후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이 악인 이라는 선언은 몇일 혹은 몇년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선언일 것이다. 자신이 환란에 던져진 이유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면, 속에서 숨구치는 질문을 막을 길이 없다:

"왜 내가 불의한 자란 말인가?? 기도가 부족할 지언정 나는 분명히 주일 예배를 꼬박 꼬박 다녔고 남에게 해를 끼칠만한 짓은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를 악인 취급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머리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얘기로 자세히 설명해줘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개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한다:

요한계시록 16:11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욕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보낸 이유가 환란에 던져 고통받게 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려 한다.

그러니 추위와 배고픔, 절망과 온갖 위협으로 인해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하기 전에, 돌이키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르길 바란다. 혹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기기전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무엇을 해야 했으며, 어떻게 해야했는지 고민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잡기 바란다.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말로 혹은 꿈이나 이상으로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환란에 사람을 집어 던지는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꼭 이해하길 바란다.

환란 가운데서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다.

마지막이 알려주는 시작의 이유

우리가 보는 우주와 이 지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6000년쯤 전에 만들어진게 아니다. 적어도 6000년 보다는 셀 수 없이 오래전에 만들어 진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천사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계획하셨다. 천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지음을 받았다.

지서스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시므로, 구약성경에 사람과 세상의 창조 목적에 대한 내용을 여러 군데 흘뿌려 두셨지만, 마지막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무엇을 하는지 기록된 이사야서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창조목적을 명백히 밝혀두셨다.

지서스께서 계획한 것은 사람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지은 모든 것을 사람이 누리게하고 사랑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사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65:18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계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22:4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 세상에 던져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만들 때, 사람과 달리 육체가 없는 영의 존재로 창조하였고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창조주인 하나님 마저 대적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부여하셨다:

눅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유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는 시키면 무조건 실행하는 로봇이 아니다)

성경이 아닌 영화나 소설로 인해 천사에 대해 가진 이미지를 말해보라. 아마도 대부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천사처럼 착하다"거나 "마귀처럼 악랄한" 등의 두 종류 이미지로 생각할 것이다. 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마냥 무조건적 자세로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지음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며 자기 의지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받아들인 존재다.

계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지서스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서스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22:9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완전하다'라는 뜻은 결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뜻이 포함된다. 천사역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존재였을지라도 전체 천사 중 삼분의 일�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이 지음받은 이유를 거부했고, 그 결과 이 땅으로 쫓겨났다.

겔28:12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지서스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겔28:13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겔28: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겔28: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에 대해 회개하거나 그의 따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는 소멸되기로 결정되었어도 곧바로 형벌을 받지 않았다. 잠시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신 것이다:

히2:6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히2:7 저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그러나 천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든 육체에 영을 불어넣어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육체에 부과되고 영은 생의 학습으로 완전해져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시8:4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8: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8: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히5: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5: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천사와 다를 바 없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됨에 따라 고난이 시작됐다:

창3:22 지서스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3:23 지서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나와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사람이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설령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었다 할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가능성이 1000% 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자유의지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릴 온전하게 하는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은 단순하다: 십계명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 죽을 때까지 각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과 따르려는 자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런 점 또한 사람을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직접 보인다고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고 매추라기가 땅을 뒤덮어 60만 이스라엘인이 먹는등의 모든 기적을 본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보라. 심지어 직접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도 가인도 죄를 지었고 모세 역시 흠을 남기고 말았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모든 자는 언제든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으며 죄를 지은 상태로는 영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의 반역과 원망, 불평 불만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다.

전9:11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세상이 지어진 목적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인생을 살며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나님께선 그분이 지은 모든 것을 사람으로 즐기게하며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능력을 체득하기 원하신다. 당신이 능력이 있어 로봇을 만들어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게 하고 시킨대로 하게 만들었다 상상해보라. 단 몇일 이내에 싫증날 것이다. 모습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더라도 실상 회로와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것을 반복하는 로봇은 어떤 훌륭한 것을 해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과 같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택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는게 사람의 창조 이유인 것을 밝히셨다:

사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미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지서스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도 사람은 부여받은 능력으로 온갖 딴 생각을 했고 천사의 경우처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다:

전7: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분이 우릴 만드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계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죽어 영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천사처럼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통해 스스로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능력을 체득해야 한다:

애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전1:15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 같은 것은 주께서 정한 시기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죽기 전이라도 충분히 훈련받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체득화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기도 하신다:

창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만 하는게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자유를 허락받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전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대로 좋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아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십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 무엇을 하든 자유다! 마귀를 찬양하거나 악을 퍼트리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던 만들던 죄가 아니다. 중독되지 않게 조절한다면 어떤 술을 마셔도 죄가 아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성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학을 사랑하든 춤을 즐기든 오지를 탐험하든 콘서트에가서 흠뻑 젖도록 놀든 평생동안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든 방안에 틀어박혀 한분야에 전문가가 되든 무엇을 하든 다 사람에게 부여된 즐거움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써 사람에게 허락된 것인데, 그것을 헤치는 자는 다름 아닌 세상 그 자체다. 성경에도 없는 제약을 만들어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게 아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는 나체인 상태로 생활했다. 만약 옷을 벗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 추위를 견디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지만, 벗었다고 해서 죄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옷을 입어 감춘 몸을 성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세상으로 인해 더욱 범죄가 증가하였다. 남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간음과 음란의 세계를 더욱더 짙게 하고 슬픔과 고통을 더욱 배가시켰다. 만약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의 창조목적을 믿고 따르며 기준으로 삼았다면 오늘 날 온갖 "-이즘" 이 난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사실 불가능하다. 분명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아픔과 고통, 억울함, 차별, 가난하고 천시받는 것으로 인한 모든 답답함과 생각하는 모든 더러운 상황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훈련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결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시고 찾고 찾는 자에게만 모습을 보인다고 약속하셨다:

행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낸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행17: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찾고 찾는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신31:17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신31:18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죄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고전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야 하는게 아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무엇을 해도 좋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당신이 받은 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계명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반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된다.
전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대로 죄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아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고 완전해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주의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진실된 이웃을 사랑하며 당신이 원하는대로 사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평등하게 일시에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첫 생애에서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두번째 부활에 다시 살게된다. 그러니 불쌍한 자신의 부모가 구원얻지 못하고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자. 그런 종류의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지를 증명하는 셈일 뿐이다.

거주 국가와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듣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말세를 사는 우리는 구약시대 뿐만 아니라 한국 이전 세대 그 누구도 얻지 못하는 첫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계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번째 생에서 구원얻지 못한 모든 자는 두번째 부활에 살아나서 다시 약 100년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을 택하고 그 분의 뜻 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송

하며 즐거이 그 분의 법대로 살며 즐기는 것에 있지, 지옥 불에 태워 죽이려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환란 가운데라도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

겔33:1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겔33:19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믿지 않고 환란을 준비하지 않은 당신은 이제 얼마있지 않아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려는게 아니다. 믿지 않고 불평불만 하며 원망하던 자세에서 돌이킨다면 당신에겐 아직 희망이 있고 길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원망은 "이성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행된다. "왜 그랬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 "꼭 그렇게 했어야 했어?" 등의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질문같지만,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확정을 쏟아내며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말이다. "최소한 이건 맞는거야!", "그건 네 생각, 네 기호일 뿐이야. 왜 당신만큼 남도 의견이 있다는 것에 그렇게 무심하나?"라는 말을 하며 현명한듯 보이나, 실상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내가 이럴수 밖에 없었고.." 하며 당연한듯 자신은 잘못없고 상황과 주어진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믿지만, 이유/구실을 지어내는 것은 불평 불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하나님의 방식이란, 당신이 바보처럼 모든 것을 한방향으로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쁜 점을 보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배고프고 없는 것을 부정하란 말이 아니며, 자신의 불품없는 모습이 근사한 무엇인가로 채워질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원하는 것을 기도로 구하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아닐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크고 좋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들어주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믿는 것이다. 설령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나를 버린 것이 아님을 믿는것!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다.

엡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지서스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란을 통과할 자들

적그리스도인 바사르 알 아사드가 공격을 당해 축출되는 듯 보인 후 얼마 있지 않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게될 것이다. 이것이 강력한 미혹이다. 언제쯤 그 일이 일어날지 확답할 순 없어도,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당장 한두달 내더라도 일어날듯만 같다.

그러나 끝까지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 아사드가 공격을 당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이 곧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신호임에 틀림없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후 30일 뒤, 환란이 시작되면 한국은 북한의 공격과 이슬람세력으로 인해 고통당할 것이다. 혹 살아남았다해도 일곱나팔재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재지변이 우리나라와 주변국 원자로를 파괴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하나님

의 도움없이는 아무도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진 돈이 없어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더라도 도저히 살아남지 못한다면, 소리없는 원망일 뿐이다. 지서스께서는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고 '명령'하셨다:

마24: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현재 가장 가능성성이 큰 때는 겨울이며 안식일이지만, 겨울이 지나고 싹이 나는 때가 될수도 있다.

마24: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싹이나는 봄) 여름이 가까운 출을 아나니 (의 미상 '따뜻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마24: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출 알라

따라서 매년 1~2월은 초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며 도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 당신보고 결코 그대로 주저앉아 죽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라. 지서스께서는 당신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다.

마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유대'가 이스라엘만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게시글 참조](#))

<돈이 없음>, <갈곳이 없음>, <나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음>,,, 등 모든 종류의 불평 불만을 내놓고 있다면, 지서스께서 당신을 춥고 험한 곳에서 죽게 하려고 <도망가라>고 명령한 것처럼 털툭거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

그렇지 않다. 지서스께서는 당신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말씀을 미리 해둔 것이다! 그리고 도망가라는 명령을하신 분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앞서 비유로 설명한 출애굽때의 이스라엘인과 같은 원망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당신에겐 지서스를 믿고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환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원망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미리 말해두었다:

단11: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계7: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계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모여야 한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연습을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자.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에 서려고 노력한다면, 서로의 부족함을 참아주며 온전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시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느 누구도 환란이 예정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선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갖은 이유를 만들어내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말고 이 블로그에서 알려주는 것을 읽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서로 돋고 하나님의 방식을 연습하며 같이 통과하고 싶은 자는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연락하길 바란다. 바샤르 알 아사드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 날 이후로 내게 연락한다 해도 나는 결코 받지도 않을뿐더러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내게 연락하는 당신의 진실성을 내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내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실수 하나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 가지 못하지 않았던가? 환란을 거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휴거되지 못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건설중인 NEOM, 마지막 때의 바빌론?

진리탐구

2017/12/19 03:58

<http://blog.naver.com/tapad51j/221166279566>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 발행 및 법적 소유권은 [I Saw The Light Ministries](#)에 있으며 저자의 허락아래 번역되었다. 원본이 여러 증거를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되었기도 하지만 번역 실력 부족해 글의 흐름이 다소 딱딱한 것을 감안해주기 바란다.

원본글: www.isawthelightministries.com/babylon.html

2017년 10월 24 ~ 25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세자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NEOM이라는 첨단 대도시를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다. 완공된다면 뉴욕시보다 33 배 더 큰 도시가 된다. 요한 계시록 21 장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가 같은 크기로써 그 길은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라 기록하고 있다. 한 스타디온은 대략 185m 로써, 전체 크기는 대략 2,253km 정도다 ([출처 참고](#))

계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NEOM이 완공된다면 새 예루살렘보다 거의 12 배가 큰 26,500 km(10,230 평방 마일)가 된다. 이 새로운 현대 도시에는 쇼핑 센터나 몰 또는 상점은 건설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요한 모든 것은 로봇이나 무인 항공기로 문에 배달되며 운전자없는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 전체가 태양열 패널과 풍차로 완전히 움직일 것인데

Google 및 다른 많은 첨단 기술 개발 업체가 꿈꾸던 것이다. NEOM은 사우디 아라비아 북부에 위치하며 요르단과 이집트의 국경을 넘을 것이고 이스라엘 땅 일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NEOM은 이미 건설중이 있으며, 우린 이 도시를 "바빌론"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NEOM에는 이미 일부 인프라 시설을 건설됐으며, 작업할 건설 노동자를 위한 공항이 건설됐다. 또한 NEOM이 세워질 땅은 주요 해운 항로 인 홍해와 접해 있다.

여러 증거를 통해 [나는](#) NEOM이 요한계시록 17-18 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란 마지막때의 그 큰 도시가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요한계시록 17:1-10 (한글킹제임스 성경)

계17:1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 주리라.

계17:2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계17:3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wilderness)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wilderness>는 정글이나 숲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막이나 거주민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예: 예루살람 사막지역은 오늘날에도 유대광야 <Judean Wilderness>라고 부른다)

계17:4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런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사우디 왕가는 지구상 가장 부유한 집단에서도 유일무이하게 부유한 자들이다)

계17:5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첫번째 바빌론을 건설한 님롯과 아수르로부터 내려온 거짓 종교인 미스테리 바빌론은 도시 그 이상이다)

계17:6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지서스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놀랐노라. (다른 모든 도시와 나라 가운데 바빌론은 앞장서서 크리스챤을 처형할 것이다)

계17:7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계17: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아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계17:9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앓은 일곱 산이요

계17:10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일곱 산은 실존했던 일곱 왕조를 가리키는 비유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그 중 한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곱 산은 문자 그대로 일곱개의 산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8:1-24 (한글킹제임스 성경)

계18:1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계18:2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계18:3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라고 하더라.

계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계18:5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계18:6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두 배로 갚아 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 주라.

계18:7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계18:8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계18:9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계18:10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

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계18:11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 중국, 러시아는 상호간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크게 약화되었고, 전세계 무역 리더의 위치에 새롭게 자리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바빌론 마저 파괴 되었기 때문)

계18:12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18:13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계18:14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계18:15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계18:16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계18:17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계18:18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계18:19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계18:20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로다.”라고 하더라.

계18:21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계18:22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계18:23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계18: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로마가 마지막 때의 <바빌론> 도시가 아닌 이유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바벨탑이 로마 또는 바티칸의 도시라고 믿는다. 바티칸은 도시이기도하며 독립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지서스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다는 요구사항에는 맞다. 그러나 바티칸은 세계적 규모의 주요 항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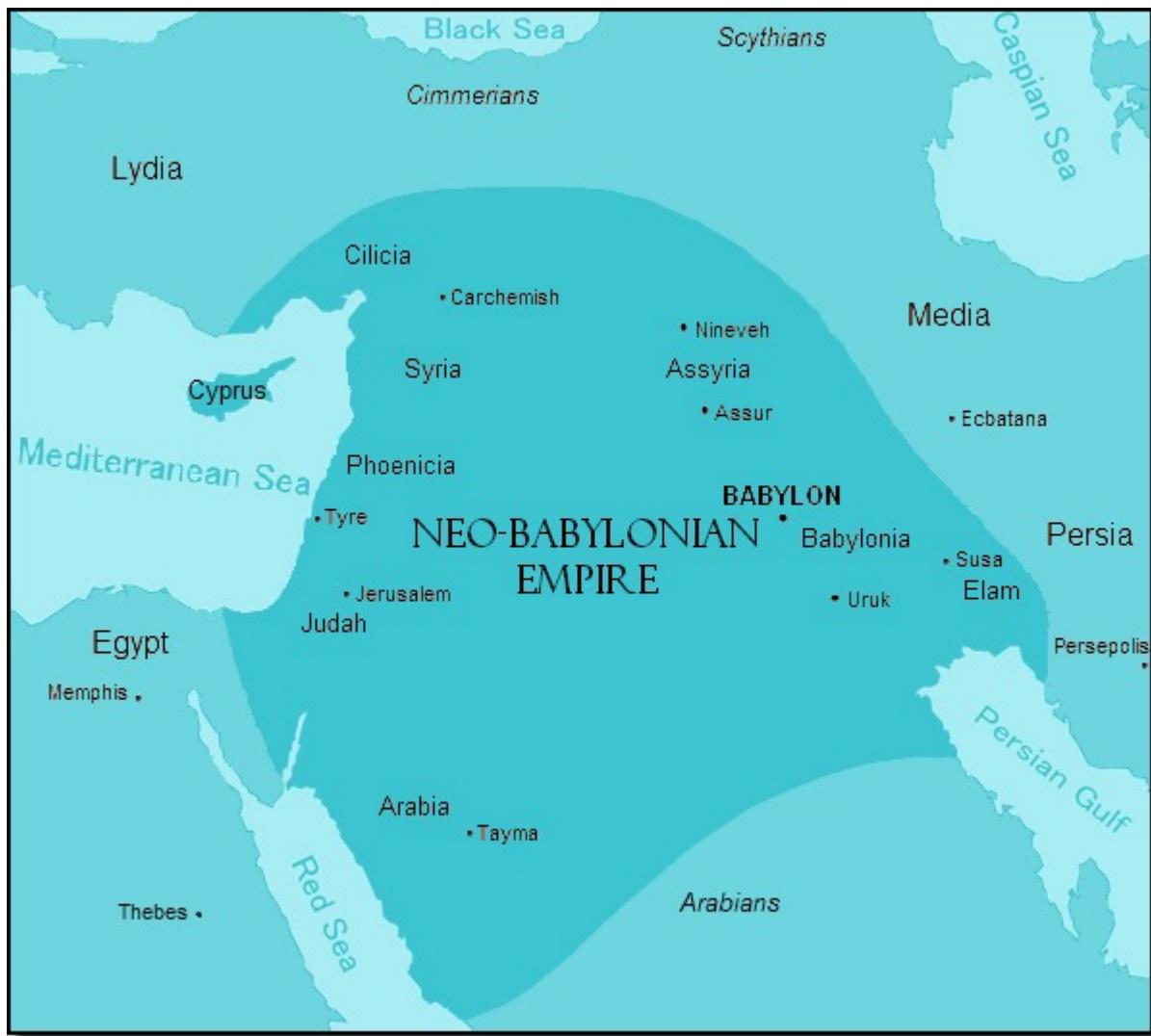
세계적인 주요 선적항과 상거래 도시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뉴욕, 싱가포르, 홍콩 및 중국을 떠올리지만 중국, 홍콩, 싱가

포르는 성경과 사도, 선지자와 역사적 관계가 없다. 나는 로마나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또는 무역 및 상품 중심지 중 하나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로마가 사우디 아라비아보다 두 배나 많은 수출을 하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는 로마나 이탈리아보다 많은 석유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알게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NEOM의 발전으로 다른 수출입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 그리스도"인 이슬람 12 세 인만 마흐디가 모습을 드러내면, 메카 순례자들은 분명히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사업, 상품, 무역 및 수출과 수입을 늘릴 것이다. 현재의 상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 조건을 생각해야한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어떤 도시가 <바빌론>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할 것이다:

1. 선적항^{shipping port}을 가지고 있을 것
2.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무역에 매우 중요한 곳일 것
3. 지서스^{Jesus}의 순교자들을 처형한 역사적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
4. 사막^{Wilderness}에 위치하고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장소일 것 (이사야 13, 34장). ← 이 항목에 때문에 로마는 바빌론 후보에서 제외된다
5. 성경은 중동지방에 관련된 것을 기록한 책이므로 바빌론은 대규모 중동 도시여야 한다. 본래 고대 바빌론은 중동지역에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은 모두 고대 바빌론의 후예이며 부흥이다. 또한 마지막 때 바빌론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암시는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6. 느브갓네살의 신 바빌론 제국, 메도 페르시안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이 있던 위치에 바빌론이 건립되어야 한다: 아래 지도에서 보듯 로마와 이탈리아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신 바빌론 제국이 있던 위치와 다르다! 이탈리아는 아래 지도엔 없다. 좀 더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바빌론'이 되려면 반드시 고대 바빌론 왕국이 있던 위치에 있어야 했다. 로마나 이탈리아는 바빌론인의 제국에 속하지 않았다.



신 바빌론 제국

뉴욕이나 미국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빌론>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바빌론이라 믿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은 결코 바빌론일 수가 없다:

1. 미국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바빌론이 이스라엘의 적이라 밝히고 있으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지파중 하나인 증거](#))
2. 미국은 중동지역에 있지 않다.
3. 에스겔서 38장에 따라 미국은 대환란 초기에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지만, 바빌론의 파멸 시점은 대환란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 지서스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날, 곧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날이다. ([미국의 파멸에 대해선 여길 참조](#)) 미국이 파멸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며 제 3차 세계대전이다. 이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서로에게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세계 무역이 감소하고 미국 중국의 수출입은 크게 줄어든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 3차 세계대전 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리더로서 자리 잡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있다.

<바빌론>은 어디에 있었나?

고대 바빌론과 바벨탑이 있던 원래의 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가 중동이란 것은 안다. 사람들이 공사를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 바빌론 도시가 완성되지는 못했다. 후에 사람들이 현대의 이라크 근처

바그다드 가까운 곳에 새 바빌론을 건축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황폐화 되었고 바그다드를 새로운 바빌론으로써 완성하였다. 즉 바빌론은 한 곳 이상의 장소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바빌론이 새로운 장소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실 "NEOM"이라는 말은 새로운 미래 Neo-Mustaqlal 라는 뜻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설명

← 원쪽: 고대 에돔 땅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현대 요르단 국경과 이스라엘 국경 남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에돔의 실제 크기는 지도상의 영역보다 훨씬 더 아래로 넓게 퍼져있으며 이 지도에 의하면 NEOM이 세워질 위치는 에돔 영역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겔 25:13-14에 묘사된 에돔은 오늘날 예멘인 데만(Teman)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인 드단까지 상당히 크다고 기록되어 있다.

↑ 중앙: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에 따라 NEOM이 세워질 땅.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이미 도시들이 있고 새롭게 지어질 도시에 병합된다는 것이다. 분홍색으로 채워진 영역은 공개된 NEOM의 영역이고, 실선 영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매체를 통해 설명된 확장 영역이다.

→ 오른쪽: NEOM은 메카 방향과 관련이 있다. (실상 고대 에돔은 메카 지역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고대 에돔과 에서는 오늘날의 신 New 바빌론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빌론이 이라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라크는 석유를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아래에 보이는 이사야 13장과 34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원래의 바빌론 위치, 즉 이라크에 건설되기 전의 원래 장소를 비춰볼 때 고대 에돔 땅(요르단 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 포함)이 마지막 때의 바빌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사야 34:1-17 (한글킹제임스 성경)

사34:1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사34:2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음이라.

사34:3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사34:4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의심할 여지없이 지서스의 강림때 일이다)

사34:5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Edom/Neom*)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에돔이 요르단과 북 사우디아라비아 인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 위치는 앞으로 지어질 NEOM이 세워질 곳이다. 아래 지도 참조)

사34:6 주의 칼이 피로 찢으며, 기름짐과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쳤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Edom/Neom*)

사34:7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흙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사34:8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에돔/에서/바빌론은 시온주의자의 적이다)

사34:9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불붙는 기름)이 되리라.

사34:10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에돔/바빌론은 파괴되어 수 세대동안 거주민이 없을 것이다. <for ever>에 대한 히브리/그리스어의 원래 뜻은 <완료 될 때까지>라는 말이다. NEOM 이 세워질 대부분의 땅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사막이다)

사34:11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증한 새; 계18:2)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출과 공허의 추를 내미시리라.

사34:12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을 부를 것이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사34:13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둘이 될 것이라.

사34:14 광야(사막)의 들짐승들도 섬(항구도시)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혀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사34:15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짹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사34:16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짹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34:17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으로 출을 그어 그것들에게 뜻을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이사야 13:1-22 (한글킹제임스 성경)

사13:1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사13:2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사13:3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사13:4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사13:5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사13:6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사13:7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사13:8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같이 되리라.

사13:9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사13:10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사13:11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사13:12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펠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사13:13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리라.

사13:14 그러면 그것이 마치 쫓기는 노루와 모으는 자 없는 양 같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본향으로 도망하리라.

사13:15 발견되는 자는 누구나 창에 찔릴 것이며 그들에게 잡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리라.

사13:16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져 산산조각날 것이요, 그들의 집들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사13:17 보라, 내가 메데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메데인들은 은도 개의치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13:18 그들의 활들이 청년들을 내던져 산산조각낼 것이요, 또 그들은 태의 열매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은 아이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13:19 왕국들의 영광이며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라.

사13:20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사13:21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사13:22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

가 가까워 오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메카에 있는 시계와 검은 돌 The Black Stone

NEOM의 남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고 메카 시계와 검은 돌이 있다. 둘다 마지막 때 예언에 따라 아주 중요하다. 계 13:15 "계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돌의 크기는 대략 30cm 정도이고 Kaaba 동쪽 모퉁이 돌로써 무슬림들이 나아와 기도하는 고대 성스러운 돌로써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천국에서 떨어져 내려온 돌이라고 한다.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랜드 모스크 중앙에 있다. 이 돌에 대해 At-Tirmidi에게 인증된 이슬람 전통에는 Al-Abani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심판의 날 알라가 검은 돌에서 일어날 것이며 두 눈과 한 입으로 말할 것이다. 진실안에서 검은 돌을 만지는 모든 자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참조:

http://www.performhajj.com/tawaf_of_qudum.php

"알라의 메신저가 돌에 대해 말하길: 알라에 의해, 알라는 부활의 날에 돌을 가져올 것이며 돌은 두 눈을 가져 그 눈으로 보고 입을 가져 말할 것이다. 모든 자가 진실함에 따라 그것을 만짐으로써 그들을 검증하리라" 참조:

<http://muslimmatters.org/2009/11/12/pucker-up-how-to-kiss-the-black-stone-every-time/>,

<http://www.islamqa.com/en/ref/1902>

무슬림은 메카 사원의 코너에 있는 그 검은 돌은 만짐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지서스(Jesus)께서 주되신 모퉁이 돌인 것을 안다!) 또한 그들은 검은 돌은 지구상 알라의 오른 손이고 그 손이 그의 종들을 훈들 것이라 믿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Black_Stone

<http://en.wikipedia.org/wiki/Kaaba>

Mecca 시계탑

단7: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불인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And he shall speak great words against the most High, and shall wear out the saints of the most High, and think(아람어로 기도하지만 그가 성공한다고 하지 않으며 실패한다고도 하지 않는다) to change times (GMT에서 메카를 기준으로) and laws (샤리아 법과 할랄표) :

and they shall be given into his hand until a time and times and the dividing of time.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적그리스도가 기준시간과 법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며, 3년 반의 시간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고 말한다.

2012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메카 시계탑을 건설하여 전 세계 모든 시간대를 변경하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NEOM과 Mecca를 현재 표준인 UTC시간대의 위치로 만들고 그에 따라 다른 모든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로써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시간과 법을 바꿀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

바벨탑

초기 바빌론 도시 건설 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도 포함되어 있었다. 메카 시계탑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지만 오늘날에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메카의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제다라는 도시를 바쁘게 짓고 있으며 2018년에 완공 될 예정이다.

<http://www.nydailynews.com/news/world/saudi-arabia-complete-world-tallest-building-2018-article-1.2456921>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메카 타워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타워이지만 새로운 제다 타워는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다: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tallest_buildings

https://en.m.wikipedia.org/wiki/Jeddah_Tower

일곱 산이 있는 땅

계17: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않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이 상징적으로 7개 제국을 지칭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NEOM의 땅을 포함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많은 산이 있으며, 아래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도를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요 산봉우리 일곱 장소를 볼 수 있다. 요르단 국경 근처에서 "2,580m"를 찾은 뒤,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높은 산 꼭대기가 나열된 곳 주변으로 산봉우리를 세어보라. 정확히 일곱 개다.

NEOM은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가 건설하는 일곱 번째 현대 도시가 될 것이며 NEOM은 뉴욕시보다 33 배 크고, 뉴저지 보다 12배 큰 일곱 개 도시를 모두 연결할 수 있다. 즉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일곱 제국이고 일곱 개의 도시이며 일곱 개의 산이다! NEOM은 이런 해석에 모두 들어 맞는다.

원래 로마의 거주지역은 Aventine 언덕, Caelian 언덕, Capitoline 언덕, Esquiline 언덕, Palatine 언덕, Quirinal 언덕 및 Viminal 언덕과 같은 일곱 개의 언덕에 건설됐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



뉴욕보다 33배나 큰 도시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

대황난의 시작과 지서스의 오심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그 큰 도시와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진짜 바빌론이라 믿을 수 있는 이유다! 창세기 11장은 첫 번째 바빌론 도시 건설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바빌론 공사 도중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바빌론을 파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바빌론 도시를 파괴하실 것임을 믿는 것은 적절하다고 믿는다. 첫 번째 바빌론의 파괴는, 마지막 때 사건의 전조와 예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창세기 1:1-9

창11:1 온 땅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창11:2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창11:3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창11:4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창11:5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창11:6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창11:7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11:8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창11:9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음이라.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NEOM의 목표는 온 세상을 하나의 종족과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는 것이며 (창11:4-6), 하나님의 이름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 거는 것이다(4절)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NEOM의 의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위해 우리는 아랍어 이름을 원하지 않았고 라틴어나 다른 특정 언어의 이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에 대한 문명적 도약이기 때문에 특정 문명의 이름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틴어나 아랍어를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워크샵 후 제안 된 이름의 첫 글자를 해독 한 다음 주요 분야의 첫 글자를 따서 Neo-Future라고 결정하였습니다.

'neo'는 '새로운' 이란 뜻의 라틴어이고 'mustaqbal'은 '미래'라는 뜻의 아랍어입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0-26/saudi-arabia-crown-prince-details-plans-for-new-city-transcript>

적그리스도 "아사드"와 거짓 선지자인 로마 카톨릭 교황은 NEOM 이란 이름으로 이어진다

"NEOM"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써 '새로운' 이란 의미의 Neo와 아랍어로 '미래'를 의미하는 Mustaqbal의 두 단어로 구성된다. 라틴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언어이고 아랍어는 이슬람 세계의 언어다. 따라서, NEOM이라는 이름으로 멸망의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의 언어와 거짓 선지자이며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의 두뿔에 해당하는 ["교황" 베네딕토와 "교황" 프란시스](#)를 대변한다.

이것은 라틴어와 아랍어를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도시 NEOM을 아사드와 "교황"간에 이어주는 것이다. 인간 세계 지도자인양 행세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행한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살펴보기 바란다.

거대 경제와 극히 부유한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경제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크다."

"사우디 석유 매장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선두적인 석유 수출국이며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이다. 사우디 정부가 제공 한 수치에 따르면, 입증 된 매장량은 2,600 억 배럴 (41km^3)로써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4 분의 1을 차지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날짜' 생산자 중 하나다.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audi_Arabia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여러 항구가 있으며 더 많은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NEOM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전 세계 무역 및 운송을 크게 늘릴 것이다. 사우디 왕가는 매우 부유하여 이미 NEOM 프로젝트에 필요한 5 천억 달러를 따로 준비해 두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신 도시 건설능력 과 경험

리야드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이 도시는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6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고원에 위치해 있어 이미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다. Jehhad와 Mecca도 이미 상품 및 금융 중심지다. 제다(Jeddah)는 홍해에서 가장 큰 바다 항구이며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80 만 명이다. 제다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상업 수도이며 메카의 관문이기도 하다.

<https://en.wikipedia.org/wiki/Jeddah>

NEOM 건설은 몇 가지 중요한 인프라를 확립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 지역의 기존 도시들은 새로운 대도시 지역으로 통합 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현대 도시 건설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 여섯 개의 도시를 건설했다. 경제의 다양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섯 개의 '경제 도시'를 착수 할 계획이었다(예:2020년 완공 예정인 압둘라 경제 도시). 그 경제도시들은 2013년 기준, 600억 달러의 비용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 "2013년에는 4개 도시가 개발 중이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audi_Arabia#Diversification_and_the_development_plans

지금까지 6개의 새로운 도시가 진전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EOM은 7 번째 도시이자 산이지만 이전에 계획되었던 다른 모든 도시들은 이 거대한 신도시와 연결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020년에는 사람들이 NEOM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주요 도시는 2025년에 개장 할 것이다. 우리는 험 베이라고 부르는 곳을 신속히 공사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 아닌 도시 근교에 있는 만이라서 그 지역 근처에 사무실과 장소를 잡아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 완공되면 NOEM 만(bay)은 뉴욕의 햄프턴과 같을 것이다. NEOM 만이 2021년에 준비 될 것이므로 그 전에 공항이 필요하다. 사실 이미 공항은 준비되어있다. Tabuk에서는 이번 달에 새 공항이 완공되었는데, NEOM 직원 전용이다. 2019년에 개발되는 공항은 NEOM의 주요 공항은 아니며 2020년 이후에 NEOM의 큰 공항이 될 것이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0-26/saudi-arabia-crown-prince-details-plans-for-new-city-transcript>

이집트와 요르단과의 공조

왕자는 1년 반 전에 시나이 국왕과 이집트 북부 자유 지대에 대한 합의문을 이집트 대통령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나이 북부에 있는 이 자유 지대에 서명하는 목적은 NEOM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NEOM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의 일부 지역에 걸쳐 있다. 두바이와 바레인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쿠웨이트가 이집트와 요르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홍해 국가와 세계의 많은 곳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러시아와 중국은 NEOM 건설과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데 동참할 것이다

<https://orientalreview.org/2017/10/26/saudi-arabia-might-recognize-israel-because-of-neom/>

러시아가 자금을 투자하여 바빌론 도시를 짓는데 동참한다

<https://m.aawsat.com/english/home/article/1065331/russia%20%99s-investment-fund-participate-neom-project>

빌 게이츠와 구글, 다른 악한 기업 및 사악한 인간들의 협조

바빌론이 미래의 도시로써 그리고 가장 진보 된 기술을 가진 도시로 선전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빌 게이츠, 애플 등과 같은 사악한 기업 및 개인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꿈꾸며 투자할 기회로 보고 있다. 자동차, 로봇 및 기타 비행 발명품은 이미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https://twitter.com/NeomTimes/status/930541941619658752>

이 글을 찬찬히 다 읽어보길 권한다: [The Electrical, Petroleum & Automotive Industries Corruption Of Mankind](#)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기록된 선지자와 사도와 성도의 피

메카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만든 종교인 이슬람교에게 매우 중요하다.(참고: [로마 카톨릭이 이슬람이 18가지 이유](#))

거짓 선지자 무하마드는 서기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으며 그의 책 "코란"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테러와 살인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2017년 10월 24-25일에 NEOM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온건한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모든 종교를 받아들인다" 라고 발표했다. 그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불교, 카톨릭교 교리, 힌두교 및 이슬람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아사드의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 와 공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참고: [바샤르 알 아사드가 말하는 세계 단일 종교](#))

아사드가 자신을 제 12대 임망 마흐디로 드러내거나 이스라엘을 점령 한 직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교에서 아사드의 종교인 시아파 이슬람교로 바뀔 것이다. 911 사건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소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이슬람 예언에 따르 그리스도인을 살해하며 참수를 요구하는 메카의 검은 돌을 떠올리기 바란다. NEOM이 바빌론이라면 메카의 검은 돌은 짐승의 이미지를 가리키고, 메카 시계는 적그리스도가 바꾸는 시간대와 법을 알려주며, 적그리스도가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NEOM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통제 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는 "NEOM 안의 법은 국방, 국가 안보, 테러 및 이와 유사한 위협과 같은 사우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외교 정책은 사우디 정부 수준에서 유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술을 갈망하는 외국인은 이집트나 요르단에 갈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새로운 도시를 위해 요구할 것이다.

<https://newatlas.com/neom-saudi-arabia-future-megacity/51893/>

또한 방글라데시에 560개 모스크를 지었으며,

<http://www.dhakatribune.com/bangladesh/nation/2017/04/20/saudi-pay-big-money-mosques/>

독일 내에 200개 모스크를 지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saudi-arabia-offers-germany-200-mosques-one-for-every-100-refugees-who-arrived-last-weekend-10495082.html>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에서는, 약 25,000 명에 달하는 사우디 성직자들이 모스크와 대학을 짓고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들였다: <http://theweek.com/articles/570297/how-saudi-arabia-exports-radical-islam>

NEOM 괴물을 뜻하는 '짐승'이다

NEOM : 괴물(짐승), 사악하고 사악한 사람, 인성없는 사람, 비 본성, 제멋대로인

<https://www.names.org/n/neom/about>

또 다른 증거: 거짓 선지자는 위의 모든 내용에 대해 함구한다!

수천 수백만 추종자와 음모 이론 웹 사이트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 5분 내에 말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며 운영한다. 여태껏 찾고 찾았지만 아직까지 NEOM이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음모론을 찾을 수는 없었다. 진리가 무엇이든, 거짓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거짓 이론과 거짓 가르침을 게시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에 열심히 나서 출판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더욱 믿게 할 뿐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시나이 산 주변에 바빌론을 짓고있다

다음 동영상은 사나이 산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곳은 확실히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곳이다. 산의 높이 때문에 지서스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실제 지형 위에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사우디 아라비아는 많은 역사적 장소와 고고학 기록을 파괴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는 NEOM의 위치 내에 "유적지"가 있다고 말했다.

www.youtube.com

Mount Sinai- proof of the supernatural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1VI-dacwic> (*Saudi Arabia's Neom Mega city project*)

<https://www.youtube.com/watch?v=HEw269YwLOA> (*Neom: The City of the Future is Huge, Hyper-Tech and on the Map*)

관련 글:

- [밝혀진 666 숫자와 짐승의 형상](#) (영문)
- [짐승의 표](#)
- [시간과 법을 바꾸려하는 적그리스도](#)
-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슬람의 연계](#)
- [정체가 드러난 적그리스도](#)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하는 날

진리탐구

2017/12/06 23:26

<http://blog.naver.com/tpad51j/221157172708>

이 날이 단순히 다른 여러 정치적 이벤트와 다를 바 없는 날이 될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날이 될지 구분하는 기준은 곧 알게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053453>



[깊이읽기] 트럼프, 중동 화약고에 기어이 불붙이다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트럼프, 공인 연설 예고 美대사관도 이전할 방침 국제사회 70년 합의 파기 중동 각국 격렬하게 반발 동맹 사우디 등 철회 요구 “극단주의에 먹잇감 주는 꼴” EU·프랑스도 우려 표명 “러
news.naver.com

만약 이 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를 축출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해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거나 매체를 통해 눈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내서 내려오는 강력한 미혹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2018년 부림절 3월 1-2일이 지날 때까지 주의에 주의를 더해 지켜보길 바란다.

관련 글/기사

<http://blog.naver.com/tpad51j/221184614377>

휴거는 속죄일에 일어난다

강력한 미혹 이란 적그리스도바샤르 알 아사드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보이고 ...

- [이-팔 '예루살렘 갈등' 최고조…로켓포 발사에 탱크 보복공격](#) (12월 12일, 2017년)
- ["美, 아사드 2021년까지 집권 허용 준비" 뉴요커](#) (12월 12일, 2017년)
- [예루살렘 수도 선언…뉴욕 테러 폭탄 됐다](#) (12월 12일, 2017년)
- [이슬람권 57개국, 美 '예루살렘 결정' 반대 선언](#) (12월 13일, 2017년)
- [시리아정부 "'아사드 제거' 철회해야 협상"…회담 전망 불투명](#) (12월 15일, 2017년)
- [러시아 전투기 2대, 미군 통제 시리아 영공 침입](#) (12월 15일, 2017년)
- [커지는 분노…안보리, 예루살렘 선언 거부 결의 착수](#) (12월 17일, 2017년)
- [안보리 '예루살렘 수도 백지화' 표결…美 거부권](#) (12월 19일, 2017년)
- [이란 국회의장 "무슬림 국가들, 美·이스라엘 맞서 행동해야"](#) (12월 19일, 2017년)
- [팔레스타인, 한국전쟁 쓰인 '애치슨 플랜'으로 살 길 찾나](#) (12월 19일, 2017년)
- [트럼프 엄포에도…유엔총회 '예루살렘 결의' 압도적 채택](#) (12월 22일, 2017년)
- ["러와 시리아 협상 손잡은 에르도안 "아사드와는 같이 못해"](#) (12월 28일, 2017년)
- [러시아와 손잡은 터키 "아사드 퇴진" 다시 꺼낸 속내](#) (1월 3일, 2018년)
- [아사드, 시리아내에서 미군을 축출할 것을 선언](#) (1월 15일, 2018년)
- [에르도안 "며칠내 시리아 쿠르드 침공" 위협…미국과 갈등 심화](#) (1월 16일, 2018년)
- [시리아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전히 살인가스를 사용해 진압하는 아사드 정권](#) (1월 16일, 2018년)
-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터키와의 전쟁에 미국 참전 요청](#) (1월 23일, 2018년)
- [쿠르드 민병대가 터키와 맞서 같이 싸울 것을 시리아 정부에 요청](#) (1월 27일, 2018년)
- [아사드, 추가 도발시 이스라엘 벤 구리온 공항에 스커드 미사일 발사할 것이라 위협](#) (1월 29일, 2018년)
- [미, 화학무기 사용 시리아에 추가 군사공격 가능성](#) (2월 2일, 2018년)
- [미국, 시리아의 화학 공격으로 '심각하게 놀랐다'](#) (2월 8일, 2018년)
- ['미·러 대리전' 노골화하는 시리아 내전](#) (2월 8일, 2018년)
- [최악으로 치닫는 시리아 내전…중동 넘어 미·러 각축전 격화](#) (2월 9일, 2018년)
- ['전투기 격추' 이스라엘, 시리아 대대적 보복 공격](#) (2월 11일, 2018년)
- [트럼프 보안 고문, "아사드가 민간인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공격 할 것"](#) (2월 18일, 2018년)
- [시리아 정부, 터키와 전쟁을 할 것이라 선언](#) (2월 20일, 2018년)

할로윈 (Halloween)

진리탐구

2017/10/21 18:52

<http://blog.naver.com/tapad51j/221122161998>

할로윈의 기원

약 1300년 전, 영국제도 British Isles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마술사 Wicca 라 불리는 남자 여자가 많았다. Wicca의 원래 뜻은 현명한 자 wise ones 이고, Wiccan은 자연숭배자를 뜻한다. 이 자연숭배자들은 혼자 혹은 13명씩 무리를 지어 주문을 외우거나 마술을 했었는데, 때때로 3명이나 3의 배수 인원으로 구성되기도 했다. 오늘 날 마녀 Witch 라 불리는 단어는 여자 Wiccan을, 마법사 Wizard 는 남자 Wiccan을 뜻한다. 이들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은 스코틀랜드-게일 Scotch-Gaelic 언어인 Warlock인데, 마법사라는 의미다. 마귀숭배자 Satanists 는 Wiccan을 Warlock이라 부른다.

Wiccan은 "대자연" 뿐만 아니라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겼지만 마귀 Satan 를 믿지는 않았다. "esbat"이라 불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Wiccan들이 모여 마법의 원에 "헥사그램 Hexagram" 이라 불리는 여섯 별을 그렸다. 열 세명의 집회 참석 Wiccan은 헥사그램 안에서 하늘을 옷삼아 벌거벗은 채 둘러 섰고, 주술을 외우면서 "달을 끌어 내리는 drawing down the moon" 의식을 행했다. 보름달은 Wiccan에게 신성했고 금요일이라면 특별했다. 만약 그 금요일이 해당 달의 13일째 날이면 어떤 날보다 더 큰 날이라 여겼다.

마녀 Witch 에겐 일년중 여덟번의 제사일이 있는데, 정해진 날 바로 전날 저녁에 주문을 외우며 의식을 행한다. 그날은 각각 아래와 같다:

- 2월 2일, 켈트어로 축제라는 뜻의 Imbolc 라 불린다
- 3월 22일, 춘분 spring equinox
- 5월 1일 Beltaine 이라 불리는 축제일
- 6월 22, 하지 summer solstice
- 7월 31일
- 9월 22일, 추분 fall equinox
- 10월 31일, 할로윈
- 12월 22일, 동지 winter solstice

각 제사일마다 지정된 방식의 의식절차가 있었다. 비록 Wiccan들이 마귀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자연을 숭배하게 이끈 것은 분명코 마귀 짓이다. 여덟 번의 제사중에 10월 31일 곧 할로윈 Halloween 이라 불리는 날은 Wiccan의 제사날 중에

서 가장 중요했는데, 할로윈 밤은 이승과 저승사이의 경계막^{barrier}이 가장 얇아지는 때라서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과 영의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녀들은 수 세기동안 마술과 광란의 파티를 열며 할로윈 밤을 즐겼다. 마녀는 이브를 속이는데 사용된 사과^{Apple}를 신성하다 믿었기 때문에 사과를 이용한 게임을 하거나, "그림자 책 book of shadows" 내용을 얘기하며 즐겼는데 이 책에는 주문이 기록되어 있었다.

할로윈을 신성하게 여긴 드루이드교의 악행

<https://en.wikipedia.org/wiki/Neo-Druidism>



스톤헨지에서 의식을 가지는 신-드루이드교 신자들 (from Wikipedia)

18~19세기에 들어서 영국에는 다른 종류의 마법사 집단이 있었는데, "참나무 사람들"이라 불리는 드루이드교^{Druidism}가 있었다. 흰 예복을 입는 기이한 이 집단은 "뿔달린 밤 사냥꾼"^{horned hunter of night}이라 불리는 케르눈노스^{Cernnunos}를 숭배했고, Wiccan의 여덟 제사날 중에서 할로윈을 신성하게 여겼는데 드루이드교가 숭배하는 신이 10월 31일에 지하세계로 쫓겨나 빛이 가장 약해지고 어둠이 가장 강해진다 믿었기 때문이다.

10월 31일, 할로윈에 어둠이 내리면 흰 예복과 후드를 덮어쓴 드루이드교 무리가 낫과 켈트족 십자가를 들고 횃불 행렬을

시작한다. 행렬 초반에 남자 노예를 죽이고 왼쪽 발목에 밧줄을 묶어 끌며 어떤 집이나 마을에 이르면, 다음과 같이 외친다:

"TRICK OR TREAT! 문맥상 '재물을 내놓든지 죽음을 택하라!'라고 해석했다

드루이드교에게 "재물^{treat}"은 노예 소녀 이거나 드로이드교에 받쳐진 여자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집이나 마을 사람들이 소녀를 "재물^{treat}"로 주기를 거부한다면, 드루이드교는 죽은 노예의 시체에서 피를 가져다 여섯 점 별이 그리면 헥사그램 표식을 그 집 문이나 마을 벽에 그린다. 그리고 할로윈 밤에 거부한 그 집이나 마을 사람 가운데 몇명을 공포로 죽이도록 "뿔 달린 밤 사냥꾼" 케르눈노스의 영을 부른다.

만약 (협박을 받은) 그 집이나 마을에서 소녀를 내주면, 드루이드교는 얼굴 모양이 조각된 큰 호박을 그 집이나 마을 어귀에 두고, 악령이 접근하지 못하게 사람의 지방으로 만든 초를 호박안에 켜둔다. 따라서 Jack-O-Lantern^{호박등}은 마귀와 함께 일한다는 표식이다. 넘겨진 소녀나 여자는 스톤헨지^{Stonehenge}로 끌려간 후, 강간당하고 화로불^{bonfire}에 재물로 던져 저 불씨만 남을 때까지 태워진다. 마을의 남은 자는 겨울에 살아남는 행운을 얻기 위해 그 남은 불씨를 가져다 자신들의 집 화로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랬다.

할로윈과 관련된 모든 것은 악이다

"할로윈데이를 기념하는 행위는 원래 귀신을 쫓아버리기 위한 의식에서 비롯되긴 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세속적인 행사로 변하게 되었고 할로윈 풍습은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파티이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되었을 뿐 이 시대에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래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살전5: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18:9 네 하나님 지서스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18: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18: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신18: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지서스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지서스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신18:13 너는 네 하나님 지서스 앞에서 완전하라

신18: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지서스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엡5: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엡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5: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엡5: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엡5: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엡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엡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엡5: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엡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로마카톨릭이 자연숭배자 Witch로부터 할로윈을 빌어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

지서스 Jesus를 따르는 자라면 할로윈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며 철저히 그 본모습을 드러내어 주변 모두에게 경고하길 바란다.

환란전 휴거를 기다리는 자

진리탐구

2017/09/25 18:33

<http://blog.naver.com/tpad51j/221104953828>

나 역시 한국에서 규모로 따지자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 큰 교회에서 청년시기를 보냈고, 일 때문에 지방을 오갈 때는 작은 개척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했다. 서울 지역에선 안가본 교회가 없고 지방이라 할지라도 훌륭하다 입소문이 나면 확인에 확인을 하곤했다. 20살 이후로 새벽예배를 비/눈/폭풍/폭설이 와도 10년 이상 연속해서 언제든지 다녔으며 십일조를 일부러 떼어먹은 적도 없고 군대에서도 술/담배를 하지 않았다. 3년간 지속적으로 또는 때때로 금식 단식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얻고자 했으며 잘 가르친다는 목사의 설교나 자료를 수도 없이 찾고 들었다. 이런 열심을 바탕으로 감히 말하는데, 나는 그저 환란을 비켜가고싶다는 바램에 성경에 대한 눈이 멀었던 어리석은 자였으며 예전의 나 처럼 **환란전 휴거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모두 무식하여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다를바 없다고 믿는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난다는 성경말씀을 잊지말라

살후2: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지서스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살후2: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살후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1992년 10월 28일이든 2017년 9월 23일이든 어느 경우든 동일하다. 특정 날짜에 휴거가 일어나면 즉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믿거나 적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나든 아예 상관하지도 않는다. (자신은 휴거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23일에 휴거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22일이나 23일 당일이라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닌가? 심지어 성경은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보이며 하나님이라 선언한다 ^{살후2:4} 예언하는데, 그런 일과 비슷한 어떤 현상은 커녕 엇비슷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당 날짜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 믿는지... 이젠 측은하다 못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살후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에 대해서는 영국 상황을 보듯 전도의 구실로 세계 여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던 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으며 많은 교회가 비거나 이슬람 회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배도'와 다르다.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못박고 있지 않는가?

환란전 휴거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환란을 피해 들림을 받는 것"에 있을 뿐, 하나님 말씀에는 별 관심 없는 자들이 틀림없다. 온갖 구절을 가져다 자신의 무지를 메꾸는데 쓰고 있으나, 문맥과 상관없이 가져다 쓰는 구절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검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숫자 맞추기 놀이와 다를 바 없이 각종 기간을 성경의 말씀에 바탕하지 않고 뛰어 맞춰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있으며, 인용하는 번역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 평신도 가운데 깨어있다 은근히 스스로 믿으며 환란전 재림을 기다린다는 모든 자는 실상 다 똑같이 무지한 자들이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성령의 도움없이 누가 인지할 수 있겠는가?

2. 반드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야 한다.

에스겔 31:1-23 구절에 분명히 보이듯,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한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54294900>),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성도의 환란은 결코 시작되지 않는다! 과거 10월 23일에도, 몇일 전 9월 23일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보일만한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도 침략받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휴거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3. 휴거가 환란전에 있다해도 은밀히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의 오심을 알게된다.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24: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위의 구절은 지서스 Jesus께서 환란후 재림이 있다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 일일히 손가락 찍어가며 환란후라고 가리켜도, 눈을 돌리고 환란전 이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 내지는 "지가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도대체 어디에 아무도 모르게 주께서 재림하신고 기록되어 있는가?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귀가 먹어 큰 나팔소리를 듣지 못한 귀머거리가 되었다고 하는가? 아니면, 눈이 멀어서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있나? 아무도 모르게 휴거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뿌린 영화를 성경보다 더 믿는 한심함이란...쯧...

4. 환란 후에 오신다는 명백한 구절은 마태복음 24:29-31, 요한계시록 11:15-19에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외에 다른 나팔이 있을 수 없으며, 다른 구절에서 재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모두 나오는 부분은 계11:15-19 밖에 없다 :
계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1)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

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 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1, 2)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3)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속죄일)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 → 고전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훌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2) →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죽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3) → 마 16:27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 마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 마24: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1)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위의 모든 구절은 환란 후에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면, 자기 믿음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계22: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5. "비록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다시 날마다 기다린다"고 마음을 추수리지만, 결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환란전 휴거를 믿는 모든 자는 지서스께서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구원에도 관심없는 자들이라 "지서스"가 아닌 변개된 이름 "예수"를 주라 부르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없이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면" 그걸로 구원 받았다 믿기 때문이다. 그 땐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벧전3:21 물은 그리스도 지서스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

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서스Jesus가 아닌 "예수Jesu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마귀의 다른 이름인 것 조차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도 없는 자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이를 번역한 모든 번역성경 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일점일획이라도 변개가 없다 믿는 순진무구하다 못해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다.("[하나님의 진짜 이름](#)" 참조)

변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서스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는가?

계22: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계22:1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한 서기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치기 했고 거짓으로 변개시켰다는 사실은 구약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다:

렘8:8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지서스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모든 것을 검증하는 자 만이 이런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살전5:21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불들라.

십계명은 주께서 재림하는 그 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건만, 환란전 휴거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그 내용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히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썩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속죄일 절기에만 지성소가 개방된다!)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이신 지서스를 가리켜 "예수"라 부르고 "여호와"라 경배하며 온갖 사진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신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믿고 있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때문에 일요일에 교회 간다면서, 그 안식일이 언제인지 알 아볼 생각도 없고 듣는다해도 개의치 않는다. 지키라 엄명하신 일곱번의 절기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마지막큰날와 그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을 뿐더러, 율법이 폐해졌으니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라 생각하는 모순은 결코 깨닫지 못 한다. 율법이 폐해졌다면서 왜 일요일에 교회가는가? 온갖 음란물로 점철되어 도저히 씻기 힘든 간음의 울레에 있으면서 어떻게 환란전에 휴거된다고 여기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환란전 휴거를 믿고 기다리는 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나 역시 이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자들의 교만함과 게으름과 무식함에 대해서 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환란전 휴거를 가르치거나 외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예언을 퍼트린 죄를 회개해야한다:

렘23:33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지서스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지서스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렘23:34 또 지서스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렘23:35 너는 또 말 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지서스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고

렘23:36 다시는 지서스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지서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씀이니라 하고

렘23:37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지서스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지서스께서 무엇이라 말씀 하셨느뇨

렘23:38 너희는 지서스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지서스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지서스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렘23:39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렘23:40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찌니라

"10월 28일, 9월 23일이 불발되었으나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이다"? .. 천만에 말씀.

말하지 않고 혼자만 믿고 기다렸다면 수치로 끝날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퍼트리며 가르쳤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오히려 버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기회은 오직 회개하고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 뿐이다. 구원얻을 때 새 사람이 되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다.

10월 28일이나 9월 23일을 비웃으며 여전히 "예수"를 부르는 기독교인들은 무사할 것 같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역시 마찬가지다. 마귀의 다른 이름 "예수", "여호와"를 버리고 오직 지서스 Jesus를 불러야한다. 침례를 무시하며 조롱하고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주의 절기를 힘써 따르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도 다를 바 없다. 이전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 그을 보는 순간 적어도 당신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참조글: <http://blog.naver.com/tpad51j/221070989838>)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예수"라 부르며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부르는 자는?

마찬가지다. 스스로 뭔가 있다고 믿으나, 환란전 휴거를 믿는 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들역시 침례를 무시하고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주의 절기를 힘써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인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가 직접 공격당하는지 여부에 온 촉각을 기울이라 충고하고 싶다. 그를 제거하기 위해 군대가 움직이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며 성도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순식간에 다가오는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휴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미혹일 뿐이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57426677>

적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모든 세계가 이슬람화 되어 오른손이나 이마에 할랄표가 강제되는 것을 볼 때야 비로소 스스로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환란 후에 있을 주의 재림을 대비하길 바란다.

전도지: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가 적그리스도인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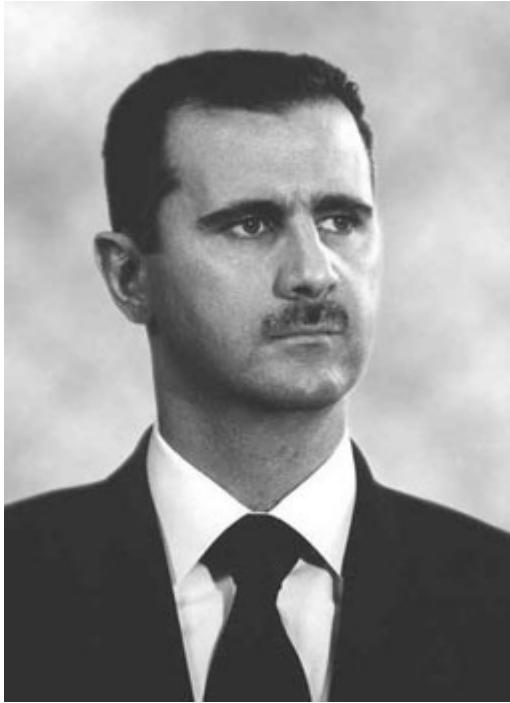
진리탐구

2017/09/19 09:57

<http://blog.naver.com/tpad51j/221100132727>

이 글은 "[Proof Bashar Assad is the Antichrist](#)"를 번역한 내용이다. 내용을 A4 한장에 넣기 위해 꿈 얘기에 대한 두개의 문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 내용 그대로를 번역하려 했으나 몇 문단은 의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A4 크기의 양면에 맞도록 올려진 PDF를 프린트해서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Bashar Al Assad)가 멸망의 아들 적스리스도인 증거



바샤르 알 아사드 (Bashar Al Assad)

아사드는 다니엘 11:40 구절을 이루고 가고 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시리아는 나라 사방에서 전쟁에 처해있다. 곧 북태평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아사드를 공격하여 그의 권력을 없애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3:3 구절에서 언급한 '죽게되었다는 상처'를 말한다. 그러나 아사드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미국과 NATO 군대가 그의 권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사드는 안과의사다. 다니엘 7:20 구절에서 적그리스도는 작은 뿐에 눈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소위 “모든 것을 보는 눈” (혹은 하나의 눈)이라 불리는 것은 안과의사를 나타내는 로고일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freemasonry), 새로운 세계 질서(the new world order)의 로고이기도 하다.

이사야 10장, 미가서 5:1-5에서 적그리스도를 “(앗)시리아 사람”이라 부른다. 뿐에 눈이 있다 말하는 다니엘 7:20과 이사야 10:12, 데살로니가후서 2:8, 이사야 11:4, 30장30-31은 모두 직접적으로 (앗)시리아인을 가리킨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의 할아버지는 아랍어로 “짐승”이란 뜻을 가진 가족의 성 “Al-Wahash”를 아랍어로 “사자”라는 뜻을 가진 아사드(Assad)로 바꿨다. 만약 당신이 아랍어로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면 아사드의 원래 가족 성(family name)과 아사드의 현재 성(current last name)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지원을 받아 에스겔 38장을 이를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이란은 이제껏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아사드를 지원한다고 밝혀왔으며 핵무기를 동반한 제 3차 세계대전까지 지원할 것이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본 금으로 된 동상과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철과 진흙으로 된 것 등은 모두 정확히 고대 바빌론과 앗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지역과 동일한 중동지역에 서 있다. 성경은 중동지역 관련 책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역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지중해 근방 지역에서 반드시 출현할 것이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는 반드시 바샤르 아사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바샤르 아사드는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낫다고 주장한다. 아사드가 자신을 메시야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와 야곱의 가족인 유대인의 핏줄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시리아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서스(Jesus)역시 유대인과 시리아인의 핏줄이 섞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24:25, 25:20, 28:5, 29:10-35, 신명기 26:5, 창세기 10:21, 창세기 11:10-26, 마태복음 1:1, 창세기 35:22-26

아사드는 1965년 9월 11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911 사태도 그의 생일에 일어났다.

아사드는 세계 이슬람 통치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서스(Jesus)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믿는다. 또한 삼위일체와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많은 카톨릭 성일을 믿으며 힌두교나 불교처럼 환생을 믿는다. 아사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세상의 유일한 하나의 종교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코란을 만들어 모든 이슬람 국가의 왕과 지도자와 대통령 그리고 주요 모스크에 배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곧 “12번째 임맘 마흐디”로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 때 관련한 고대 이슬람 예언에는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인 마흐디(Mahdi)가 시리아를 통치할 것인데, 이 때는 중동 전쟁이 시작되어 두개의 다른 이슬람이 서로 싸우고 시리아 통치자인 마흐디를 대적한다고 말한다. 예언에 따르면 시리아-이라크 전쟁은 격렬할 것이며 시리아 통치자는 그를 대적해 싸우는 자들을 이길 것이고, 시리아-이라크 전쟁 가운데 지서스(Jesus)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마스쿠스에 발을 딪고 시리아 통치자를 도울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란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슬람 세상의 지도자인 마흐디는 이미 존재하지만 적절한 때가 되어 밝힐 때까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 이 주장의 중요한 점은 그 마흐디가 이란의 친구라는 것이다. 이란에게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 외에 달리 친구가 없다. 몇몇 무슬림은 이미 아사드를 마흐디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데이크(Dake) 주석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시리아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각주에 기록되어 있다.

2016년 4월,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토로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영연방, 러시아 및 모든 이슬람 국가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식 비난하였고 아사드를 지지함을 천명했다. 1967년 때의 골란고원 국경은 마지막 때 주요 접전지역이 될 것이다. 많은 국가가 현재는 아사드를 싫어하지만, 이스라엘과 아사드 중에 선택해야하는 때가 오면 악한 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아사드를 선택할 것이다.

바샤르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쉽게 볼 수 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를 모든 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을 거부하면 목베임을 당한다. 짐승의 표와 목베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는 외경 마카베오서(Maccabees) 시대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웠다. 안티오크스는 다니엘서에 미리 기록된 인물이며 시리아의 통치자였다. 즉 안티오크스는 적그리스도를 미리 알리는 그림자다. 다니엘 11:21-36 구절은 안티오크스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다. 36절과 다른 다니엘서 구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다니엘서 나머지 부분과 21-35구절에서 말하는 인물은 차이가 없다. 안티오크스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날 동일한 타락한 천사다. 요한계시록 17:10 구절은 고대의 왕이었던 그가 돌아온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수 차례 예를 보여주듯,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아사드”라는 이름은 중동에서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세번째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산에 세워지는 일은 없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1-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이 말리며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아사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장면이다. 보좌를 지키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잠시 물러나(다니엘 12:1) 아사드가 하나님 인것처럼 보이게 한다. 지상의 사람들은 각처에서 뛰쳐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장면을 보고 생각하기를 휴거가 일어났다고 믿고 아사드를 경배할 것이다. 아사드가 하늘에서 와서 다마스커스에 내려온 후, 30일 뒤에 시리아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써 3년 반의 성도의 대환란이 시작된다. 또한 러시아/중국은 미국을 침략한다. 성경이 명시한 ‘성도의 들림’은 아사드가 하늘에서 나타난지 1260일 뒤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후 45일 동안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진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지서스(Jesus)께 기도해서 알아보고, 영적/육적/감정적/신체적으로 그 날을 대비해야 한다. 해뜰 때부터 다음 날 해뜰 때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십계명을 지키라.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그분의 원래 이름 “지서스”(Jesus)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막16:16).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기독교와 금식으로 성경을 읽으라. 종교를 따르지 말고, 지서스를 따라야 한다.

다른 게시글 참조:

- ["집승의 표, 666"](#)
- ["적그리스도 조건 비교표"](#)
- ["미국의 시리아 폭격: 요한계시록 13장의 시작"](#)
- ["Bashar Al Assad, 적그리스도의 강림"](#)
- ["두번째 한국 전쟁 시기"](#)
- ["아시아, 한국, 팜,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미국에 대한 마지막 때 예언"](#)
- ["<강력한 미혹>이 보인 후 1335일 후에 주의 날이 임한다"](#)
- ["아사드를 제거하기 위해 병력이 움직일 때"](#)

뉴스 참조:

- [이란 대통령 "탄도미사일 계속 개발할 것"…美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 [이스라엘, 시리아 다마스쿠스공항 무기저장소 공습](#)
-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면 보복할 것이라는 러시아 입장은 여전](#)
-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대사의 UN 선언: "시리아가 완전히 안정화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으며, 그것은 아사드가 없는 평화다"](#)
- [마다가스카르, 흑사병으로 5명 사망](#)
- [빈라덴 아들 함자, 육성 메시지서 "시리아 성전 동참" 독려](#)
- [러시아, 4년만에 최대규모 군사훈련](#)
- [北, 무기수준의 핵물질 계속 제조…시리아와 화학무기 협력](#)
- [유엔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공격 배후"](#)
- [이스라엘, 시리아 화학무기 제조공장 추정 시설 공습](#)

머리 셋 달린 용: 삼위일체

진리탐구

2017/09/13 04:15

<http://blog.naver.com/tPad51j/221095614778>

한 분 하나님의 개요

천사 혹은 마귀와 같은 영^{Spirit}은 육신이 없다.

눅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모든 것 이전에 계신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일 부분, 즉 영^{Spirit} 이신 하나님의 일부분이 육신에 오신 분이 지서스^{Jesus}이시다 ([이 개념을 설명한 도식 참조](#))

요10: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14: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히10:5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요이1: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 지서스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낚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일 부분이 육신으로 오셨을 지라도 지서스는 하나님이시다:

빌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3:11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지서스께서 돌아가실 때 그 분의 영, 곧 영이신 하나님이 몸에서 떠났다.

마27:50 지서스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And Jesus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spirit.

그러나 약속대로 오순절 부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서스 본인께서 보혜사^{Helper}로 오시는 것이다:

요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Helper)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14:18 내가(지서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갈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서스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지서스의 영이 성령이므로 성경에 드러난 표현이 어떻든 결국 동일한 분이시다.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요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다중인격자, 세 명의 다른 인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라 설명하는 거짓교리다.

또한 '세 명의 다른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란 주장은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아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ignorance}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지서스로만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셨다.

요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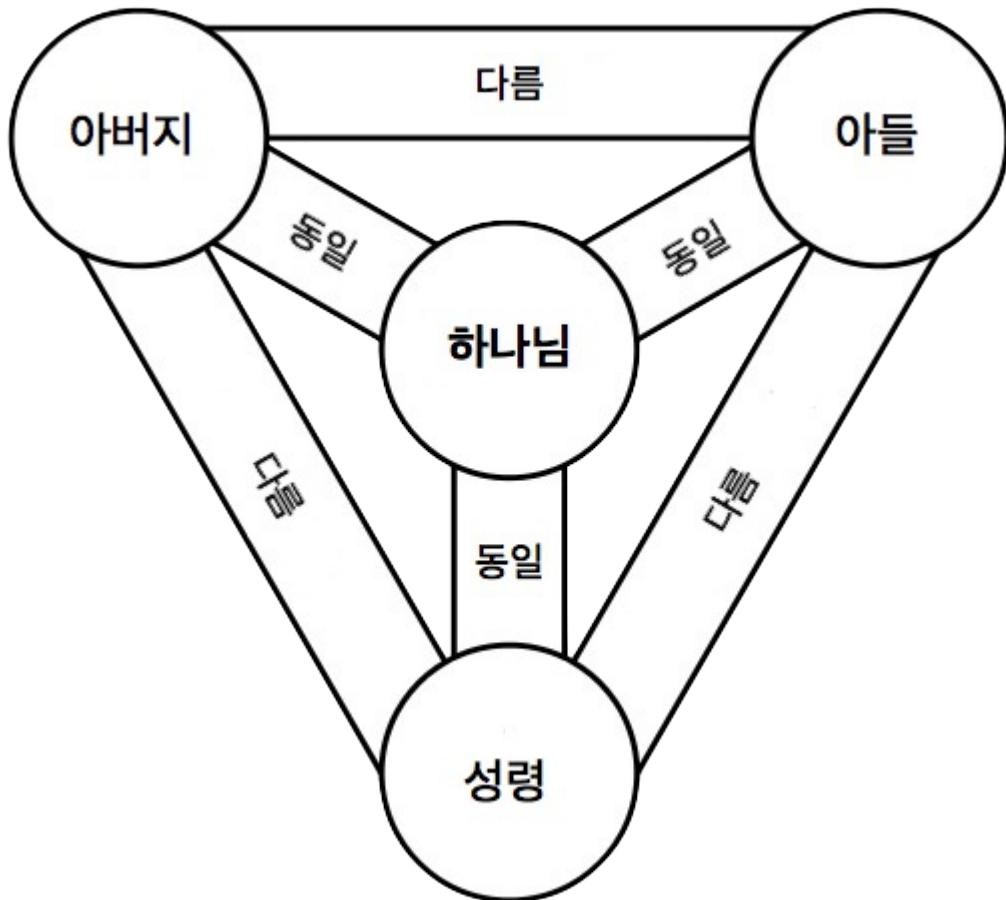
'다른 세 형상'이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핏대올리며 변호한다면, 이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인 마귀를 두둔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진리에 머리 셋 달린 용처럼 세 명의 인격을 가졌다는 가증한 거짓교리를 믿는 것이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환란을 피할 방법은 없다.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가지 다른 모습이라 한 적도 없음에도, 로마 카톨릭이 정통 교리라 하여 삼위일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개신교는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다.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볼 필요없이 [삼위일체에 대한 위키피디아 한국어 페이지](#)를 보라

삼위일체 교리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정통 교리로 확정하면서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로서 처음 자리를 잡았다

당신이 다니는 개신교 교회는 실상 카톨릭이다. 카톨릭의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의미없이 주절거리는 카톨릭의 암송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워대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아닌 카톨릭의 물 몇방울 퉁구는 세례를 받으며, 지서스Jesus가 아닌 예수Jesu라는 라틴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로마 카톨릭이 허용한 이교도의 축제일인 크리스마스를 지키거나 즐기고, 사도들도 지키지 않은 카톨릭의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면서 카톨릭을 불쌍하다 여기는 한심한 작태를 죄라 인정하지 않는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믿는다 하면서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아래에 혹 당신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가 맞는지 확인해보라.



삼위일체 도식도

<https://en.wikipedia.org/wiki/Trinity>

<https://ko.wikipedia.org/wiki/삼위일체>

- 1)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 2) 아버지는 하나님 이시며, 아들은 하나님 이시고, 성령은 하나님 이시다.
- 3)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다.
- 4) 하나님은 영존하시되 세 명의 구분된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요약하자면 "아버지/아들/성령은 근본이 동일하며 영원하시고 같은 능력을 가진 구분된 세 명의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는 앗시리아 이교도의 교리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기 다르다는 말이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며 실행하는 자에게만 알게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마13:14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전히 믿지않는 사람을 위해 중학생도 알수있는 간단한 삼단논법으로 삼위일체가 거짓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1.1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

사43:10 나 지서스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You are My witnesses,” declare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So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NASB)

엡4:6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사44:6 이스라엘의 왕인 지서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지서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Thus says the LORD, the King of Israel and his Redeemer, the LORD of hosts: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nd the

1.2 성령은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다

1.2.1 하나님은 영^{Spirit} 이시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1.2.2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이 지서스 Jesus를 살리셨다

- 지서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 하나님

- 지서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 하나님의 영 → *Spirit of God*

롬8:11 지서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지서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But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

1.2.3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서스를 살리셨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다.

행2: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지서스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행2: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행2: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1.2.4 또한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Holy Spirit}이라 말하며, '성령'이란 하나님 없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영'이 아닌 것을 알려준다.

롬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For all who are being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롬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엡4:4 몸이 하나요 성령^영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also you we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 '성령'은 '하나님 본인의 영'을 의미하는 다른 말이며,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므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 따라서 삼위일체의 3)번 주장은 거짓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다.

1.3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 X

아버지는 지서스Jesus와 동일 하신 분이며,

요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14:9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서스Jesus께서는 아버지이시다.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이며, '아버지'는 '성령'이므로, '아들'은 '성령'이다.

∴ 역시 삼위일체의 3)번 주장은 거짓임을 증명한다.

1.4 성령(Holy Spirit/Holy Ghost)은 지서스의 영이다

지서스께서는 '하나님의 일 부분'이며,

요10: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14: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히10:5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요이1: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 지서스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6: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빌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낚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록 하나님의 일 부분이 육신으로 오셨을 지라도 하나님입니다:

빌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3:11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을 복종케 한 뒤에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것이다: (<http://blog.naver.com/tpad51j/221036910117>)

히2:8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고전15:28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지서스께서 돌아가실 때, 육은 죽었으나 영이 하나님께로 가셨고:

마27:50 지서스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And Jesus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spirit.

그분의 영, 곧 지서스 본인께서 믿는 자에게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다:

요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Helper)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

요14:18 내가(지)서스깨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갈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국어로 "성령"이라 번역된 그리스어 원본은 실상 두 가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Holy Spirit과 Holy Ghost로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KJV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번역판에서는 Holy Ghost를 모두 Holy Spirit이라 번역하여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Holy Ghost(거룩한 귀신)는 '죽은 자의 영'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다. 영어권 사람에게나 한국인에게나 "귀신(Ghost)"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실상 시대가 변하면서 Spirit과 Ghost의 뉘앙스는 역전된 경우로써, 'Spirit'이란 단어가 오늘날 '귀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작성한 서신 인사 부분에서는 '성령'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갈1: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지서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엡6: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 지서스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딤전1: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지서스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1:4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지서스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요이1: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지서스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구분된 세 명으로 존재한다>는 주장 자체가 넌센스라 말한다:

사40: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To whom then will you liken Me That I would be his equal?" says the Holy One.

∴ 따라서 삼위일체의 4)번 주장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되 세 명의 구분된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2.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개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이라도 변개되지 않는다" 는 말씀이 "번역서"에까지 적용된다고 철썩같이 믿고있다면, 그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선 사람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계22: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

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계22:1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1 마태복음 28:19

거의 대다수의 믿는 자란 사람들은 마태복음 28:19 구절을 떠올리며 삼위일체의 정당성을 변호할 것이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앞서 여러번 다른 게시물에서 보였다시피, 위의 구절이 옳다면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는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짓 사도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모든 사도는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었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33105104>)

'세 명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진리라면 왜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보라!!!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2: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행8:13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행8: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JESUS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행10: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줄을 금하리요 하고

행10:48 명하여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행16:15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행16: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행18:8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행19:5 저희가 듣고 주 JESUS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행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내가 자라면서 교회를 다닐 때는 영어를 읽지 못하는 목사/성도를 찾기 힘들어서 이런 내용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조차 꿈꾸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어 마28:19 구절을 변개했다는 증거는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다!

- <http://web.archive.org/web/20121231123343/http://www.israelofgod.org/Constantine.htm>

- <http://www.christianmonotheism.com/media/text/Steve%20Katsaras%20--%20Matthew%2028-19.pdf>

- <http://www.biblicalunitarian.com/verses/matthew-28-19>

2.2 세 명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있다면, 아래의 말씀은 '세 명의 하나님' 중 도대체 누가 선언하는 말씀인가?

사43:10 나 ???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인가?
-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인가?
-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인가?
- 이도 저도 아니면, 세 인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한 것인가?

어리석고 멍청한 삼위일체 변호를 그만두기 바란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이시다. 표현이 다를 뿐,
그 분이 아버지 이시며, 그 분이 그리스도 지서스 이시고, 그 분이 성령 (*Holy Spirit*) 이시며, 그 분이 거룩한 귀신 (*Holy Ghost*) 이시고,

그 분이 말씀 이시며,

그 분이 모든 천사의 주인 되시며 그 분이 멜기세덱 왕이며, 그 분이 왕 중의 왕 이시고, 그 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시다.

그 분이 알파 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고, 전능한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지서스 ^{JESUS} 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추가 예정

삼위일체를 뒷받침한다는 구절에 대한 반박 설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2nd Trimester: 북한 도발, 허리케인 하비/어마, 멕시코 지진

진리탐구

2017/09/08 15:34

<http://blog.naver.com/tapad51j/221092357329>

2017년 9월 8일을 기준으로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군사적 소식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의 잇다른 허리케인 소식, 환태평양 불의 고리중 하나인 멕시코 지진등과 같은 시대의 표적들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5장에 기록된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마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살전5: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할 수 있는 "전쟁, 지진, 태풍"등의 증가는 새삼스러울 것 없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수 많은 종말론 주장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경고해온 횟수 만큼 듣는 자의 귀는 더더욱 둔해져 왔다. 눈만 뜨면 전쟁, 태풍, 지진을 외치며 스스로 선지자라 주장하는 [데이빗 오워](#)라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리스도](#) [지](#) [서스의 이름으로 구원얻는 침례](#)와 [적그리스도인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해서도 전쟁과 천재지변 경고만큼이나 강조해야 할 것이지만, 십계명/절기 지킴과 침례로 구원얻는 것에 대해선 강조는커녕 얘기 조차 없으므로 그의 예언과 경고는 귀담아들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다.

누군가의 예언이 맞느냐 아니냐로 그 사람을 구분하려 하는 생각은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니느웨 성의 몰락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예언은 지서스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 요나의 예언이 맞지 않았다고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선언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누군가의 예언이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여부는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와 그 예언과 경고가 진실된 구원 얻을 방법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7: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 24:6-7 두 성경 구절은 수없이 듣고 들어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어든 영어든 번역된 성경에서 그리스 원어에 비해 변경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 구절에 근거하여 현재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길 바란다. 이 글의 제목에 쓰인 [Trimester](#)라는 단어는 임신 기간을 3개월로 나눈 단위를 말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임신한 여자의 진통이 심해져가는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고자 쓴 단어다.

마24:6 소문 → 소식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 지서스(Jesus)의 말씀 중에 한국어로 '소문'이라 번역된 마24:6 구절의 그리스어 단어

는, 마4:24 에서는 '소식/뉴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마24:6 구절을 "전쟁 관련 소식을 듣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4:24 그의 소문[G189](#)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 The news[G189](#) about Him spread throughout all Syria; ...

마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전쟁과 전쟁의 소식[G189](#)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You will be hearing of wars and rumors[G189](#) of wars. See that you are not frightened, ... (NASB)

마24:7 자진 → 지진/폭풍

바로 다음 구절인 마24:7 구절에서, 한국어 번역으로 '자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마8:24 구절을 참조해 볼 때 지진이라는 뜻외에도 '큰 놀' 즉 우리에겐 태풍(Storm), 미국식으로 허리케인(Hurricane)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마8:24 바다에 큰 놀[G4578](#)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지서스께서는 주무시는지라

And behold, there arose a great storm[G4578](#) on the sea, so that the boat was being covered with the waves; but Jesus

마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허리케인[G4578](#)이 있으리니

마24:7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이라는 번역에서, 민족[G1484](#) 이란 번역도 가능하지만 영문 성경(NASB)과 같이 '나라(nation)'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나라'를 왕국[G932](#)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환란을 앞둔 마지막 시대에 '왕국'이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마3:2](#)과 세상 왕국[마4:8](#)을 나타내는 영적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폭풍이 있으리니

For nation[G1484](#)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G932](#) against kingdom, and in various places there will be famin

위에서 수정된 구절을 이어서 보자:

마24:6 전쟁과 전쟁의 소식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24:7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태풍(허리케인)이 있으리니

마24: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금방이라도 누군가 돌이킬 수 없는 스위치를 누를 것 같지만 게시글 "[두번째 한국 전쟁](#)"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시리아와 미국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을 군사공격하는 일은 없다. 미국과 북한과의 신경전은 계속되

겠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이 시리아로 온 힘을 돌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북한 소식에 귀를 닫고 미국과 시리아 관련 정세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여자의 해산: 적그리스도

지난 8월 21일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던 날에 두번째 Trimester 기간이 시작되었다. 임신한 여자의 해산할 날이 가까울 수록 진통이 강해지고 잦아지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인 바샤르 알 아사드 제거를 유발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모든 것이 착실히 진행될 것이다. 어떤 점에서 북한 관련 정세는 미끼처럼 보이지만 미국과 아사드간의 전쟁을 이끄는데 사용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세번째 Trimester 기간이 시작되면 아사드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이 실행될 가능성성이 크다. 그러나 예언대로 아사드 제거는 실패한다. 현재 시점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아사드 제거 명분은 독가스 사용을 이유로 할 것이 가장 유력하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미국은 아사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온 병력을 집결시킬 것이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군함을 보내며 지원세력을 등에 업고 아사드 제거를 시도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때가 당신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다. 그 일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듣게될 때, 즉시 회개하며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내게 침례를 받고자 한다면 "[이 문서](#)"에 기록된 것을 참조하고 연락하기 바란다.

아사드 제거가 실패한 뒤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하늘에서 적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광경이 나타나게될지 알 수 없으나, 결코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실패의 소식을 듣게되기전 도망할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 곧 여자가 해산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바빌론과 같은 현대 교회는 환란이 있기전 휴거란 것이 있을 것이라 출곳 가르쳐왔으나, 적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온 것을 보고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계13:3 그의 머리('도시;다마스커스'라는 뜻도 있음)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다마스커스는 도시의 모습을 잊었다. 어느 누가 내전으로 그정도까지 황폐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계13:3 구절의 머리는 수도인 다마스커스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누군가가 총에 맞고 다시 살아난다고해서 온 세계가 놀라워하며 따르진 않는다! 그런 기적같은 일은 이미 많이 접해봤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르는 이유는 그가 미국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유도 있으나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가 내려오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tpad51j/220957426677>)

참조:

- "[적그리스도의 조건 비교표](#)"
 - "[환란 시작 시점과 기간](#)"
 - "[<강력한 미혹>이 보인후 1335일 뒤에 주의 날이 임한다"](#)
-

남아 있는 시간, 돌이킴

북한 도발, 잇다른 허리케인 물난리, [멕시코 8.2 강진](#) 등 모든 상황이 마태복음 24:6-7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당신에겐 하나의 Trimester 기간 밖에는 남아 있지 않으며 [이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환란전 지켜야할 마지막 절기](#)가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엉터리 예언으로 밝혀진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식상하게 들리겠으나, 미국이 아사드를 친다는 소식을 듣게되면 절대 머뭇거리지 말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라. 지서스의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의심을 내려놓는 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다. 오직 겸손하게 스스로의 죄, 곧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침례로 구원얻는다는 진리를 거부했고 주의 절기를 전혀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 지서스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라. (<http://blog.naver.com/tepad51j/220933105104>)

혹시 당신에게 늦게나마 살길을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2017년 하반기 하나님의 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마지막 큰 날

진리탐구

2017/09/06 18:32

<http://blog.naver.com/tPad51j/221090881423>

▣ 나팔절; 9월 21일 목요일

일곱번째 달의 첫날은 나팔절(Festival of Trumpets)로써, 2017년에는 9월 21일이다.

나팔절과 함께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지켜야할 일곱 절기에 대해서는 "[이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레23:2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찌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레23:25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지서스께 화제를 드릴찌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영적 이스라엘 인이며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나팔절을 지켜야 한다.

롬9: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롬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롬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나팔절은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제 7일 안식일에 쉬며 예배드리고 행동과 말을 주의하는 것과 같이 행한다는 말이다.

안식일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 속죄일; 9월 30일 토요일

일곱번째 달의 열번째 날은 속죄일(The Day of Atonement)로써, 2017년에는 9월 30일이다.

전날인 29일 해가 질 때부터 30일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한다.

레23:27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지서스께 화제를 드리고

레23:28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지서스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레23:29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레23:30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레23:31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23:32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구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찌니라

레25: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현대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과 달리 저녁에서 다음 날 저녁까지를 기준으로 삼고있지만, 사람의 법대로 지키는 방식일 뿐이다. 번역된 성경이 무엇이라 하든 분명히 아침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가 하루다:

창1:5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1:8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1:1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세째 날이니라

창1:19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창1:2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1:31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 장막절; 10월 5일(목)- 11일(수)

일곱번째 달 십오일 째 되는 날 부터 칠일 동안은 장막절이며 2017년은 추석 다음날 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다.

장막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며 iSawTheLightMinistries 한국교회는 야외 캠핑장에서 절기를 지킨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레23:3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장막절이니 지서스를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

레23:35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찌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찌며

레23:36 칠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지서스께 드릴 것이요 제 팔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것이며 화제를 지서스께 드릴
찌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찌니라

레23:37 이것들은 지서스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지서스께 화
제로 드릴찌니

레23:38 이는 지서스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현 예물 외에 너희가
지서스께 드리는 것이라

레23:39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일 동안 지서스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레23:40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지서스 앞에
서 칠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레23:41 너희는 매년에 칠일 동안 지서스께 이 절기를 지킬찌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칠월에 이를 지킬찌
니라

레23:42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찌니

레23: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지서스니라

□ 마지막 큰 날; 10월 12일 목요일

장막절의 바로 다음 날이 마지막 큰 날(The Last Great Day) 절기이며, 한 해의 절기 지킴이 이로써 종료된다.

지서스께서 이 날을 지킨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요7:37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지서스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행동지침: 3월 1-2일, 부림절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강림에 앞서

진리탐구

2018/02/03 13:09

<http://blog.naver.com/tPad51j/221200165880>



2018년 2월, 미국이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를 제거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인 아사드는 미국의 공격에 의해 제거되는 듯 보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사드가 하늘의 하나님 의 보좌에 앉는 모습을 보거나 듣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인 아사드는 2018년 3월 1-2일 부림절 Purim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강력한 미혹**.

이어 30일 뒤인 3월 31일 유월절에, 러시아/중국/이란/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대환란이 시작되고,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것이다.

말씀으로 증명, 영어: www.isawthelightministries.com/dates.html, 한국어: [몇일내 게시 예정](#)

적그리스도가 강림하기 전까지 2018년 2월 28일 당신이 온힘을 다해 준비해야 할 필수 항목을 나열하고 간략히 설명하였다.

적그리스도의 강림을 직접 보거나 각종 매체를 통해 초자연적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패닉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희망을 버리고 자살하거나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서스께서 원하는 것은 당신의 회개다. 당신이 파멸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겔 18:23](#)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겔18:23 나 주 지서스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0. 진리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라.

1. 지서스의 명령대로 도망할 것인지^{마24:16} 그냥 당신이 사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을지 결정하라.

2. 성경, 찬송가, 이 블로그의 글, 영문 블로그의 글을 프린트해서 소지하라.

3. 최소 3개월의 식량,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준비하라.

0. 진리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라.

당신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 회개해야 할 항목은 십계명을 어긴 죄¹⁾ 하나님의 절기를 힘써 지키지 않은 죄²⁾, 침례로 구원 얻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해당 게시물을 참고하기 바란다:

- "하나님의 진짜 이름"¹⁾
- "가증스러운 삼위일체"¹⁾
- "두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¹⁾
- "하나님께서 명령한 안식일"¹⁾
- "모든 종류의 섹스는 결혼을 하는 행위다",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일부다처, 바람, 외도, 불륜"¹⁾
- "율법: 폐기된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기를 여전히 지켜야 하는 이유"²⁾
- "믿음과 침례없이는 구원얻을 수 없다"³⁾

십계명을 어긴 죄 중에서 깨닫고 반드시 회개해야 할 사례:

- 사람이 만든 신의 이름 "여호와", "야훼", " 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출20:3}
- 지서스 Jesus가 아닌 한국식으로 "예수"라 부르거나 히브리식으로 "예수아", "여호사와시" 등으로 부름 ^{출20:7}
- "예수"의 사진과 형상을 걸어놓고 기도함 ^{출20:4},
-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종류의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매매를 함
예: 카카오톡 피규어와 같은 모든 종류의 피규어, 각종 동물 액세사리, 3D 프린트된 동물/사람 형상 또는 일부 형상 ..
^{출20:4}
- 직업이나 각종 이유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음 ^{출20:8}
- 하나님 앞에 섹스가 곧 결혼임을 알지 못하고 간음을 퍼트림 ^{출20:14}
- 포르노 동영상^{야동}을 보거나, 보면서 관계를 상상함으로 수도없이 간음함

□ 크리스마스, 부활절, 할로윈 등을 지키거나 즐기며 마귀를 따름

위의 나열한 게시물과, 주요 회개 항목에 대해 깨달아 스스로 인정하며 침례 후 십계명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갈 것을 약속한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부러 계명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받은 침례는 소용 없게되고 구원은 취소된다.

믿음은 점차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진리를 접하고 깨달은 자가 토요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한 뒤 다시 침례를 받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내게 침례를 받고자 한다면 [이 블로그의 안부게시판](#)이나 아래의 연락처중 한군데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

근거리를 직접 침례를 줄 수도 있으나, 원하는 경우 화상과 전화를 통해 침례를 줄 수도 있다:

- 카카오톡 ID: 3월 1일 이후공개
 - 메일: [네이버](#), [구글메일](#)
 - 트위터: https://twitter.com/isawthelight_kr
-

1. 적 그리스도의 강림후 지서스의 명령대로 도망할 것인지 그냥 당신이 사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을지 결정하라.

회개하고 침례받아 구원된 자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죽을 자인지, 믿음을 증거하며 죽을 자인지 혹은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아 1293.5일을 양육받을 자인지..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번화한 도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신하는 게 현명하다.

사는 곳이나 근처에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결정이 지서스께로부터 왔는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선명한 이상을 눈으로 보거나 천사가 당신에게 알려주거나 해서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지 않는한, 도망가는게 옳고 현명하다.

믿는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도시를 벗어나고 집단을 멀리하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늙은 노모 때문에, 혹은 그 다른 어떤 경우로 인해 도망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다음 두가지를 명심하자:

1. 도망하라는 말씀은 명령이지 권유가 아니다. [마24:16](#)

2. 어떤 이유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는 두번째 부활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게된다: 참고게시물: "[두번째 부활](#)"

누구든 회개하기를 거부하거나 환란 중에라도 십계명과 절기 지킴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도망을 포기하지 말라. 뒤늦게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할 수도 있으니, 비록 당신은 같이 가고 싶다 할지라도 지서스께 맡기고 기도해주면 혹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단11: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

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도망하기로 결정한 자는 환란동안 살아 남아야 하는 목적과 환란 동안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를 바란다.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진보에 달려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서 식량이나 필요한 것 등을 준비하는 것은 소용없다.^{마 3:2}

2. 성경, 찬송가, 이 블로그의 글, 영문 블로그의 글, 하나님의 절기, 133일 타임라인을 프린트해서 소지하라

원래 소지하고 있는 성경을 가져간다면 "여호와", "예수"라는 말 대신 **지서스Jesus**라고 말하고 읽도록 주의해야한다. 시중에 구입할 수 있는 영어성경중에 KJV 기반 성경은 버리라. 굳이 영어성경을 가져가겠다면 NASB를 권한다. 그러나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AOB 성경을 반드시 가져가라. <http://alphaomegabible.isawthelightministries.com>
일반 성경처럼 PDF로 만들어진 2단 합본 버전은 원저자의 허락이 있다면 이 게시물과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다

2018, 2019, 2020, 2021년 달력을 프린트해서 환란중이라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4번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리병에 포도주를 담고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와 올리브 오일을 준비하자. 하루에 한번 그리고 조금만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사람 수대로 계산하자.

성경과 찬송가, 복음성가를 가져가되 가사에서 "alleluia"가 아니라 엘렐루지^{ellelujeh}라고 읽고 말하도록 주의한다.

"예수", "여호와" 등의 이름은 모두 **지서스**로 바꿔부르도록 주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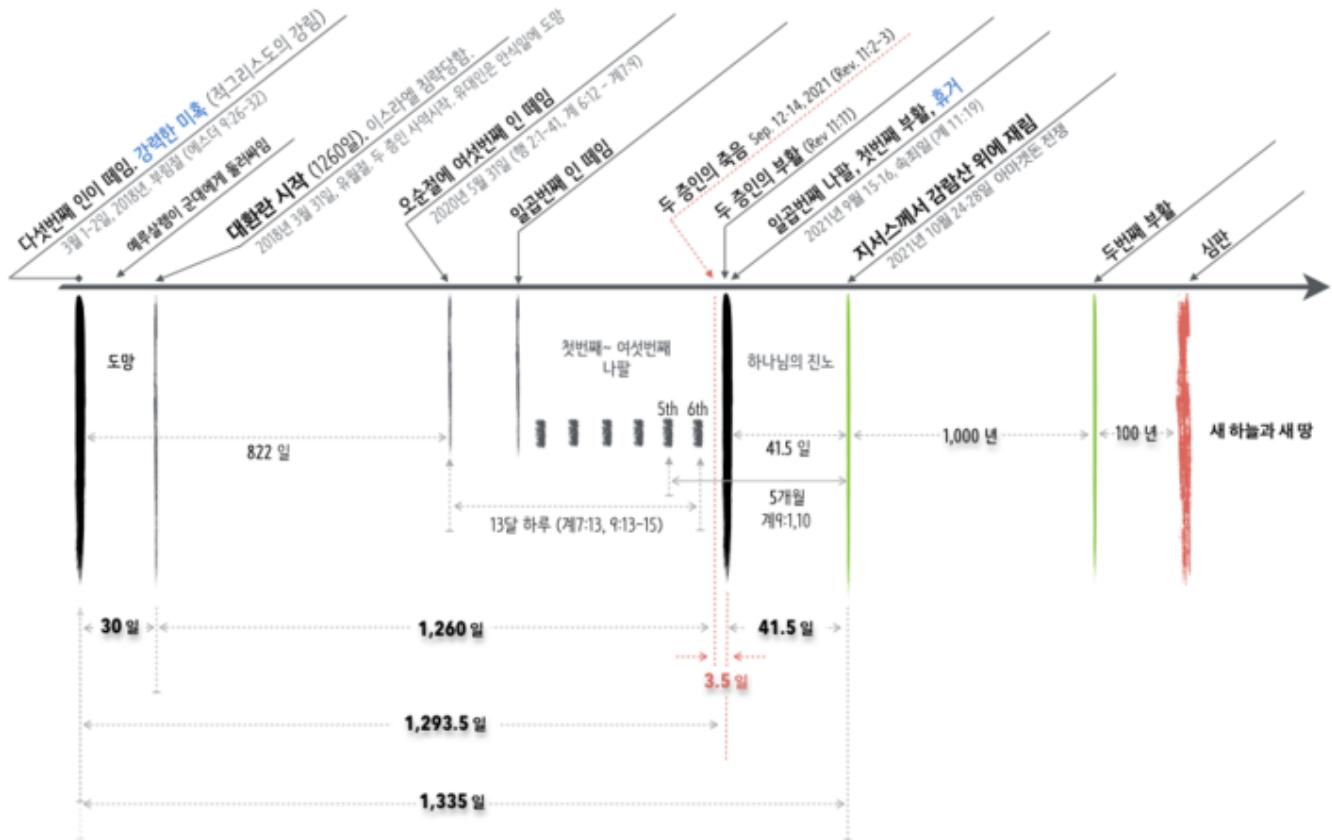
내용 자체가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면 결코 부르지 말라. 할수만 있다면 작은 기타와 같은 악기를 준비해 가져가는 것을 권한다.

시편에 나오는 "셀라"는 결코 말하거나 읽지 않도록 주의한다.

영어를 읽을 수 있다면 여기 블로그의 모든 글, [iSawTheLightMinistries 사이트의 모든 글](#)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라.

현재 하나의 PDF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완성되면 이 게시글과 블로그에 PDF를 올릴 것이다. 늦지않게 책으로 제본해서 소지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아래의 환란 시작후 시간표를 반드시 지참하여 벌어질 일에 대비하자:



Timeline of The Day of The LORD

<http://www.isawthelightministries.com>

3. 최소 3개월의 식량,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준비하라

같이 있게될 사람의 수에 맞춰 최소 3개월치 식량을 준비하되, 제발 라면 따위는 챙기지 말자. "탄수화물" 중심의 음식은 단 3일만 연속해서 먹어도 질리게되어 아무리 배고파도 몸과 입이 거부하는 상태가 되기 쉽다.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자.

- ["환란통과에 필요한 등과 기름"](#)
- ["등불과 기름 \(2\)"](#)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동안 먹이고 보살피셨듯이, 보호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해야할 부분도 있다. 준비해간 최소 식량은 곧 바닥날 것이므로 자급자족해야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는 장비를 적그리스도 강림 이전까지 반드시 준비하자.

국외로의 도피

적그리스도의 강림후 30일 뒤 발발하는 제3차 대전으로 인해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될 것이므로, 한국을 떠나 호주나 영국, 캐나다, 미국등으로 피신한다 해도 안전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 북한공산세력과 무슬림이 지배하게될 한국을 떠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 나팔재앙을 통해 수위가 몇백미터 이상 상승할 것이므로 바다쪽으로 가까운 곳은 가지말고 지대가 높은 쪽을 선택하자.
- ❖? 인공위성,드론 등의 기술을 피해 땅위에 노출된채 거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 ❖? 일본,네델란드와 같은 섬나라는 해일로 인해 수장될 것이므로 도피처로 부적절하다.
- ❖?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가 수장될 가능성성이 크고, 이미 이슬람화 된 곳이 많아 부적절하다.
- ❖? 미국은 핵공격을 받을 것이며 자연재해로 대륙이 몇개의 땅덩어리가 몇개로 나눠질 것이다. 많은 수의 미국인은 노예로 잡혀간다.
- ❖? 중국의 침략을 받을 캐나다는 광활하고 추위로 인해 버티기 힘든 곳이다. 캐나다는 영적으로 악한 나라다.
- ❖? 유럽은 이미 이슬람화 된 곳이 많고 러시아와 중국, 이슬람 세력이 강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
- ◆ 호주역시 중국의 침략을 받겠으나 미국만큼이나 넓은 오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나을수도 있다. 호주로 피신하기로 결정한다면, 준비물품은 호주가서 마련하라. 그러나 호주의 자연환경은 무시무시하다. 결코 만만치않다!
- 남미 대륙의 서쪽은 불의고리에 위치하므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내륙 깊숙한 곳이 선택지가 될 수 있겠으나 ...
-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다. 갈수있느냐 문제와 거기서 숨어 살 수 있느냐 문제등,,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 중국과 러시아, 중동 이슬람 국가등이 전 세계를 공격하므로 역으로 그 나라의 오지에 가는 것도 한가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일 뿐이다.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그 나라들이 무사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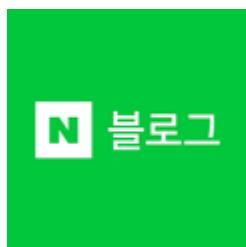
지서스께서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 결코 "안전하다" 보장할 수 없다.

반대로, 지서스께서 보호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 안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환란기간동안 배우게 될 것이다.

비록 뒤늦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지서스께서 보호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단11: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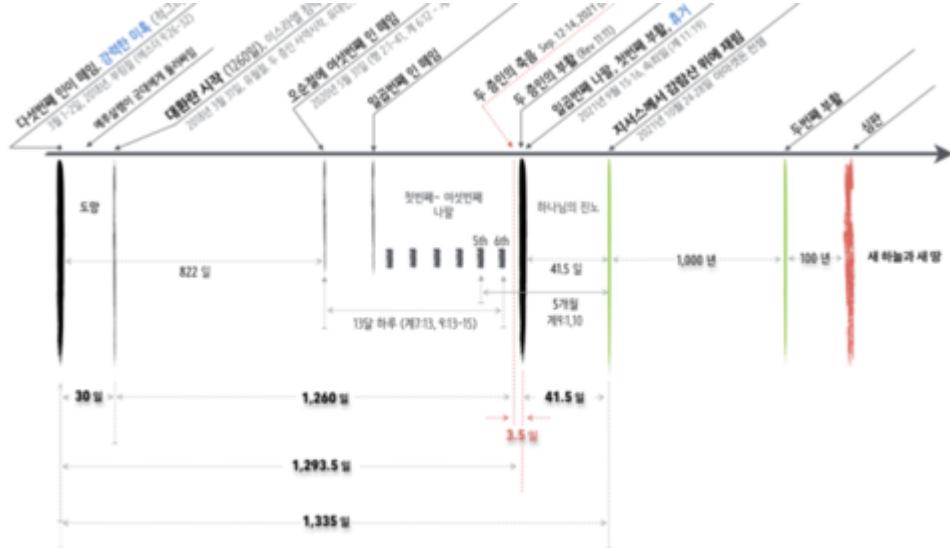
연관 게시물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하는 날](#)

이 날이 단순히 다른 여러 정치적 이벤트와 다를 바 없는 날이 될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날이 될...

blog.naver.com



Timeline of The Day of The LORD

휴거는 속죄일에 일어난다

강력한 미혹 이란 적그리스도바샤르 알 아사드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보이고 ...

blog.naver.com

등불과 기름 (2)

진리탐구

2018/02/03 12:57

<http://blog.naver.com/tpad51j/221200159892>

앞서 작성한 "[환란 통과에 필요한 등불과 기름](#)"에 이은 글이므로, 이전 게시글을 읽지 않았다면 먼저 읽기를 권한다.

개인당 필수 품목

아래에 나열한 항목들은 한 사람 기준으로 준비해야하는 것들이다.

미국이 아сад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하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마음이 급하여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이리저리 찾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아래 기술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사용하되, 구입해야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냥 선택하자.

1. 영하 20도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슬리핑 백](#)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준비해야한다.

- 날씨가 더워지면 슬리핑 백을 접어 보관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그때를 대비해 방수 주머니도 있어야 할 것이다.

2. 자가 충전 [에어매트](#) (필수)

- 겨울 땅은 무섭게 차갑다. 아무리 겹겹히 쌓아도 일반 매트는 추위가 전달되므로 버티기 힘들다.

3. 텐트 (필수)

- 기본 [여름용 텐트](#)

- 텐트아래 설치하는 그라운드 시트는 절대 빼먹지 말라.

- 짐 보관을 위한 2~3인용 값싼 텐트 (이마트나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일반 텐트)

- 형편이 된다면 [겨울용 텐트](#)를 준비하라. (이 경우 여름용 텐트는 필요없다)

4. 타프 (필수)

- ([네이버몰](#)) [코스트코 타프](#)

- 적어도 4개 이상 필요할 것이다. 눈/비/바람을 막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수다

- 타프와 함께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할 품목:

-- ([다이소](#)) [다용도 줄](#) 5mm / 10미터 / 10개 이상

-- ([OKMall](#)) [데크 팩 \(나사형태\)](#) 30개 이상

-- ([OKMall](#)) [저가형 카라비너](#) 30개 이상

-- ([다이소](#)) [지지대용 압축봉](#) 2개 이상

5. 3~6달 식량 (필수)

- 절대 탄수화물 중심의 비상식량으로 채워서는 안된다!!! 단 몇일만에 실증나서 배고파도 먹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라면(X), 국수(X), 초콜릿(X), 에너지바(X)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 주식이 될 수 없다!
- DATREX (도피처를 찾는 특정기간동안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 (뜨거운물부어만드는) 야채비빔밥, 시리얼, (일회용 측석) 스프, 콩 통조림, 분유, 올리브오일, (간편) 미역국, (운동 후 먹는) 단백질
- 건조 과일|야채, 땅콩, 소금, 설탕, 고추장, 된장, 식초 ...

6. 생존 필수 도구 (공통)

- 우드스토브

- 물통, 스탠리 쿡&컵 셋트, 라이프스트로우 2개 이상(휴대용 정수기)
- (일회용) 속옷, 생리컵, (업소용 큰 두루마리)화장지, 손톱깎이, 양말, 수건
- 겨울용/여름용/세면용 신발
- 계절에 맞춘 옷 두세벌 (혹은 그 이상)

7. 자급자족 도구 (선택)

- 서바이벌용 칼, 벌목용 칼, 유틸리티 칼
- (접이식)톱, 줄톱, 가위,
- 가스토치 & 리필 가스, 일회용 터보 라이터 36개 이상
- 새총 & 여분 고무줄 5벌 이상 & 쇠구슬 5팩 이상(1통당 1000개 기준)

8. 물건 담을 가방 (권장 항목)

- 군용 더블백, 이민가방, 이불가방, IKEA 트렁크 .. 등
- 의외로 가방이 많이 필요하므로 저렴하고 가볍고 질긴 IKEA 트렁크를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
- 그러나 특정 물품은 군용 더블백 같은 찢어질 염려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할 것이다.

9. 방한용품 (권장 항목)

- 귀를 덮을 수 있는 방한모
- 스노우보드용 장갑, 스노우보드용 상/하의 (방수지수 10000 이상)
- 울양말, 일반 얇은 양말, 발가락 양말

하나님의 절기를 여전히 지켜야 하는 이유

진리탐구

2018/01/17 08:48

<http://blog.naver.com/tPad51j/221186730255>

1. 구약의 내용에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은 없다

구약^{OLD TESTAMENT}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약속이고 신약^{NEW TESTAMENT}은 그리스도 지서스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출34:27 지서스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
(구약)이니라 하시니라

히8:8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불찌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막14:24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회개와 침례로 말미암아 얻는 신약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비해, 구약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다. 구약에는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준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뿐이다:

출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영혼의 구원,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는 것은 오직 지서스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여 물에 완전히 잠기
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한번 구원얻었다고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라는 교리는 한참 덜 떨어진
마귀의 속임수 일 뿐이다.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서스를 배반할 때면 언제든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이 취소되더라도
진정한 회개와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 구원의 여정을 이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을 악용하는 자는 다시는 회개하지 못
하는 심령을 받게되므로 머리속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기 바란다.

지서스 외에 구원자가 없으므로 이전 약속 즉 구약시대 사람 중에는 단 한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 시점까지 회개+침례없이 죽은 세상의 모든 자는 육체는 썩었을 지라도 그 영은 잠자는 상태에 있을 뿐이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천국이란 곳에 가지도 못했다. 그저 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천국 또는 지옥 간증을 하는 모든 자는 거짓소리를 하는 멍청한 자들이다.

부활은 두번 있으며 지서스의 재림때에 일어나는 부활이 첫번째 부활이고 재림후 10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이다.

여태껏 회개+침례없이 죽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서 회개+침례없이 죽을 모든 자와 주의 재림후 1000년동안 회개+침례없이 죽게될 모두 사람이 두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약 100년간 다시 살게된다. 약 100년의 그 기

간동안 지서스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훈련을 받게될 것이다. 물론 다시 태어난다해도 지서스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영혼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선택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영원을 살지, 혹은 거부해서 영혼이 소멸될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을뿐, 누구는 영생을 받고 누구는 소멸하도록 미리 정해진게 아니다.

2. 모세의 유월절이 아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의 절기가운데 유월절^{Passover}이 첫 언급된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첫 약속을 세우기 이전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12: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찌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지서스의 유월절이니라

Now you shall eat it in this manner: with your loins girded,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and -it is the LORD'S Passover.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때는 출애굽 직전이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킬 경우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첫번째 약속을 받기 이전이란 점을 강조한다. (레위기 23장 전체를 읽어보라) 지키라 명하신 유월절은 모세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임을 명확히 하셨다. 따라서 모세의 법이 폐해졌다고해서 유월절이 취소되는게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다.

레23:4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지서스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appointed times of the LORD, holy convocations which you shall proclaim at the times appointed for them.'

레23:5 경월 십사일 저녁은 지서스의 유월절이요

In the first month,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at twilight is the LORD'S Passover.

레23:6 이 달 십오일은 지서스의 무교절이니 칠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Then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ame month there is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o the LORD; for seven days you

3. 절기는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레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지서스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Speak to the sons of Israel and say to them, 'The LORD'S appointed times which you shall proclaim as holy convocations -My appointed times are these:

위의 말씀에서 지서스의 절기는 성회^{convocation}라고 말씀하시는는데, 그 뜻은 말 그대로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서스의 절기에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따라야 하는 명령이며, 성회는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 안식일은 모세와

세운 약속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레23:1 지서스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지서스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23:3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지서스의 안식일이니라

'For six days work may be done, but on the seventh day there is a sabbath of complete rest, a holy convocation. You

4. 지서스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셨다

눅22:1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눅22: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눅22:8 지서스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성찬예식을 거행한 것은 지서스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을 기억케 하려는 목적이다:

눅22: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 직전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문신주에 바르는 것은 신약에 와서 지서스께서 죽으심을 미리 알려 준 것이며, 지서스께서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을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서스를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즉 구약이 아니라 지서스의 피로 새우는 새 언약, 신약을 말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는 절기다:

요12: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었고 믿는 자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했다:

고전5:6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5: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5. 모세와 맺은 첫번째 약속이전이라도 유월절에 대해 미리 알리셨다

창19:1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동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동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창19:2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밭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창19:3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 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요13:1 유월절 전에 지서스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요13: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13: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밭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요13:12 저희 밭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앓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요13:15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서스께서 유월절과 성찬식때 서로의 밭을 씻기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지서스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진실하게 지서스를 따르는 자와 모여 서로의 밭을 씻기는 것이 옳다.

오순절

무교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 날도 역시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 이방 선교로 바쁜 바울도 결코 그날을 그냥 타지에서 보내지 않았으며 그날을 계속해서 언급하였다:

행2: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행20: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고전16:8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당신이 만약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신뢰한다면, 바울이 지키려고 애쓴 절기를 당신 또한 지켜야 할 것이다.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s, 마지막 큰 날 The Last Great Day

장막절과 마지막 큰 날 절기 역시 지서스께서도 지키셨다:

요7:37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지서스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한 아래 보일 구절에서 문맥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지서스께서 재림하신 후에도 여전히 지켜야할 절기임을 알 수 있다:

슥14:1 지서스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슥14:2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슥14:3 그 때에 지서스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것 같이 하시리라

슥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지서스께 숭배하며 장막절을 지킬 것이라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를 묵인하신다고 하지 않는다. 누구든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서스께서 벌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슥14:17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지서스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 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슥14: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 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지서스께서 장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슥14:19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장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장막절을 지키는 대상은 이스라엘인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

롬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절기는 지켜야 한다

위에 열거한 제 7일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다른 모든 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혹자는 이사야서 1:14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절기 지킴을 원치 않는다' 주장하지만, 그 절기는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아니다!

사1: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문맥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죄를 행하면서 자신들이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염증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할 안식일과 하나님의 절기는 의문의 법에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 계획과 앞으로 올 그분의 왕국에서 살 우리를 위해 지키라 명하신 것이다.

언약궤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과 달리, 언약궤 옆에 보관되었던 모세의 법은 그리스도 지서스로 말미암아 폐해졌다. 그러나 십계명과 하나님의 절기 지킴은 폐해진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폐해진 구약과 상관없이 명한 법이기 때문이다.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래 구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유월절: 마26:2, 17-19; 막 14:12-16; 뉴 2:41-42; 22:1, 7-20; 요 2:13, 23; 6:4; 13:1-30, 고전 11:23-29

무교절: 마 26:17; 막 14:12; 뉴 2:41-42, 22:1, 7; 행 20:6; 고전 5:6-8

오순절: 행 2:1-21; 20:16; 고전 16:8

나팔절: 마 24:30-31; 살전 4:16-17; 계 11:15

속죄일: 행 27:9

장막절: 요 7:1-2, 8, 10, 14; 행 18:21

마지막큰날: 요 7-8장

환란 때에도 절기를 지켜야 한다

환란이 시작되서야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인 이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날은 각각 아래와 같다:

- [2018년도 하나님의 절기](#)
- [2019년도 하나님의 절기](#)
- [2020년도 하나님의 절기](#)
- [2021년도 하나님의 절기](#)

휴거는 2021년 속죄일에 일어난다

진리탐구

2018/01/14 03:42

<http://blog.naver.com/tbad51j/221184614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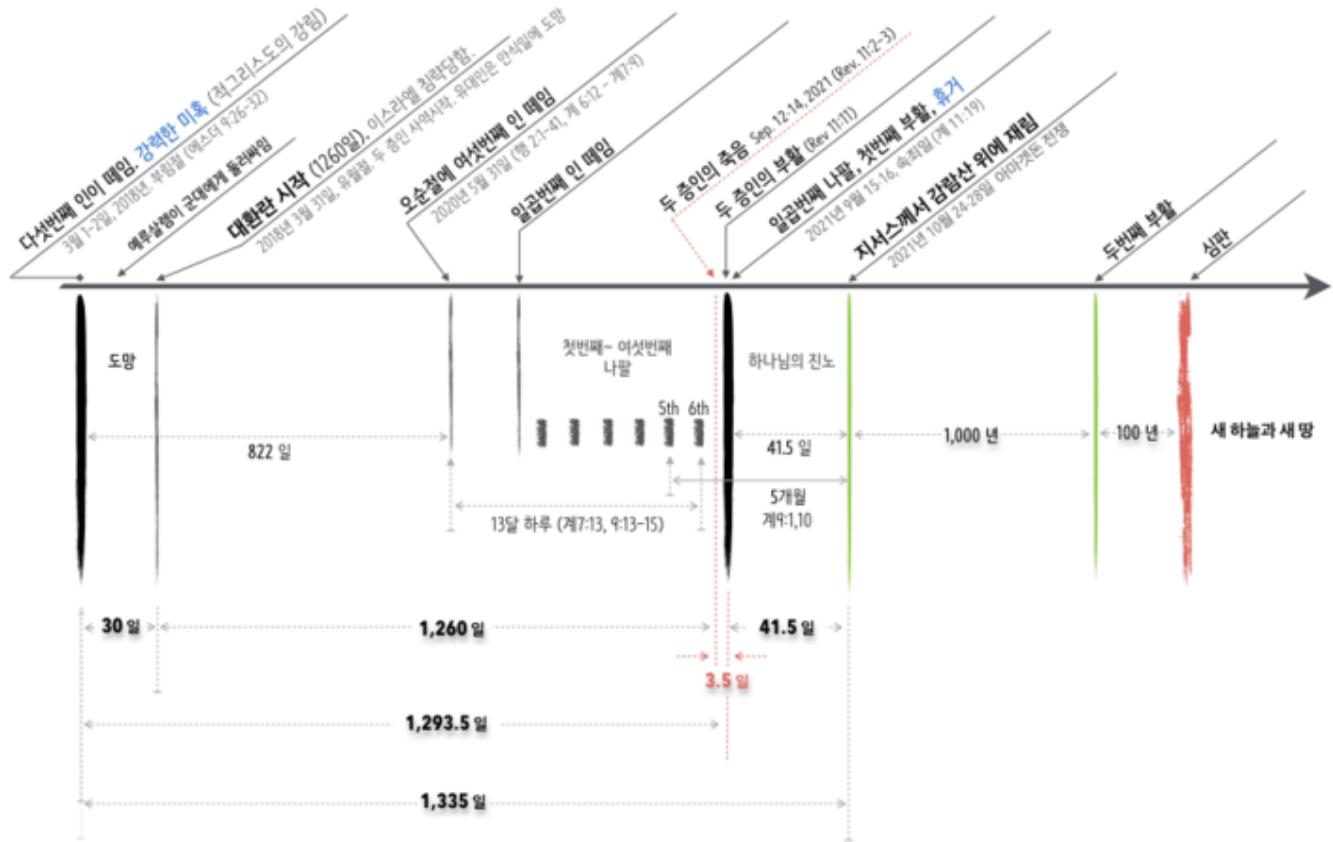


그림1)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벌어질 일들

강력한 미혹 이란 적그리스도 바샤르 알 아사드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보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처럼 속이며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을 말한다:

살후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늘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2: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Coming) 주 지서스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살후2:11 이므로 하나님은 유혹^{strong delusion}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살후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로부터 30일 뒤에 이스라엘과 영연방, 호주,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모든 비 무슬림 국가가 침략을 당하게 된다.([참고 게시글](#)) 이 전쟁이 3차세계대전이다.
-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로부터 1293.5일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로부터 1335일 후에 지서스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환란 시작과 시점](#)" 게시글 참조)

지서스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점은 강력한 미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은 그 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살전5:1-2) 성경 곳곳에 [주의해서 살펴보라\(G1122\)](#)^{Watch}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한국어 성경에는 그저 깨어있으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다. 즉, 대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번역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환란이 시작될 때가 가까움에 따라 지서스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주의해서 살펴볼 그 '대상'을 알려주셨는데, [현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가 공격당하는 사건의 발생 여부를 보는 것이다:

암3:7 주 지서스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계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나 1년 365일 내내 시리아/아사드와 관련된 정세를 살펴보는 건 정신적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만약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특별히 주의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마24:43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 [적그리스도](#)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환란의 시작이 지극히 가까이 옴에 따라, 나는 지서스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알게하신 것을 한국인에게 전할](#) 임무를 맡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미사여구를 생략하고 기록한다. 아사드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거나 강력한 미혹이 발생한 뒤에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을 프린트해 소지하고, [환란가운데 당신의 행동지표로 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휴거의 시기

주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 있는 자도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 곧 휴거가 일어나는 날은...

- 1)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며,
- 2) 주의 선언과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와 나팔소리를 울리며
- 3)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첫번째 부활](#), 살아있는 자도 들림을 받으며
- 4) 부활한 자가 자기의 행한대로 상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 날은 강력한 미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293.5일 ^{1290+3.5} 째되는 날이다.

단12: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일을 지낼 것이요

계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1260일}

계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계11:11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첫째 부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더불어 지서스께서는 몇가지 놀라운 힌트를 보이셨는데, 그 휴거의 날이 일곱재앙나팔의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설명과 속죄일임을 기록해두셨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²⁾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³⁾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성소안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표현은 일년중 오직 속죄일에만 허락된 날임을 알려준다:

레16:2 지서스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16:12 향로를 취하여 지서스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레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레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찌니

히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첫번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땅에서 들림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이 부어지지 않으므로 1)~4)번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같은 날에 벌어진다. 즉 속죄일에 일곱번째 나팔이 불리고, 속죄일에 첫번째 부활이 있으며, 속죄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올 속죄일로부터 1290일을 차감하면 강력한 미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매년초 Purim 절기를 주의해야 한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금식과 기도로 이겨낸 것을 기념하는 부림절 Purim은 이틀동안 지킨다.

예9: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좋아 이 두 날을 부림 Purim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예9:27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예9:28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예9: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예9:30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일백 이십 칠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예9:31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예9:32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 날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몰살하려던 하만 적그리스도 이 도리어 사형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부림절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속죄일은 2021년 속죄일이며, 그 날부터 1293.5일을 차감하면 2018년 부림절(3월1-2일)이 강력한 미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날이다. 속죄일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까지 이어지므로, 속죄일 전날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1293.5일 앞은 부림절 중 3월 1일이 되고, 속죄일 당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부림절 중 3월 2일이 된다.

이 블로그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2021년 9월 15-16일 속죄일에 휴거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2018년 3월 1-2일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날('강력한 미혹'의 날)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 바이다. 그러나 그 날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병력을 움직여 적그리스도인 바샤르 알 아사드를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2월 18일 까지 아사드를 공격하는 징후가 없다면 기다림은 다시 연장되어 내년 초까지 다시 준비할 시간을 얻게된다.

이번 3월 초 부림절기에도 강력한 미혹의 징후가 없다면,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 준비하지 않은 모든 자는 그대로 환란에 빠져 전무후무한 고통을 겪게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 몇방울 흘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고 진리를 찾기 바란다. 십계명을 지키며 모든 절기(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말절, 마지막큰날)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크리스마스, 이스터, 부활절, 삼위일체, 할로윈을 버리라.

위에 나열한 참된 진리를 믿는다 해도 듣자 마자 모든 것을 다 완벽히 행할수는 없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던 죄와 문제점을 깨닫고 고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290일은 긴 시간이다. 온전히 회개하고 믿는자가 뭉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익히고 체득하여 휴거의 대상에 적합하게 변화되도록 서로 돋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는 일이다:

시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을 보고 다 믿기지는 않지만 몇가지는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환란 가운데 믿는자와 함께 할 자격이 없다. 비루한 인간인 주제에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자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눈을 돌리지 말라. 그들이 비록 침례를 주지만 여전히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서스"가 아닌 "예수"라 부르는 것](#) 만 봐도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마귀 집단임을 곧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나와 훌로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안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는 행위 없이는 어떤 것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계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밭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십계명은 지킬 수 없게 하는 기성교회는 영적 바빌론일 뿐이다. 거기서 나와 혼자라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바란다. 제칠일안식일교 역시 무식하고 어리석은 기존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집단이다. 마지막 때는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예언을 그냥 훌러듣지 않기를 바란다:

암8:11 주 지서스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지서스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8: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지서스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암8: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당신이 이 블로그의 글을 보고 믿고 싶어졌거나 믿게 되었다면, 태초부터 당신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들인 것이다. (참조글:["영어/히브리어/그리스어를 읽지도 듣지도 못하면 구원얻기는 불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떤 복이든 예비하셨을 지라도, 그 선택은 당신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자위: 허락된 것과 아닌 것

진리탐구

2017/12/29 00:13

<http://blog.naver.com/tPad51j/221173309190>

앞서 올렸던 게시글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에서 '자위'가 죄가 아님을 밝혔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간이나 사람의 모양을 흉내낸 섹스인형의 경우 동물과의 수간과 다를 바 없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게시글을 읽은 사람 가운데 여자들이 사용하는 딜도 Dildo나 남자들이 사용하는 가짜 여성생식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그런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허락된 자위와 아닌 것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모든 자에게 이 지침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몸 가운데 섹스를 위한 부분은 오직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 몸에 사용되어야 한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가지는 성욕이나 여자가 남자를 바라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며 거룩하다. 따라서 성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어떤 종류의 죄도 아니다. 남자의 성욕에 대해 '더러운 욕정'이라 치부하며 혐담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다를 바 없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고상한 것도 아니다(창 3:16). 그저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그 성욕을 풀 대상이 자신과 같은 성Sex이거나(동성애), 원래 사용해야 하는 사람 몸의 부분이 아니거나(비정상적), 딜도나 가짜 여성생식기처럼 사람 몸의 일부분과 같은 형상으로 자위하는 행동은 분명히 죄다:
출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섹스 인형이나 딜도, 가짜 여성생식기 등은 입체로 만들어진 형상(3D graven images)이며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설령 십계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본뜬 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며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은 지서스의 법에 반하는 행동이다. 플라스틱이나 나무, 금속, 실리콘 등으로 만든 것과 진짜 사람이 섹스를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말자. 그러니 자신의 상황을 이유삼아 죄를 합리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중 일부를 가지고 자위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 외의 방법으로 자위하는 것은 모두 죄다.

연관 문서

- "간음, 음행 그리고 이혼의 조건"
- "(모든 종류의) 섹스는 결혼을 하는 행위다"